

국립국어원 2012-01-19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94-01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박 경 래

공동 연구원 곽 총 구

정 인 호

한 성 우

위 진

조사 연구원 김순희 · 장성일 · 조성금 · 최계화

연구 보조원 최성진 · 박용희 · 김한별 · 맹혜선 · 손 영

2012. 11. 16.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연구 책임자 : 박 경 래 (세명대학교)

<주관 연구 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책임 연구원	박경래(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한국어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한성우(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한국어문학 교수)
공동 연구원	정인호(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위 진(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조사 연구원	김순희(연변대학교 사범학원 소학교교육학과 교수)
	장성일(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조선언어문학학부 교수)
	조성금(칭다오대학교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교수)
	최계화(칭다오대학교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교수)
연구 보조원	최성진(세명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사)
	박용희(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
	김한별(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맹혜선(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손 영(인하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박사 과정)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중 동포의 사회적 변인 및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재중 동포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을 조사·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는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칭다오(靑島)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언어 실태 조사의 내용은 조선말과 한국말 그리고 북한말에 대한 인식,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언어 능력, 언어 태도, 언어 사용 양상, 가족 간 언어 선택, 상황별 언어 선택 등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역, 연령(세대), 학력, 성별, 가족, 기타 변인들과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재중 동포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이중 언어 사용자들로서 조선말을 잘해야 하고 한족말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에 비해 젊은층일수록 한족말 사용 능력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재중 동포, 특히 노년층일수록 조선말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후손들은 점차 한족말을 많이 쓰게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재중 동포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조선말에 대한 언어 4기능 능력은 모두 높은 편이지만 각 기능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언어 사용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각 영역별 언어 사용 능력도 높아지고, 각 언어 영역별 단계가 높을수록 학력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언어 4기능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사용 능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만 조선말 사용 능력에 비해 한족말 사용 능력의 평균값이 낮다.

일상생활에서는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는데 비해 청년층에서는 조선말과 한족말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는 달리 가정에서는 청년층에서도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언어 사용 환경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 간에는 조선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동기나 윗세대에게는 조선말을 더 쓰고 아랫세대나 다른 민족 가족에게는 주로 한족말을 사용한다. 조선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조선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한족이 끼어 있으면 한족말을 많이 사용하여 지역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한다.

재중 동포 사회에는 다양한 언어 변종이 존재한다. 국내의 선대 거주지 방언에서 유래한 변종, 북한말에서 차용한 변종, 그리고 한족말을 직접 차용, 간접 차용, 번역 차용함으로써

생긴 변종이 있다. 변종은 주거 유형(잡거 또는 집거), 지역,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잡거 지역은 한족말의 직접 차용이 두드러지고 신어의 생성은 한족말(방언, 속어)의 차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휘, 음운, 문법, 의미 면에서 한족말의 간섭, 모국어 원 방언 간의 융합, 북한말의 간섭, 남한말의 간섭, 조선말 자체 변종 등 다양한 분화상이 나타난다.

주요어: 재중 동포, 사회적 변인, 언어 사용 실태, 한국어 변종,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이중 언어, 언어 사용 능력, 언어 4 기능, 언어 사용 환경, 차용, 주거 유형, 간섭, 융합

[용어의 정리]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들의 편의와 재중 동포들의 특수한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언어 실태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사용한다.

용 어	개 념
한국어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통구스계의 몽골 종족인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르는 말로 쓴다. 내용적으로는 남한에서 쓰는 우리말, 북한에서 쓰는 우리말, 중국 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이 쓰는 우리말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모국어'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아래 모국어 ①의 의미로 쓰인다.
한국말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공식적으로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와 한반도 및 부속 도서에서 사용되는 각종 방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위의 한국어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휴전선 이남에서 우리민족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로 쓴다. 북한말, 조선말, 한족말과 대응되는 용어로 사용한다.
모국어	①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중국의 공용어인 중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고국의 말 또는 ②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쓴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②의 의미로 사용한다.
조선말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韓民族]이 사용하는 언어, 즉 재중 동포들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한 변종이라는 뜻으로 쓴다. 즉 중국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로 중국의 공용어인 중국어 또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한국말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한민족 언어를 가리킨다.
한족말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여러 민족들이 사용하는 중국 공용어인 중국어의 의미로 쓴다. 중국어, 한어(漢語), 중국말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족말은 한족(漢族)들이 쓰는 말로 국한되어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동포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중국어' 또는 '중국말'의 뜻으로 쓴다.
남한말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남에 살고 있는 한민족(韓民族)이 사용하는 언어, 즉 '한국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특별히 북한말과 대응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남한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말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북에서 한민족(韓民族)이 사용하는 언어의 뜻으로 쓴다. 중국 동포들이 흔히 쓰는 북조선어, 북조선말과 북한어를 모두 '북한말'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조선족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을 뜻하며 '재중 동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쓴다.
한 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사람의 뜻으로 쓴다(한족(漢族)과 소수민족 포함).

목 차

제 1 부	연구 개요	// 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1.1. 연구의 목적		3
1.2. 연구의 필요성		4
1.3. 연구의 의의		6
제2장 연구의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7
2.1. 연구의 배경		7
2.2. 기존 연구의 검토		13
2.2.1. 중국 학자의 연구		13
2.2.2. 우리나라 학자의 연구		15
제3장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의 개념과 조사 범위		17
3.1. 언어 사용 실태의 개념		17
3.2. 한국어 변종과 자료 구축의 개념		17
3.3.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범위		18
3.3.1. 지역별 실태 조사		18
3.3.2. 세대별 실태 조사		18
3.3.3. 영역별 실태 조사		19
3.3.4. 한국어 변종 자료 조사		20
제4장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분석 방법론		22
4.1.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		22
4.2. 한국어 변종 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		28
4.3. 조사 지역 선정과 조사 범위		29
4.3.1.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9
4.3.2.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조사 대상자 수		30

4.4. 조사 방법과 조사 과정	31
4.4.1. 언어 사용 실태 조사	31
4.4.2. 한국어 변종 조사	37
4.5. 조사 기간	38
4.6. 자료 분석 방법	38
4.6.1. 분석 방법	38
4.6.2. 분석 분야와 내용	39
4.6.3. 요인별 교차 분석	40
4.6.4.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 자료 분석과 자료 구축	41
4.6.4.1. 한국어 변종 자료의 유형과 특징	41
4.6.4.2. 한국어 변종 자료의 구축을 위한 모델	43

제 2 부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45
--------------	-----------------------	--------------

제1장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자	47
1.1.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47
1.2.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와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49
1.2.1.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	49
1.2.2. 조사 대상자의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57
1.2.3. 조사 대상자의 기타 정보	67
제2장 재중 동포의 언어 인식과 태도	77
2.1.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77
2.2.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85
2.3.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94
2.4.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106
2.5. 언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117
제3장 언어 능력	127
3.1. 조선말 능력	127
3.1.1. 말하기	127
3.1.2. 듣기	133

3.1.3. 읽기	139
3.1.4. 쓰기	144
3.1.5. 언어 능력별 비교	150
3.2. 한족말 능력	151
3.2.1. 말하기	151
3.2.2. 듣기	157
3.2.3. 읽기	162
3.2.4. 쓰기	168
3.2.5. 언어 능력별 비교	174
3.3. 언어 간 능력 비교	175
3.3.1. 제일 잘하는 말 비교	175
3.3.2. 영역별 능력 비교	181

제4장 언어 사용 182

4.1. 언어 사용 순위	182
4.2. 가족 간 언어 사용	193
4.3. 대화 대상과 상황별 언어 사용	204
4.3.1.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204
4.3.2.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210

제5장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과 변종 자료의 구축 218

5.1.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의 유형	218
5.1.1. 조선말 방언	218
5.1.2. 규범화한 어휘	221
5.1.3. 한족말의 차용	227
5.1.4. 한국말의 차용	229
5.2.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과 그 발생 요인	230
5.2.1. 조사 목적과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30
5.2.2. 어휘	231
5.2.3. 문법	268
5.2.4. 의미	271
5.2.5. 조선말을 할 때 흔히 쓰는 한족말	275
5.2.6. 조선말과 다른 한국말	275
5.3.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 자료의 구축	276

제6장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와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79
6.1.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요약	279
6.2. 재중 동포의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81
〈참 고 문 헌〉	287
부 록 1.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	294
부 록 2. 조선어 변종 조사 질문지	305
〈Abstract〉	311

표 목 차

〈표 1〉 조선족 인구 분포 변화	10
〈표 2〉 2010년 조선족 인구 분포	11
〈표 3〉 변종 조사를 위한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수	31
〈표 4〉 권역별 재중 동포 언어 조사 기간	38
〈표 5〉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48
〈표 6〉 설문 조사 계획 대상자 수	50
〈표 7〉 지역별 조사자 수	50
〈표 8〉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51
〈표 9〉 성별 조사 대상자	51
〈표 10〉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	52
〈표 11〉 지역별, 성별,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53
〈표 12〉 조사 대상자의 아버지 민족	53
〈표 13〉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 민족	53
〈표 14〉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민족	54
〈표 15〉 직업별 조사 대상자	54
〈표 16〉 학력별 조사 대상자의 비율	56
〈표 17〉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	56
〈표 18〉 조사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	58
〈표 19〉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59
〈표 20〉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 소학교	60
〈표 21〉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 초중학교	60
〈표 22〉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 고등학교	60
〈표 23〉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62
〈표 24〉 연령별 출신 학교의 종류 - 소학교	63
〈표 25〉 연령별 출신 학교의 종류 - 초중학교	63
〈표 26〉 연령별 출신 학교의 종류 - 고등학교	63
〈표 27〉 성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64
〈표 28〉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소학교	65
〈표 29〉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초중학교	66
〈표 30〉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고등학교	66

<표 31> 조사 대상자의 한국 방문 횟수	68
<표 32>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방문 횟수	69
<표 33> 조사 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	70
<표 34>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	71
<표 35>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72
<표 36>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72
<표 37>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시청 시간	73
<표 38> 한국 TV 방송 시청 프로그램	75
<표 39> 연령별 한국 TV 시청 프로그램	75
<표 40> 모국어 인식	77
<표 41> 모국어 인식 - 지역별	78
<표 42> 모국어 인식 - 성별	79
<표 43> 모국어 인식 - 연령별	80
<표 44> 모국어 인식 - 학력별	81
<표 45> 모국어 인식 - 지역별/성별	82
<표 46> 모국어 인식 - 지역별/연령별	83
<표 47> 언어 능력의 필요성	86
<표 48> 잘해야 할 우선순위 언어	86
<표 49>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지역별	87
<표 50> 우선순위 언어 - 지역별	88
<표 51>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연령별	90
<표 52> 우선순위 언어 - 연령별	91
<표 53> 언어 능력의 필요성 - 학력별	92
<표 54> 학력별 우선순위 언어에 대한 인식	93
<표 55> 조선말의 장래	94
<표 56>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95
<표 57>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96
<표 58> 조선말의 장래 - 지역별	97
<표 59>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 지역별	98
<표 60>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 지역별	99
<표 61> 조선말의 장래 - 성별	100
<표 62>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 성별	101
<표 63>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 성별	102

<표 64> 조선말의 장래 - 연령별	103
<표 65>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 연령별	104
<표 66>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 연령별	105
<표 67> 한국말에 대한 인식	108
<표 68>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 느낌	109
<표 69> 한국말에 대한 부정적 느낌	109
<표 70> 한국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	110
<표 71> 듣기 좋은 말 순위	111
<표 72>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별	112
<표 73> 듣기 좋은 말의 순위 - 지역별	113
<표 74>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성별	114
<표 75> 듣기 좋은 말 순위 - 성별	115
<표 76>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연령별	116
<표 77> 한국말 학습 의지	118
<표 78> 자녀 학교의 선택	118
<표 79> 자녀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119
<표 80> 자녀를 한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119
<표 81> 한국말 학습 의지 - 지역별	120
<표 82> 자녀 학교의 선택 - 지역별	121
<표 83> 한국말 학습 의지 - 성별	122
<표 84> 자녀 학교의 선택 - 성별	123
<표 85> 한국말 학습 의지 - 연령별	124
<표 86> 자녀 학교의 선택 - 연령별	125
<표 87> 조선말 말하기 능력	128
<표 88>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129
<표 89>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성별	130
<표 90>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131
<표 91> 조선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132
<표 92> 조선말 듣기 능력	134
<표 93> 조선말 듣기 능력 - 지역별	135
<표 94> 조선말 듣기 능력 - 성별	136
<표 95> 조선말 듣기 능력 - 연령층별	137
<표 96> 조선말 듣기 능력 - 학력별	138

<표 97> 조선말 읽기 능력	139
<표 98> 조선말 읽기 능력 - 지역별	140
<표 99> 조선말 읽기 능력 - 성별	141
<표 100> 조선말 읽기 능력 - 연령별	142
<표 101> 조선말 읽기 능력 - 학력별	143
<표 102> 조선말 쓰기 능력	145
<표 103> 조선말 쓰기 능력 - 지역별	146
<표 104> 조선말 쓰기 능력 - 성별	147
<표 105> 조선말 쓰기 능력 - 연령별	148
<표 106> 조선말 쓰기 능력 - 학력별	149
<표 107> 조선말 능력 - 영역별	150
<표 108> 한족말 말하기 능력	152
<표 109>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153
<표 110>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성별	154
<표 111>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155
<표 112> 한족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156
<표 113> 한족말 듣기 능력	157
<표 114> 한족말 듣기 능력 - 지역별	158
<표 115> 한족말 듣기 능력 - 성별	159
<표 116> 한족말 듣기 능력 - 연령별	160
<표 117> 한족말 듣기 능력 - 학력별	161
<표 118> 한족말 읽기 능력	163
<표 119> 한족말 읽기 능력 - 지역별	164
<표 120> 한족말 읽기 능력 - 성별	165
<표 121> 한족말 읽기 능력 - 연령별	166
<표 122> 한족말 읽기 능력 - 학력별	167
<표 123> 한족말 쓰기 능력	168
<표 124> 한족말 쓰기 능력 - 지역별	169
<표 125> 한족말 쓰기 능력 - 성별	170
<표 126> 한족말 쓰기 능력 - 연령별	171
<표 127> 한족말 쓰기 능력 - 학력별	173
<표 128> 한족말 능력 - 영역별	174
<표 129>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176

<표 130>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지역별	177
<표 131>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성별	178
<표 132>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연령별	179
<표 133>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학력별	180
<표 134>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의 비교 - 영역별	181
<표 135>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182
<표 136>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183
<표 137>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지역별	184
<표 138>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지역별	185
<표 139>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성별	186
<표 140>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성별	187
<표 141>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연령별	189
<표 142>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연령별	190
<표 143>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학력별	191
<표 144>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학력별	192
<표 145>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194
<표 146>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196
<표 147>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지역별	197
<표 148>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지역별	198
<표 149>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성별	199
<표 150>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성별	200
<표 151>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연령별	201
<표 152>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학력별	202
<표 153>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학력별	203
<표 154> 대상과 상황에 따라 쓰는 말	205
<표 155>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지역별	206
<표 156>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성별	207
<표 157>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연령층별	208
<표 158>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학력별	209
<표 159>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211
<표 160>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지역별	212
<표 161>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성별	214
<표 162>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연령별	215

<표 163>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학력별	216
<표 164> 지린성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231
<표 165> 라오닝성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231
<표 166> 칭다오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232
<표 167> 헤이룽장성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232
<표 168> 라오닝성 지역의 ‘아빠’ 호칭어	233
<표 169> 칭다오 지역의 ‘아빠’ 호칭어	234
<표 170> 헤이룽장성 지역의 ‘아빠’ 호칭어	234
<표 171> ‘아빠’에 대한 지역별 한족말 사용 비율	235
<표 172> ‘어마, 어머니’에 대한 지역별 한족말 사용 비율	236
<표 173> 연령층별 ‘할아버지’의 호칭어	237
<표 174> 라오닝성 지역의 연령층별 ‘할아버지’ 호칭어	238
<표 175> 칭다오 지역의 연령층별 ‘할아버지’ 호칭어	238
<표 176> 헤이룽장성 지역의 연령층별 ‘할아버지’ 호칭어	238
<표 177>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240
<표 178>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241
<표 179>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241
<표 180>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242
<표 181>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 호칭어	242
<표 182>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 호칭어	242
<표 183>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 호칭어	243
<표 184>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의 변이형	243
<표 185>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244
<표 186>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244
<표 187>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244
<표 188>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245
<표 189>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246
<표 190>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246
<표 191>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246
<표 192>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247
<표 193>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경운기’의 변이형	248
<표 194>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249
<표 195>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250

<표 196>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250
<표 197>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250
<표 198>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253
<표 199> 랴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254
<표 200>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254
<표 201>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254
<표 202> 지역별 직접 차용어와 번역 차용어의 사용 비율	255
<표 203>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256
<표 204> 랴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256
<표 205>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256
<표 206>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256
<표 207>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사장(社長)'의 변이형	257
<표 208>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258
<표 209> 랴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258
<표 210>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258
<표 211>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259
<표 212> 랴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가위바위보'의 변이형	260
<표 213>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가위바위보'의 변이형	261
<표 214>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가위바위보'의 변이형	261
<표 215>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263
<표 216> 랴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264
<표 217>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264
<표 218>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264
<표 219>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휴대 전화'의 변이형	266
<표 220> 지역별 '휴대 전화' 변이형의 차용 비율	266
<표 221> '혼자서 스스로'의 성별/연령층별 변이형	267
<표 222>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서술형 종결 어미 변이형	268
<표 223>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의문형 종결 어미 변이형	269
<표 224>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칭유형 종결 어미 변이형	270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비율	51
<그림 2> 성별 조사 대상자 비율	51
<그림 3>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 비율	52
<그림 4> 학력별 조사 대상자 비율	56
<그림 5> 출신 학교별 조사 대상자 비율	57
<그림 6>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	58
<그림 7>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59
<그림 8> 지역별 조선족 학교 출신의 비율	61
<그림 9>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비율	62
<그림 10> 연령별 조선족 학교 출신의 비율	64
<그림 11> 성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비율	65
<그림 12>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소학교	66
<그림 13>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초중학교	66
<그림 14>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고중학교	67
<그림 15>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방문 비율	69
<그림 16>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 비율	71
<그림 17>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비율	73
<그림 18>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비율	74
<그림 19> 연령별 한국 TV 방송 시청 프로그램 비율	76
<그림 20> 모국어 인식 비율	77
<그림 21> 모국어 인식 비율 - 지역별	78
<그림 22> 모국어 인식 비율 - 성별	79
<그림 23> 모국어 인식 비율 - 연령별	80
<그림 24> 모국어 인식 비율 - 학력별	81
<그림 25> 모국어 인식 비율 - 지역별/성별	83
<그림 26> 모국어 인식 비율 - 지역별/연령별	84
<그림 27> 잘해야 할 1순위 언어의 비율	86
<그림 28>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지역별	87
<그림 29> 잘해야 할 1순위 언어 - 지역별 비율	89
<그림 30>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연령별	90

<그림 31> 잘해야 할 1순위 언어 - 연령별 비율	91
<그림 32> 언어 능력의 필요성 - 학력별	92
<그림 33> 잘해야 할 1순위 언어 - 학력별 비율	93
<그림 34> 조선말의 장래 - 비율	95
<그림 35>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비율	96
<그림 36>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비율	96
<그림 37> 조선말의 장래 - 지역별 비율	97
<그림 38>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말의 비율 - 지역별	98
<그림 39>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1순위 말의 비율 - 지역별	99
<그림 40> 조선말의 장래 - 성별 비율	100
<그림 41>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말 - 성별 비율	101
<그림 42>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1순위 말 - 성별 비율	102
<그림 43> 조선말의 장래 - 연령별 비율	103
<그림 44>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말 - 연령별 비율	104
<그림 45>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1순위 말 - 연령별 비율	105
<그림 46> 한국말에 대한 인식 - 비율	108
<그림 47>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 느낌 - 비율	109
<그림 48> 한국말에 대한 부정적 느낌 - 비율	109
<그림 49> 한국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 - 비율	110
<그림 50> 듣기 좋은 말 순위 - 비율	111
<그림 51>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별 비율	112
<그림 52> 듣기 좋은 말의 순위 - 지역별 비율	113
<그림 53>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성별 비율	114
<그림 54> 듣기 좋은 말 순위 - 성별 비율	115
<그림 55>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연령별	116
<그림 56> 자녀 학교의 선택 - 비율	118
<그림 57> 자녀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 비율	119
<그림 58> 자녀를 한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 비율	119
<그림 59> 한국말 학습 의지 - 지역별	120
<그림 60> 자녀 학교의 선택 - 지역별 비율	121
<그림 61> 한국말 학습 의지 - 성별	123
<그림 62> 자녀 학교의 선택 - 성별 비율	124
<그림 63> 한국말 학습 의지 - 연령별	125

<그림 64> 자녀 학교의 선택 - 연령별 비율	126
<그림 65> 조선말 말하기 능력	128
<그림 66>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129
<그림 67>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성별	130
<그림 68>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131
<그림 69> 조선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132
<그림 70> 조선말 듣기 능력	134
<그림 71> 조선말 듣기 능력 - 지역별	135
<그림 72> 조선말 듣기 능력 - 성별	136
<그림 73> 조선말 듣기 능력 - 연령층별	137
<그림 74> 조선말 듣기 능력 - 학력별	138
<그림 75> 조선말 읽기 능력	140
<그림 76> 조선말 읽기 능력 - 지역별	141
<그림 77> 조선말 읽기 능력 - 성별	142
<그림 78> 조선말 읽기 능력 - 연령별	143
<그림 79> 조선말 읽기 능력 - 학력별	144
<그림 80> 조선말 쓰기 능력	145
<그림 81> 조선말 쓰기 능력 - 지역별	146
<그림 82> 조선말 쓰기 능력 - 성별	147
<그림 83> 조선말 쓰기 능력 - 연령별	148
<그림 84> 조선말 쓰기 능력 - 학력별	149
<그림 85> 조선말 능력 - 영역별	150
<그림 86> 한족말 말하기 능력	152
<그림 87>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153
<그림 88>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성별	154
<그림 89>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155
<그림 90> 한족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156
<그림 91> 한족말 듣기 능력	158
<그림 92> 한족말 듣기 능력 - 지역별	159
<그림 93> 한족말 듣기 능력 - 성별	160
<그림 94> 한족말 듣기 능력 - 연령별	161
<그림 95> 한족말 듣기 능력 - 학력별	162
<그림 96> 한족말 읽기 능력	163

<그림 97> 한족말 읽기 능력 - 지역별	164
<그림 98> 한족말 읽기 능력 - 성별	165
<그림 99> 한족말 읽기 능력 - 연령별	166
<그림 100> 한족말 읽기 능력 - 학력별	167
<그림 101> 한족말 쓰기 능력	169
<그림 102> 한족말 쓰기 능력 - 지역별	170
<그림 103> 한족말 쓰기 능력 - 성별	171
<그림 104> 한족말 쓰기 능력 - 연령별	172
<그림 105> 한족말 쓰기 능력 - 학력별	173
<그림 106> 한족말 능력 - 영역별	174
<그림 107>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176
<그림 108>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지역별	177
<그림 109>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성별	178
<그림 110>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연령별	179
<그림 111>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학력별	180
<그림 112> 조선말 능력과 한족만 능력의 비교 - 영역별	181
<그림 113> 일상적인 언어 사용 순위 - 비율	183
<그림 114>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비율	184
<그림 115>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지역별 비율	185
<그림 116>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지역별 비율	186
<그림 117>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성별 비율	187
<그림 118>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성별 비율	188
<그림 119>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연령별 비율	189
<그림 120>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연령별 비율	190
<그림 121>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학력별 비율	191
<그림 122>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학력별 비율	192
<그림 123>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195
<그림 124>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196
<그림 125>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지역별	197
<그림 126>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지역별	198
<그림 127>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성별	199
<그림 128>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성별	200
<그림 129>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연령별	201

<그림 130>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학력별	202
<그림 131>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학력별	203
<그림 132> 대화 대상과 공식성 여부에 따라 쓰는 말	205
<그림 133>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지역별	206
<그림 134>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성별	207
<그림 135>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연령층별	208
<그림 136>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학력별	210
<그림 137>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211
<그림 138>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지역별	213
<그림 139>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성별	214
<그림 140>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연령별	215
<그림 141>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학력별	216

제 1 부

연구 개요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장	연구의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7
제3장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의 개념과 조사 범위	17
제4장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분석 방법론	22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재중 동포의 사회적 변인 및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재중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을 조사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함께 국력도 신장하여 2011년 세계무역기구(WHO) 7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9위에 달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사회도 국제화와 세계화로의 이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와의 연대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민족국가이고 민족주의가 강하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방법론 개발 및 이후 5년간의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는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

현재 재중 동포 사회는 이민 역사가 100년 이상 되며,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한민족(韓民族) 집단 거주지가 점점 해체되고, 이주 3~4세대가 주축이 되는 등의 여러 변인(variables)에 의해 한국어 사용 양상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필요성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족이 중국 대륙에 정착한 곳은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주로 동북 3성 지역이었다. 지린성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의 함경도 출신 조선족이 많이 정착하였고, 헤이룽장성 지역에는 지린성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한 출신의 조선족이 많이 정착했으며, 랴오닝성 지역에는 북한의 평안도 출신의 조선족이 많이 정착하였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개혁개방으로 인구 이동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기 전인 1982년까지는 중국내에서 소수 민족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2년 연해 도시를 개방하는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조선족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1990년을 전후하여 조선족들이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선전(深圳), 톈진(天津) 등 연해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과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이 맞물려 연해 도시 지역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조선족들로 이루어진 신흥 집거지가 형성되었다. 곧 새로운 언어 공동체가 생겨났다. 반면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중국 내의 조선족 공동체가 빠르게 재편되는 동시에 전통 집거지의 해체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새로운 언어 공동체의 형성과 기존의 전통 집거지의 재편으로 조선족 사회의 언어 사용 환경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의 제6차 전국 인구 조사(2010. 11. 1.) 결과에 의하면 제5차 전국 인구 조사(2000. 11. 1.)에 비해 약 9만 명 정도가 줄어든 183만여 명의 조선족이 지린성(吉林省)(56.8%), 헤이룽장성(黑龍江省)(17.9%), 랴오닝성(遼寧省)(13.1%) 등 동북 3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조선족 가운데 457,000여 명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그 가운데 31,000여 명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¹⁾ 그리고 약 30만 명 이상이 중국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연안 공업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취업하여 거주하고 있다. 또 하나

1) 2011년 6월 30일 기준 출입국 통계 연보.

의 특징은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동북 3성에서 빠져나간 약 16만 7천여 명의 조선족들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광둥(廣東) 등 기타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는 것이다(<표 1> 참조).

조선족의 이합과 집산은 조선말 사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선족 사회의 해체는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 풍습,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 3성에서는 이미 수많은 조선족 마을이 한족(漢族) 마을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족의 감소로 문을 닫는 조선족 소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한족 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박경래, 2002).

재외 동포 사회의 한국어 사용의 흥망성쇠는 한국어를 해당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과 모국의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재중 동포의 급격한 이합과 집산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어의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관리 정책 개발과 재중 동포의 한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 점에서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와 연구는 이 시대의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나아가 국립국어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5년간 실시하게 될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국제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과 민족어로서의 한국어 보급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한국어 사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재외 동포는 약 7,268,7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재미 동포가 약 218만 명, 중국 동포가 약 180만 명, 재일 동포가 56만 5천 명(귀화자 포함 91만 3천 명), 재캐나다 동포가 약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외교통상부 국외 동포 영사국 국외 동포과, 2010년). 그런데 이들 재외 동포에 대한 언어 관련 연구는 주로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재중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향후 다른 지역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각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내어 각각에 적합한 언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중 동포들의 언어 능력과 조선말(또는 한국어)에 대한 지향 의식이나 전승과 보존 의식 그리고 한국 문화의

유지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구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1.3. 연구의 의의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개인 연구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는 국가 기관의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조사와 연구에서는 재중 동포들의 전통 집거지인 동북 3성과 신홍 집거지인 칭다오(靑島) 지역을 대상으로 재중 동포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조선말과 모국어에 대한 인식,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언어 능력, 가족 간 언어 사용과 상황별 언어 사용 등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역, 가족, 연령(세대), 학력, 성(性), 기타 변인(한국 방문 및 체류 경험, 텔레비전 시청 등)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렇게 살펴본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 재중 동포들의 언어 실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재중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선택과 사용에 대한 태도나 변인을 밝힘으로써 한국어 사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중 동포들의 한국어 변종 조사를 통하여 재중 동포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재중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중 동포들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결과는 향후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결과와 비교를 통해 국가별 한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 2 장

연구의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2.1. 연구의 배경

2010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외 동포 언어’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를 위한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재외 동포의 사회생활 환경 및 의식 구조 그리고 언어 사용 실태 및 그 실태의 배경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재외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을 사회 언어학적인 방법을 원용하여 국가, 지역, 세대, 성, 학력, 직업 등의 사회적 변인 등에 따른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한다.

셋째, 내국인과 재외 동포 간 그리고 재외 동포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위와 같은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방법론 개발 및 이후 5년간의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재중 동포를 대상으로 한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해 진행된 것이다.

재중 동포 사회의 이민 역사가 100년 이상 되고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민족 집단 거주지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한민족을 이루는 주축 세대가 이주 3세대와 4세대로 이행되고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과의 교류 등 여러 변인에 의해 중국 동포들의 우리말 사용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재중 동포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

접적인 동기가 된다.

역사적으로 조선족들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시기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²⁾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이전으로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유 이민 시기’이며, 세 번째 시기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반강제로 이주한 ‘집단 이민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과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韓民族)들이 현재의 중국 조선족 사회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시기다. 이 시기는 17세기에 병자호란(1626)과 정묘호란(1636)으로 수만 명이 조선 서북부 지역에서 랴오둥(遼東) 일대로 강제 이주한 것과 17세기 말 조선의 재해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이 만주족이나 몽골족 등 다른 민족에 동화되어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던 때다.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 후반(대략 1860년)부터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전후까지에 해당한다. 19세기 후반 계속해서 극심한 기근이 들자 한반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대거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중국 동북부에 정착하였고 이후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땅을 잃은 농민들과 식민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한 시기다.

세 번째는 일본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점령한 후에 계획적이고 반강제적으로 이주를 실행한 시기다. 1937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한반도의 중부 또는 남부 지역에서 중국의 동북 지방 깊숙한 곳으로까지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이때까지 중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약 1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약 70만 여명이 본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약 100만 명이 중국 내의 소수 민족인 조선족으로 정착하였다. 1952년 9월 3일 지린성(吉林省) 옌벤(延邊)에 옌벤(延邊)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되면서 조선족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1952년 당시 옌벤(延邊)의 조선족 인구는 옌벤(延邊) 5개 현, 1개 시의 총 인구 가운데 74%를 차지하였다. 각급 인민정부 간부들 가운데 조선족이 차지하는

2)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한 구분은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반룡해·황유복(2002, 69~71)에서는 조선족의 중국 이주시기에 대한 구분을 넷으로 나누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대규모로 이주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발적 이주 시기와 반강제 이주시기로 나누었다.

비율도 72.9%나 되었다(집필소조, 1984,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151~154).

이와 같이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곳은 주로 동북 3성과 내몽골 지역이었다. 연변(延邊) 주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정착한 조선족이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인구 이동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기 전인 1982년까지 동북 3성에 거주한 조선족 비율은 98% 이상이었다.

1980년대 초부터 연해 도시를 개방하는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조선족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2년 동북 3성의 조선족 인구 비율이 98.23%였던 것이 2000년에는 92.3%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77.1%로 급감하였다(<표 1> 참조).³⁾

조선족의 인구 이동은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한 갈래는 1982년부터 실시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0년대에 들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로 많은 수의 조선족이 일자리를 찾아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선전(深圳), 톈진(天津) 등 연해 도시로 대규모 이주한 것이다. 이로써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도시 집중과 맞물려 조선족 신흥 집거지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 갈래는 한·중 수교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규모로 한국에 이주한 경우다. 이는 중국 내에서 조선족 공동체가 빠르게 재편되는 동시에 전통 집거지를 급속히 해체시키게 되었다.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족의 이러한 인구 이동은 조선족의 해외 진출,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와 중국내 대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선양(沈陽), 다롄(大連), 광저우(廣州)나 연해 개방 도시로의 이주에 따른 신흥 집거지의 형성이 전통 집거지를 해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3) <표 1>은 권태환(2004)의 옌지시(延吉市) 통계국(2000), '전국 인구 보편 조사' 결과와 박광성(2012)의 '2010년 중국 인구 센서스-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조선족 인구 분포 변화

지역	1982		1990		2000		2010		연평균 인구성장률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82~1990	1990~2000	2000~2010
합계	1,765,240	100	1,923,361	100	1,923,842	100	1,830,929	100	1.07	0.00	-0.50
동북 3성	1,733,967	98.23	1,868,377	97.14	1,775,198	92.27	1,607,510	77.08	0.93	-0.50	-0.99
지린(吉林)	1,104,071	62.55	1,183,567	61.54	1,145,688	59.55	1,040,167	56.81	0.87	-0.31	-0.97
헤이룽장(黑龍江)	431,644	24.45	454,091	23.61	388,458	20.19	327,806	17.90	0.63	-1.51	-1.68
랴오닝(遼寧)	198,252	11.23	230,719	12	241,052	12.53	239,537	13.08	1.9	0.42	-0.06
기타 지역	31,273	1.77	54,984	2.86	148,644	7.73	223,419	22.92	7.05	9.62	4.16
베이징(北京)	3,905	0.22	7,710	0.4	20,369	1.06	37,380	2.04	8.5	9.40	6.25
톈진(天津)	816	0.05	1,820	0.09	11,041	0.57	18,247	1.00	10.03	17.45	5.15
네이멍구(內蒙古)	17,580	1	22,173	1.15	21,859	1.14	18,464	1.01	2.9	-0.14	-1.68
허베이(河北)	1,737	0.1	6,713	0.35	11,783	0.61	11,296	0.62	16.9	5.44	-0.42
상하이(上海)	462	0.03	742	0.04	5,120	0.27	22,257	1.22	5.92	18.69	15.83
장쑤(江蘇)	-	-	963	0.05	5,048	0.26	9,525	0.52	-	16.03	6.56
산둥(山東)	939	0.05	3,362	0.17	27,794	1.44	61,556	3.36	15.94	20.44	8.23
광둥(廣東)	-	-	611	0.03	10,463	0.54	17,615	0.96	-	27.49	5.35
옌벤(延邊)	745,706	42.75	821,479	42.71	842,135	43.77	736,900	40.24	1.06	0.24	-1.33
지린(吉林)	349,365	19.79	362,088	18.83	303,553	15.78	303,267	16.56	0.45	-1.71	-0.01
(옌벤 제외)											
옌지(延吉)	91,086		171,465		228,401				6.33	2.86	

위의 <표 1>을 보면 동북 3성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광둥(廣東) 등 기타 여러 지역으로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2년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비율이 98.23%이었고 기타 지역에는 1.77%였던 것이 2000년에는 각각 92.27%와 7.73%로 나타나 동북 3성에 거주하던 조선족의 5.96%가 기타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고, 2010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비율이 77.08%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22.92%로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 3성에 거주하던 상당수의 조선족들이 전통 조선족 집거지를 떠나 연해주를 비롯하여 중국의 기타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족들의 거주 지역이 중국의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전통적인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2> 2010년 조선족 인구 분포⁴⁾

지역	인구	백분율(%)	지역	인구	백분율(%)
北 京	37,380	2.04	湖 北	1,960	0.11
天 津	18,247	1.00	湖 南	1,180	0.06
河 北	11,296	0.62	广 東	17,615	0.96
山 西	663	0.04	广 西	2,701	0.15
內 蒙 古	18,464	1.01	海 南	973	0.05
遼 宁	239,537	13.08	重 慶	637	0.03
吉 林	1,040,167	56.81	四 川	1,548	0.08
黑 龍 江	327,806	17.90	貴 州	664	0.04
上 海	22,257	1.22	云 南	1,343	0.07
江 蘇	9,525	0.52	西 藏	26	0.00
浙 江	6,496	0.35	陝 西	1,129	0.06
安 徽	1,200	0.07	甘 肅	559	0.03
福 建	2,157	0.12	青 海	312	0.02
江 西	543	0.03	宁 夏	403	0.02
山 東	61,556	3.36	新 疆	1,128	0.06
河 南	1,457	0.08	全 國	1,830,929	100.00

조선족 사회의 해체는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 풍습,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 3성에서는 이미 수많은 조선족 마을이 한족(漢族) 마을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족 마을의 붕괴와 해체는 조선족의 감소를 의미하며 조선족의 감소는 조선족 교육에 영향을 주어 문을 닫는 조선족 소학교가 늘어나게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한족 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박경래, 2002a, 2002b 참조). 위의 <표 1>과 <표 2>에서 2000년과 2010년의 조선족 인구 분포를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동북 3성에 모여 살던 조선족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4) 박광성(2012)의 2010년 중국 인구 센서스-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자료

첫째는 조선족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소수 민족 우대 정책으로 소수 민족이 일정 비율을 넘는 지역을 자치주로 지정하여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이 지위가 요즘에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조선족 중심 거주지인 옌변(延邊) 자치주의 경우 1952년 자치주가 성립될 당시 조선족 비율이 62%였는데 2000년 말에는 옌변 자치주 전체 인구 2,184,502명의 38%인 842,135명 선으로 낮아졌고, 2010년에는 옌변 자치주의 전체 인구 2,270,800명 가운데 옌변 상주 조선족 인구는 736,900명으로 총 인구의 32.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 비율이 더욱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이 비율이 2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옌변이 자치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고 조선족의 언어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코리안 드림이 가져온 이혼율 증가와 결혼 가정 증가, 금전만능 세태가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혼란, 도덕 수준의 하락을 자극하고 있다. 옌변대(延邊大) 채미화 교수의 “재한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 여성의 자녀 조사 연구”(2007)에 따르면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 학생 2,505명 중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는 언어적으로 볼 때 부모가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조선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결혼 가정 자녀들의 성장과 이탈로 인해 조선족 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 동포 사회는 중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전통 집거지의 급격한 해체와 새로운 집거지의 형성,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는 이들의 언어 사용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포 사회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 동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말(한국어)의 흥망성쇠는 이 언어 공동체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 공동체로서의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조선말(한국어)의 성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언어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기존 연구의 검토

재중 동포 사회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축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중국에서 중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 연구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주로 연변대학교(延邊大學校)를 중심으로 조선족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이루어졌다.

2.2.1. 중국 학자의 연구

중국에서의 조선말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족의 언어에 대해 세 차례의 집체적인 조사 연구가 있었다. 1963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964년 1월까지 연변(延邊) 역사언어연구소와 연변대학(延邊大學) 조문학부가 3개 지점에서 조사하였으나 현재 조사 보고서는 전하지 않는다. 그 후 본격적인 조사 연구는 198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 1981년과 1982년 양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선덕오·조습·김순배의 《조선어 방언 조사 보고》(1990)와 1982년 7월부터 11월 까지 조사하여 보고한 《중국 조선어 실태 조사 보고》(1985, 집필조: 고문 최윤갑, 조장 심희섭)가 그것이다. 각각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언어연구실’과 ‘동북 3성 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 판공실’이 중심이 되어 동북 3성(東北 三省)의 13개 지점에서 조선말 방언을 조사하였다. 《조선어 방언 조사 보고》는 권두에 각 지역의 어음·문법·어휘적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34장의 언어 지도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총 4,763개의 조사 항목에 대한 20여 지점(한국의 원적지)의 조선말 방언형을 제시하였다. 《중국 조선어 실태 조사 보고》는 각 조사 지점 방언의 ‘어음·문법·어휘’의 특징과 ‘명사 술어’의 사용 실태를 지역별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방언 어휘 자료를 권말에 실었다. 이 조사 사업이 결실을 거두게 되면서 중국 조선말 방언에 대한 연구가 일층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책임자였던 선덕오(宣德五)가 1986년 민족어문(民族語文)에 육진방언의 특징을 발표하였고 이어 리운규(1988)가 격조사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리운규·심희섭·안운의 세 사람이 《조선어 방언 사전》

(1992)을 간행하였고, 심희섭은 《중국에서의 우리말 연구》를 간행하였다. 한편 1989년 3월 동북 3성 조선어문사업협의회소조판공실과 연변대학(延邊大學) 조선어문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지린시(吉林市)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린시(吉林市)의 방언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중 언어(二重言語)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심희섭·리운규가 《조선학 연구》 2권에 연지(延吉) 지역의 방언 분포도를 작성하여 게재한 바 있다.

이 외에 개별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학석(1981)은 훈춘현(琿春縣)의 37개 지점을 조사 연구한 <훈춘 지방말의 어음론적 특성>을 필두로 <중세 조선어의 방점과 연결 지방말의 높낮이의 비교>(1986), <중세 조선어의 방점과 연결, 개원 지방말의 고저장단 비교>(1988)를 비롯하여 박사 학위논문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1993)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학석(2005)에서는 방언의 지역적 분포와 중국 학자들의 연구와 한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의 실태 및 특성>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조일권(1990)의 <표준어 ‘ㅡ’음에 대응된 경상북도 안동, 문경, 상주 방언 현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정의향(2003)의 <조선어 방언의 홀모음에 대한 음향학적 분석>과 장성일(2004)의 <압록강 북부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윤석만(2005)의 <경북 방언 음조 연구: 흑룡강성 오상시 장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등의 석사 학위 논문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 실태 조사》의 우리말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윤규(1988)의 <우리나라 조선어 방언 토에 대하여>와 심희섭(1988)의 <어휘 의미론적 측면에서 본 중국 조선어 방언 어휘의 현 상태> 등이 발표되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연구로는 배중호(1990)의 함경도 방언 계칭을 사회 언어학적으로 고찰한 논문과 오성애(2010)의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능력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외에 북한과 한국에 유학한 중국 조선족들의 연구가 있다. 황대화(1998)의 <조선어 동서 방언 연구>, 한진건(2004)의 <육진 방언 연구>와 채옥자(2002)의 <중국 연변 지역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 이금화(2007)의 <평양 지역어의 음운론>, 김춘자(2008)의 <함경남도 삼수 지역어의 음운론>, 정향란(2011)의 《연변 방언의 곡용과 활용》, 오성애(2011)의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김순희(2011) <중국 현대 조선어의 문장

종결법 연구> 등의 석·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이 가운데 오성애(2010, 2011)와 김순희(2011)의 연구는 앞으로 전개될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언어학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개혁개방 이후 연변(延邊)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민족 교육의 관계를 다룬 김혜영(2012)의 <연변 조선족 사회와 민족 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중국 내 조선족의 인구 이동과 이에 따른 집거지의 축소와 관련하여 조선족 중소학교에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다룬 박금해(2012)의 <조선족 중소학교에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 모색>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2.2. 우리나라 학자의 연구

중국 조선말에 대한 남한 학자들의 조사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의 일이다. 곽충구(1997)는 원 함북(原 咸北) 길주·명천 방언인 중국 허룽시(和龍市)의 방언을 조사한 것이다.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와 《한국어 초분절음소 조사표》에 수록된 약 3,000개의 조사 항목을 ‘음운, 어휘, 문법, 성조’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조선말에 대한 곽충구 교수의 조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의 하나가 해외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로 출간된 곽충구 외(2008)이다. 왕한석(1996, 1997)은 언어 인류학적 조사 연구인데 조선족의 이중 방언 또는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해 비교적 정밀하게 다루고 있다. 이병근·정인호(1999, 2003)는 랴오닝성(遼寧省) 선양시(沈陽市) 만룡춘(滿融村: 원 평북 용천 방언)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부록으로 상당량의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소강춘(1999)은 지린성(吉林省) 일대의 조선말에 대하여 조사 보고한 것이다. 최명옥(2000)은 중국 연변(延邊) 지역의 조선말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고 소신애(2000)는 중국 연변(延邊) 훈춘(琿春) 지역 조선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음운 변화를 다룬 것이며 한성우(2001)는 의주 방언을 음운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은 원 육진 방언을 보유하고 있는 두만강변의 미장춘(密江村: 함북 은성·경원 방언)·후이룡평촌(回龍峰村: 함북 경흥 방언)·싼허(三合: 함북 회령 방언)·웨칭(月淸: 함북 종성 방언) 지역의 조선말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다. 박경래(2003)는 지린성(吉林省) 투먼시(圖們市)의 텡안춘(亭巖村 原 충북 청원 방언)을 조사하고 이 방언의 상대 경어법에 대해 정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성우(2003)와

정인호(2004)는 각각 단둥(丹東)과 선양(沈陽) 조선말을 조사 연구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언어 정체성, 이중 방언 및 이중 언어 사용 등의 사회 언어학적 관점에서 조선말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오성애 2011, 한성우 2011).

언어 연구 외에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조선족의 정체성 등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져 있다. 유명기(2002)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조선족들이 가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종학(2003)은 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로 나타나는 사회 적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봉호(2006)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살피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였고 한상복·권태환(1993)은 개혁개방 직후의 중국 옌벤 지역 조선족 사회를 조사하여 중국 옌벤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비해 권태환·박광성(2004)은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후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대이동과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다. 최기호(1990)는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국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 3 장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의 개념과 조사 범위

3.1. 언어 사용 실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 실태는 일정한 언어 공동체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다양한 실제 모습과 그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인접 언어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 및 언어 사용 실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조사 연구의 과제가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이므로 이 조사·연구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라 함은 중국 조선족들이 일정한 사회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조선말의 다양한 실제 모습과 조선족 화자들이 조선말, 한국말, 북한말, 한족말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 언어 능력과 언어 사용의 뜻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2. 한국어 변종과 자료 구축의 개념

재중 동포 사회에서 쓰이는 ‘한국어 변종(variety)’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조선말이 한국말, 북한말, 한족말 또는 방언 간의 접촉에 의해 변형되거나 혼합적 발달을 보이는 문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 변종’을 이렇게 정의하면 재중 동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써 오던 지역 방언의 어휘, 음운, 문법, 형태, 통사적인 요소들이 한국말, 북한말, 한족말의 영향과 유입으로 새로운 형태를 보이거나 혼종어(hybrid)를 생성한 것 그리고 의미 차이를 보이거나 차용된 것 등을 포괄하게 된다.

자료 구축은 위와 같은 변종을 조사한 다음 조사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계통적으로 집적(集積)하고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구축을 통하여 조선족 사회에서 형

성되어 널리 쓰이는 어휘 요소는 물론 문맥적 의미와 개념적 의미 그리고 문법적 정보와 사용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3.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범위

본 조사 연구는 “재중 동포의 사회적 변인 및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재중 동포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 조사와 자료 구축”을 통하여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대상 범위는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와 재중 동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3.3.1. 지역별 실태 조사

재중 동포들의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무엇보다 재중 동포의 거주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 집거지인 동북 3성, 즉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내 조선족들의 이주에 의해 형성된 신흥 집거지인 칭다오(靑島)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 형성된 언어 집단과 개혁개방 이후에 형성된 언어 집단 간의 언어 사용 실태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3.2. 세대별 실태 조사

재중 동포 사회의 성립 및 변화 과정에 따른 언어 실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세대별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세대별 언어 사용 실태의 비교를 통하여 모국어 사용 능력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년층 세대의 조사를 통하여 중국으로 이주한 1세대나 그 자녀 세대들로서 이들의 원 방언과 원 방언들 간의 상호 교섭 및 융합 양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이다. 재중 동포들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들의 원 고향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언어 면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장년층 세대와 청소년층 세대의 조사를 통하여 재중 동포 사회가 확립된 이후 이들의 언어가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재중 동포 사회가 확립된 후 자체적으로 언어 규범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조선족 학교를 통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족 사회의 상위 집단이 사용하는 한족 말과 한중 수교 이전에 중국 동포들이 주로 접한 북한말의 간접 양상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것이다.

이러한 세대별 조사를 통하여 한중 수교 이후에 나타난 남한말과 간접 양상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한중 수교 후에 재중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접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재중 동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재중 동포들의 언어 변화 양상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로 인해 재중 동포들의 전통적인 집거지가 해체되고 새로운 집거지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언어상의 변화도 조사할 것이다.

3.3.3. 영역별 실태 조사

조선족들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 실태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정 집단의 언어 실태는 언어 능력, 언어 의식과 태도, 언어 사용 양상 등이 하위 부문을 이루므로 영역별 실태 조사에서는 조선말에 대한 태도와 인식, 모국어와 중국말의 사용 능력,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과 가족 간의 언어 사용 등 세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언어 실태는 거주 지역의 특성과 이주 세대, 이주 시기, 이주 이유,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인 요인(social factor)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 부문별로 언어 실태를 조사하였다.

- (1) 언어 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언어에 대한 자의식, 모국어 의식, 언어에 대한 전망, 자기 정체성, 한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 적응, 사회생활 환경 등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해외 동포는 대개 이중 언어 사회(bilingual society)에 속하므로 자기의 언어에 대한 의식, 제1언어 또는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이중 언어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언어 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재중 동포 사회의 변화 과정과 맞물려 이들의 언어가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 (2)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선말과 중국말에 대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을 조사하였다. 해외 이주 동포들의 특성상 원 언어와 거주지 언어 모두가 중요하므로 원 언어와 거주지 언어에 대한 사용 능력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언어 사용 능력과 관련이 있는 조선말 교육의 실상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 (3) 언어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중 언어 환경에 놓여 있는 재외 동포들은 장면에 따라 다른 언어를 선택하여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인 상황, 사적인 상황 등 대화 장면에 따라 어떤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지와 순위 사람인지 손아래 사람인지, 친척인지 인척인지 등 대화 대상에 따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3.4. 한국어 변종 자료 조사

다양한 방언적 배경을 가진 재중 동포들이 중국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언어적 변종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한중 수교 이전에는 주로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말의 영향을 받은 언어적 변종이 생겼을 수 있고 한중 수교 이후에는 한국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국말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언어적 변종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의 한국어 변종 자료를 조사하였다.⁵⁾

- (1) 모국어 원 방언 간의 융합에 따른 변종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원 방언을 가진 이주민들이 재중 동포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여러 방언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모국어 변종을 조사하였다.
- (2) 중국말의 간섭에 따른 변종을 조사하였다. 재중 동포들은 중국 전체로 볼 때

5) 여기에서의 ‘한국어 변종’은 재중 동포들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말에 나타나는 모든 변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커다란 중국말 집단 속의 작은 조선말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상위 언어인 중국말 사용 환경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말이 재중 동포의 언어에 유입되면서 나타난 변종을 조사하였다.

- (3) 북한말의 간섭에 따른 변종을 조사하였다. 지역적 특성상 중국에는 북한 지역에서 이주한 재중 동포들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북한이 가까웠기 때문에 재중 동포 사회가 형성된 초기에는 북한말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한에서 문화어가 성립된 이후에는 북한 문화어가 재중 동포 사회에 상당량 유입되었다. 북한 문화어의 유입으로 형성된 한국어 변종을 조사하였다.
- (4) 남한말의 간섭에 따른 변종을 조사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재중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재중 동포들이 한국과 교류하면서 남한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어 변종을 조사하였다.
- (5) 재중 동포 언어의 자체 변종을 조사하였다. 재중 동포들이 독자적인 언어 공동체를 형성한 이후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한국어 변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제 4 장

언어 사용 실태 조사와 분석 방법론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를 위한 조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다. 하나는 중국 동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중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변종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조사한 언어 사용 실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4.1.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2011년에 실시한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 마련한 질문지를 근간으로 중국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일부 용어를 바꾸었다.⁶⁾ ‘기초 연구’의 설문 내용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이 너무 미세한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민감한 문항 등은 삭제하거나 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 조사 질문지에 들어 있는 “귀하는 한국식 성과 일본식 성(통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은 중국 조사의 경우 불필요하여 생략하였고, “귀하는 한국에 어느 정도 갑니까?”도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가셨고, 총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여러 번이면 합해서)”와 같이 바뀌었다. 또한 “귀하는 조국 팀과 중국 팀이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어느 쪽 팀을 응원합니까?”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가족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가족

6)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는 ‘기초 연구’로 줄여 사용한다.

개개인에 대하여 물어 조사하기보다 크게 부모나 조부모, 동기, 자녀나 사위 등 향렬을 기준으로 크게 묶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말’과 ‘조선말’을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중국어’ 또는 ‘중국어’라는 용어 대신 현지 조선족들이 즐겨 쓰는 ‘한족말’을 사용하여 조사 시 잘 쓰지 않는 어휘 사용으로 인한 어색함을 줄이려 하였다. ‘한국말’은 남한에서 쓰는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고 ‘조선말’은 재중 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는 등 재중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기초 연구를 위한 질문지와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 정보 관련]

- 각 조사 지역별로 질문지 고유 번호를 적도록 하여 자료 처리 과정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사 시작 시간과 조사 종료 시간 적는 난은 삭제하였다.
- 조사 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연락처 적는 난을 삭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 관련]

-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와 조사 대상자 부모님의 출생지를 추가하였다.
- 재중 동포의 급격한 이합집산을 고려하여 현재 거주지를 적도록 하였다.
-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기간과 이전 거주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사회생활 환경 관련]

- 기초 연구에서 한국에 어느 정도 자주 가는지를 묻는 질문을 한국에 가 본 횟수와 총 체류 기간을 적도록 하였다.
- 재중 동포들의 거주지 특성을 고려하여 동포와의 교제 빈도를 삭제하였다.

[한국 문화와 이문화 적응 관련]

-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와 중국 문화에 대한 항목은 언어 실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모두 삭제하였다.

- 재중 동포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말에 자주 접촉하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 가장 많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선말(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 관련]

-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 중국 조선족도 한족말을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한국말 교육을 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과 그 이유에 대하여는 언어 습득과 한국말 교육 영역에서 조사하도록 배치하였다.
- 재중 동포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1언어(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제일 잘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보통 때 제일 많이 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가족끼리 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제일 듣기 좋은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자녀나 손자 손녀가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적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조선말의 장래에 대하여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한국말을 조선말과 비교할 때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한국말을 이해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다음의 세 개를 추가하였다.

- 말만 듣고 조선족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지.
-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쓰는 말을 잘 이해하는지.
- 한국 말투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다음의 두 개를 추가하였다.
 - 한국 말투를 배우고 싶은지.
 - 한국말 교육이 필요한 이유.
 -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데 가장 불편한 점.

[자기 정체성 관련]

- 재중 동포들은 일본식 성(통명)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 문항을 삭제하였다.
- 언어 실태와 관련이 적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나라 팀을 응원하는지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 언어 실태와 관련이 적은 다음 세대 동포의 결혼관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조선말의 네 기능 능력 관련] 항목과 [한족말의 네 기능 능력 관련] 항목은 모두 능력 정도를 묻는 5점 척도식 답지로 수정하였다.

[상대와 장면애 따른 언어 선택 관련]

- 12명의 가족에게 사용하는 말을 조사하도록 한 것을 순위 항렬 세대, 동기나 같은 항렬 세대, 손아래 항렬 세대로 단순화하고,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추가하였다.
- 12명의 가족이 나에게 하는 말을 조사하도록 한 것도 순위 항렬 세대, 동기나 같은 항렬 세대, 손아래 항렬 세대로 단순화하고,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추가하였다.
- 장면애 따른 언어 사용을 묻는 여섯 개의 문항을 조선족끼리 공식과 비공식 상황에서 대화하는 두 문항과 한족이 함께 하는 공식과 비공식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네 개의 문항으로 단순화하였다.

- 꿈을 꾸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을 조사하는 문항은 화가 났거나 싸울 때 사용하는 말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바꾸었다.

[언어 습득과 조선말 교육 관련]

- 조선말을 배운 기간을 묻는 문항을, 배워서 사용한 기간으로 수정하였다.
- 한국말을 배우고 난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 한국말 교육의 내용에 대한 문항 여덟 개는 삭제하였다.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에서 어휘 선택이나 표현에서 다음과 같은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말과 조선말의 표현상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 1) 제보자의 한쪽말 듣기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인사말이나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가 제시되어 있는데 재중 동포들은 “정형화된”의 뜻을 잘 모르는데 이것을 “공식적인”으로 고치면 쉽게 이해한다.
- 2) 말하기와 듣기 능력 4단계 문항의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에서 ‘연설’과 ‘통역’을 ‘토론’과 다른 수준(단계)로 인식하고 있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3) 읽기 수준을 묻는 문항에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에서도 ‘전문 분야의 서적’과 ‘문학 작품’을 다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 맞지 않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었다. 이는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런 경우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거나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비는 것’을 일종의 종교 행위로 보아 금기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종교 행위로서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질문문을 중국 사회에 적절한 상황으로 바꾸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부류의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부록 1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 참조).

[1] 제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

- 나이, 성별, 출생지, 거주지, 이주 시기, 이주 세대,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직업, 학력과 학교 종류, 한국 방문 횟수 및 체류 기간, 주 교류 대상, TV 시청 시간 및 프로그램 등 16개 문항.

[2] 조선말(모국어)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

-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태도, 모어로 인식하는 언어, 조선말의 장래,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한국말을 이해하는 데 불편한 점, 제일 잘하는 말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 상황에 따라 제일 많이 쓰는 말과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 말 등 18개 문항.

[3] 조선말에 대한 네 가지 기능 능력

- 조선말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 네 가지 능력에 대한 4개 문항.

[4] 거주국 언어(한족말)에 대한 네 가지 기능 능력

- 한족말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 네 가지 능력에 대한 4개 문항.

[5] 대화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 가족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 가족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조선말을 아는 동포와 대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언어, 혼잣말로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화가 사용하는 언어 등 4개 문항.

[6] 언어 습득과 조선말 교육

- 조선말을 배운 경험과 조선말을 배운 곳, 조선말을 사용한 기간, 손자 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학교의 종류 및 그 이유, 조선말을 배우고 싶은지와 그 이유 및 수준 등 10개 문항.

질문지는 조사의 효율을 피하기 위해 여섯 개 영역의 총 5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말 사용에 대한 언어 기능과 거주국 언어인 한족말 사용에 대한 언어 기능, 그리고 언어 선택에 대한 문항은 각각 4개의 하위 질문을 두어 모두 9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4.2. 한국어 변종 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

한국어 변종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재중 동포들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어휘, 음운, 형태적 변종의 특징은 물론이고 한국말과 한족말의 차용 등을 살펴보고, 질문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선말이 이주자의 모방언(母方言), 조선족 표준어, 북한말, 한족말, 남한말의 영향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 조선족 사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어휘적 변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이려고 하였다.

변종 조사 질문지는 지역적 사회적 변이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하지만 본 과제에서는 조사 인력이나 시간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변종을 지역과 계층별로 수집하고 그 변이들이 어떠한 요인의 의하여 발생했으며 세대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재중 동포 언어의 실재와 그 역동성은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보자들의 선대 거주지 방언에 기초한 노년층의 방언으로부터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바탕으로 한 연변(延邊) 표준어가 끊임없이 중국말의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말과 북한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 내지 통합과 분화의 양상,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한 특이한 변종들을 기술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1] 전통적인 조선말 지역 방언이 어떠한 변이형을 보이는지와 그 요인은 무엇인지

- 친족 호칭어 7개 문항과 그와 관련된 문법 형태 4개 등 총 11문항

[2] 전통적인 조선말 지역 방언이 한족말과 어떻게 유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 농사일 관련 어휘 2문항, 문법 형태 관련 8문항 등 총 10문항

[3] 신문물에 대한 명칭을 통해서 조선족이 한국말과 한족말 가운데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와 그 선택의 요인은 무엇인지

- 농사 관련 어휘 1문항, 전자 제품 등 생활 도구 관련 어휘 5문항, 일상생활 관련 어휘 2문항 등 총 8문항

[4] 한국말이나 한족말을 차용한다면 그 차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이형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그 변이형들이 보여 주는 음운이나 어휘 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 농사 관련 어휘 1문항, 일상생활 관련 어휘 3문항, 한국말 어휘 1문항 등 총 5문항

[5] 조선족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말

- 자체 변종 어휘 1문항

질문지는 총 28개 항목의 35문항으로 이루어졌다(부록 2 참조). 조사 항목들은 재중 동포 사회에서 써 오던 어휘, 음운, 문법, 형태, 통사적인 요소들이 한국말, 북한말, 한족말의 영향과 유입으로 새로운 형태를 보이거나 혼종어(hybrid)를 생성한 것 그리고 의미 차이를 보이거나 차용된 것 등을 조사하여 자료로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나의 문항을 통하여 어휘는 물론이고 음운이나 문법 형태, 통사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3. 조사 지역 선정과 조사 범위

4.3.1.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선정 기준

현재의 재중 동포 사회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한인(韓人)들이 중국 대륙에 정착하여 이룩한 전통적인 조선족 집거지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들이 연해주

등으로 대규모로 이동하여 형성된 신흥 집거지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중국 내의 조선족 공동체가 빠르게 재편되는 동시에 전통 집거지의 해체 또한 급속히 진전되어 새로운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조선족 사회의 언어 사용 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선정은 재중 동포 사회의 언어 실태를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선족 사회의 이러한 언어 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통적으로 조선족들이 집거지를 이루고 살아온 동북 3성, 즉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과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신흥 집거지 가운데 하나인 칭다오(靑島) 등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었다. 여러 신흥 집거지 가운데 칭다오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 2010년까지의 조선족 거주 인구를 비교해 볼 때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광둥(廣東) 등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산둥성(山東省)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특히 산둥성(山東省)의 칭다오(靑島)로 조선족이 많이 이주했음을 감안하였다.

조사 지점 선정은 집거지와 산거지, 도시와 농촌을 고려하였다. 지린성(吉林省)은 연변(延邊)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다. 헤이룽장성은 경상도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지만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족과 함경도, 평안도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족들도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랴오닝성(遼寧省) 역시 북한의 평안도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칭다오(靑島)는 개혁개방 이후 한국 기업의 진출로 중국 각지에서 조선족들이 모여 새로운 언어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4.3.2.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조사 대상자 수

본 과제를 위한 조사 대상자는 모두 조선족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재중 동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와 한국어 변종을 조사하기 위

한 조사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대상자와 한국어 변종 자료를 수집 구축하기 위한 조사 대상으로 나누었다.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대상자는 조사 지역과 세대, 성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180명 이상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세대를 노년층 세대와 중장년층 세대 그리고 청소년층 세대로 나누었고 각 세대는 다시 성별로 나누어 남녀 각각 30명 이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어 변종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자는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자 가운데서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지역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자를 각 세대별·성별에 따라 남녀 각각 두 명 이상을 조사하여 권역별로 열두 명 이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표 3> 참조).

<표 3> 변종 조사를 위한 심층 면접 조사 대상자 수

성별 세대	노년층 (60세 이상)	중년층 (30~59세)	청소년층 (10~29세)	합계
남	4지역x2명	4지역x2명	4지역x2명	24명
여	4지역x2명	4지역x2명	4지역x2명	24명
합계	16명	16명	16명	48명

4.4. 조사 방법과 조사 과정

4.4.1.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재중 동포의 사회적 변인 및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하나는 권역별 연구 책임자와 권역별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들을 면담하여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설

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짧은 조사 기간 동안 많은 대상자를 조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 면접 조사하는 방법과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조사 지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권역별 연구 책임자가 현지 조사 연구원과 조사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조사의 의의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외국인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현지 동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이 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선생님이나 공무원, 대학원생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의 의의를 이해시킨 다음 설문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고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문항별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자를 선정할 때는 설문 응답자 수가 편향되지 않도록 세대와 나이, 성별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중장년층의 남성들을 조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이 세대의 많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이주했거나 조사를 해야 할 낮 시간에는 주로 일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농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중 동포들의 언어 사용 환경 변화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질문지 내용 가운데 조선말을 배우지 않아 조선말을 구사할 줄 모르는 제보자에게는 해당 질문 문항을 현지 조선족 조사원이 한족말로 번역하여 질문하게 한 다음 응답 결과를 질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⁷⁾

조사 지역별로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과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린성(吉林省)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12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현지 조사 시 질문지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 성격을 띠고 이루어졌다. 권역별 연구 책임자와 현지 연구원이 6명의 연변대학교(延邊大學校)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질문지의 내용과

7) 조선말을 전혀 모르는 동포에 대한 질문은 '조선말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하위 문항까지 모두 네 개의 문항이었다(질문지 701번 문항 참조).

면접 방법을 교육한 다음 조사하도록 하였고, 1차 조사를 완료한 다음 조사 참여자들이 모여 조사상의 문제점이나 질문지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제기된 문제는 최종 질문지에 반영하여 본조사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 하였다.⁸⁾ 2차 조사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지린성(吉林省) 조사는 전 지역을 옌지시(延吉市), 왕칭현(汪淸縣), 투먼시(圖們市), 자오허시(蛟河市), 훈춘시(琿春市), 지린시(吉林市), 안투시(安圖市), 둔화시(敦化市), 룡정시(龍井市), 창춘시(長春市) 등으로 나누어 조사원별로 고루 배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창춘(長春)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층 조선족들은 대체로 조선말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한화(漢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층 일부에서는 없어질 조선말을 왜 조사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촌 마을에서는 아직도 민족어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집거 지역과 산거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조사는 현지 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조선족 학교 선생님, 조선족민족종교사무위원회 주임 등과 연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은 하얼빈시(哈爾濱市) 다오와이구(道外區), 아청구(阿城區), 상즈시(尙志市), 무단장진(牡丹江鎮), 둥징청진(東京城鎮) 등이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조사도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하나는 권역별 연구 책임자와 현지 조사 연구원 및 현지 교사 등이 직접 조선족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는 직접 면담 조사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 단체와 조선족 학교 등의 도움을 얻어 조사의 취지와 질문 내용을 설명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사하도록 하는 간접 조사 방법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직접 면담 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수와 간접 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수가 반반 정도였다.

헤이룽장성의 경우 조선족 집거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가 중장년층 조선족들의 상당수가 대도시나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11월 1일 현재 헤이룽장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모두 327,800여

8) 예비 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는 일부 용어가 중국 현지 조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언어 4 기능에 대하여 묻는 답지에 “①매우 잘한다 ②잘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잘 못하는 편이다 ⑤전혀 못 한다”에서 “매우 잘한다”는 특별히 잘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쉬우므로 조선말을 유창하게 잘하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①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잘 못하는 편이다 ⑤못 한다”와 같이 수정하는 등 피조사자의 응답 처지를 고려하였다.

명으로 중국 전체 조선족의 17.9% 정도에 해당하는데 하얼빈(哈爾濱), 상즈(尙志), 아청(阿城), 무단장(牧丹江), 자무쓰(佳木斯), 동징청(東京城)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하얼빈시의 경우 전체 인구 약 600여만 명 가운데 하얼빈 시내에는 3만여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시가지 인근의 상팡구(香坊區)와 아청구(阿城區) 등에 비교적 큰 집거지가 있어 하얼빈시 전체를 합하면 9만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고 한다.⁹⁾

하얼빈(哈爾濱) 시내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조선족들은 조선말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하나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수시로 한족말로 대화하는 전형적인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선말보다 한족말로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있다. 10대 후반의 조선족 중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도 한족말로 말하는 것이 조선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울 만큼 한족말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인근의 아청구(阿城區)나 상즈시(尙志市)에 있는 조선족 중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조선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은 도시인 아청구(阿城區)나 상즈시(尙志市)에는 학업을 위해 집거지인 농촌에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조선말을 더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얼빈시 북쪽에 있는 다오와이구(道外區) 신파촌(新發村) 조선족 노인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이중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있었고 젊은층은 한족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으며 일부 학생들은 조선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구사할 줄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 마을이 조선족 마을이지만 조선족 인구의 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조선족 소학교가 문을 닫은 것도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족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한족말을 모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조사하는 동안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40대 중반의 촌장도 외부와의 전화 통화는 모두 한족말로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9) 하얼빈시 조선족민족종교사무위원회 김동철 주임에 의하면 하얼빈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는 약 9만여 명이라고 하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2010년 11월 1일자로 조사한 인구 통계 자료가 나와 있지만 이 자료에서 해당 지역별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정리해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조사 장면>



<헤이룽장성 상즈시 조사 장면>

상즈시(尙志市)나 아청구(阿城區)의 조선족 노인들은 자녀나 손자 손녀들의 학교 뒷바라지를 위해 조선족 중학교 근처에 모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농촌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하얼빈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말을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 상즈시 주변 지역 농촌의 대규모 조선족 집거지가 거의 해체되고 몇 가구만 남아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농촌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상즈시(尙志市) 조선족 중학교 인근에 있는 문구장(門球場)이나¹⁰⁾ 상즈시(尙志市) 조선족노인 협회에 나가 소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각의 장소에 약 20여 명의 조선족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조사하면서도 조선말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조선족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불러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하거나 학생들 체조 시간에 왜 교원들이 한족말로 말을 하느냐는 것과 입학 설명회에 가면 교원들이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조선족 학교에 보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 자녀는 왜 한족 학교에 보내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노년층과 젊은층 사이의 인식 차이를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족 학교로 쏠리는 현상은 대도시로 갈수록 심했고 소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약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린성(吉林省)에 비해 한화(漢化)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 일부는 조선족 사회는 이제 ‘망태기가 됐다’거나 ‘완라(完了)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장년층은 아파트 정자나 상가 등에서 조사하였고 청소년층은 학생들과 현지 가게 주인의 소개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무단장진(牧丹江鎮)에서는 한국에서 파견한 한국어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무단장

10) 조선족들은 ‘케이트볼 장’을 ‘문구장’이라고 한다.

(牧丹江)에 살면서 사귀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직접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무단장진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조선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인근의 조선족 집거지인 농촌에서 이주했거나 한국을 방문하여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둥징청진(東京城鎮) 조선족 집거지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조선족들은 조선말을 잘하는 편이나 10대의 청소년 학생들은 한족말 사용이 더 자연스러운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생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헤이룽장성 무단장 조사 장면>



<헤이룽장성 무단장 조사 장면>

전체적으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에서는 중년층 이상 세대의 화자들은 조선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나 장년층 이하 세대의 화자들은 한족말을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의 한족말을 사용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족 학생이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얼빈시 조선족 제1중학교 이문익 교사의 말을 빌리면 이 학교의 경우 약 1,30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15% 정도의 학생이 한족이라고 한다. 비율로 보면 조선족 학생이 한족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¹¹⁾

11) 헤이룽장성의 경우 조선족 학교가 몇 안 되기 때문에 한족 학생이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수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 학생이 한족 학교에 다니는 수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지역도 넓고 조선족 학생들이 여러 한족 학교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4.4.2. 한국어 변종 조사

한국어 변종 조사는 재중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을 지역별, 세대별로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세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한국어 변종이 어느 세대에서 더 많이 사용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권역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동북 3성 조선족들의 음운, 형태, 어휘적인 특징과 한국말과 한족말의 차용 양상이 세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음운, 형태, 어휘적인 특징과 차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주자의 원 방언, 조선족 표준어, 북한말, 한족말, 한국말의 영향에 의해 어떠한 간섭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조선족 사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어휘적 변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변종 자료를 구축하려 하였다.

변종은 어휘뿐만 아니라 음운이나 형태에서도 생겨나므로 각각의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어휘 형태와 발음을 정확히 조사하려 하였다. 예컨대, ‘부모 중에서 여자를 부르는 말’을 조사할 경우 ‘어마, 엄마, 어마니, 어머니, 어머니, 오마니, 어마이, 오마이...’ 등의 형태적인 변이형 외에 한국말의 영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모음 [ɪ]와 [i]의 음성 간극 또는 음운 체계상의 합류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미세한 음성 차이를 구별 기호를 써서 전사하였다.

한국어 변종 조사는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응한 제보자 가운데서 각 세대별로 4명씩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문장 형식으로 진술하게 하는 개방 질문법(open question)과 간접 질문법 가운데 명명식 질문법(naming question)을 사용하였지만 다양한 변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완결식 질문법(completing question), 역질문법(reverse question), 선택 질문법 등을 모두 동원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의미 내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악, 애인, 군중’ 등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는 역질문법을 사용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어휘가 세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내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4.5. 조사 기간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질문지 점검과 예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이루어졌다. 권역별 조사 기간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 권역별 재중 동포 언어 조사 기간

권역	차수	조사기간	비고
지린성	1차	2012. 4. 29. ~ 2012. 5. 7.	
	2차	2012. 7. 19. ~ 2012. 7. 31.	
헤이룽장성	1차	2012. 7. 10. ~ 2012. 7. 28.	
랴오닝성	1차	2012. 7. 2. ~ 2012. 7. 18.	
칭다오	1차	2012. 7. 2. ~ 2012. 7. 18.	

4.6. 자료 분석 방법

4.6.1. 분석 방법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자료는 통계 처리를 위해 문항별 코딩을 거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입력한 자료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입력된 데이터들이 도수 분포표(frequency table) 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빈도 분석을 통하여 조사 항목에 대한 유효 응답 가운데 어느 데이터 값이 더 많고 적은지를 통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빈도 분석은 도수 분포표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데이터 값이 있다면 이것은 코딩 오류이거나 데이터 입력 오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른 통계적 방법에 적용시키기 전에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빈도 분석은 하나의 변수에 대하여만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요인(변수)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하였다.

4.6.2. 분석 분야와 내용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조사 질문지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응답자의 ①기본 정보와 생활 정보 ②언어 인식과 태도 ③언어 능력 ④언어 사용 ⑤언어 습득과 교육 등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분석 분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 정보와 일상생활 정보’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정보 분석에서는 언어 학습이나 습득과 관련이 있는 ‘학력과 학교 종별’을 비롯하여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 방문 경험과 기간’, ‘평소 교류하는 대상’, ‘한국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 시청 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학력이나 학교 종별, 평소 교류하는 대상은 언어 사용의 네 기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문항과 교차 분석에도 이용된다.
- ② ‘언어 인식과 태도’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선말과 한국말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에 대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선말과 한족말의 유창성에 대한 기대치,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나 한국말 투에 대한 태도,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예측, 조선말에 대한 느낌, 조선말 이해의 장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가운데 ‘잘하는 말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 앞으로 재중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선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중국 동포 사회에서 조선말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③ ‘언어 능력’ 분야에 대한 분석은 ‘조선말의 네 기능 능력’과 ‘한족말의 네 기능 능력’이 분석 대상이었다. ‘조선말의 네 기능 능력’은 조선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한 수준별 유창성을 분석하였고, ‘한족말의 네 기능 능력’은 한족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한 수준별 유창성을 분석하였다.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언어 능력 분석을 통하여 재중 동포들의 이중 언어 사용 정도가 권역별로 세대와 성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 ④ ‘대화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에 대한 분석은 화자의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대화 장면이 공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한족이 함께 한

자리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선말과 한족말 가운데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가 분석 대상이었다. 이는 권역이나 세대 및 학력에 따라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언어 능력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대화 상대가 가족인지 아닌지, 가족이라면 손위 사람인지 손아래 사람인지와 조선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선말을 사용하는지 한족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노년층이 청소년층에 비해 조선말은 더 잘하는데 반해 한족말은 더 못할 것이고, 조선족이 아닌 가족에게 말할 때는 언어 선택을 달리 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분석하였다. 이 외에 숫자를 셀 때나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 때, 그리고 비정상적인 언어 사용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⑤ ‘언어 습득과 교육’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선말 학습 경험과 조선말 사용 기간 및 조선말을 배운 기관, 그리고 향후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보내고 싶은 유치원이나 학교 종류와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조선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경우에는 향후 조선말을 배우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조선말 학습 경험과 조선말 사용 기간 분석을 통하여 조선말의 유창성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조선말을 배운 기관 분석을 통해 조선말 학습 환경이 세대나 권역에 따라 언어 능력과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자녀나 손자 손녀를 어떤 종류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느냐가 언어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권역별로 세대나 학력 등에 따라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주도 세대와 주도 계층이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4.6.3. 요인별 교차 분석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은 조사 항목별로 빈도 분석을 통하여 유효값을 분석하였다. 이 때 조사 항목의 내용이 학력이나 나이, 성별, 조사 지역 등 사회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들 요인과 관련지어 교차 분석함으로써 통계값과 사회적인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차 분

석을 통해 살펴본 언어 사용 실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국어에 대한 인식은 권역이나 성, 나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권역과 성, 권역과 연령과의 교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 조선말의 미래에 대한 태도는 권역과 성, 나이, 학력에 따라 교차 분석하였다.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언어 사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자녀나 손자 손녀가 다닐 유치원이나 학교의 선택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언어를 학습하게 될 유치원이나 학교의 선택은 세대나 성, 거주 지역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학력이나 언어 학습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학력과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언어 능력은 언어의 네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각각 네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등급을 학력과 거주지 유형, 출신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4.6.4.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 자료 분석과 자료 구축

조사된 한국어 변종 자료는 권역과 세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조사 항목별로 다양한 변이형을 제시하였다. 필요한 경우 변이의 원인과 기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변이형뿐만 아니라 그 변이형의 언어 관계를 알아보았다.

4.6.4.1. 한국어 변종 자료의 유형과 특징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첫째는 친족 호칭어와 문법 형태 등 전통적인 조선말 지역 방언이 어떠한 변이형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권역에 따라 그리고 세대나 학력에 따라 음운 체계나 어휘장 및 어휘 체계, 문법 형태소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는 농사 관련 어휘나 문법 형태 등 전통적인 조선말 지역 방언이 한족말과 어떻게 유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이주 세대들이 농

업에 종사함으로써 전통적인 방언형을 유지하던 것이 개혁개방 이후 젊은 세대들 다수가 도시로 이주하였거나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대, 학력, 한국 체류 경험 여부 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셋째는 신문물에 대한 명칭을 통해서 조선족이 한국말과 한족말 가운데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와 그 선택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면서 일상적으로 쓰던 전통적인 생활 도구를 전기 전자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쓰거나 차용한다면 그 차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이형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그 변이형들이 보여 주는 음운이나 어휘 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넷째는 조선족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중 동포들이 새롭게 표현해야 하는 대상이 생겼을 경우 말을 새로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기존의 한국말이나 한족말을 차용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장무(廣場舞: 광장에 모여 추는 춤) 춘다’와 같이 한국식 한자어를 만들어 쓰거나 한족말 발음과 한국식 한자어 발음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층에서는 조선말 문장 속에 한족말 단어를 차용해 쓰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¹²⁾

재중 동포들이 사용하는 변종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언어적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언어적으로 소수 집단인 재중 동포 사회가 집거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비교적 전통 방언들을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조선족들의 언어 사용 환경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한족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한국과 접촉하면서 한족 말과 한국말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이것이 언어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일상 어휘를 한족말로 대체하거나 한족말과 고유어를 혼합하여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 쓰는 말들을 그대로 쓰는 예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12) 예를 들면 ‘망했다’, ‘끝났다’ 정도의 의미로 ‘완라(完了)됐다’와 같이 한족말을 그대로 차용한 어휘를 문장 속에 섞어 쓴다. 이러한 예는 젊은 세대들일수록 많이 쓰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폭넓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4.6.4.2. 한국어 변종 자료의 구축을 위한 모델

재중 동포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 형태소들에 대한 변종 자료는 위에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통사적인 특징을 보이는 자료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변종 자료의 정리는 표준어형과 그에 대응하는 문법 정보와 변이형 및 용례들을 제시하여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이 쉽게 해야 한다. 자료 정리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할 수 있다.

[표준어형]

[품사 정보]

[변종의 종류]

[용례]

[변종에 대한 설명]

제 2 부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제1장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자	47
제2장	재중 동포의 언어 인식과 태도	77
제3장	언어 능력	127
제4장	언어 사용	182
제5장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과 변종 자료의 구축	218
제6장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와 이중 언어 정책 제언	279

제 1 장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자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해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칭다오(靑島)’의 네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전통적인 집거지를 이루고 살았던 곳이고 칭다오(靑島)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동북 3성에서 모여든 조선족들이 새로운 집거지를 이룬 곳이다. 동북 3성과 칭다오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전통적인 집거지의 언어 사용 실태와 신흥 집거지의 언어 사용 실태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위 네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한정하였다.

1.1.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조사 지점은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 선정된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칭다오(靑島)’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은 전통적인 집거 지역이고 칭다오(靑島)는 신흥 집거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칭다오는 이주 시기가 짧아 현재는 전통적인 집거지의 혼합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신흥 집거지로서의 언어적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지린성(吉林省)은 연변(延邊)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점을 감안하여 연지시(延吉市), 룡정시(龍井市), 투먼시(圖們市), 훈춘시(琿春市), 둔화시(敦化市), 자오허시(蛟河市), 안투현(安圖縣), 왕칭현(汪淸縣) 등을 조사 지점

으로 하였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고려하여 하얼빈시(哈爾濱市), 상즈시(尙志市), 아청시(阿城市), 무단장시(牡丹江市), 둥징청진(東京城鎮) 등을 조사 지점으로 하였다. 랴오닝성(遼寧省) 역시 북한의 평안도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고려하여 단둥시(丹東市)와 둥강시(東港市)를 조사 지점으로 하였다. 단둥시와 둥강시는 평안도 지역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평안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족 잡거지다. 단둥시는 중국 각지에서 모인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어 조선말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둥강시에는 평안도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말이 우위에 있는 곳이다. 칭다오(靑島)는 개혁개방 이후 한국 기업의 진출로 중국 각지에서 조선족들이 모여 새로운 언어 공동체를 형성한 곳으로 연변(延邊)을 포함한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출신은 많으나 랴오닝성(遼寧省) 출신이 적은 곳이다. 칭다오(靑島)는 집거지와 산거지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역을 조사 지점으로 삼았다.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조사 지역과 조사 지점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지린성 권역	연지시(延吉市), 룡징시(龍井市), 투먼시(圖們市), 훈춘시(琿春市), 둔화시(敦化市), 자오허시(蛟河市), 안투현(安圖縣), 왕칭현(汪清縣)
헤이룽장성 권역	하얼빈시(哈爾濱市), 상즈시(尙志市), 아청시(阿城市), 무단장시(牡丹江市), 둥징청진(東京城鎮)
랴오닝성 권역	단둥시(丹東市)와 둥강시(東港市)
칭다오 권역	칭다오시(靑島市) 전역

1.2.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와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2.1.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

언어 사용 실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득 과정이나 학력, 사회적 배경, 언어 의식과 태도 등 언어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는 언어 실태를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하는 안에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직접 써 주세요.

1.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2. 연 령	_____세 _____년생
3. 출생지	_____성 _____시(현)	4. 현 거주지	_____성 _____시(현)
5. 부모님 부 출생지	_____성 _____시(현)	6. 부모님 부 민족	_____족
7. 배우자 민족	_____성 _____시(현)	민족	_____족
	_____성 _____시(현)	민족	_____족

8.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이사 안함 ② 1년 이내 ③ 2~5년 이내 ④ 6~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9. 현재 거주지로 이주했다면 어디에서 이주하셨습니다?
 _____성 _____시(현)

10. 조선에서 이주한 몇 세대입니까?
 ① 1세대 ② 1.5세대 ③ 2세대
 ④ 3세대 ⑤ 4세대 ⑥기타()

11.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_____)
 ① 농림·어업·임업 ②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③ 단순 노무
 ④ 판매·서비스직 ⑤ 사무직 ⑥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및 기타()

[지역]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본래의 조사 계획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한 개의 지역에서 연령층별로 남녀 각각 30명씩 180명 이상을 조사하여 총 720명 이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대규모의 조사를 계획한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표 6> 설문 조사 계획 대상자 수

성별	노년층(61세 이상)	중년층(40세 전후)	청소년층(20세 전후)	전체
남	4지역x30명 이상	4지역x30명 이상	4지역x30명 이상	360명 이상
여	4지역x30명 이상	4지역x30명 이상	4지역x30명 이상	360명 이상
전체	240명 이상	240명 이상	240명 이상	720명 이상

위의 조사 계획에 따라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칭다오시(靑島市) 등 네 지역을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조사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7> 지역별 조사자 수

지역	인원	유효 비율
지린성	184	23.4
랴오닝성	180	22.9
헤이룽장성	241	30.7
칭다오시	180	22.9
전체	7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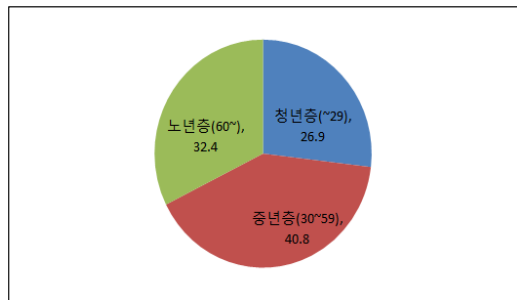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지린성(吉林省)은 조사 계획보다 인원이 약간 초과되었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조사되었는데 초과된 인원까지 모두 분석하였다.

[연령]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본래의 계획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세 집단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조사 현지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10살 단위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한 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연령층별로 조사된 최종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8>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연령층	인원	유효 비율
청년층(~29)	211	26.9
중년층(30~59)	320	40.8
노년층(60~)	254	32.4
전 체	7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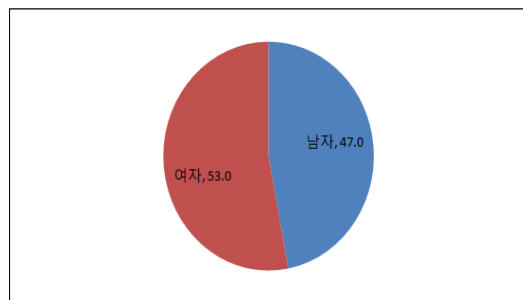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비율

[성]

성별 조사 대상자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를 밝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가능한 한 비율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 현지의 거주자 분포, 조사 가능자 등 조사 여건의 요인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9> 성별 조사 대상자

성	인원	유효 비율
남자	369	47.0
여자	416	53.0
전체	785	100.0



<그림 2> 성별 조사 대상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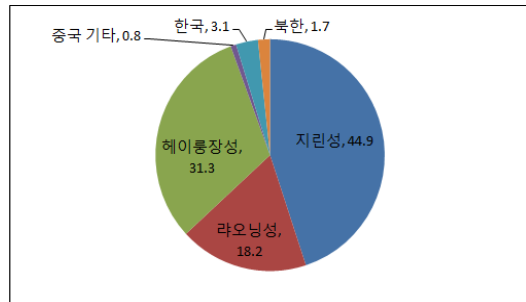
[출생지]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생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 출생지의 언어적 환경과 언어적 배경에 따라 출생지 방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0>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

출생지	인원	유효 비율
지린성	346	44.9
랴오닝성	140	18.2
헤이룽장성	241	31.3
중국 기타	6	0.8
한국	24	3.1
북한	13	1.7
전체	770	100.0



<그림 3> 출생지별 조사 대상자 비율

출생지 면에서 현재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린성(吉林省)의 비율이 가장 높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린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민족이 중국으로 이주한 이래 연변(延邊) 자치주를 비롯한 지린성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77.08%)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린성 다음으로 많이 이주한 곳이 헤이룽장성이고 그 다음이 랴오닝성이다. 위의 표는 칭다오(靑島) 거주 조선족들도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 출생자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동시에 칭다오 지역의 언어적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표10>과 <표 7>의 지역별 조사자 수와 비교해 보면 랴오닝성에는 지린성에서 출생한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자 종합]

이상의 조사 대상자들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지역별, 성별, 연령층별 조사 대상자

구분			연령층			전체
			청년층(~29)	중년층(30~59)	노년층(60~)	
지린성	성별	남자	21	31	22	74
		여자	29	43	38	110
	전체		50	74	60	184
랴오닝성	성별	남자	30	30	30	90
		여자	30	28	32	90
	전체		60	58	62	180
헤이룽장성	성별	남자	30	46	38	114
		여자	11	80	36	127
	전체		41	126	74	241
칭다오	성별	남자	30	31	30	91
		여자	30	31	28	89
	전체		60	62	58	180
전체	성별	남자	111	138	120	369
		여자	100	182	134	416
	전체		211	320	254	785

[민족]

본 조사가 재중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자는 모두 조선족이었다. 그러나 부모나 배우자는 조선족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와 배우자의 민족도 조사하였다. 언어 사용에서 대화 상대가 조선족이 아닐 경우의 언어 선택과 관련된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조사 대상자의 민족은 다음과 같다.

<표 12> 조사 대상자의 아버지 민족

민족	인원	유효 비율
조선족	771	99.5
한족	3	.4
남북한	1	.1
결측	10	

<표 13> 조사 대상자의 어머니 민족

민족	인원	유효 비율
조선족	760	96.8
한족	9	1.1
남북한	1	.1
결측	15	

<표 14>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민족

민족	인원	유효 비율
조선족	547	96.0
한족	21	3.7
남북한	2	0.4
결측	215	

조사 대상자 가족의 민족 구성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배우자의 민족이다. 부모의 민족과 달리 배우자 민족은 한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할 만하다. 위 <표 14>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결측값이다. 결측값이 높은 것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미혼자가 많기 때문이며 미혼자들은 연령층으로 볼 때 청소년층이 대부분이다.

[직업]

직업은 대체로 학력과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도 다를 수 있다고 보아 직업에 대한 조사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직업별 조사 대상자

직업	인원	유효 비율
농림, 어업, 임업	83	10.9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22	2.9
단순 노무	17	2.2
판매, 서비스직	38	5.0
사무직	137	18.0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109	14.3
전업 주부	57	7.5
학생	163	21.4
무직 및 기타	134	17.6
결측	25	

위 표에서 세 가지 직업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자 가운데 ‘사무직’과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가 많은 것은 이번 조사가 조선족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나 그 인근 지역에서 조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판매 서비스직’이나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도 도시 지역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 왕성하게 일할 나이의 청·장년층이나 중년층 세대가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은 ‘농림,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한민족(韓民族)이 중국 이주 이후 농업에 의존해 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많은 것은 조사 대상자의 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학력과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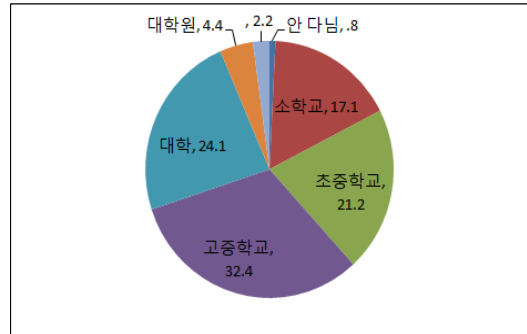
학력은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학력 정도는 언어 4기능 가운데 특히 읽기와 쓰기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언어 능력 단계로 보면 낮은 수준의 단계보다는 높은 수준의 단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력은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최종 학교 및 다닌 학교의 종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 교	다닌 학교의 종류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기타
다닌 학교			
소 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 학교 <input type="checkbox"/>			
대 학 원 <input type="checkbox"/>			
안 다님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학력별 조사 대상자의 비율

학력	인원	유효 비율
안 다님	6	.8
소학교	131	17.1
초중학교	163	21.2
고중학교	249	32.4
대학	185	24.1
대학원	34	4.4
결측	17	
전체	785	



<그림 4> 학력별 조사 대상자 비율

위 표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매우 높은 편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은 대상자의 수는 극히 적다. 조사 대상자들의 최종 학력이 높은 것은 재중 동포들의 높은 교육열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¹³⁾ 이런 이유로 학력별로 교차 분석할 때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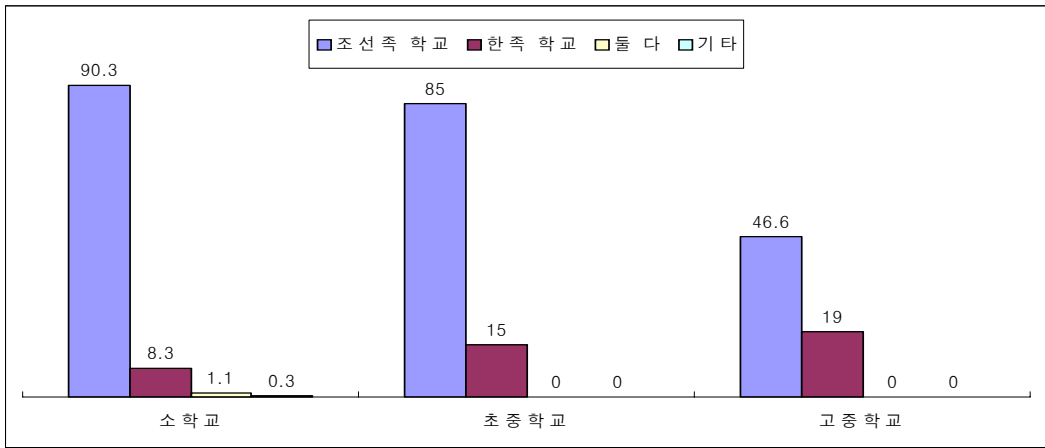
조선족 학교와 한족 학교 중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도 언어 선택과 사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조선족 학교를 다녔을 경우 조선말은 능숙하나 한족말은 능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한족 학교를 다녔을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⁴⁾ 조사 대상자들이 다닌 학교의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

구분	소학교		초중학교		고중학교	
	인원	유효 비율	인원	유효 비율	인원	유효 비율
조선족 학교	672	90.3	529	85.0	366	46.6
한족 학교	62	8.3	93	15.0	87	19.0
둘 다	8	1.1	0	0	0	0
기타	2	.3	0	0	4	.9
결측	41		163		41	

13) 그러나 대학 재학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재중 동포 전체의 학력 분포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를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및 대학원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14) 중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는 한족 학교를 다녀 한족말이 더 익숙한 경우에도 조선말을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젊은층의 경우는 한족 학교에 다닌 경우나 한족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조선말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 출신 학교별 조사 대상자 비율

학교의 종류를 살펴보면 급이 높아질수록 한족 학교에 다닌 비중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급 학교일수록 조선족 학교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대학 진학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한족 학교가 유리하기 때문에 한족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살아가려면 한족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한족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중 동포들은 ‘조선족은 조선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한족 학교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1.2.2. 조사 대상자의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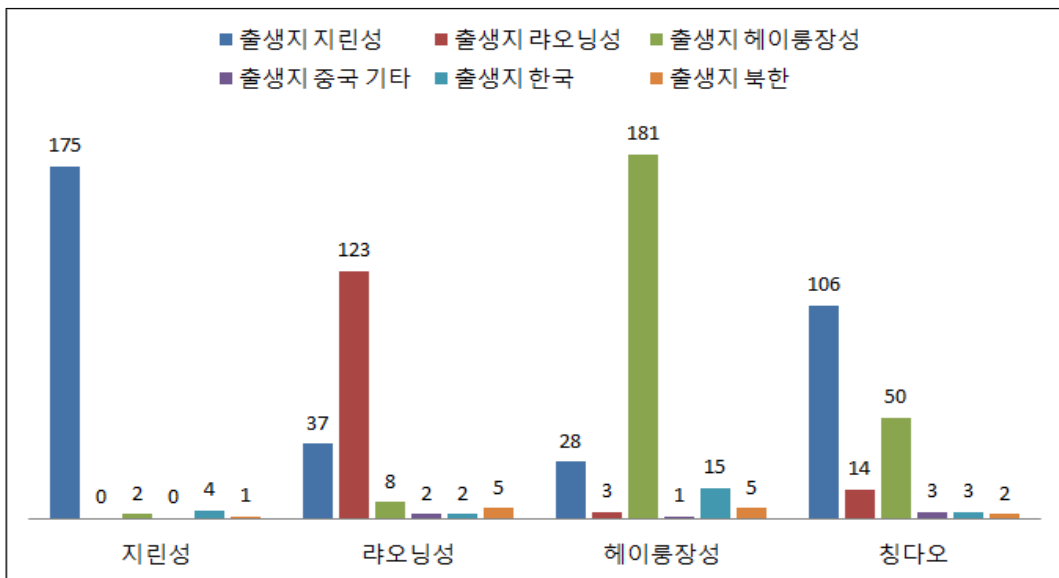
[지역과 출생지]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요 변인별로 교차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들이 출생 이후 언어 습득 시기가 지난 뒤에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출생지의 언어를 간직하거나 출생지의 언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별로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를 조사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조사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

조사 지역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중국 기타	한국	북한	전체
지린성	175	0	2	0	4	1	182
랴오닝성	37	123	8	2	2	5	177
헤이룽장성	28	3	181	1	15	5	233
칭다오	106	14	50	3	3	2	178
전체	346	140	241	6	24	13	770

칭다오(靑島)를 제외한 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지린성(吉林省)은 지린성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이 그 뒤를 이어 조사 대상자의 자기 지역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칭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 지역,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지역에서 출생해 이주해 온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칭다오 지역의 재중 동포는 단일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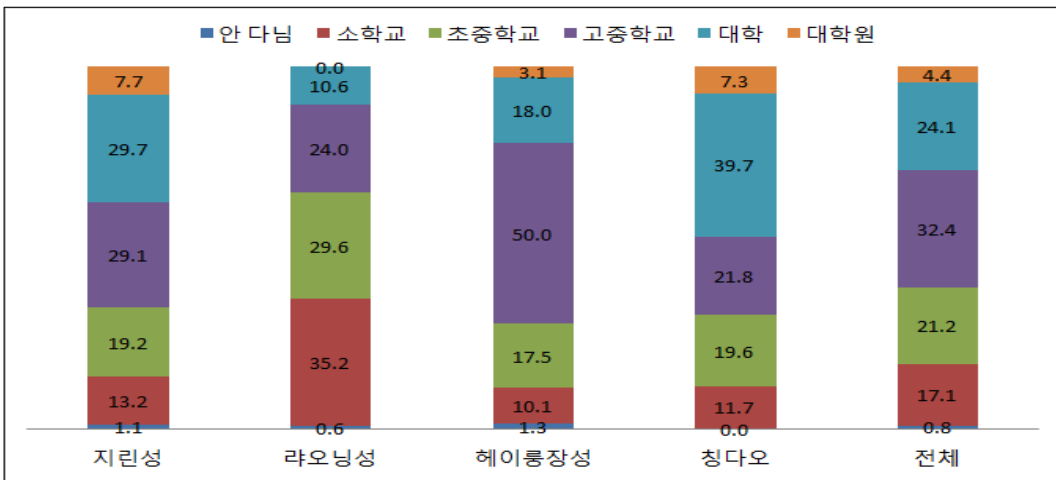
[지역과 학력]

학력은 조선말이나 한족말 등 언어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별로 학력을 교차 분석하였다.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빈도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지역	안 다님	소학교	초중학교	고중학교	대학	대학원	전체
지린성	2	24	35	53	54	14	182
랴오닝성	1	63	53	43	19	0	179
헤이룽장성	3	23	40	114	41	7	228
칭다오	0	21	35	39	71	13	179
전체	6	131	163	249	185	34	768

위의 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칭다오(靑島) 지역 재중 동포의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靑島) 지역의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는 고학력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전통 집거지를 떠나 신흥 집거지로 이주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비해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고중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지역과 학교 종류]

일반적으로 상위 집단 속의 하위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출신 학교의 종류는 제1언어로 사용할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중 언어 사용자의 경우 언어 구사가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출신 학교의 종류는 제1언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 지역별로 학교 급별에 따라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 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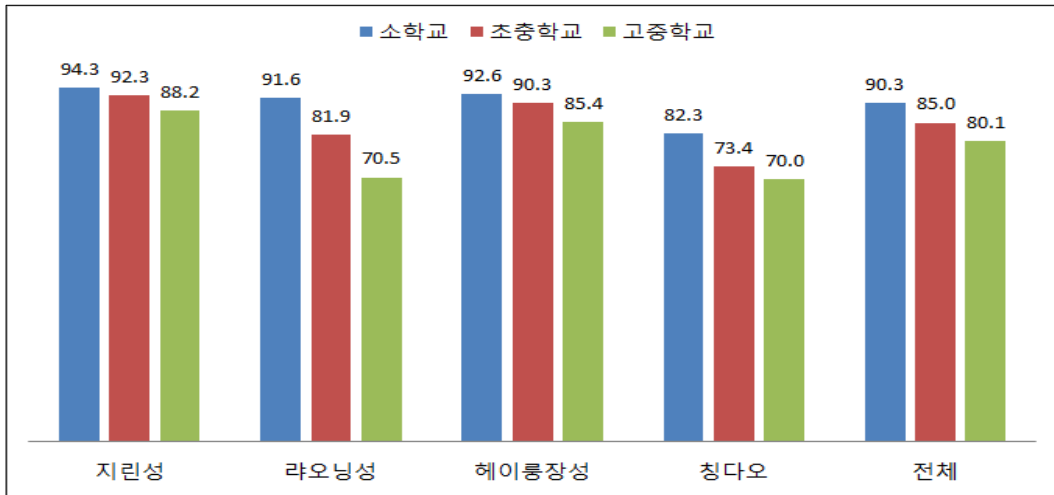
지역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지린성	166	7	2	1	176
랴오닝성	163	13	2	0	178
헤이룽장성	199	13	2	1	215
칭다오	144	29	2	0	175
전체	672	62	8	2	744

<표 21>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 초중학교

지역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지린성	144	12	0	0	156
랴오닝성	95	21	0	0	116
헤이룽장성	177	19	0	0	196
칭다오	113	41	0	0	154
전체	529	93	0	0	622

<표 22>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 - 고등학교

지역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지린성	105	13	0	1	119
랴오닝성	43	17	0	1	61
헤이룽장성	134	21	0	2	157
칭다오	84	36	0	0	120
전체	366	87	0	4	457



<그림 8> 지역별 조선족 학교 출신의 비율

위의 표를 통하여 네 지역의 조사 대상자 모두 조선족 학교 출신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칭다오(靑島)는 조선족 학교를 나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지린성(吉林省) 지역에서는 한족 소학교나 한족 초중학교에 다닌 비율이 가장 낮은 데 반해 칭다오(靑島)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족 소학교나 한족 초중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칭다오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족 학교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족 학교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에 조선족 학교가 소학교 하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외교통상부 재외 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칭다오의 조선족 인구는 13만 4400여명에 이른다.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닌 나이가 든 세대들은 대부분 조선족 학교를 다녔지만 나이가 든 세대를 따라 칭다오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은 한족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더 능숙한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과 언어 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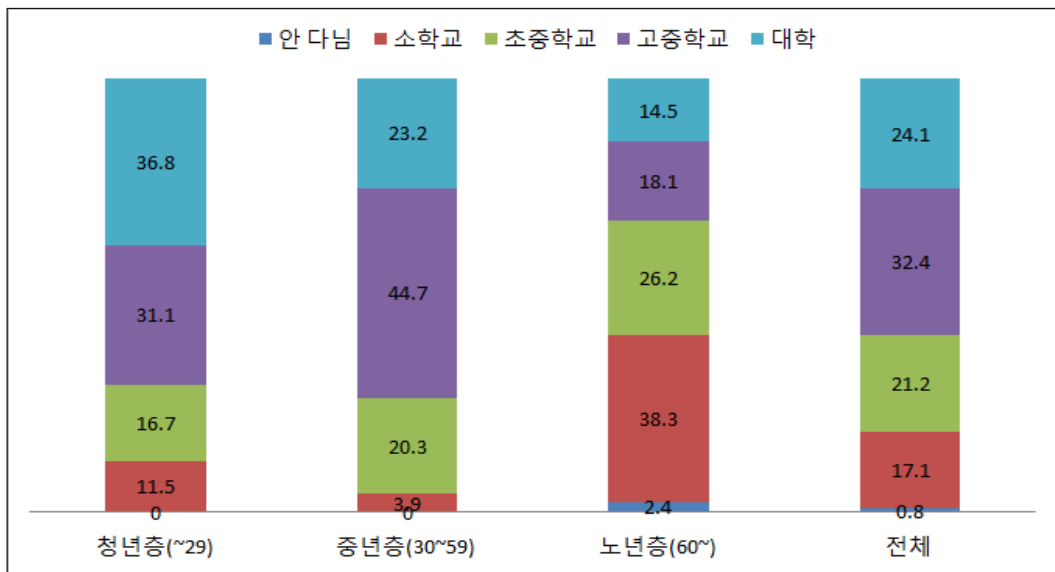
위의 <표 19>~<표 22>를 비교해 보면 학교급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중 동포들이 중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한족말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과 학력]

연령별로 학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연령	안 다 님	소 학 교	초 중 학 교	고 중 학 교	대 학	대 학 원	전 체
청년층(~29)	0	24	35	65	77	8	209
중년층(30~59)	0	12	63	139	72	25	311
노년층(60~)	6	95	65	45	36	1	248
전체	6	131	163	249	185	34	768



<그림 9>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비율

재중 동포 사회의 연령층별 학력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일수록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세대의 학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력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조선말 사용 능력도 높아지느냐 하는 점이다. 조선족 학교에 다녔을 경우 학력과 조선말 사

용 능력은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지만 한족 학교에 다녔을 경우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조선말 사용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의 학력과 출신 학교의 종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과 학교 종류]

연령별로 출신 학교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 연령별 출신 학교의 종류 - 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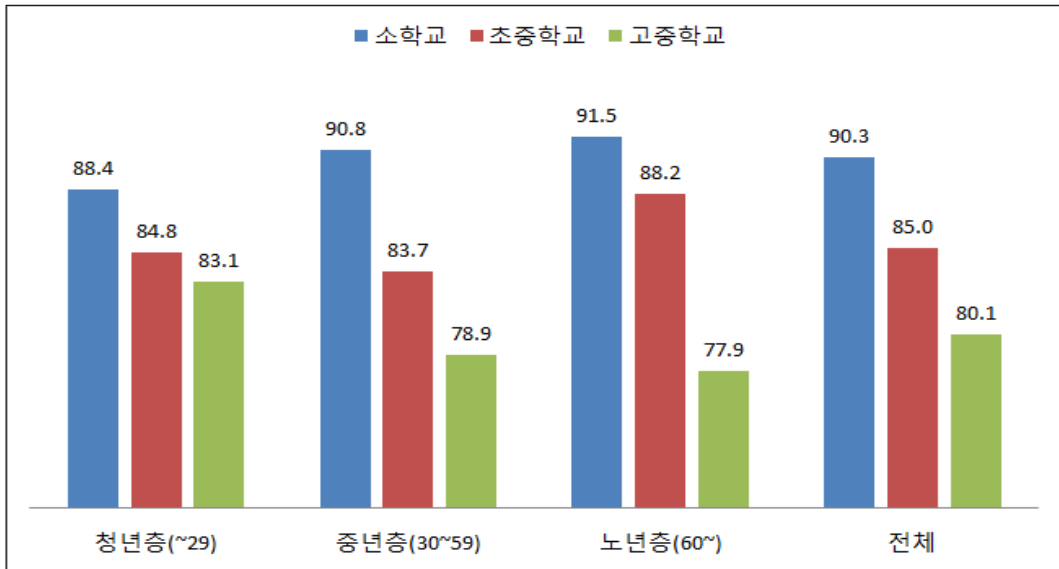
연령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청년층(~29)	183	20	4	0	207
중년층(30~59)	275	26	2	0	303
노년층(60~)	214	16	2	2	234
전체	672	62	8	2	744

<표 25> 연령별 출신 학교의 종류 - 초중학교

연령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청년층(~29)	156	28	4	0	184
중년층(30~59)	246	48	2	0	294
노년층(60~)	127	17	2	2	144
전체	529	93	8	2	622

<표 26> 연령별 출신 학교의 종류 - 고등학교

연령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청년층(~29)	123	25	0	0	148
중년층(30~59)	183	45	0	4	232
노년층(60~)	60	17	0	0	77
전체	366	87	0	4	457



<그림 10> 연령별 조선족 학교 출신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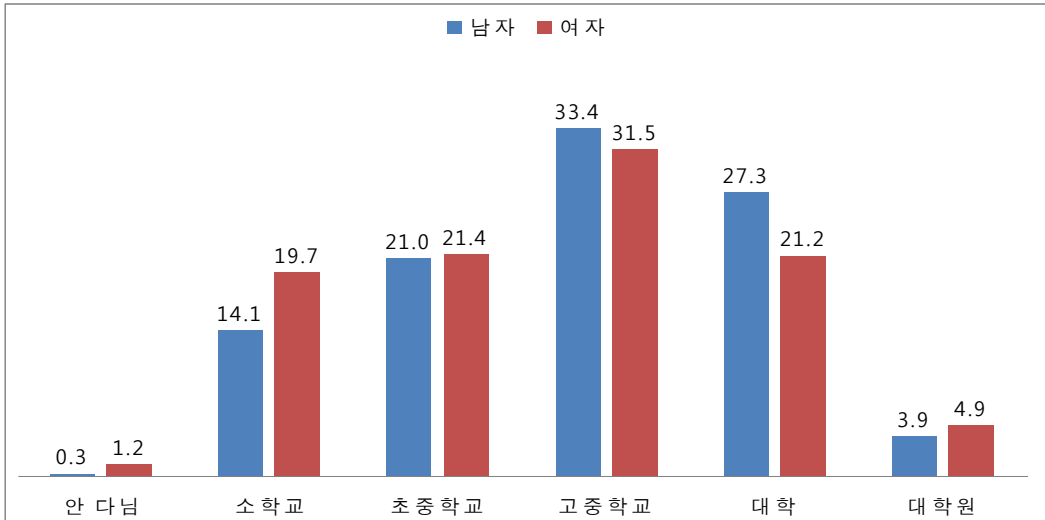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조선족 학교 출신 비율이 줄어들고 한족 학교 출신 비율이 늘어난다. 이는 조선족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와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한족 학교를 선호하는 추세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인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로 조선족 학교가 없어져 젊은층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족 학교에 다니게 된 것과 젊은 세대 부모들이 중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족말을 배우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성별과 학력]

성별에 따라 학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성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성별	안 다님	소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전체
남자	1	51	76	121	99	14	362
여자	5	80	87	128	86	30	406
전체	6	131	163	249	185	34	768



<그림 11> 성별 조사 대상자의 학력 비율

위의 <표 27>과 <그림 11>을 보면 재중 동포들의 학력은 성별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학교를 안 다닌 경우나 소학교 출신과 같이 낮은 학력의 비율은 여자가 높고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높은 학력의 비율은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 재중 동포들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계층이 그 사회의 지도층이고 이들이 언어 변화의 주도층이라는 점에서 보면 재중 동포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언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자들이 무엇에 의해 언어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다음의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성별과 학교 종류]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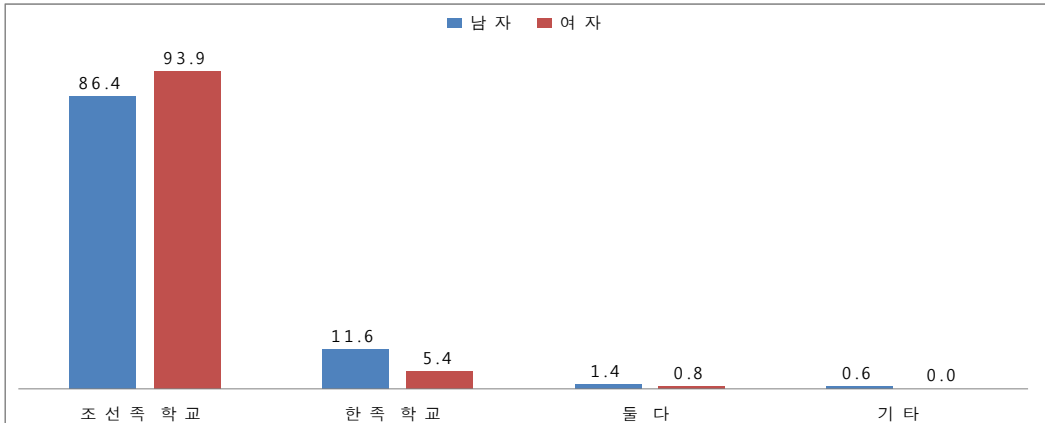
성별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남자	305	41	5	2	353
여자	367	21	3	0	391
전체	672	62	8	2	744

<표 29>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초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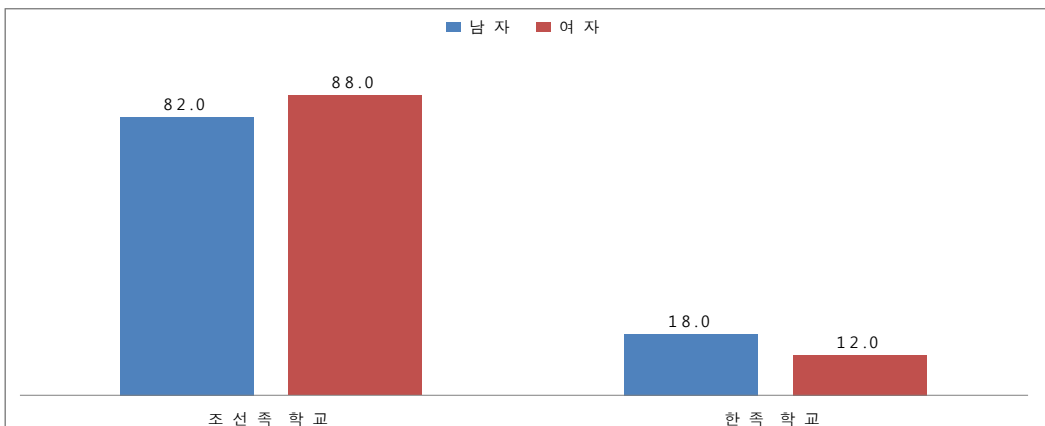
성별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남자	250	55	0	0	305
여자	279	38	0	0	317
전체	529	93	0	0	622

<표 30>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고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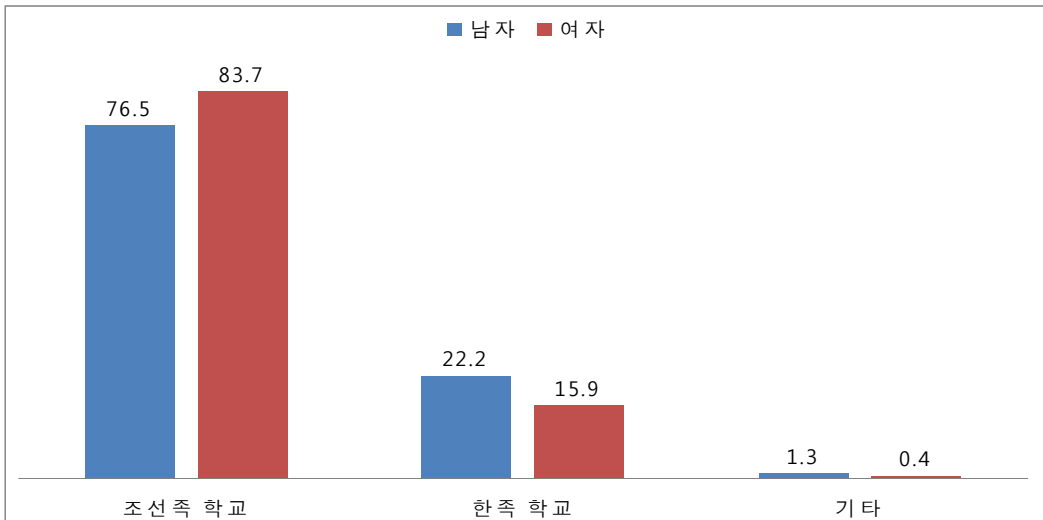
성별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둘 다	기타	전체
남자	176	51	0	3	230
여자	190	36	0	1	227
전체	366	87	0	4	457



<그림 12>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소학교



<그림 13>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초중학교



<그림 14> 성별과 출신 학교의 종류 - 고등학교

위의 <표 28>~<표 30>과 <그림 12>~<그림 14>를 통해서 성별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출신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학교 급별에 무관하게 조선족 학교에 다닌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반면에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은 반대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중 동포 사회의 상위 집단인 중국 사회에서 여성에 비해 남자가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의 언어가 한족말에 빨리 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1.2.3. 조사 대상자의 기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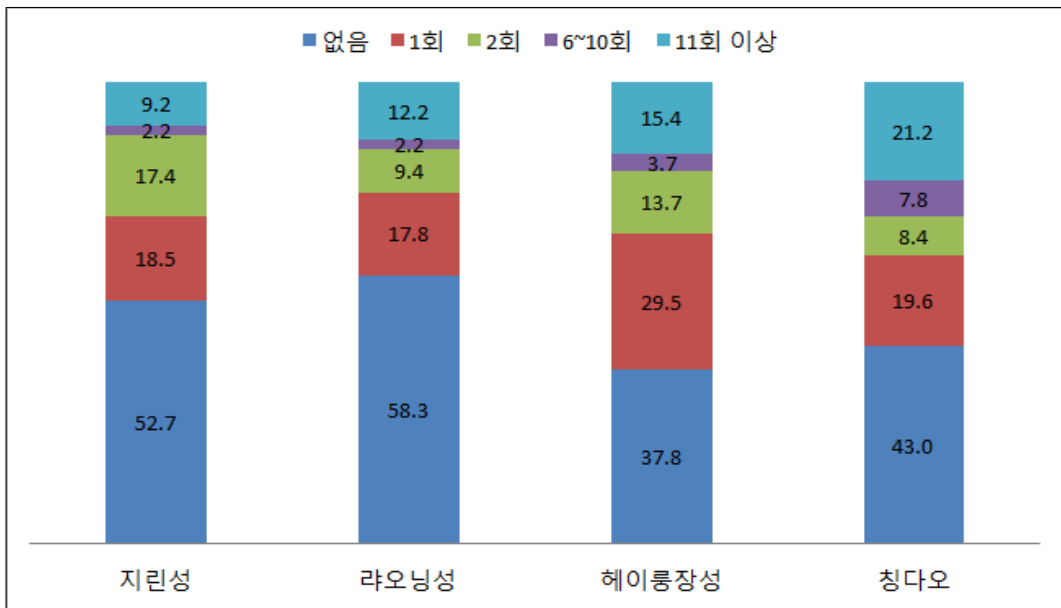
언어 접촉도 재중 동포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람 및 한국말과의 접촉은 이들의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을 통해 재중 동포가 한국 사람 및 한국말과 어느 정도로 접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데 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젊은 세대가 대상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1회 방문자와 11회 이상 방문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 방문 경험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방문 횟수

지역	없음	1회	2회	6~10회	11회 이상	전체
지린성	97	34	32	4	17	184
랴오닝성	105	32	17	4	22	180
헤이룽장성	91	71	33	9	37	241
칭다오	77	35	15	14	38	179
전체	370	172	97	31	114	784



<그림 15>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방문 비율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방문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칭다오(靑島)이고 그 다음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이다. 칭다오가 한국과 문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중 동포들의 신흥 집거지가 된 것을 감안하면 칭다오 지역의 한국 방문 경험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룽장성 거주자들의 한국 방문 경험이 많은 것은 헤이룽장성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상당수가 남한 지역에서 이주해 간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지린성 거주자들이 함경도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고 랴오닝성(遼寧省) 거주자들은 평안도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아 칭다오나 헤이룽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연고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 인구수를 고려하면 지린성 지역 동포들의 한국 방문 총 횟수가 많겠지만 방문 비율로 볼 때는 <표 32>와 <그림 15>에서 보듯이 칭다오와 헤이룽장성 지역 동포들의 한국 방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랴오닝성 거주자들과 지린성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체류 기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 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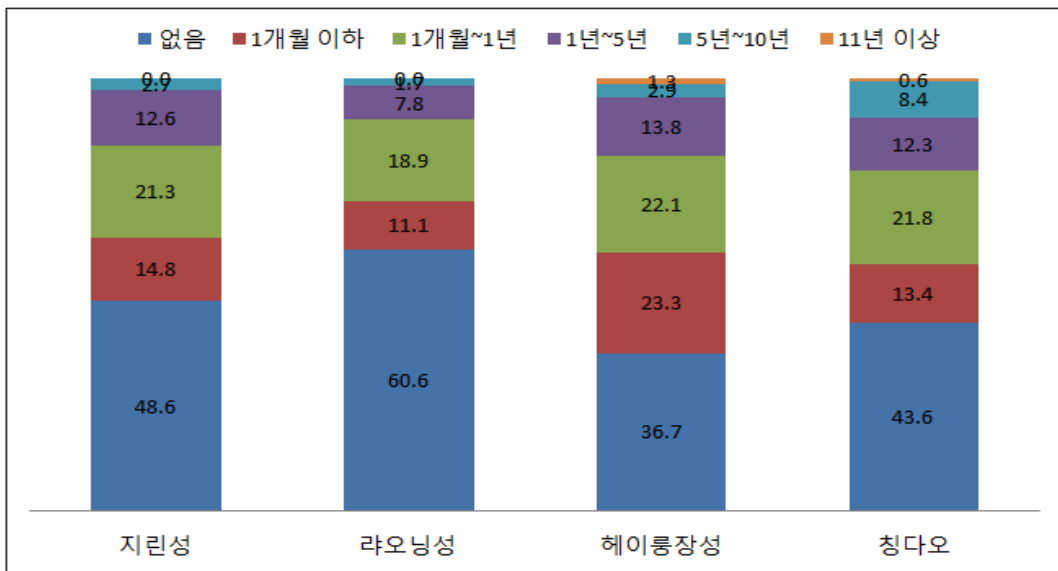
<표 33> 조사 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

체류 기간	인원	유효 비율
없음	364	46.5
1개월 이하	127	16.2
1개월~1년	165	21.1
1년~5년	92	11.8
5년~10년	30	3.8
11년 이상	4	.5
전체	782	
결측	3	

조사 지역별로 한국 체류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

지역	없음	1개월 이하	1개월~1년	1년~5년	5년~10년	11년 이상	전체
지린성	89	27	39	23	5	0	183
랴오닝성	109	20	34	14	3	0	180
헤이룽장성	88	56	53	33	7	3	240
칭다오	78	24	39	22	15	1	179
전체	364	127	165	92	30	4	782



<그림 16>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체류 기간 비율

한국 체류 기간 역시 칭다오(靑島) 지역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방문 횟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양상 역시 칭다오와 헤이룽장성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칭다오 지역은 한국과의 문화 경제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이고 헤이룽장성 지역은 한국에서 이주한 동포들이 많아 한국과의 연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방문 횟수가 많고 체류 기간이 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텔레비전 시청 시간]

위성 방송은 재중 동포들의 언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의 말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됨에 따라 언어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시간을 조사했는데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루에 한국 뎀스(TV)는 대략 몇 시간 정도 보십니까?

<표 35>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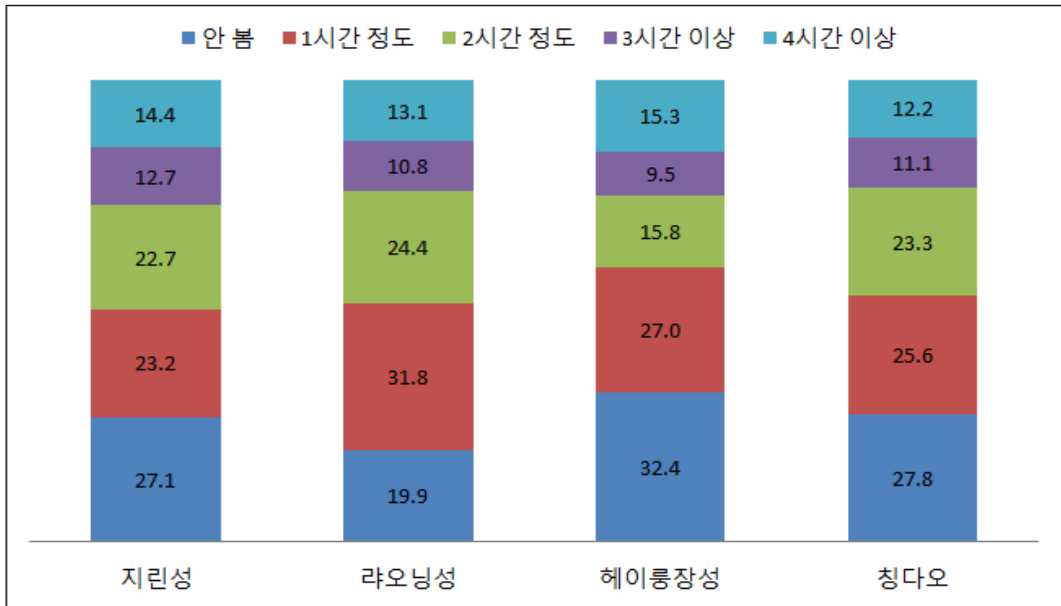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 시간	인원	유효 비율
안 봄	206	27.1
1시간 정도	204	26.9
2시간 정도	161	21.2
3시간 이상	83	10.9
4시간 이상	105	13.8
전체	759	
결측	26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지 않는 비율이 27.1%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한국 텔레비전 방송이 재중 동포들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 시간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지역	안 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전체
지린성	49	42	41	23	26	181
랴오닝성	35	56	43	19	23	176
헤이룽장성	72	60	35	21	34	222
칭다오	50	46	42	20	22	180
전체	206	204	161	83	105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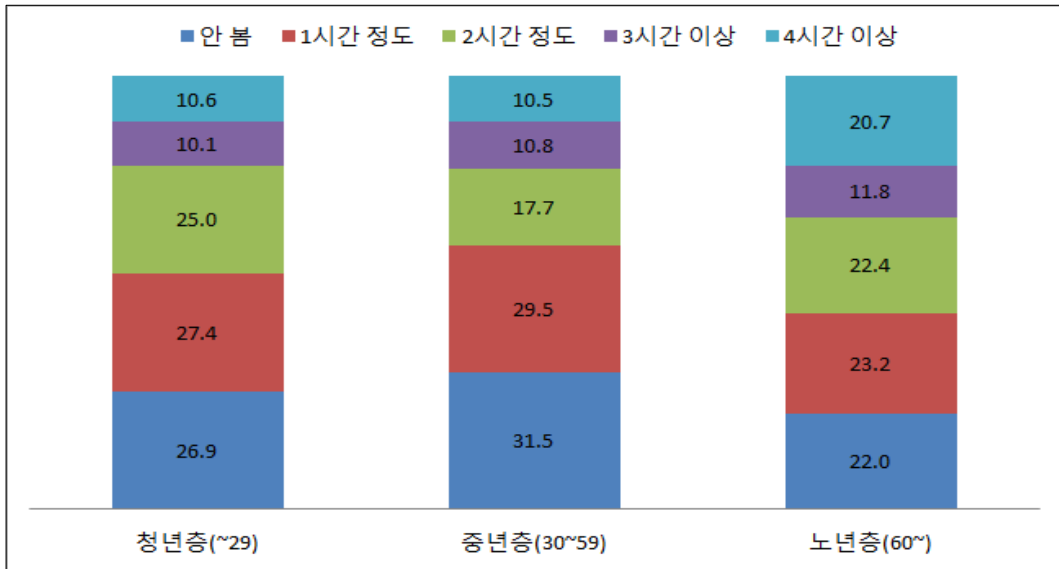
<그림 17>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비율

전체적으로 보면 랴오닝성(遼寧省) 거주자들이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오래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 시간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7>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시청 시간

연령	안 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전체
청년층(~29)	56	57	52	21	22	208
중년층(30~59)	96	90	54	33	32	305
노년층(60~)	54	57	55	29	51	246
전체	206	204	161	83	105	759



<그림 18>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한국 TV 방송 시청 시간 비율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세대는 노년층이다. 노년층 세대가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은퇴하였거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많이 시청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노년층의 경우 한쪽말 능력이 부족해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알아듣기에도 쉽고 흥미로운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노년층 세대의 상당수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중국 텔레비전 방송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 한국 방송을 많이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 프로그램]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상대로 영화(드라마)의 시청 비율이 매우 높다.¹⁵⁾

<표 38> 한국 TV 방송 시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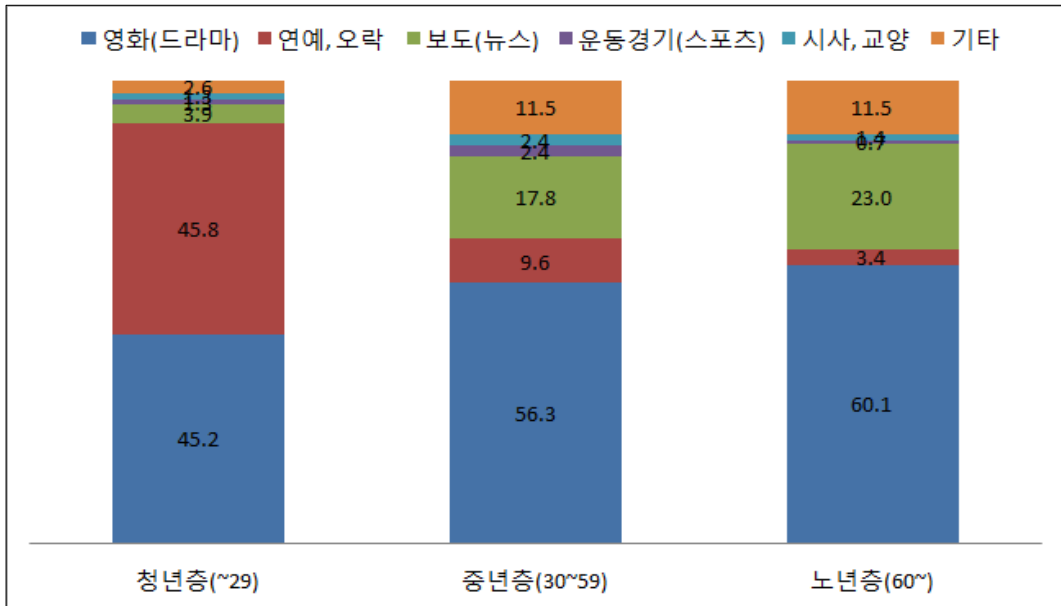
프로그램	인원	유효 비율
영화(드라마)	276	54.0
연예, 오락	96	18.8
보도(뉴스)	77	15.1
운동 경기(스포츠)	8	1.6
시사, 교양	9	1.8
기타	45	8.8
전체	511	
결측	274	

한국 텔레비전 시청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9> 연령별 한국 TV 시청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연예, 오락	보도 (뉴스)	운동 경기 (스포츠)	시사, 교양	기타	전체
청년층(~29)	70	71	6	2	2	4	155
중년층(30~59)	117	20	37	5	5	24	208
노년층(60~)	89	5	34	1	2	17	148
전체	276	96	77	8	9	45	511

15) 재중 동포들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드라마를 영화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층에서는 드라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9> 연령별 한국 TV 방송 시청 프로그램 비율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년층은 연예, 오락 분야를 많이 시청하는 반면 중년층 이상은 영화(드라마)와 보도(뉴스)를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년층 이상은 소일과 흥미를 위해 영화(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 보도(뉴스)에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비해 청년층에서는 흥미로운 영화(드라마)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급변하는 한국어의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제 2 장

재중 동포의 언어 인식과 태도

2.1.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모국어 또는 제1언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23. 귀하의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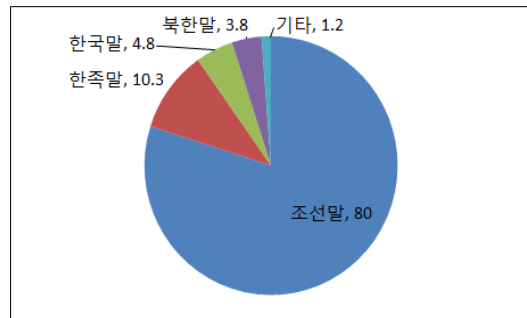
① (중국)조선말 ② 한국말 ③ 북조선말 ④ 한족말 ⑤ 기타()

[기본 분석]

재중 동포 응답자 스스로가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0> 모국어 인식

모국어	인원	유효 비율
조선말	615	80.0
한족말	79	10.3
한국말	37	4.8
북한말	29	3.8
기타	9	1.2
전체	769	
결측	16	



<그림 20> 모국어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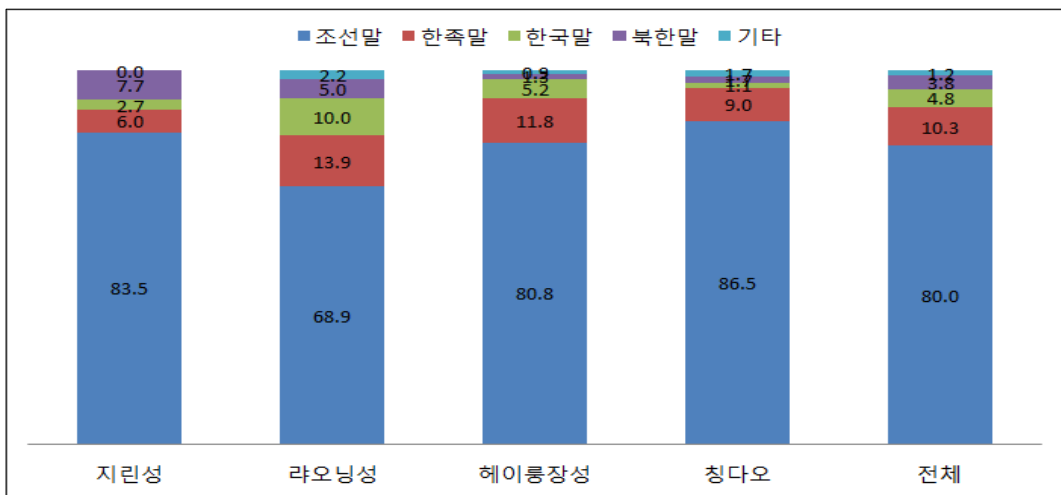
스스로 생각하는 모국어는 예상대로 조선말이라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다음은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순이다. 한국말을 모국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남짓 되는 것은 조선족들이 그만큼 한화(漢化)되어 가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재중 동포 사회의 언어 사용과 관련지어 볼 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말을 모국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본래 남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노년층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한국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말이 모국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북한말을 모국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원 고향이 북한 지역인 노년층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석]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모국어 인식 - 지역별

지역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지린성	152	11	5	14	0	182
랴오닝성	124	25	18	9	4	180
헤이룽장성	185	27	12	3	2	229
칭다오	154	16	2	3	3	178
전체	615	79	37	29	9	769



<그림 21> 모국어 인식 비율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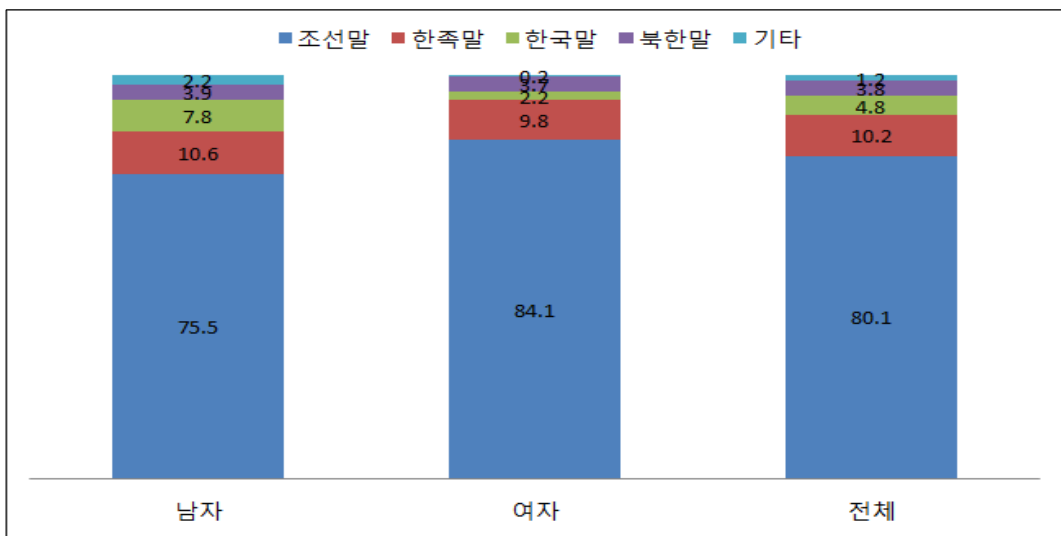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특징적인 지역은 랴오닝성(遼寧省)이다. 랴오닝성은 조선말의 비율이 낮고 한족말의 비율이 높다. 또한 한국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나머지 지역은 조선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집거지인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조선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칭다오(靑島)에서 조선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칭다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중 동포들이 집결한 곳이기 는 하지만 앞의 <표 18>에서 보았듯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출신자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위의 <표 41>과 <그림 21>에서 보듯이 조선말을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재중 동포들의 비율이 높은 곳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지역이기 때문이다.

[성별 분석]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모국어 인식 - 성별

성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남자	271	38	28	14	8	359
여자	343	40	9	15	1	408
전체	614	78	37	29	9	767



<그림 22> 모국어 인식 비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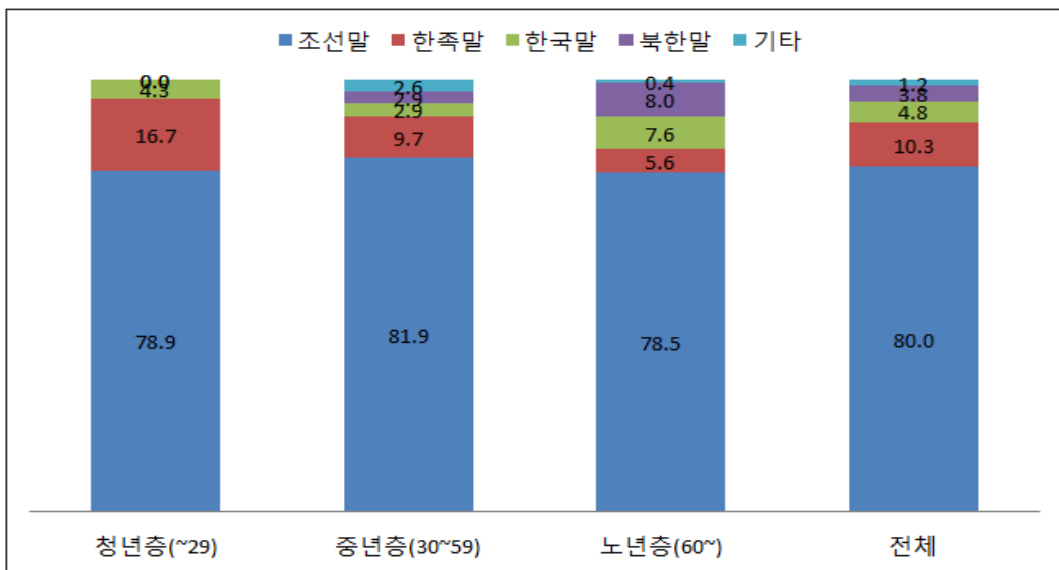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남자의 비율이 약 10% 정도 낮다. 그런데 이 차이는 한족말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한국말에 의한 차이이다. 남녀 모두 한족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비율은 비슷한데 남자들이 한국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들이 한국과 접촉하는 기회가 더 많거나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연령별 분석]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모국어 인식 - 연령별

연령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청년층(~29)	165	35	9	0	0	209
중년층(30~59)	253	30	9	9	8	309
노년층(60~)	197	14	19	20	1	251
전체	615	79	37	29	9	769



<그림 23> 모국어 인식 비율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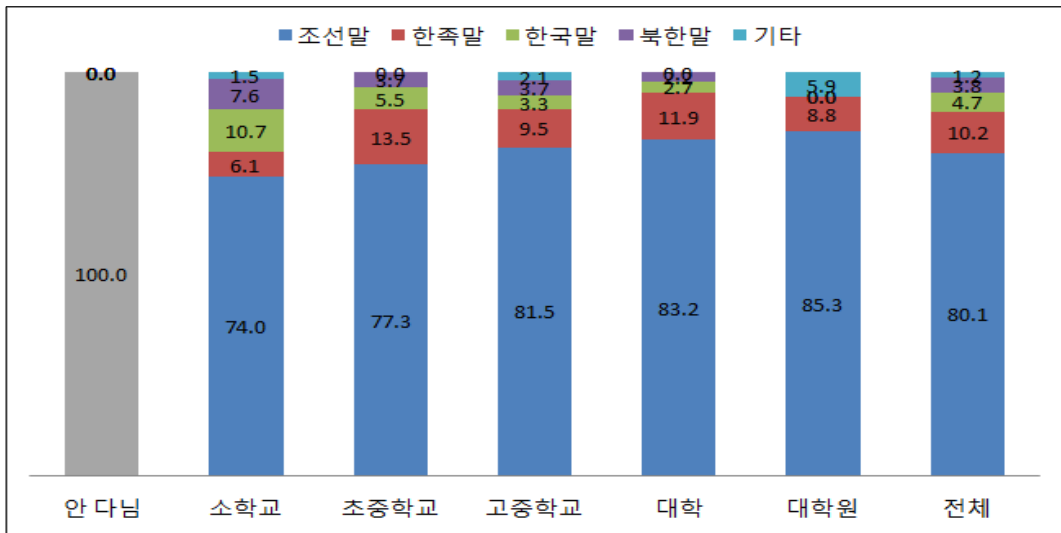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말을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족말 및 한국말의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나이가 어릴수록 한족말을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년층은 한국말 및 북한말을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꽤 높는데 이는 자신의 원 고향말을 모국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학력별 분석]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모국어 인식 - 학력별

학력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안 다님	6	0	0	0	0	6
소학교	97	8	14	10	2	131
초중학교	126	22	9	6	0	163
고중학교	198	23	8	9	5	243
대학	154	22	5	4	0	185
대학원	29	3	0	0	2	34
전체	610	78	36	29	9	762



<그림 24> 모국어 인식 비율 - 학력별

어떤 언어를 모국어라고 생각하는지 학력에 따라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조선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¹⁶⁾ 그리고 소학교까지 마친 응답자들 중에는 한국말과 북한말을 모국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으면 한족말을 모국어라고 여기는 비율도 상당 수 있지만 학력과 모국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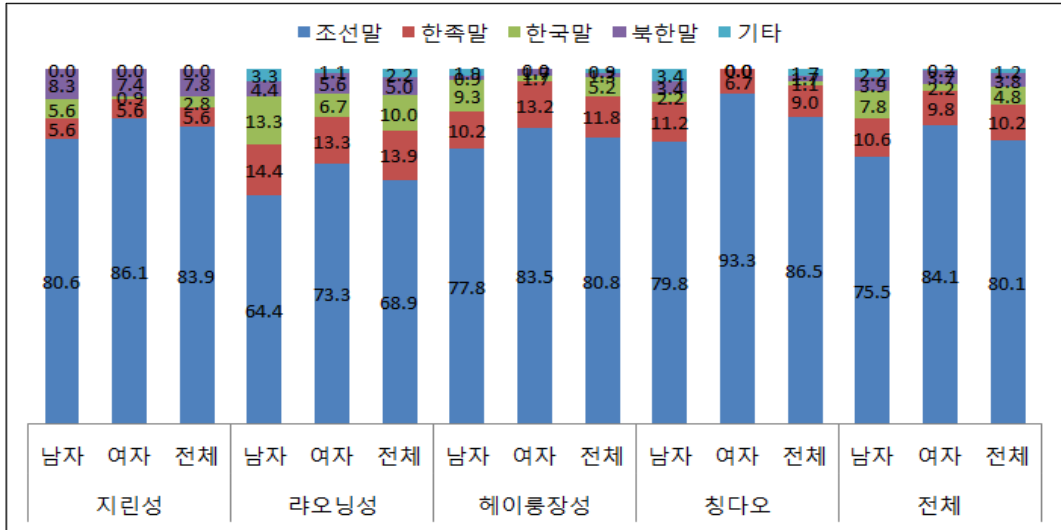
[지역별 세부 분석]

지역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모국어 인식 - 지역별/성별

지역	성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지린성	남자	58	4	4	6		72
	여자	93	6	1	8		108
	전체	151	10	5	14		180
랴오닝성	남자	58	13	12	4	3	90
	여자	66	12	6	5	1	90
	전체	124	25	18	9	4	180
헤이룽장성	남자	84	11	10	1	2	108
	여자	101	16	2	2	0	121
	전체	185	27	12	3	2	229
칭다오	남자	71	10	2	3	3	89
	여자	83	6	0	0	0	89
	전체	154	16	2	3	3	178
전체	남자	271	38	28	14	8	359
	여자	343	40	9	15	1	408
	전체	614	78	37	29	9	767

16)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응답자는 여섯 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응답자는 학력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5> 모국어 인식 비율 - 지역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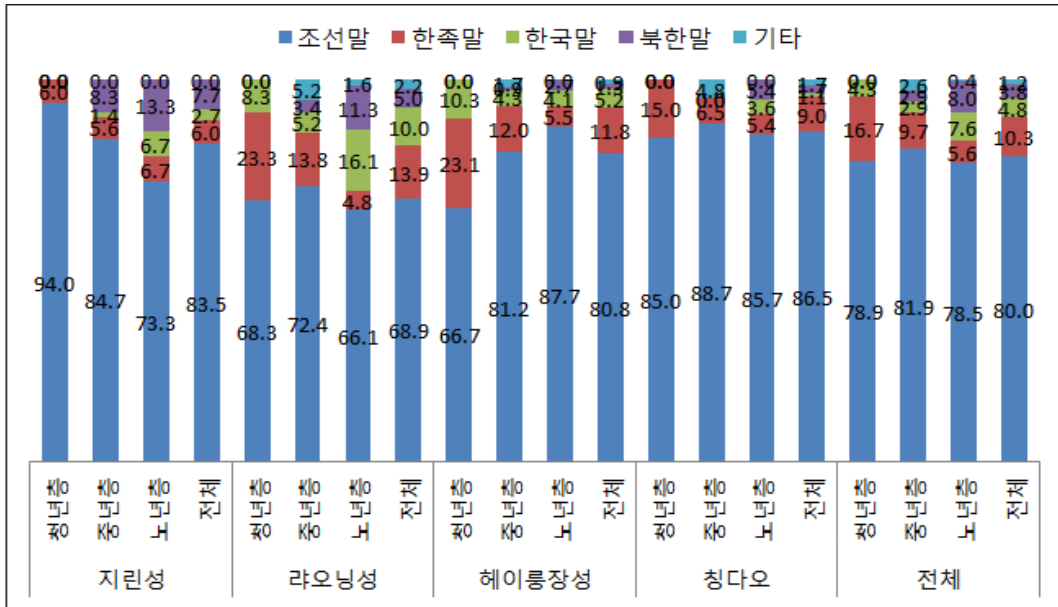
지역과 성별을 함께 고려해 모국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랴오닝성(遼寧省) 남자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조선말을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이에 비해 칭다오(靑島) 여자는 조선말을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모국어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나 성별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뚜렷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을 기준으로 연령을 세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모국어 인식 - 지역별/연령별

지역	연령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지린성	청년층(~29)	47	3	0	0	0	50
	중년층(30~59)	61	4	1	6	0	72
	노년층(60~)	44	4	4	8	0	60
	전체	152	11	5	14	0	182
랴오닝성	청년층(~29)	41	14	5	0	0	60
	중년층(30~59)	42	8	3	2	3	58
	노년층(60~)	41	3	10	7	1	62
	전체	124	25	18	9	4	180

지역	연령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기타	전체
헤이룽장성	청년층(~29)	26	9	4	0	0	39
	중년층(30~59)	95	14	5	1	2	117
	노년층(60~)	64	4	3	2	0	73
	전체	185	27	12	3	2	229
칭다오	청년층(~29)	51	9	0	0	0	60
	중년층(30~59)	55	4	0	0	3	62
	노년층(60~)	48	3	2	3	0	56
	전체	154	16	2	3	3	178
전체	청년층(~29)	165	35	9	0	0	209
	중년층(30~59)	253	30	9	9	8	309
	노년층(60~)	197	14	19	20	1	251
	전체	615	79	37	29	9	769



<그림 26> 모국어 인식 비율 - 지역별/연령별

지역과 연령을 함께 고려했을 때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은 지린성(吉林省)의 청년층과 랴오닝성(遼寧省)의 청년층 및 노년층이다. 지린성의 청년층은 조선

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랴오닝성의 청년층과 노년층은 조선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랴오닝성의 이 세대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랴오닝성의 노인층은 한국말을 모국어로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자신의 원 방언을 한국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2.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재중 동포들의 언어 능력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7, 18번 문항은 척도식 문항이고 32번 문항은 순위 기입식 문항이다. 따라서 척도식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분석하였고 순위 기입식 문항은 각 순위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질 문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17. 중국 조선족은 조선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중국 조선족도 한족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순위를 안에 써 주십시오.

질 문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32.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본 분석]

조선말 및 한족말 능력에 대한 의식의 전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7> 언어 능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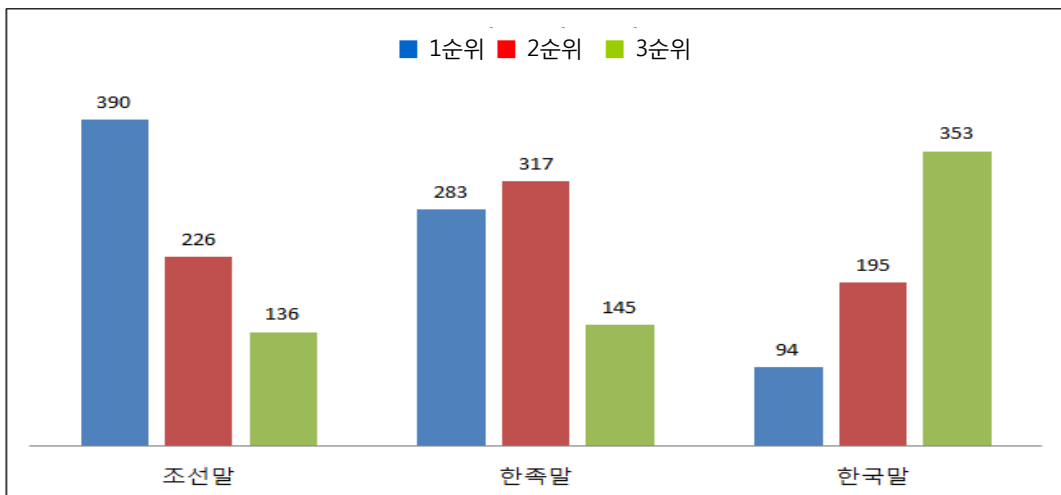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7. 조선말 능력	4.65	.761
18. 한족말 능력	4.70	.665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말 능력보다 한족말 능력이 필요하다는 쪽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며 표준 편차는 조선말 능력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둘 간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즉, 한족말 능력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 재중 동포들이 한족말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중 동포 대부분이 조선말은 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사회에서 살려면 한족말 능력도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에 대한 전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잘해야 할 우선순위 언어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조선말	390	226	136	752
한족말	283	317	145	745
한국말	94	195	353	642



<그림 27> 잘해야 할 1순위 언어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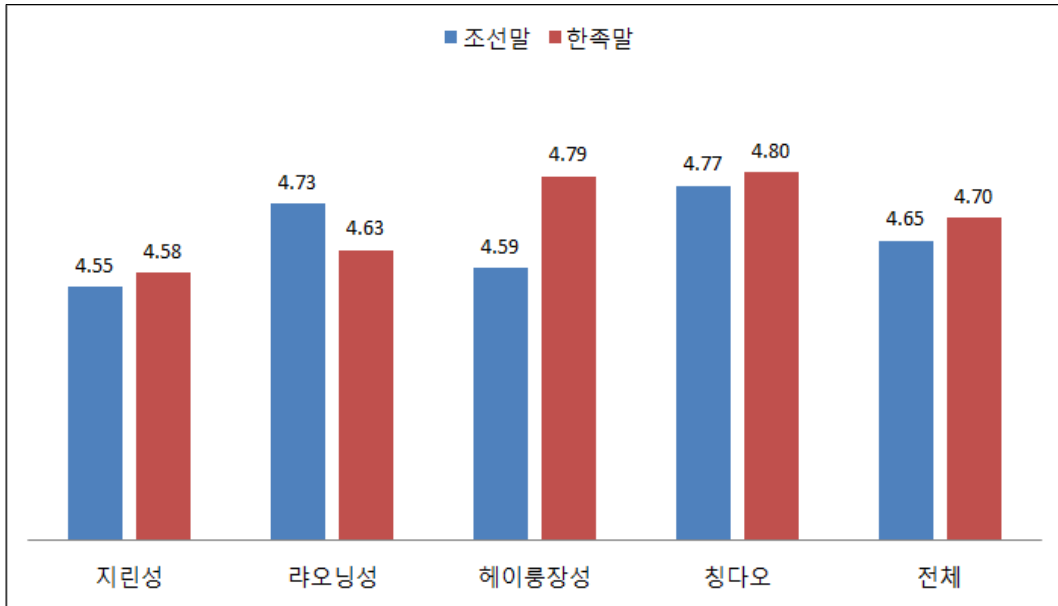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1순위는 조선말, 2순위는 한족말, 3순위는 한국말이다. 이는 재중 동포들이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강한 동시에 중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족말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국말은 아직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지역별 분석]

조선말 및 한족말 능력에 대한 의식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9>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지역별

구 분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칭다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선말 능력	4.55	0.87	4.73	0.61	4.59	0.82	4.77	0.69	4.65	0.76
한족말 능력	4.58	0.71	4.63	0.76	4.79	0.53	4.80	0.66	4.70	0.67



<그림 28>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지역별

조선말과 한족말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말 능력이든 한족말 능력이든 지린성(吉林省)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이 나타나고 칭다오(靑島)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집거지인 지린성에서는 언어의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 자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신흥 집거지인 칭다오는 언어 동질성이 약하고 한족말 또는 한국말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언어 능력에 민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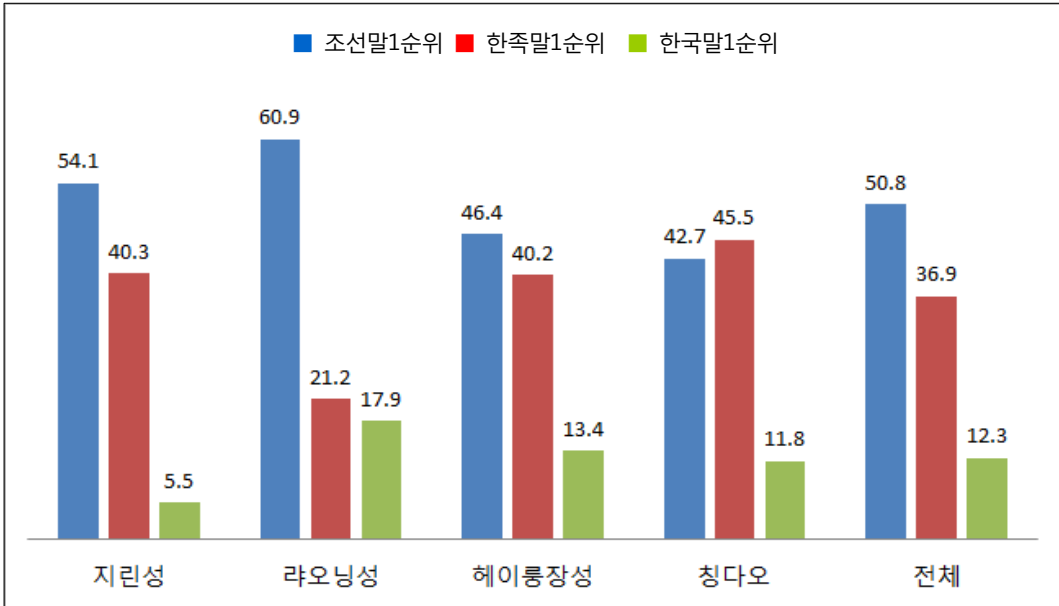
조선말과 한족말 두 가지 능력에 대한 인식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라오닝성(遼寧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 특징적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두 언어의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두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고 그 경향도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지역에서 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헤이룽장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한화(漢化)의 정도가 더 빨라 그만큼 한족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라오닝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북한과의 접촉이 많은 곳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⁷⁾

<표 50> 우선순위 언어 - 지역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98	59	24	73	89	19	10	33	118
라오닝성	112	40	28	39	85	56	33	53	72
헤이룽장성	104	75	35	90	74	42	30	52	67
칭다오	76	52	49	81	69	28	21	57	96
전체	390	226	136	283	317	145	94	195	353

17) 순위 기입식 설문은 1순위 언어만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이하 같음.



<그림 29> 잘해야 할 1순위 언어 -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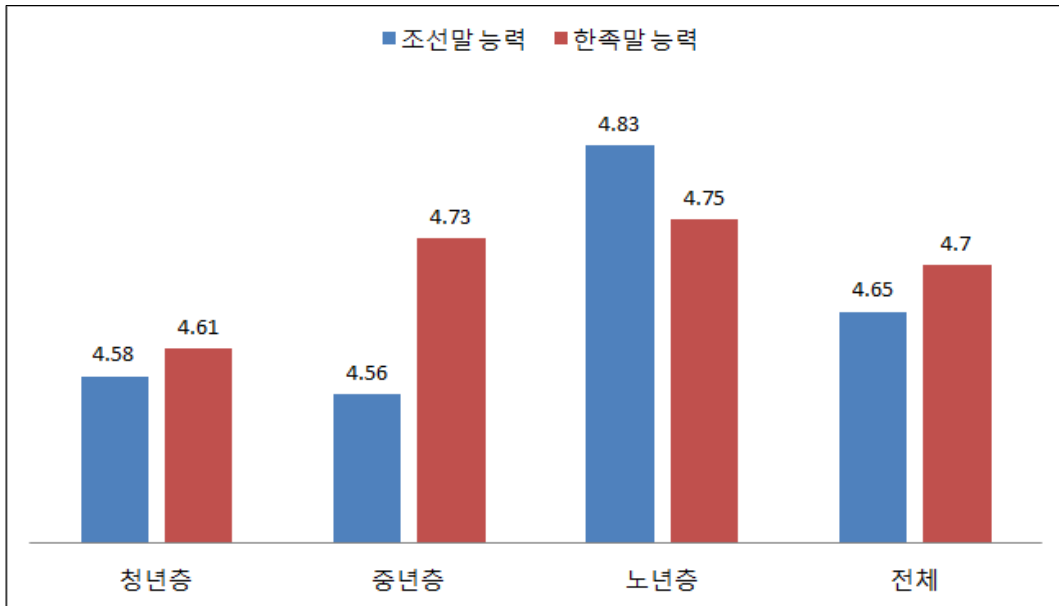
조선말을 제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랴오닝성(遼寧省)이 가장 높고 칭다오(靑島)가 가장 낮다. 한족말을 제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칭다오가 가장 높고 랴오닝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조선말을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과 한족말을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칭다오와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양자 간에 차이가 별로 없는데 랴오닝성에서는 매우 크고 지린성(吉林省)에서도 조금 크게 나타난다. 이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는 조선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칭다오가 한족말을 제일 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재중 동포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족들을 상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

조선말과 한족말 능력에 대한 의식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연령별

구 분	청년층(~29)		중년층(30~59)		노년층(60~)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선말 능력	4.58	0.799	4.56	0.85	4.83	0.559	4.65	0.761
한족말 능력	4.61	0.819	4.73	0.603	4.75	0.584	4.7	0.665



<그림 30> 언어 능력의 필요성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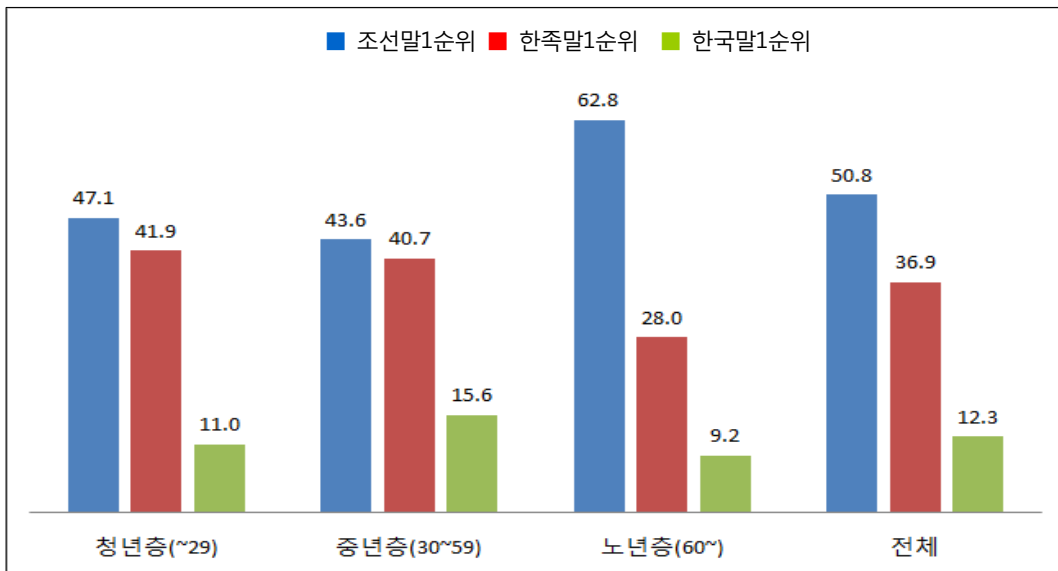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나이가 많은 연령층일수록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 상호 간의 관계를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보면 노년층에서는 조선말 능력에서 더 높은 값이 나타난다. 반면에 청년층과 중년층은 한족말 능력에서 더 높은 값이 나타나고 특히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값의 차이

및 경향만으로 한 쪽 언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중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족말 능력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우선순위 언어 - 연령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청년층	99	56	53	208	88	78	42	208	23	74	98	195
중년층	134	100	64	298	125	129	44	298	48	65	158	271
노년층	157	70	19	246	70	110	59	239	23	56	97	176
전체	390	226	136	752	283	317	145	745	94	195	353	642



<그림 31> 잘해야 할 1순위 언어 - 연령별 비율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볼 때 노년층에서 조선말을 제일 잘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년층과 청년층은 한족말을 제일 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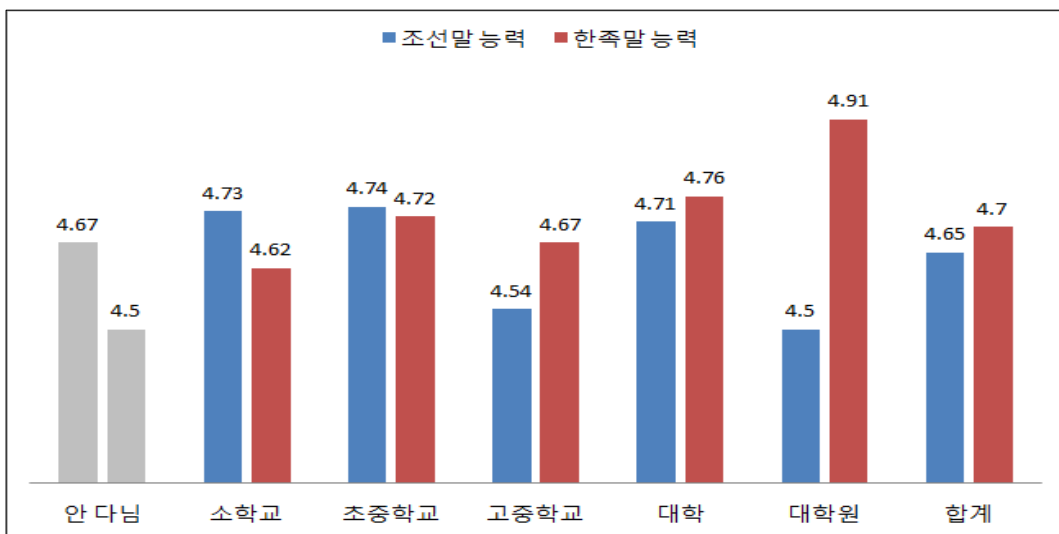
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 노년층일수록 조선말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년층에서는 이러한 예상을 벗어나 있다. 중년층과 청년층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세대이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 한족말의 중요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한족말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 분석]

조선말과 한족말 능력에 대한 의식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언어 능력의 필요성 - 학력별

구 분	안 다님	소학교	초중학교	고중학교	대학	대학원	합계
조선말 능력	4.67	4.73	4.74	4.54	4.71	4.50	4.65
한족말 능력	4.50	4.62	4.72	4.67	4.76	4.91	4.70



<그림 32> 언어 능력의 필요성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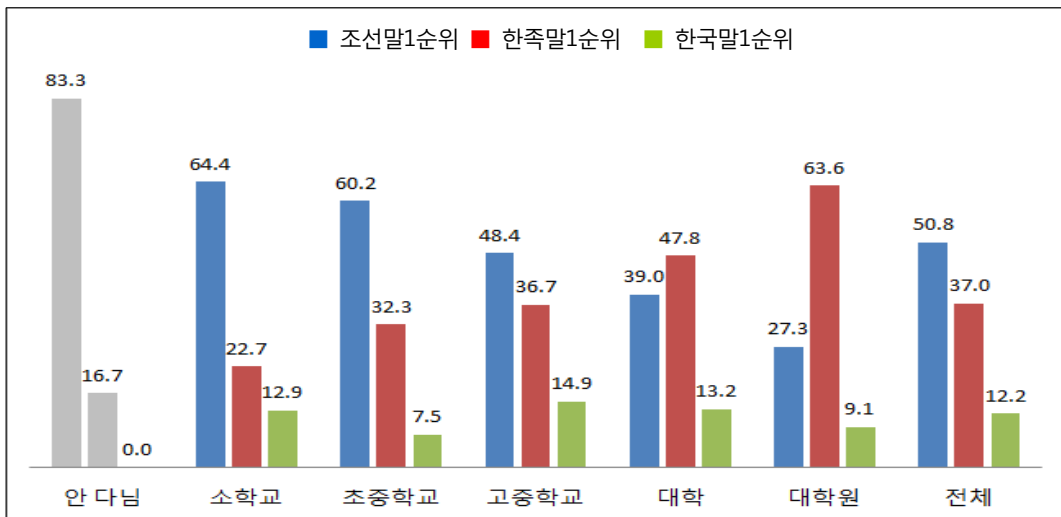
조선말 및 한족말 능력에 대한 의식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한족말에 대한 능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 이상에서는 한족말 능력에 대한 값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사회에

서 고학력 집단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족말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원 이상에서는 조선말 능력보다 한족말 능력 쪽이 훨씬 더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 또한 고학력 집단의 활동 영역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를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4> 학력별 우선순위 언어에 대한 인식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안 다님	5	1	0	6	1	2	3	6	0	3	2	5
소학교	85	35	11	131	30	57	41	128	17	35	49	101
초중학교	97	44	18	159	52	70	36	158	12	42	76	130
고등학교	120	72	46	238	91	106	41	238	37	57	110	204
대학	71	62	47	180	87	70	22	179	24	46	98	168
대학원	9	10	14	33	21	11	1	33	3	12	17	32
전체	387	224	136	747	282	316	144	742	93	195	352	640



<그림 33> 잘해야 할 1순위 언어 - 학력별 비율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말을 잘해야 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조선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학력이 높을수록 중국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족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3.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24. 중국에서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②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③ 점점 한국어말로 바뀔 것이다 ④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순위를 안에 써 주십시오.

33. 자녀나 손자 손녀가 중국에서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34.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조선족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로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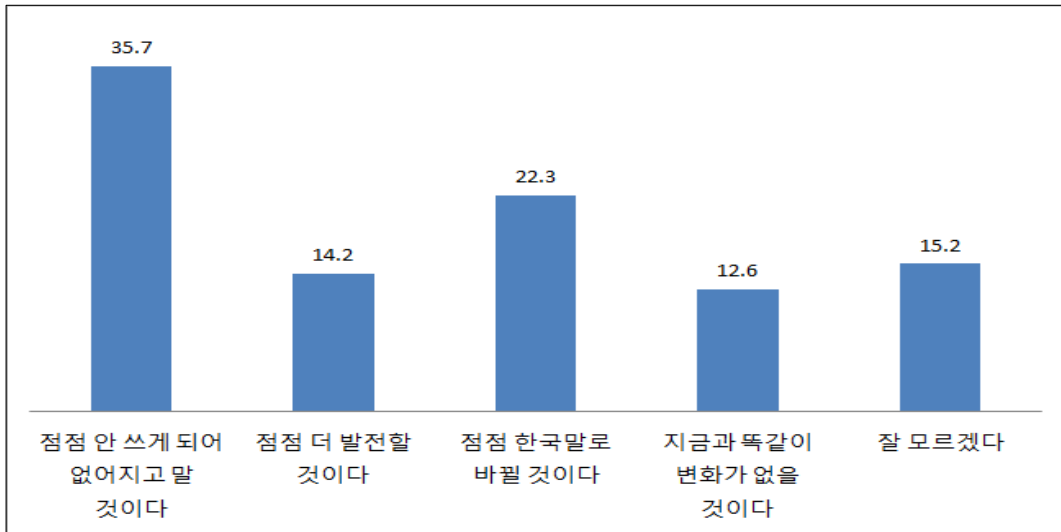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기본 분석]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응답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 조선말의 장래

조선말의 장래	빈도	유효 비율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271	35.7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108	14.2
점점 한국어말로 바뀔 것이다	169	22.3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96	12.6
잘 모르겠다	115	15.2
전 체	759	
결 측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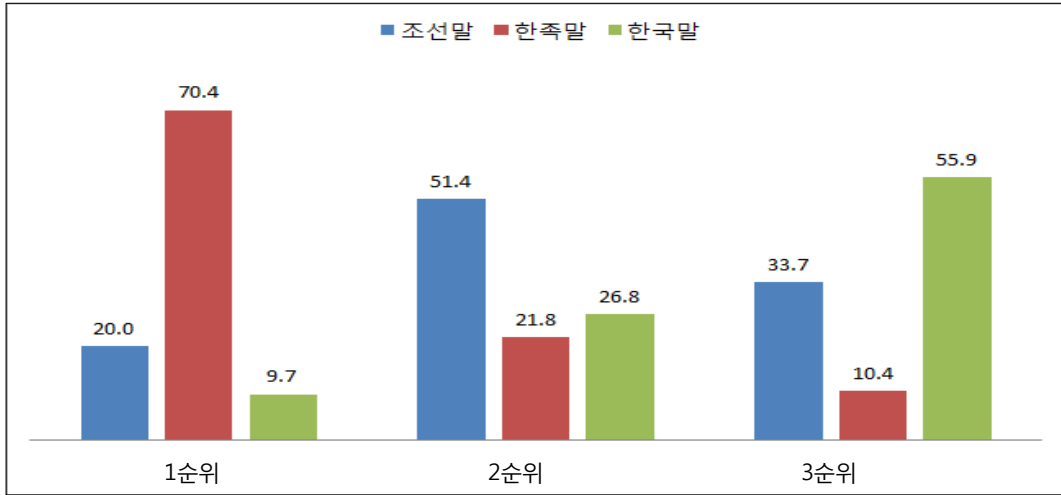
<그림 34> 조선말의 장래 - 비율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 응답과 부정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더 발전한다거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26.8%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말로 대치되는 것도 크게 봐서는 큰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응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선말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49.1%로서 반 정도 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조선말의 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조선말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응답 또한 반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후손 및 미래의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게 될 말의 순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6>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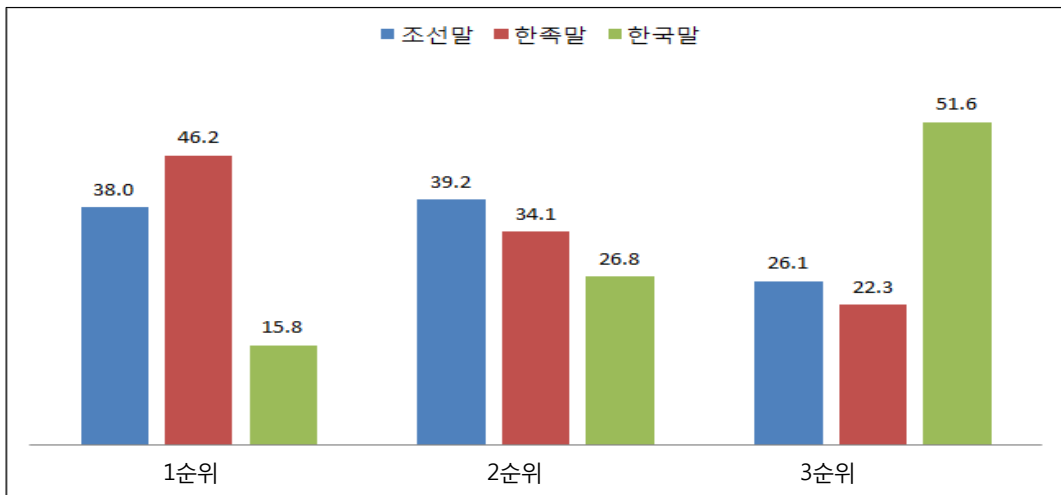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조선말	153	379	204	736
한족말	539	161	63	763
한국말	74	198	339	611



<그림 35>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비율

<표 57>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조선말	290	291	167	748
한족말	353	253	143	749
한국말	121	199	330	650



<그림 36>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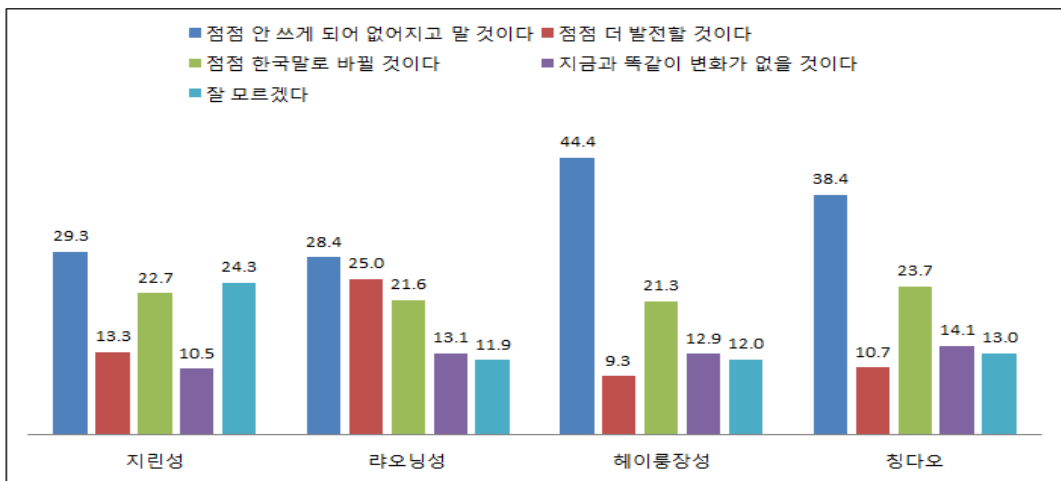
후손들이 사용할 말과 미래의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게 될 말 모두 조선족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후자보다 먼 미래의 일에 대한 예측이라는 속성이 있다. 두 가지 물음에 모두 한족말이 제1언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다. 특히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인 후손들의 언어에서는 한족말이 될 것이라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이는 <표 55>의 24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 더 심화된 것이다. 어느 것이든 재중 동포들은 한족말이 재중 동포들의 제1언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역별 분석]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8> 조선말의 장래 - 지역별

조선말의 장래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칭다오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53	50	100	68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24	44	21	19
점점 한국말로 바뀔 것이다	41	38	48	42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19	23	29	25
잘 모르겠다	44	21	27	23
전 체	181	176	225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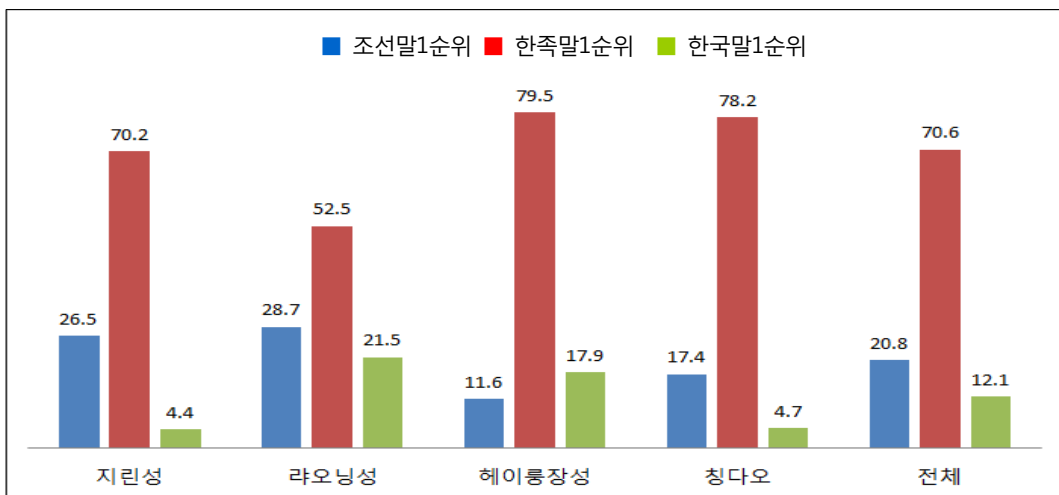
<그림 37> 조선말의 장래 - 지역별 비율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지역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며 그 뒤를 칭다오(靑島)가 잇고 있다. 반면에 랴오닝성(遼寧省)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중 동포들이 평소에 교류하는 대상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 헤이룽장성과 칭다오의 경우 한족과 접촉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지린성(吉林省)이나 랴오닝성(遼寧省)보다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만 랴오닝성의 경우 조사 지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손들이 사용할 말이나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9>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 지역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48	104	29	127	49	5	6	28	102
랴오닝성	51	78	49	94	60	25	34	41	83
헤이룽장성	23	118	58	178	24	22	26	57	62
칭다오	31	79	68	140	28	11	8	72	92
전체	153	379	204	539	161	63	74	19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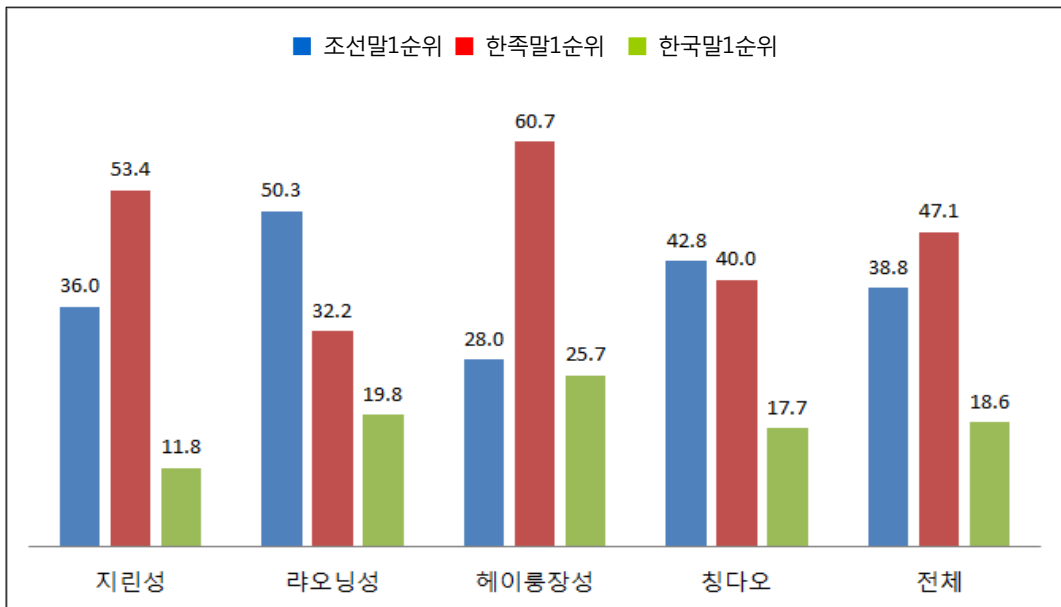


<그림 38>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말의 비율 - 지역별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은 한족말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는데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칭다오(靑島)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 지역 재중 동포들의 한화(漢化)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랴오닝성(遼寧省)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그리고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에서는 한국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표 60>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 지역별

언어 지역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64	78	36	95	57	26	19	43	99
랴오닝성	90	48	41	58	76	46	32	56	74
헤이룽장성	59	107	45	128	45	38	39	53	60
칭다오	77	58	45	72	75	33	31	47	97
전체	290	291	167	353	253	143	121	199	330



<그림 39>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1순위 말의 비율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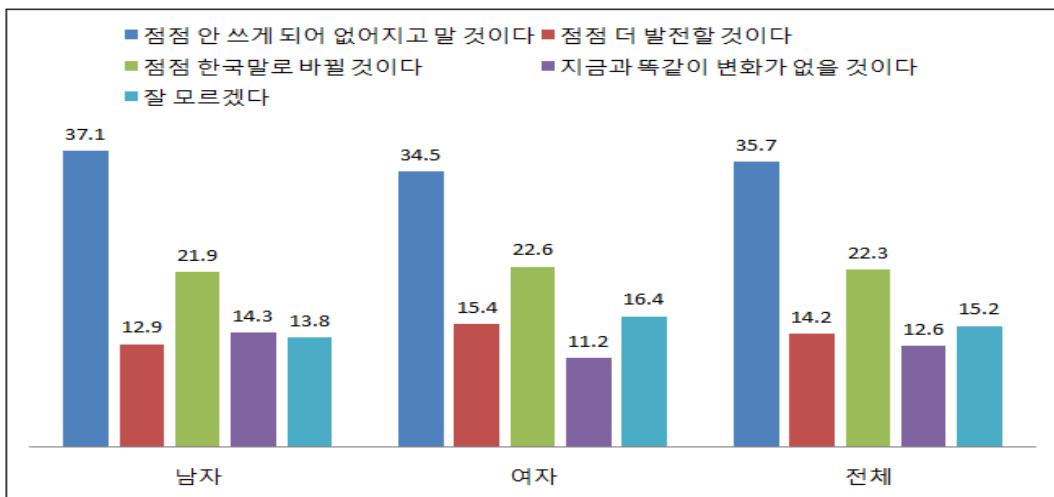
미래의 재중 동포 사회에서 사용될 언어는 모두 한족말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 경향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랴오닝성(遼寧省)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헤이룽장성에서는 앞으로 재중 동포 사이에서 쓰이게 될 언어가 조선말이 아닌 한국말이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헤이룽장성에 거주하는 재중 동포들의 원 고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재중 동포들의 원 고향이 한국인 경우는 현재 자기들이 쓰는 조선말도 한국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석]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의식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1> 조선말의 장래 - 성별

구 분	남자	여자	전체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132	139	271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46	62	108
점점 한국말로 바뀔 것이다	78	91	169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51	45	96
잘 모르겠다	49	66	115
전 체	356	403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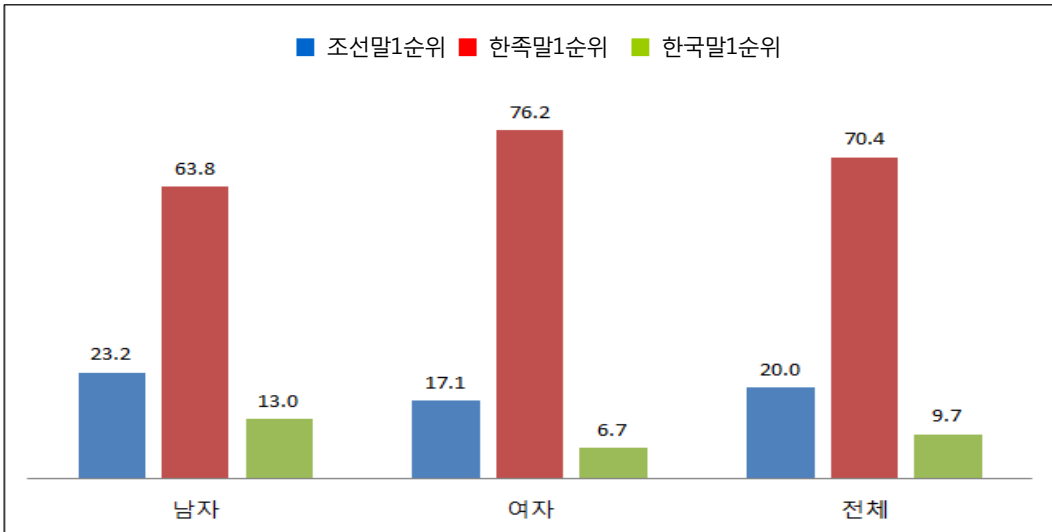
<그림 40> 조선말의 장래 - 성별 비율

조선말의 미래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남자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2>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 성별

구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남자	84	170	98	231	83	46	47	101	143
여자	69	209	106	308	78	17	27	97	196
전체	153	379	204	539	161	63	74	19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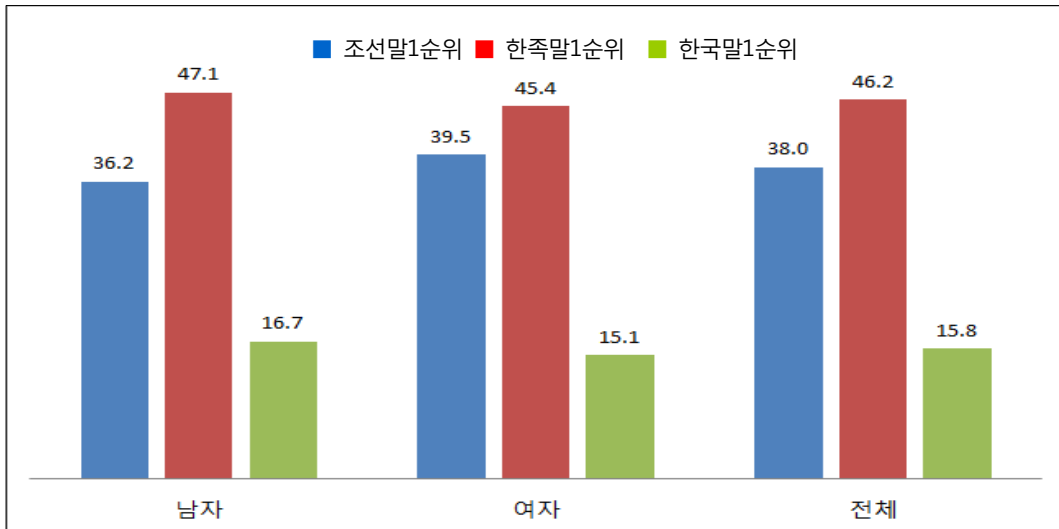
<그림 41>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말 - 성별 비율

후손들이 쓰게 될 말은 남녀 모두 한족말일 것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여자 쪽의 응답 비율이 12%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성들에 비해 현지 언어에 쉽게 그리고 더 빨리 적응하고 동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래의 재중 동포 사이에서 사용될 언어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3>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 성별

구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남자	130	145	80	169	113	71	60	96	151
여자	160	146	87	184	140	72	61	103	179
전체	290	291	167	353	253	143	121	199	330



<그림 42>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1순위 말 -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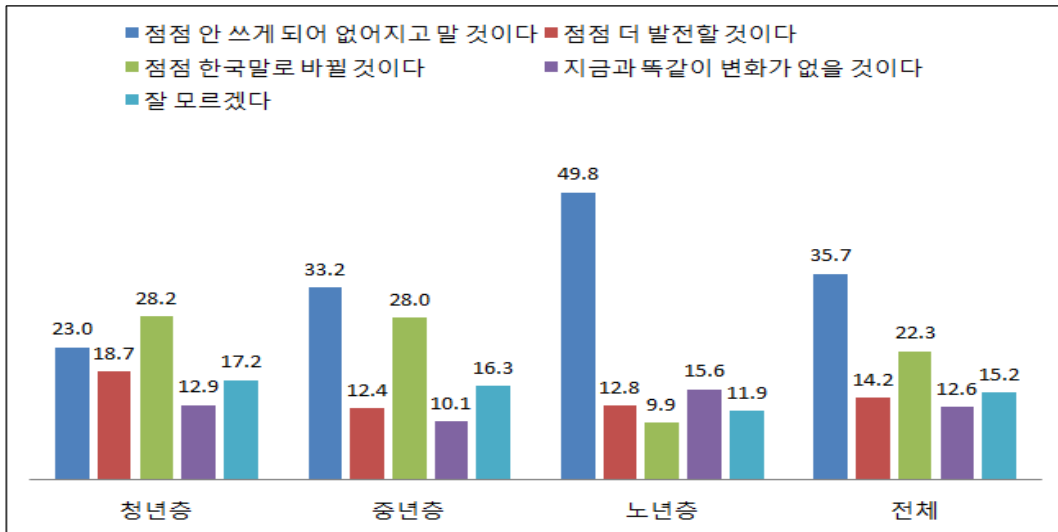
미래의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게 될 말에 대하여도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한족말이라는 대답이 많았는데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연령별 분석]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의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4> 조선말의 장래 - 연령별

연 령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전체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48	102	121	271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39	38	31	108
점점 한국어말로 바뀔 것이다	59	86	24	169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27	31	38	96
잘 모르겠다	36	50	29	115
전 체	209	307	243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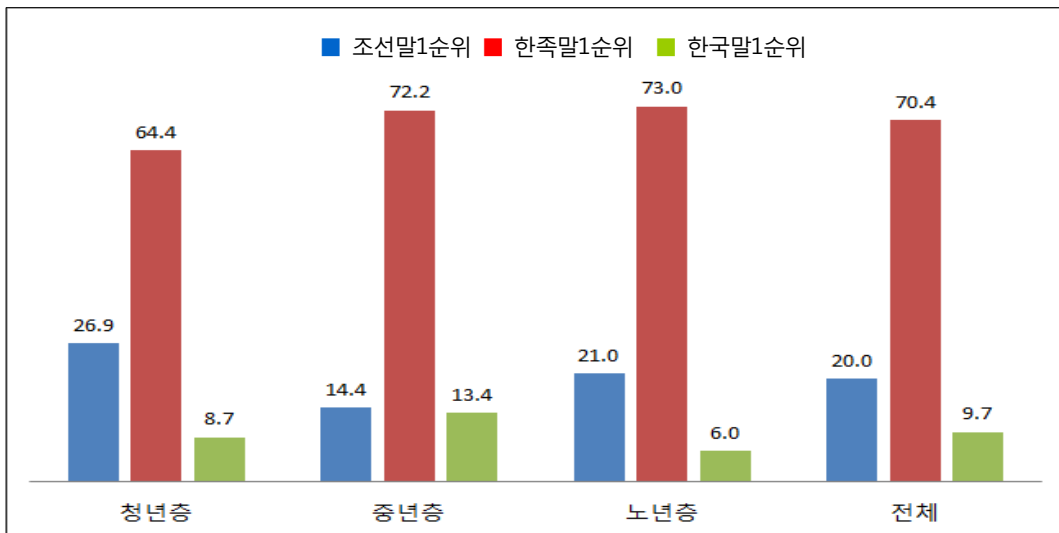
<그림 43> 조선말의 장래 - 연령별 비율

조선말의 미래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조선말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중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말 능력이 뛰어나고 조선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5>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 연령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청년층	56	80	70	134	56	18	18	71	103
중년층	44	151	98	221	60	24	41	84	136
노년층	53	148	36	184	45	21	15	43	100
전 체	153	379	204	539	161	63	74	19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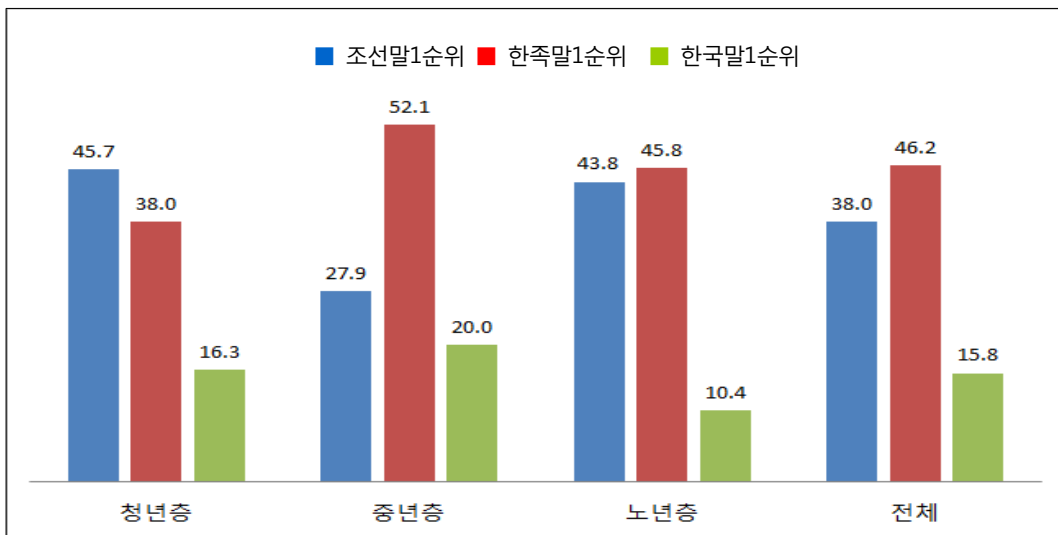
<그림 44>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말 - 연령별 비율

노년층으로 갈수록 조선말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평행하게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은 한족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이는 조선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한족말의 사용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중 동포 사회에서 미래에 사용하게 될 언어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6>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말의 순위 - 연령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청년층	95	59	54	79	81	47	34	68	96
중년층	85	129	83	159	80	56	61	87	128
노년층	110	103	30	115	92	40	26	44	106
전 체	290	291	167	353	253	143	121	199	330



<그림 45> 재중 동포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1순위 말 -연령별 비율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에 대한 비율과 재중 동포 사회에서 미래에 사용하게 될 말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보면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한족말이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에서는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재중 동포 사회에서 미래에 사용될 언어에 대해서는 중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로 한족말을 제1언어로 꼽고 있다. 이는 재중 동포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중년층이 한족말의 필요성을 그만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두 문항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도 조선말이 제1언어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험이 많은 세대들은 조선말이 위축되고 한족말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미래의 조선말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회생활 경험의 부족으로 한족말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층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층이라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후손들의 언어나 미래의 언어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든 세대의 인식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노년층 세대는 자기의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조선말 사용 능력을 경험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노년층 세대가 볼 때 아랫세대인 젊은층의 조선말 사용 능력이 윗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에 한족말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재중 동포 사회에서 조선말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한족말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년층은 현재의 재중 동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말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젊은층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 한족말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선말 능력이 우수한 다수의 중년층 조사 대상자들이 공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한족말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중년층은 한족말 사용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4.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19, 20, 21번 설문은 5점 척도식 설문이므로 응답의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25, 26, 27은 선택식 설문이며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이므로 빈도를 내어 분석하였다. 31번 문항은 순위 기입식 설문이므로 각 언어의 순위 및 1순위 언어의 비율을 내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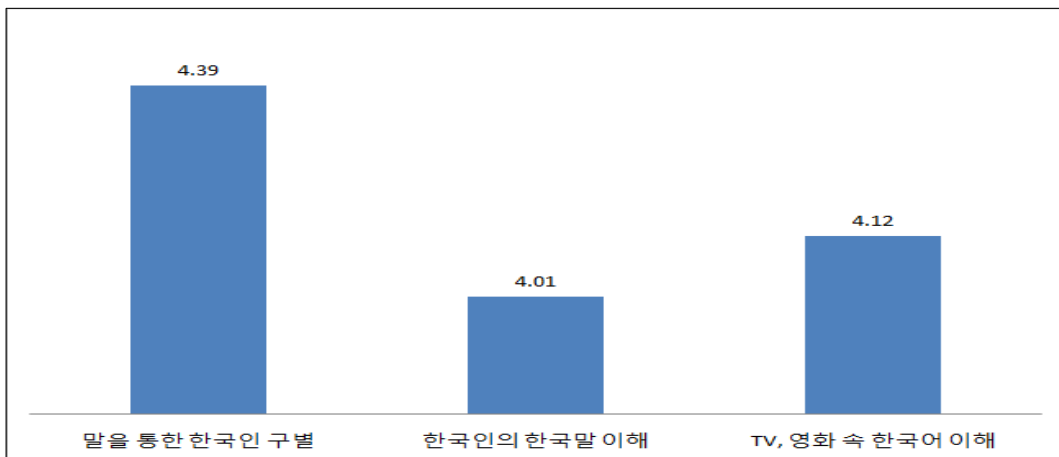
<p><보기> 조선족들이 회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의 순서를 번호대로 쓰세요.</p>		1		3		2
<p>※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u>하나</u>에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해 주세요.</p>						
질 문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19. 말만 듣고도 조선족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한국 뎀스(TV)에서 하는 영화나 보도를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25. 한국말이 조선말에 비해 어떤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까? ① 세련되고 우아하다 ② 상냥하고 애교 있다 ③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④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 ⑤ 유식해 보인다 ⑥ 씩씩하다</p>						
<p>26. 한국말이 조선말에 비해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까? ① 시골티(촌티)가 난다 ② 간사해 보인다 ③ 가벼워 보인다 ④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⑤ 무식해 보인다 ⑥ 힘이 없어 보인다.</p>						
<p>27.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①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써서 ② 한국 사투리를 많이 써서 ③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서 ④ 유행어를 많이 써서 ⑤ 기타()</p>						
<p>※ 다음 각각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순위를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15px;" type="text"/> 안에 써 주십시오.</p>						
<p><보기> 조선족들이 회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의 순서를 번호대로 쓰세요.</p>		1		3		2
질 문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31. 제일 듣기 좋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본 분석]

한국말에 대한 인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하나는 말만 듣고도 한국말과 조선말을 구별하는지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해 여부 그리고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쓰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 여부에 대한 조사였고, 두 번째는 한국말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태도 조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말과 조선말 한쪽말 가운데 제일 듣기 좋게 느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의 전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7> 한국말에 대한 인식

한국말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 편차
19. 말만 듣고도 조선족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4.39	.997
20.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4.01	1.008
21. 한국 댄스(TV)에서 하는 영화나 보도를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습니까?	4.12	1.043



<그림 46> 한국말에 대한 인식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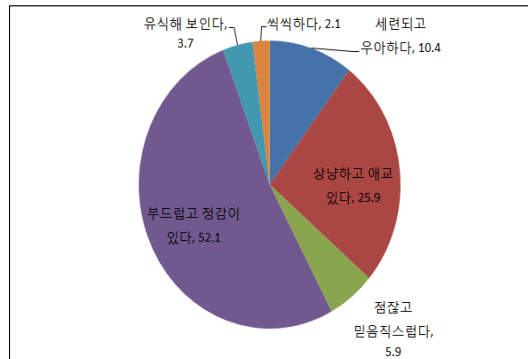
한국말을 얼마나 잘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 문항에서 모두 평균이 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중 동포들이 한국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말에 대한 이해력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말과 조선말의 차이를 재중 동포들이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 문항 모두 표준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는 재중 동포 개인의 언어 능력, 한국 방문 경험, TV 시청 경

험 등의 차이에 의해 개인차가 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말에 대한 태도는 한국말 사용 희망 여부나 한국말 학습 희망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모두를 조사하였다. 한국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8>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 느낌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 느낌	빈도	유효 비율
세련되고 우아하다	101	10.4
상냥하고 애교 있다	239	25.9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67	5.9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	401	52.1
유식해 보인다	48	3.7
씩씩하다	24	2.1
전 체	880	
결 측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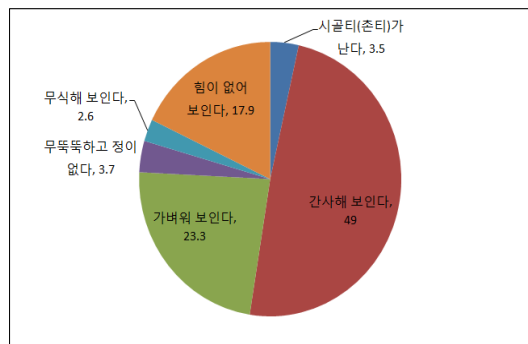
<그림 47>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 느낌 - 비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는 것과 ‘상냥하고 애교 있다’는 것이다. 서울말에 바탕을 둔 한국의 표준말이 재중 동포들의 다수가 사용하는 함경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말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들리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9> 한국말에 대한 부정적 느낌

한국어에 대한 부정적 느낌	빈도	유효 비율
시골티(촌티)가 난다	23	3.5
간사해 보인다	293	49.0
가벼워 보인다	153	23.3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27	3.7
무식해 보인다	18	2.6
힘이 없어 보인다	110	17.9
전 체	624	
결 측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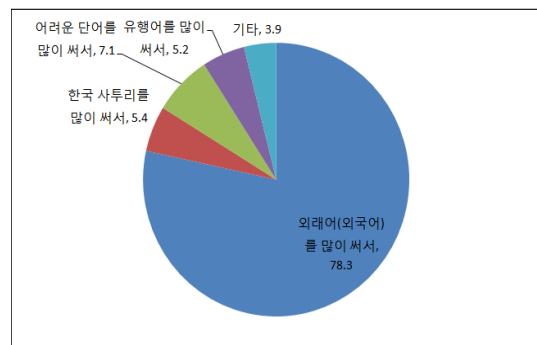
<그림 48> 한국말에 대한 부정적 느낌 - 비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간사해 보인다’와 ‘가벼워 보인다’다. 이 두 응답은 한국말의 긍정적인 느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드러운 속성을 가진 한국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부드럽고 정감이 있게 느껴지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에서 결측값이 큰 것은 부정적인 느낌을 찾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재중 동포 대다수는 <표 68>에서와 같이 한국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굳이 부정적인 느낌을 찾는다면 <표 69>와 같다는 것이다. 현지 조사 당시 대부분의 재중 동포들은 한국말에 부정적인 느낌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지를 묻는 26번 문항을 보고 일부러 부정적인 느낌이 무엇인가를 찾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중 동포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0> 한국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

한국어를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	빈도	유효 비율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써서	604	78.3
한국 사투리를 많이 써서	54	5.4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서	85	7.1
유행어를 많이 써서	64	5.2
기타	30	3.9
전 체	837	
결 측	98	



<그림 49> 한국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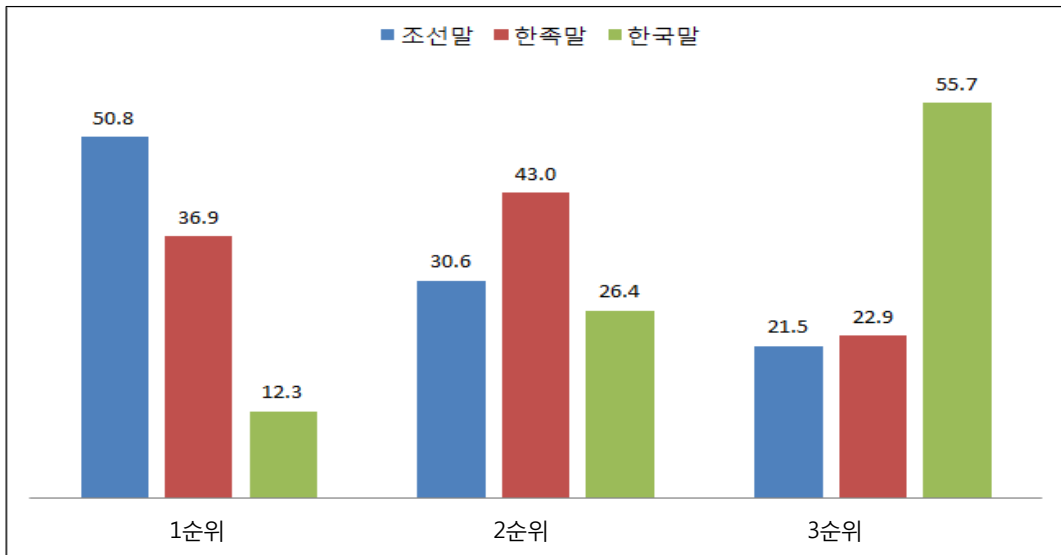
한국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 및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선말은 분단 이전의 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없었던 외래어와 외국어는 조선말에도 없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재중 동포들, 특히 노년층의 재중 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영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 여기에 재중 동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규범이 북한의 언어 규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문

물에 대한 단어나 표현은 재중 동포들이 중국말나 중국말 차용어를 쓴다는 점이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된다.

듣기 좋은 말의 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1> 듣기 좋은 말 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조선말	349	282	124
한족말	123	271	351
한국말	295	191	190



<그림 50> 듣기 좋은 말 순위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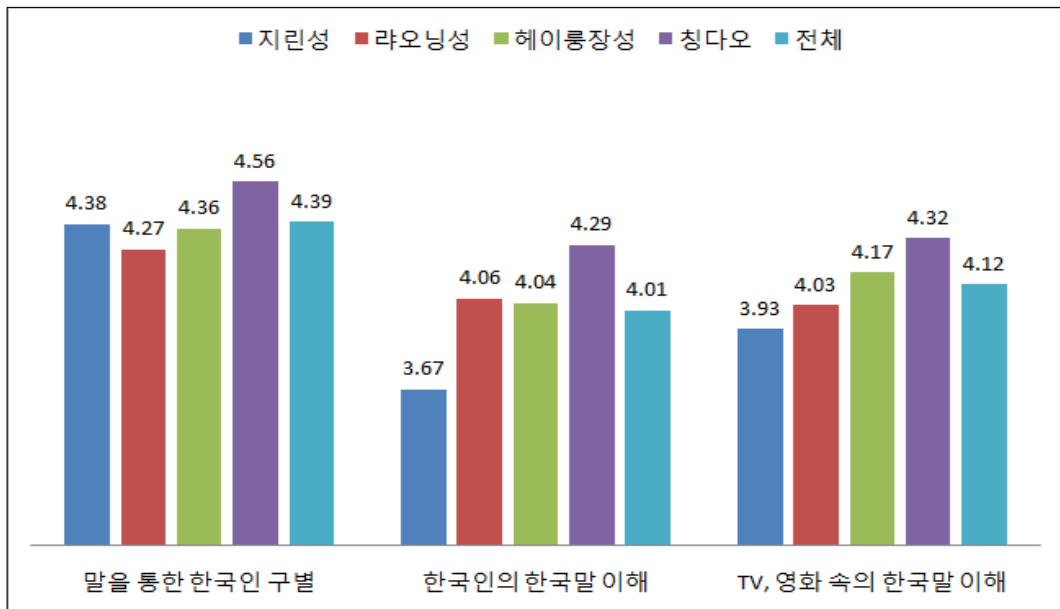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은 듣기 좋은 말로 조선말과 한족말을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꼽았다. 조선말과 같은 기원을 가진 한국말의 순위가 한족말보다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평소에 자주 접하고 자주 사용하여 익숙한 말을 더 듣기 좋은 말로 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국말에 대한 인식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2>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별

조사 지역	말을 통한 한국인 구별	한국인의 한국말 이해	TV, 영화 속의 한국말 이해
지린성	4.38	3.67	3.93
랴오닝성	4.27	4.06	4.03
헤이룽장성	4.36	4.04	4.17
칭다오	4.56	4.29	4.32
전체	4.39	4.01	4.12



<그림 51>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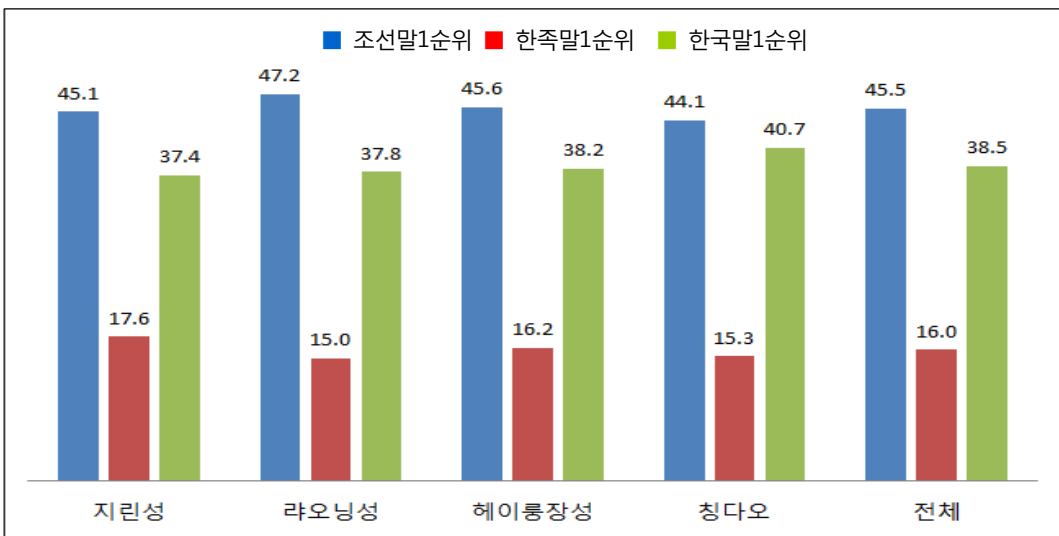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는 지역은 칭다오(靑島) 지역이다. 칭다오 지역은 세 문항에서 모두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한국인과의 직간

접적 접촉이 많은 칭다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지린성(吉林省) 지역은 한국인의 한국말 이해 면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재중 동포들이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함경도 방언에 기반한 조선말과 한국말이 이질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 좋은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3> 듣기 좋은 말의 순위 - 지역별

구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82	70	30	32	71	79	68	41	56
랴오닝성	85	66	28	27	68	85	68	46	45
헤이룽장성	104	83	32	37	74	97	87	50	43
칭다오	78	63	34	27	58	90	72	54	46
전체	349	282	124	123	271	351	295	191	190



<그림 52> 듣기 좋은 말의 순위 - 지역별 비율

듣기 좋은 말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모든 지역에서 조선말이 1순위, 한국말이 2순위로 나타났다. 역시 자주 쓰고 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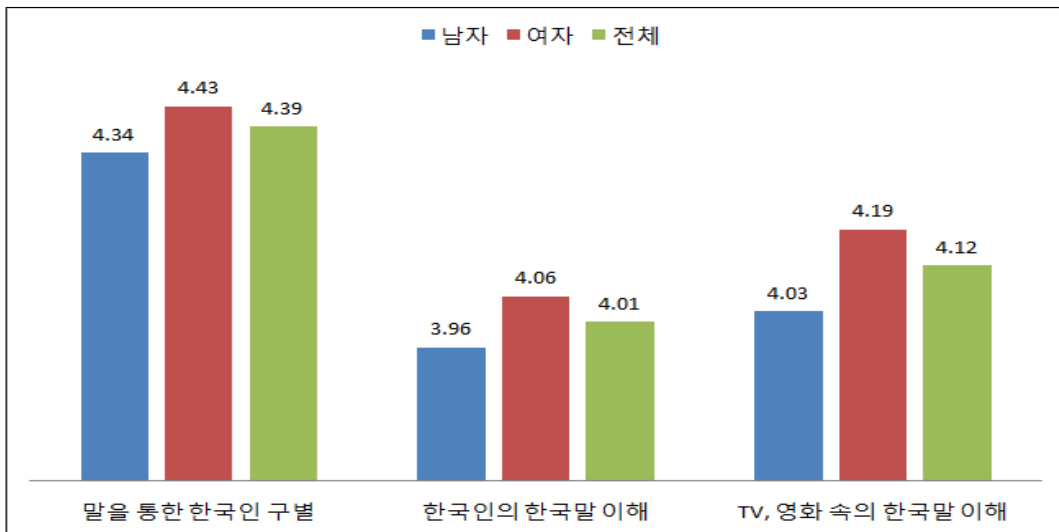
가장 자신 있고 귀에 익숙한 말을 듣기가 좋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표 71>과 달리 한국말이 한족말에 비해 듣기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앞서 <표 68>에서 보인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국말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4>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성별

성별	말을 통한 한국인 구별	한국인의 한국말 이해	TV, 영화 속의 한국말 이해
남자	4.34	3.96	4.03
여자	4.43	4.06	4.19
전체	4.39	4.01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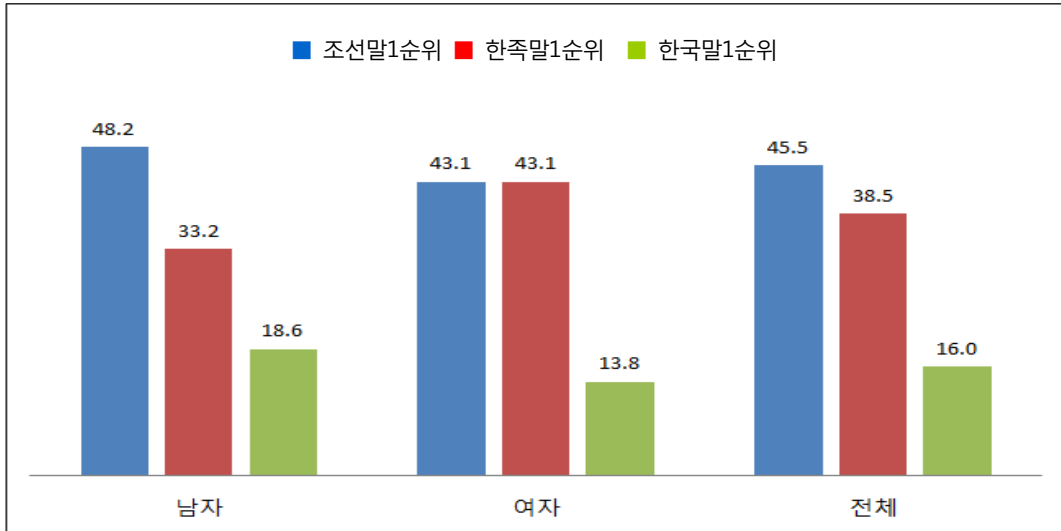
<그림 53>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성별 비율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세 문항 모두에서 여자들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언어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 감각이 예민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듣기 좋은 말의 순위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5> 듣기 좋은 말 순위 - 성별

구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남자	174	125	56	120	99	101	67	126	156
여자	175	157	68	175	92	89	56	145	195
전체	349	282	124	295	191	190	123	271	351



<그림 54> 듣기 좋은 말 순위 -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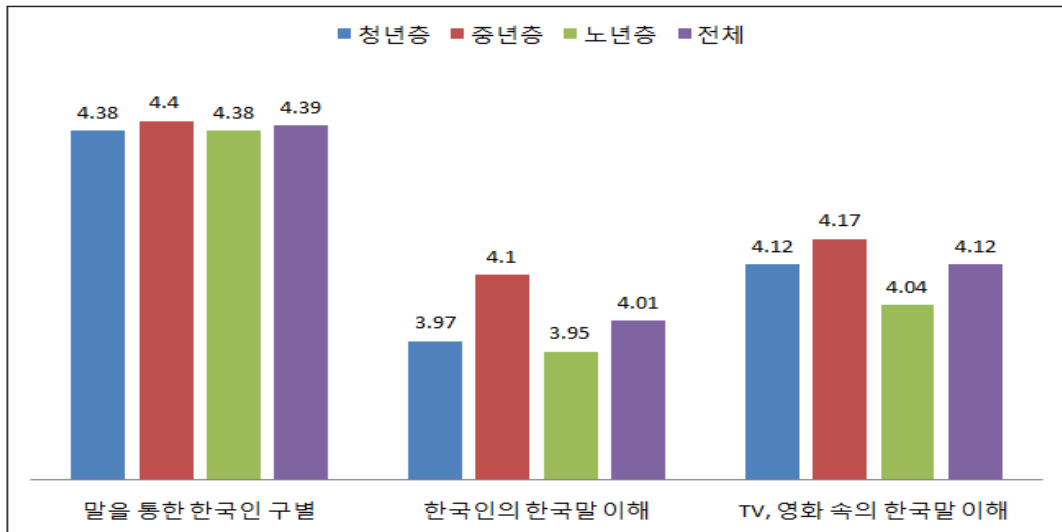
듣기 좋은 말의 순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여자 쪽에서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여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서 조선말과 한족말을 같은 비율로 꼽았다. 이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한족말로 더 빨리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국말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6>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연령별

연령	말을 통한 한국인 구별	한국인의 한국말 이해	TV, 영화 속의 한국말 이해
청년층	4.38	3.97	4.12
중년층	4.40	4.10	4.17
노년층	4.38	3.95	4.04
합계	4.39	4.01	4.12



<그림 55>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연령별

한국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말을 통해 한국인을 구별하는 데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말의 이해 부분에서는 중년층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말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중년층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경험 때문에 한국인 및 한국말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말을 통해 한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중 동포들의 다수가 함경도 방언에 기반하고 있어 발음과 억양 면에서 한국말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5. 언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2번 문항은 5점 척도식 문항이므로 평균을 내어 분석하였다. 50, 51, 52번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선택식 문항이므로 빈도를 비교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질 문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22. 한국 말투(말본새)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만일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① 조선족 유치원이나 학교 ② 한족 유치원이나 학교 ③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 ④ 기타()					
51.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① 조선족은 조선말을 잘해야 하니까 ② 조선말을 잘해야 취직을 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③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서 ④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 ⑤ 주변에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가 없어서 ⑥ 기타 _____					
52.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① 조선말은 집에서 배우면 되니까 ② 한족말을 잘해야 취직을 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③ 한족 학교가 조선족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서 ④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 ⑤ 주변에 조선족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⑥ 기타 _____					

[기본 분석]

한국말 학습 의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7> 한국말 학습 의지

한국말 학습 의지	평균	표준 편차
한국 말투(말본새)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3.49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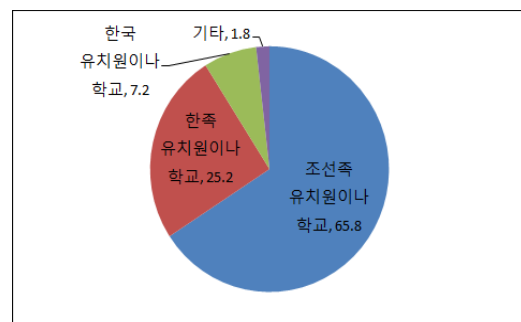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말 학습 의지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더욱이 표준 편차도 1.48이 될 정도로 매우 큰 편이다. 비록 재중 동포들이 조선말과 한국말의 차이는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양자 간에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간에도 필요에 따라 한국말 학습에 대한 의지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자녀의 학교 종류 선택은 자녀의 언어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를 어떤 유형의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를 분석해 보면 언어 선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8> 자녀 학교의 선택

유치원/학교	빈도	유효 비율
조선족 유치원이나 학교	478	65.8
한족 유치원이나 학교	183	25.2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	52	7.2
기 타	13	1.8
전 체	726	
결 측	59	



<그림 56> 자녀 학교의 선택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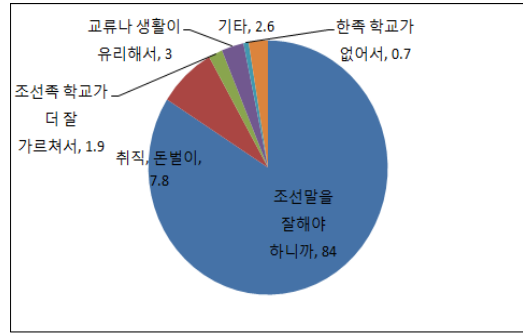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를 분석해 보면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자녀들의 언어 학습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진로 선택, 학교 현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을 조선족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9> 자녀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빈도	유효 비율
조선말을 잘해야 하니까	501	84.0
취직, 돈벌이	73	7.8
조선족 학교가 더 잘 가르쳐서	22	1.9
교류나 생활이 유리해서	39	3.0
한족 학교가 없어서	7	.7
기 타	15	2.6
전 체	657	
결 측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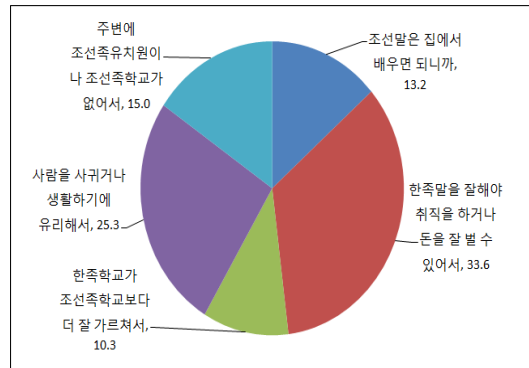
<그림 57> 자녀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 비율

자녀들을 조선족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말을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조선족 학교가 조선말을 배우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과 조선족은 조선말을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자녀들을 한족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0> 자녀를 한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한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빈도	유효 비율
조선말은 집에서 배우면 되니까	72	13.2
한족말을 잘해야 취직을 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183	33.6
한족 학교가 조선족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서	56	10.3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	138	25.3
주변에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82	15.0



<그림 58> 자녀를 한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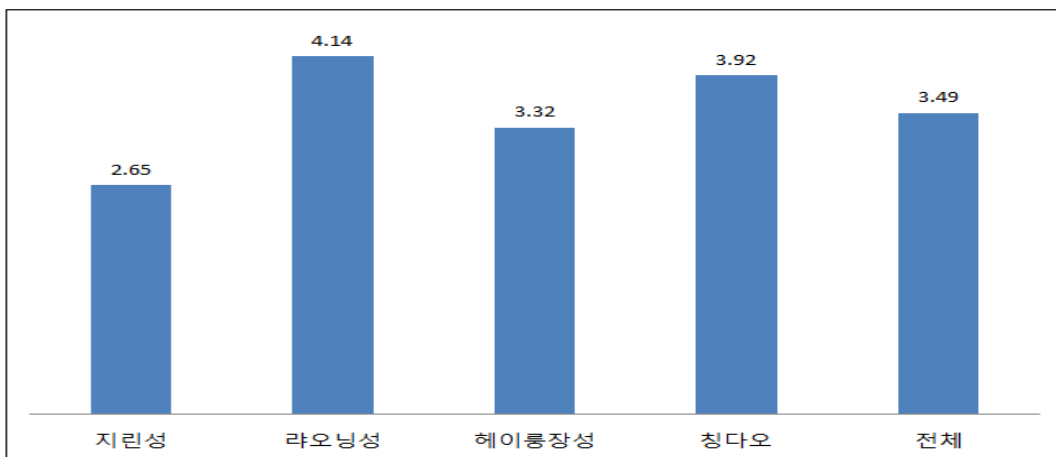
자녀들을 한족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족말을 잘해야 취직을 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고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언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주변에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족 학교에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다. 특히 칭다오(靑島)와 같은 신흥 집거지에는 조선족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녀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하얼빈시 다오와이구(道外區) 같은 곳도 조선족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가거나 대도시로 이주하여 조선족 학교가 없어져 어쩔 수 없이 한족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지역별 분석]

한국말 학습 의지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1> 한국말 학습 의지 - 지역별

한국말 학습 의지	평균	표준 편차
지린성	2.65	1.444
랴오닝성	4.14	1.220
헤이룽장성	3.32	1.442
칭다오	3.92	1.337
전 체	3.49	1.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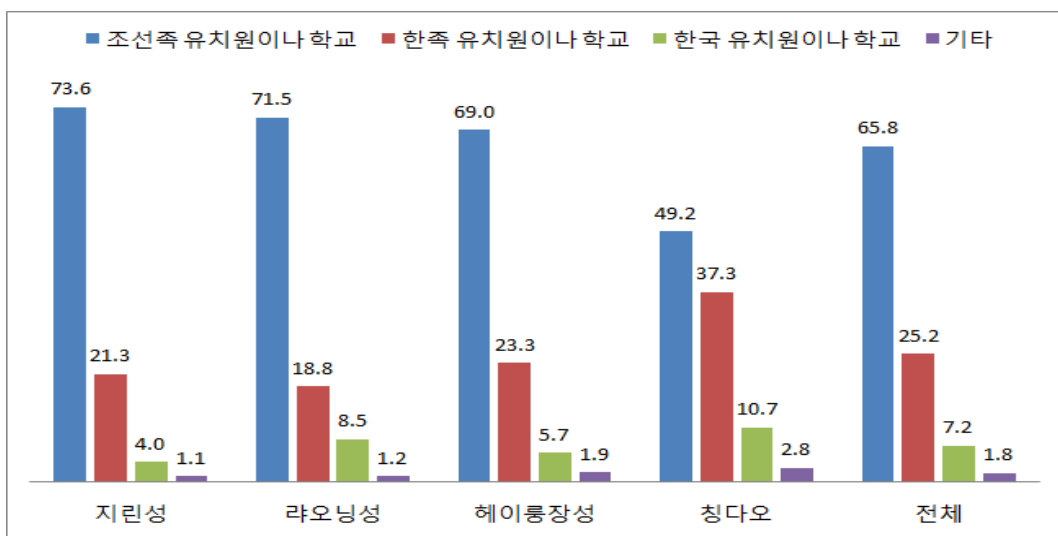


<그림 59> 한국말 학습 의지 - 지역별

한국말 학습에 대한 의지를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지역에 따라 꽤나 큰 편차가 나타난다.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곳은 지린성(吉林省)이고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곳은 랴오닝성(遼寧省)이다. 이는 자신들이 현재 쓰고 있는 말에 대한 자부심과 관련을 맺고 있다. 지린성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칭다오(靑島)와 랴오닝성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말에 대한 학습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칭다오에 거주하는 재중 동포들의 경우 한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말이나 한국말투를 배워 자기들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한다.

<표 82> 자녀 학교의 선택 - 지역별

구 분	조선족 유치원이나 학교	한족 유치원이나 학교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	기타	전체
지린성	128	37	7	2	174
랴오닝성	118	31	14	2	165
헤이룽장성	145	49	12	4	210
칭다오	87	66	19	5	177
전 체	478	183	52	13	726



<그림 60> 자녀 학교의 선택 -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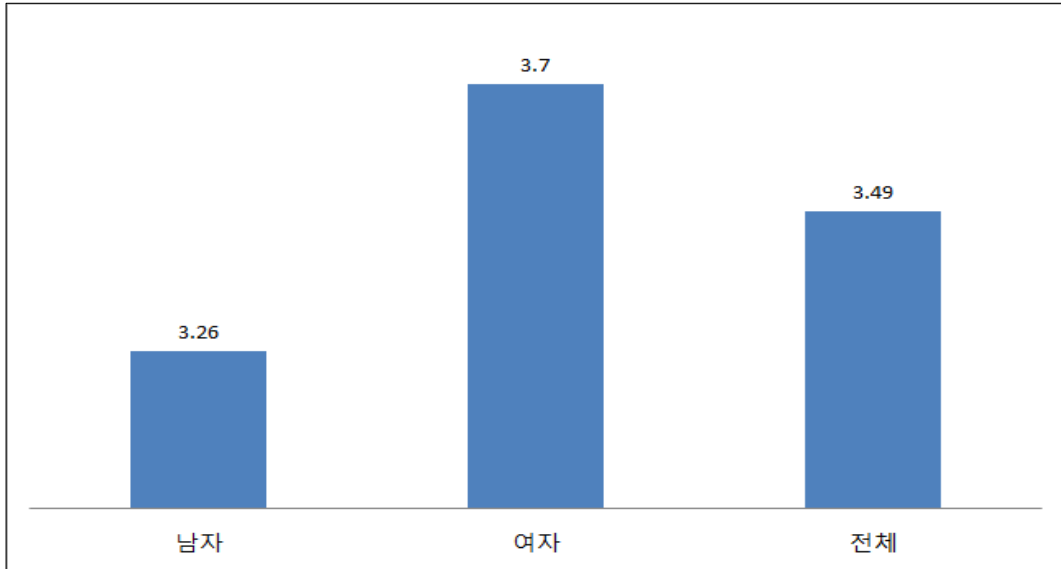
자녀들을 보내고자 하는 학교의 종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지역은 역시 칭다오(靑島)다. 칭다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족 학교를 보내겠다는 비율이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한족 학교를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의지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통적인 집거지에는 조선족 학교가 많은 편이나 칭다오 지역은 싹 흥 집거지이기 때문에 전통 집거지에 비해 조선족 학교가 극히 적다. 이런 이유로 칭다오 지역에서는 자녀를 조선족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반면에 지린성(吉林省) 지역에서 조선족 학교를 보내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지역에는 조선족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린성 지역의 경우는 농촌에 있던 많은 소학교들이 없어지면서 이웃해 있는 지역의 학교로 다니기도 하지만 조선족의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은 조선족 학교가 없어지고 한족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선족의 분포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조선족 학교가 줄어드는 만큼 조선말 사용 능력은 떨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한족말 사용 능력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족 학교의 감소는 재중 동포 사회의 조선말 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별 분석]

한국말 학습 의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3> 한국말 학습 의지 - 성별

한국말 학습 의지	평균	표준 편차
남자	3.26	1.52
여자	3.70	1.41
전체	3.49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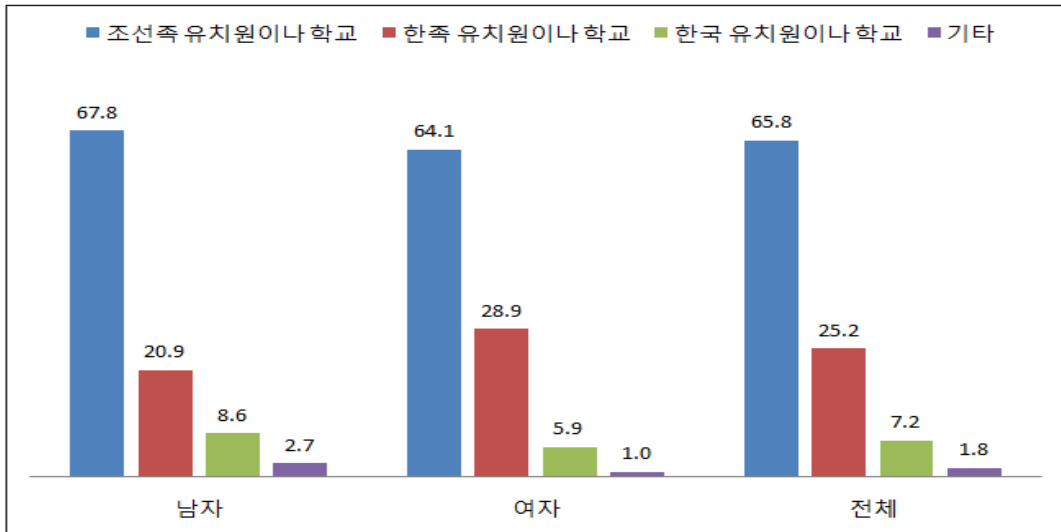
<그림 61> 한국말 학습 의지 - 성별

한국말 학습 의지를 성별로 비교해 볼 때 여자 쪽이 훨씬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 적응에 민감한 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4> 자녀 학교의 선택 - 성별

성별	조선족 유치원이나 학교	한족 유치원이나 학교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	기타	전체
남자	230	71	29	9	339
여자	248	112	23	4	387
전체	478	183	52	13	726



<그림 62> 자녀 학교의 선택 -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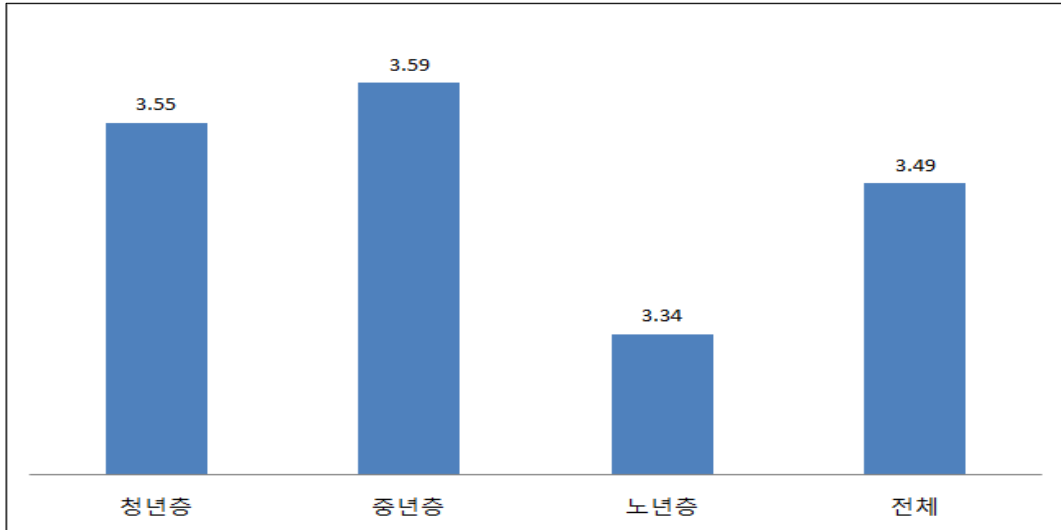
자녀들의 학교 선택을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남녀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반응이 남자 쪽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2% 정도가 한족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점은 향후의 언어 선택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연령별 분석]

한국말 학습 의지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5> 한국말 학습 의지 - 연령별

연령	평균	표준 편차
청년층	3.55	1.42
중년층	3.59	1.41
노년층	3.34	1.60
전체	3.49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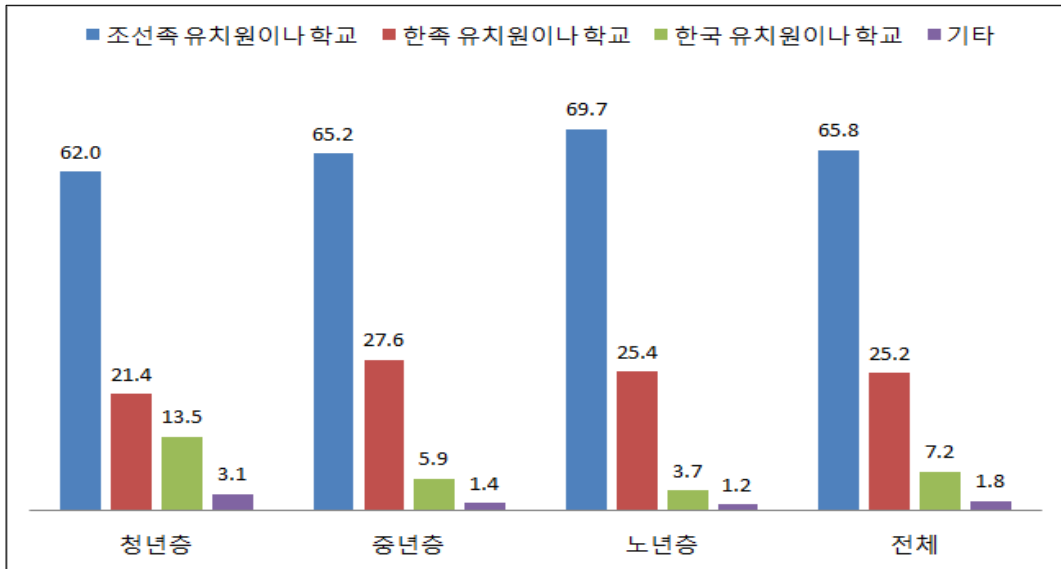
<그림 63> 한국말 학습 의지 - 연령별

한국말 학습 의지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노년층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중년층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노년층은 왕성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어 새롭게 한국말을 배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데 비해 중년층은 직장 및 사회 활동 과정에서 한국말을 배울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6> 자녀 학교의 선택 - 연령별

구 분	조선족 유치원이나 학교	한족 유치원이나 학교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	기타	전체
청년층	119	41	26	6	192
중년층	189	80	17	4	290
노년층	170	62	9	3	244
전 체	478	183	52	13	726



<그림 64> 자녀 학교의 선택 - 연령별 비율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가를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나이가 든 세대 일수록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조선말에 대한 자부심 및 자녀가 조선말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조선족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3 장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은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언어 능력은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4 기능으로 나누었고 각 기능은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조선말 능력

3.1.1. 말하기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은 다음과 같은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설문은 네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의 문항은 4단계로 구성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 35에서 (1)은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이고 (4)는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이다. 5점 척도식 문항이므로 각 문항의 평균을 분석하고, 각 문항은 언어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4 단계로 구성하였으므로 네 문항을 동시에 비교한다(이하 같음).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35. 귀하는 조선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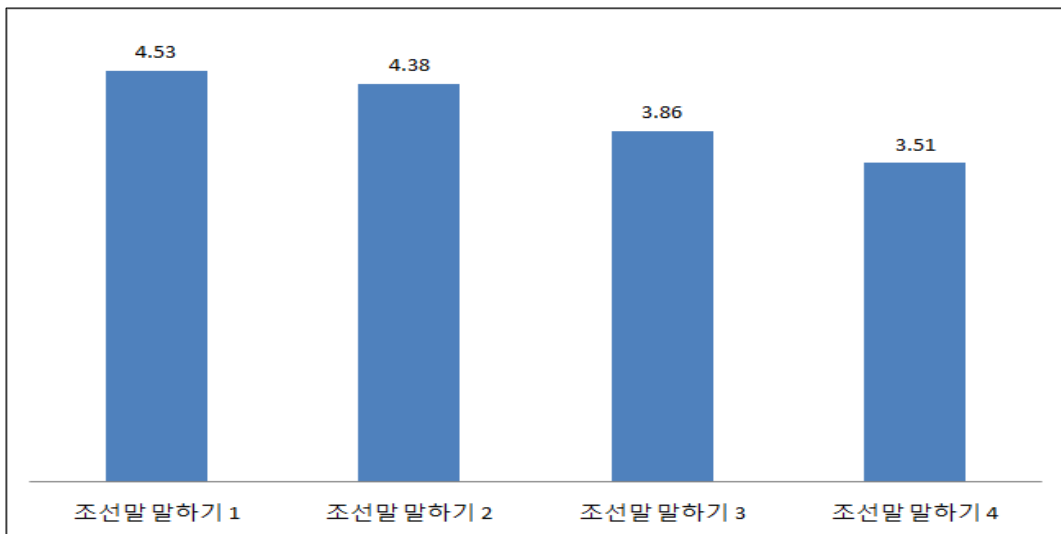
질 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 한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내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7> 조선말 말하기 능력

말하기	평균	표준 편차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4.53	0.81
내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4.38	0.9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3.86	1.19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3.51	1.31



<그림 65> 조선말 말하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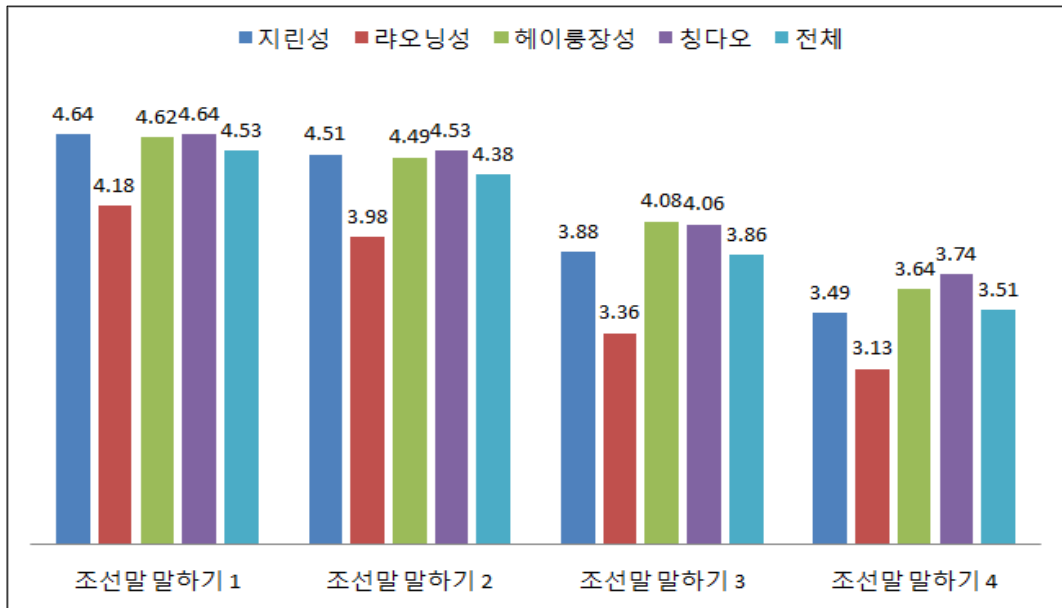
조선말 말하기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편이지만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가장 낮은 단계의 말하기 능력의 평균값은 4.53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말하기 능력의 평균값은 3.51로서 약 1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설이나 통역과 같이 전문적인 말하기의 경우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말하기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조선말 말하기 능력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8>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조선말 말하기 1	조선말 말하기 2	조선말 말하기 3	조선말 말하기 4
지린성	4.64	4.51	3.88	3.49
랴오닝성	4.18	3.98	3.36	3.13
헤이룽장성	4.62	4.49	4.08	3.64
칭다오	4.64	4.53	4.06	3.74
전체	4.53	4.38	3.86	3.51



<그림 66>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랴오닝성(遼寧省)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기는 하나 랴오닝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비슷한 평균값을 보인다. 그러나 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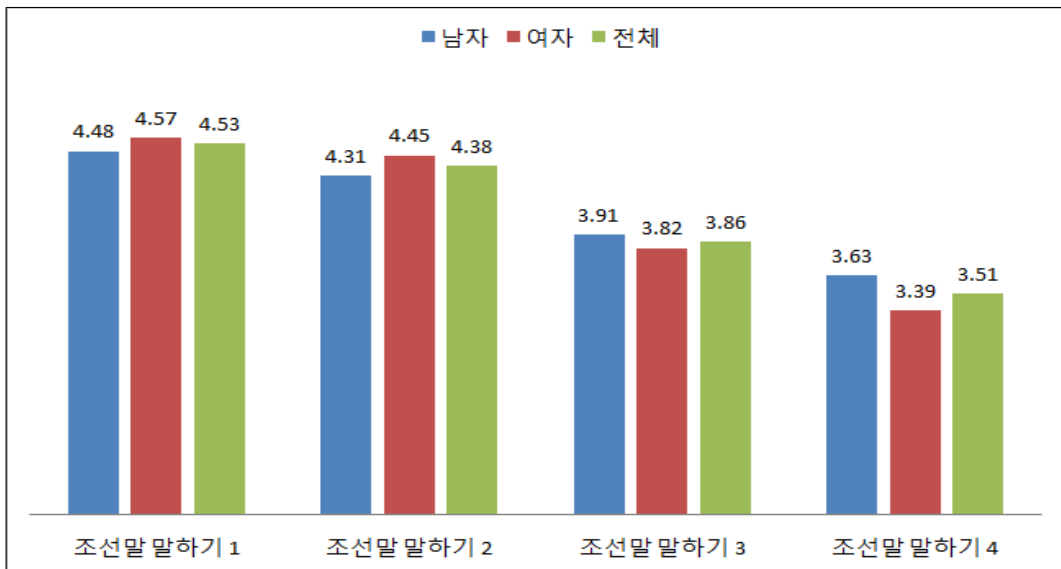
오닝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편이다. 라오닝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조사 지점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9>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성별

성별	조선말 말하기 1	조선말 말하기 2	조선말 말하기 3	조선말 말하기 4
남자	4.48	4.31	3.91	3.63
여자	4.57	4.45	3.82	3.39
전체	4.53	4.38	3.86	3.51



<그림 67>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성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낮은 단계에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높은 단계에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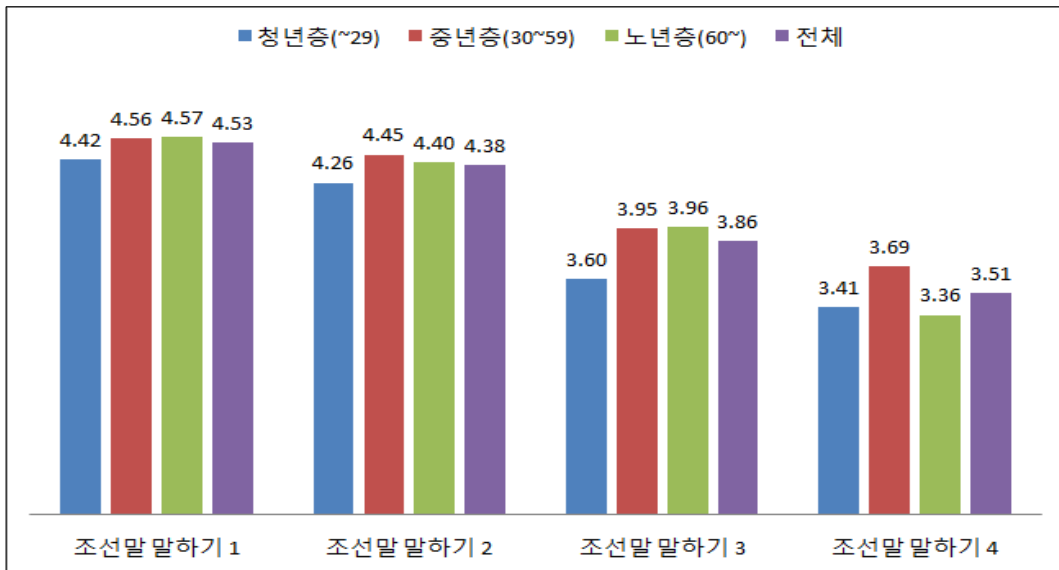
타난다. 일상 언어의 사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지만 중년층 여성들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들에 비해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어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연령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0>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연령	조선말 말하기 1	조선말 말하기 2	조선말 말하기 3	조선말 말하기 4
청년층(~29)	4.42	4.26	3.6	3.41
중년층(30~59)	4.56	4.45	3.95	3.69
노년층(60~)	4.57	4.4	3.96	3.36
전체	4.53	4.38	3.86	3.51



<그림 68> 조선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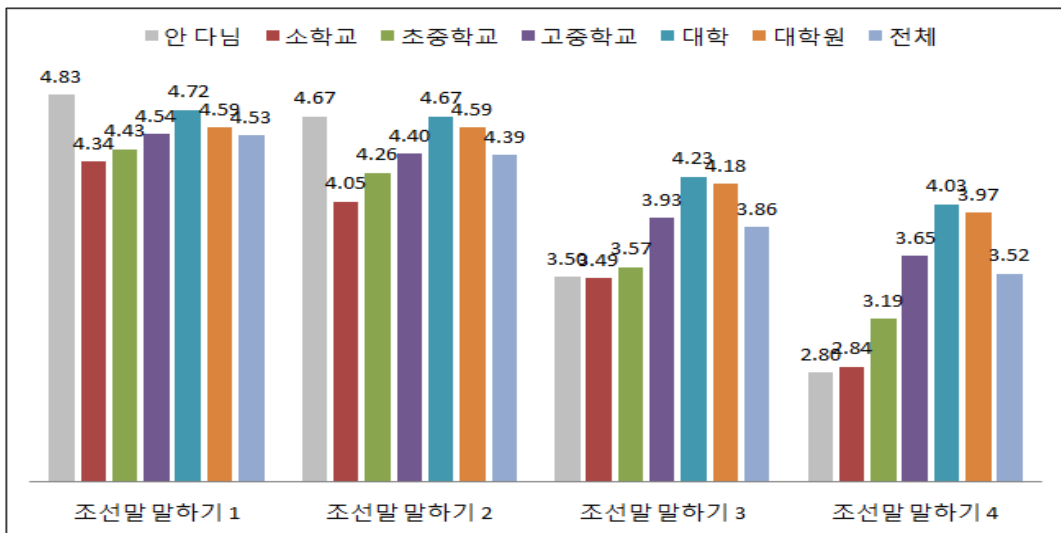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청년층이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한족말을 접하고 배우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조선말을 접할 기회나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 단계의 말하기일 수록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말하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1> 조선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조선말 말하기 1	조선말 말하기 2	조선말 말하기 3	조선말 말하기 4
안 다님	4.83	4.67	3.5	2.8
소학교	4.34	4.05	3.49	2.84
초중학교	4.43	4.26	3.57	3.19
고등학교	4.54	4.4	3.93	3.65
대 학	4.72	4.67	4.23	4.03
대학원	4.59	4.59	4.18	3.97
전 체	4.53	4.39	3.86	3.52



<그림 69> 조선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볼 때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원 출신의 평균값이 대학 출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원 출신의 표본 크기가 작기도 하고 겸손해하는 태도가 반영된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높은 단계의 말하기 능력에서는 학력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학력이 말하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3.1.2. 듣기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은 다음과 같은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듣기 능력도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이 설문 또한 4 단계로 구성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36. 귀하는 조선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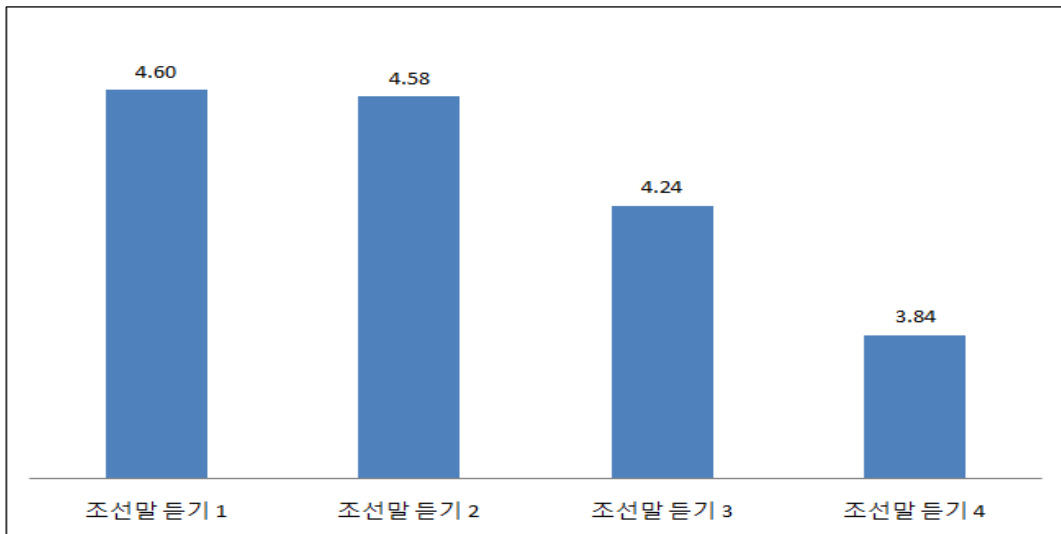
질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1) 간단한 인사말이나 누구나 말하는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맨스(TV)에서 하는 보도(뉴스)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 토론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2> 조선말 듣기 능력

듣 기	평균	표준 편차
간단한 인사말이나 누구나 말하는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60	.75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58	.77
댄스(TV)에서 하는 보도(뉴스)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4.24	1.02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 토론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3.84	1.24



<그림 70> 조선말 듣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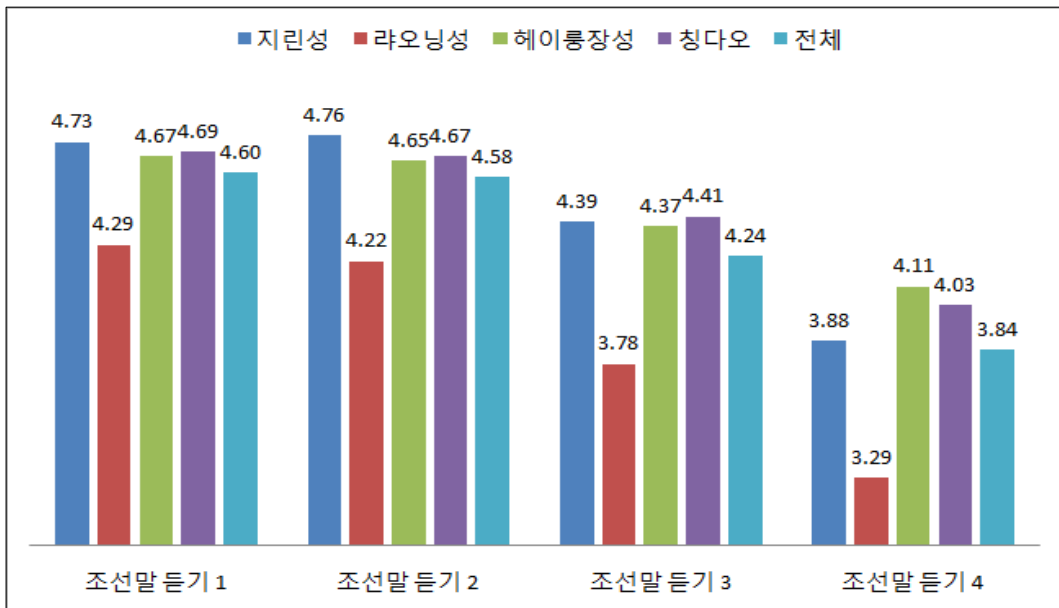
조선말 듣기 능력은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4.60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3.84로서 약 0.8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설이나 통역과 같이 전문적인 내용의 듣기에 대하여는 약간 어려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선말 듣기 능력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3> 조선말 듣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조선말 듣기 1	조선말 듣기 2	조선말 듣기 3	조선말 듣기 4
지린성	4.73	4.76	4.39	3.88
랴오닝성	4.29	4.22	3.78	3.29
헤이룽장성	4.67	4.65	4.37	4.11
칭다오	4.69	4.67	4.41	4.03
전체	4.6	4.58	4.24	3.84



<그림 71> 조선말 듣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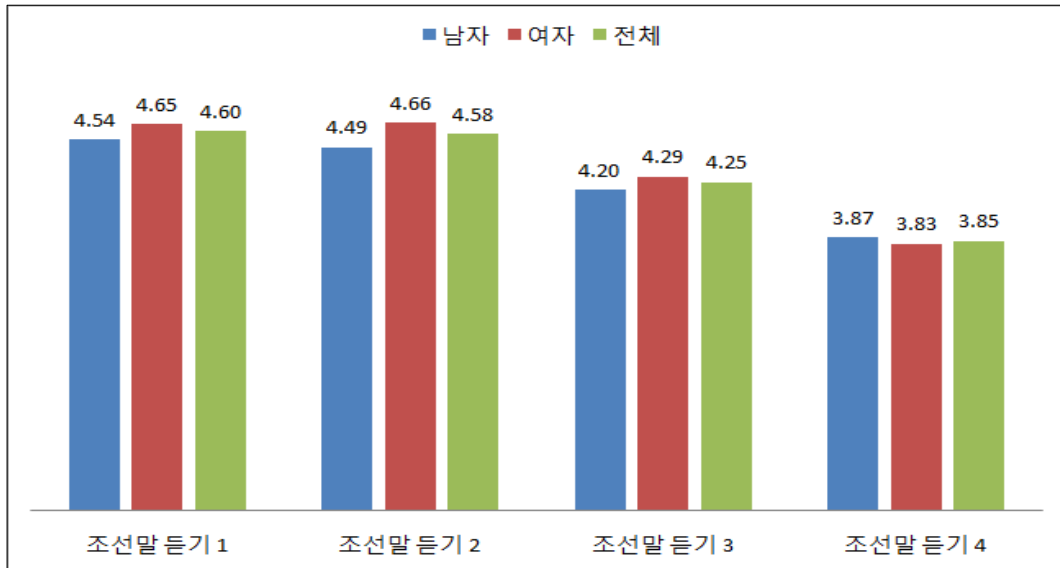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랴오닝성(遼寧省)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특히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다른 지역은 단계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랴오닝성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선말 듣기 능력이 왜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4> 조선말 듣기 능력 - 성별

성별	조선말 듣기 1	조선말 듣기 2	조선말 듣기 3	조선말 듣기 4
남자	4.54	4.49	4.2	3.87
여자	4.65	4.66	4.29	3.83
합계	4.6	4.58	4.25	3.85



<그림 72> 조선말 듣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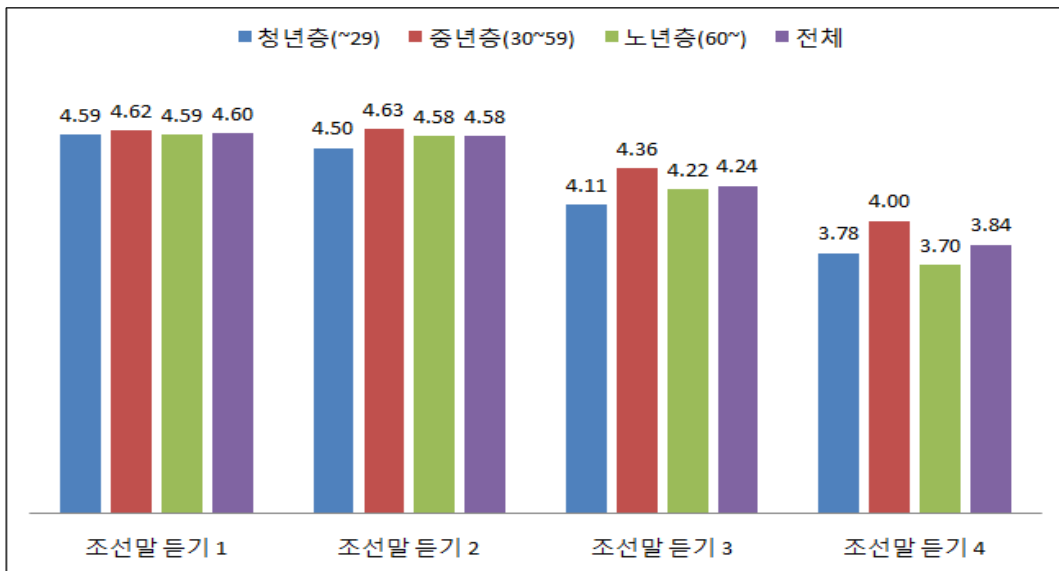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여자 쪽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말하기 능력에서는 높은 단계에서 남녀 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지만 듣기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를 제외하고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말 말하기 능력에 비해 듣기 능력의 평균값이 모든 단계에서 다 높게 나타나는데 듣기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말하기에 비해 자신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에 비해 사회 활동이 적은 여성들에게 듣기는 큰 제약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5> 조선말 듣기 능력 - 연령층별

연령	조선말 듣기 1	조선말 듣기 2	조선말 듣기 3	조선말 듣기 4
청년층(~29)	4.59	4.5	4.11	3.78
중년층(30~59)	4.62	4.63	4.36	4.00
노년층(60~)	4.59	4.58	4.22	3.70
전체	4.6	4.58	4.24	3.84



<그림 73> 조선말 듣기 능력 - 연령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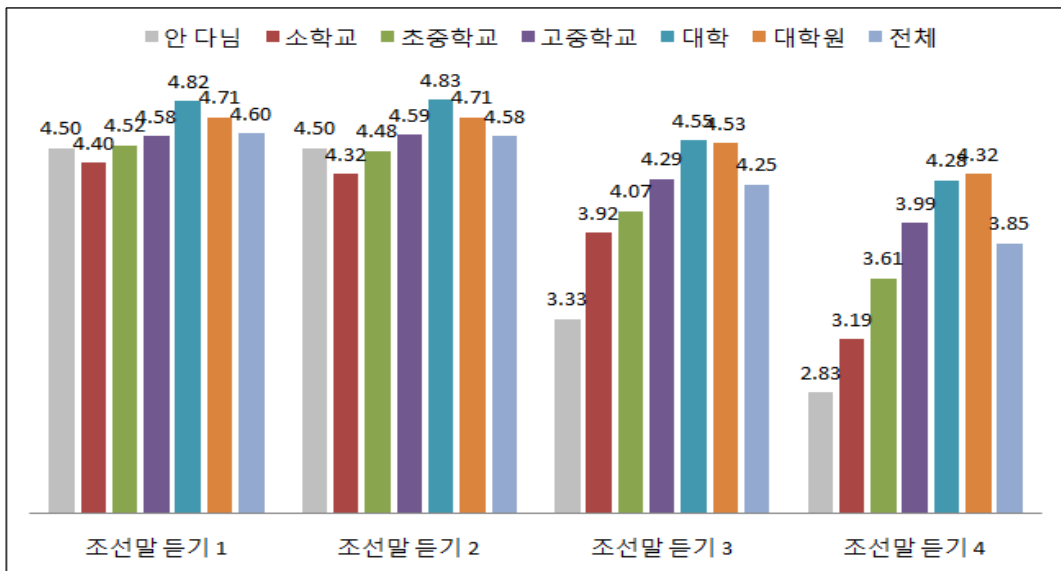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연령층별로 비교해 볼 때 중년층이 높은 단계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중년층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선말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운 조선말의 청취 능력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듣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6> 조선말 듣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조선말 듣기 1	조선말 듣기 2	조선말 듣기 3	조선말 듣기 4
안 다님	4.50	4.50	3.33	2.83
소학교	4.40	4.32	3.92	3.19
초중학교	4.52	4.48	4.07	3.61
고중학교	4.58	4.59	4.29	3.99
대 학	4.82	4.83	4.55	4.28
대학원	4.71	4.71	4.53	4.32
전 체	4.60	4.58	4.25	3.85



<그림 74> 조선말 듣기 능력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듣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볼 때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듣기 능력 부분에서는 학

력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학력이 듣기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읽기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은 다음과 같은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읽기 능력 조사를 위한 문항 또한 말하기나 듣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4단계로 구성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37. 귀하는 조선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질 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 한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편지나 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7> 조선말 읽기 능력

읽 기	평균	표준 편차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44	0.96
편지나 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37	1.02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18	1.11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71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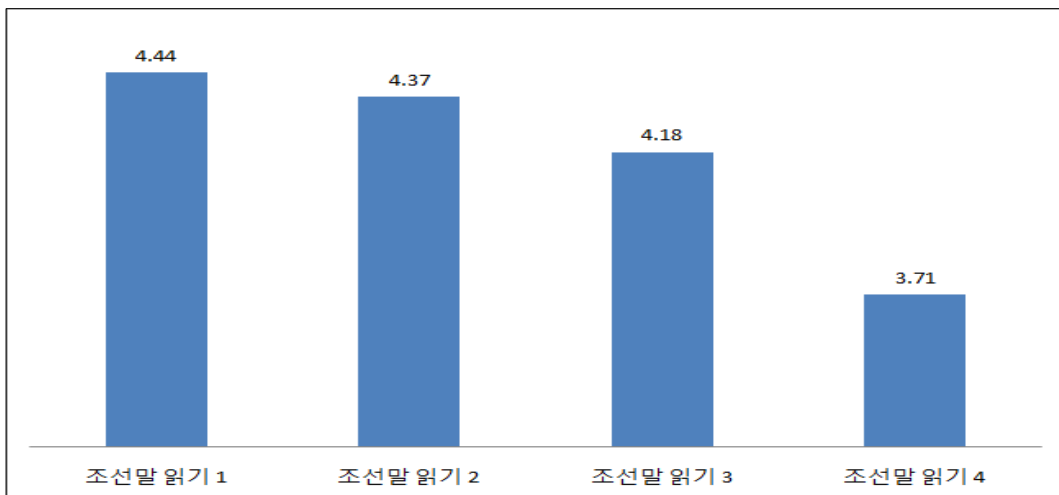
조선말 읽기 능력도 말하기 능력이나 듣기 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4.44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3.71로서 약 0.7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조선말 읽기 능력을 말하기 능력이나 듣기 능력과 비교해 보면 각 단계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읽기가 말하기나 듣기보다 어려운 언어활동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단계인 전문적인 분야의 읽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조선말 읽기 능력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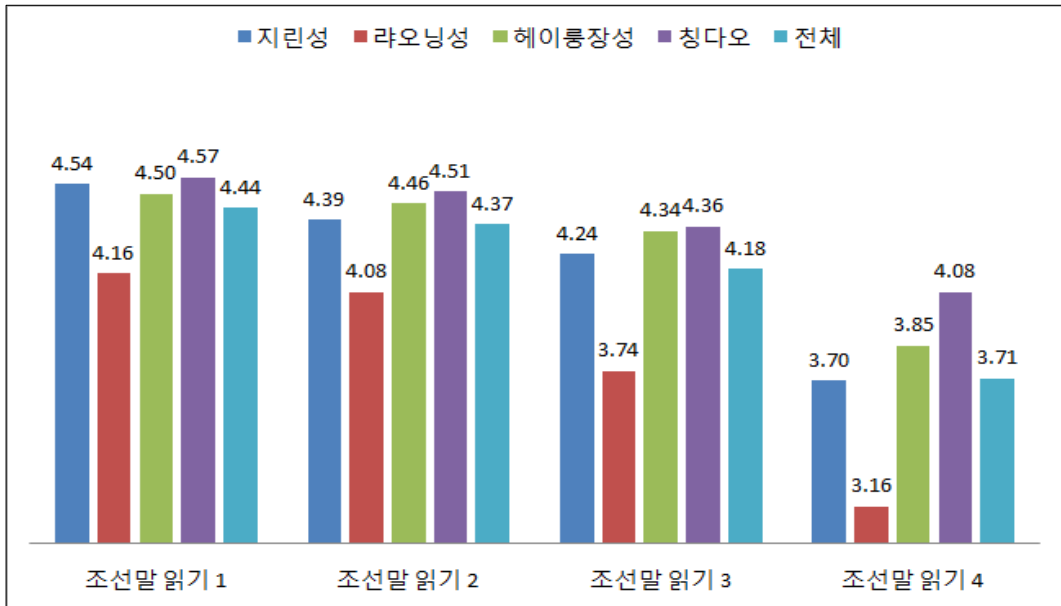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8> 조선말 읽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조선말 읽기 1	조선말 읽기 2	조선말 읽기 3	조선말 읽기 4
지린성	4.54	4.39	4.24	3.70
랴오닝성	4.16	4.08	3.74	3.16
헤이룽장성	4.50	4.46	4.34	3.85
칭다오	4.57	4.51	4.36	4.08
전 체	4.44	4.37	4.18	3.71



<그림 75> 조선말 읽기 능력



<그림 76> 조선말 읽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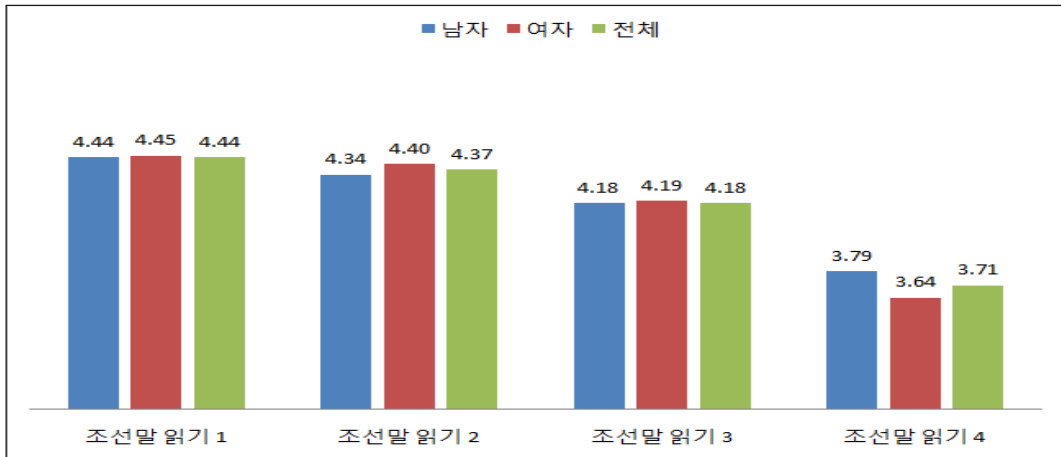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랴오닝성(遼寧省)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특히 높은 단계의 읽기 능력에서는 랴오닝성(遼寧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또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역 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랴오닝성 지역에서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9> 조선말 읽기 능력 - 성별

성별	조선말 읽기 1	조선말 읽기 2	조선말 읽기 3	조선말 읽기 4
남자	4.44	4.34	4.18	3.79
여자	4.45	4.40	4.19	3.64
전체	4.44	4.37	4.18	3.71



<그림 77> 조선말 읽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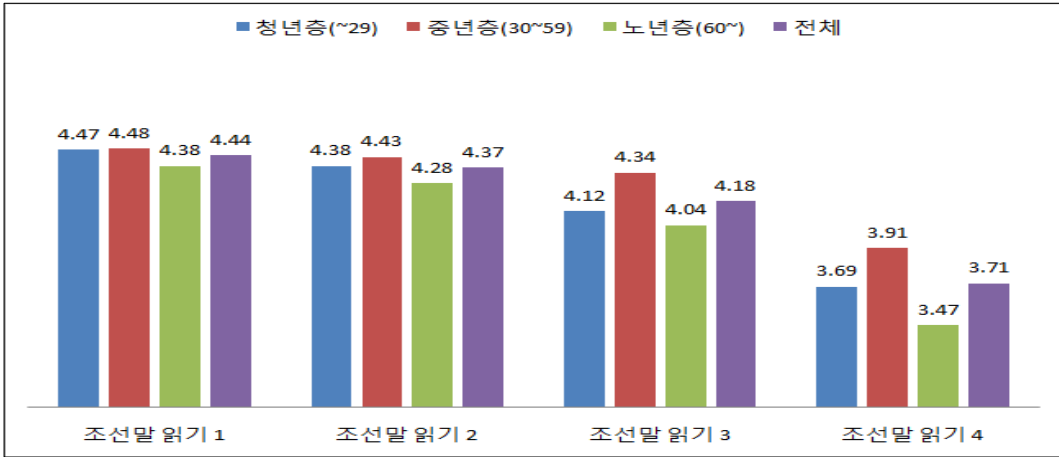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는 성별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높은 단계에서는 여자 쪽의 평균값이 약간 낮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말 읽기 능력이 높은 편이지만 말하거나 듣기 능력의 평균값에 비해 각 단계의 읽기 능력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읽기 능력이 말하거나 듣기 능력보다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0> 조선말 읽기 능력 - 연령별

연령	조선말 읽기 1	조선말 읽기 2	조선말 읽기 3	조선말 읽기 4
청년층(~29)	4.47	4.38	4.12	3.69
중년층(30~59)	4.48	4.43	4.34	3.91
노년층(60~)	4.38	4.28	4.04	3.47
전체	4.44	4.37	4.18	3.71



<그림 78> 조선태말 읽기 능력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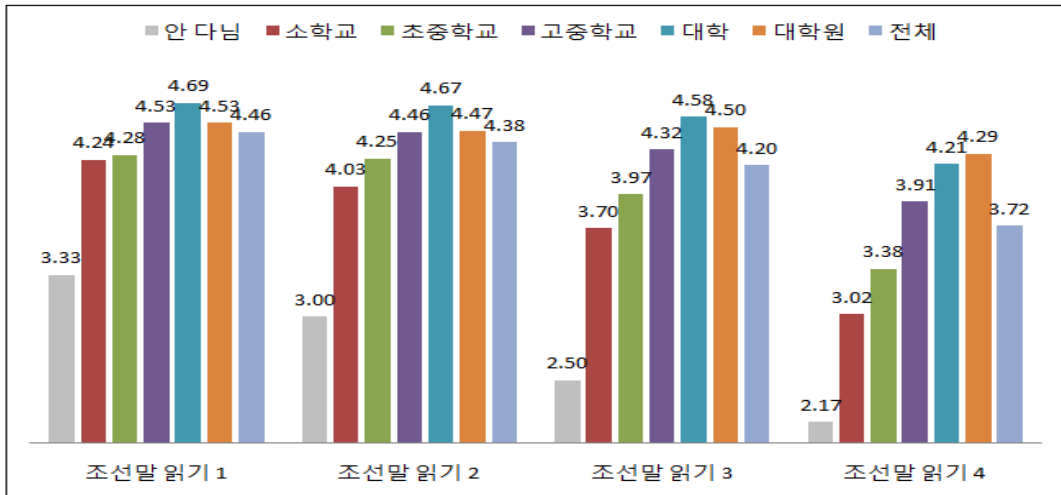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태말 읽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중년층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높은 단계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역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중년층의 읽기 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의 읽기 능력은 모든 단계에서 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노년층이 직업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게 되면서 읽기가 그만큼 줄어들어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읽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1> 조선태말 읽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조선태말 읽기 1	조선태말 읽기 2	조선태말 읽기 3	조선태말 읽기 4
안 님	3.33	3.00	2.50	2.17
소 학교	4.24	4.03	3.70	3.02
초 중 학교	4.28	4.25	3.97	3.38
고 중 학교	4.53	4.46	4.32	3.91
대 학	4.69	4.67	4.58	4.21
대 학 원	4.53	4.47	4.50	4.29
전 체	4.46	4.38	4.20	3.72



<그림 79> 조선평 읽기 능력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조선평 읽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볼 때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특히 높은 단계에서는 학력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학력이 읽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1.4. 쓰기

재중 동포들의 조선평 쓰기 능력도 다음과 같은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말하기나 듣기, 읽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이 문항 또한 4단계로 구성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38. 귀하는 조선평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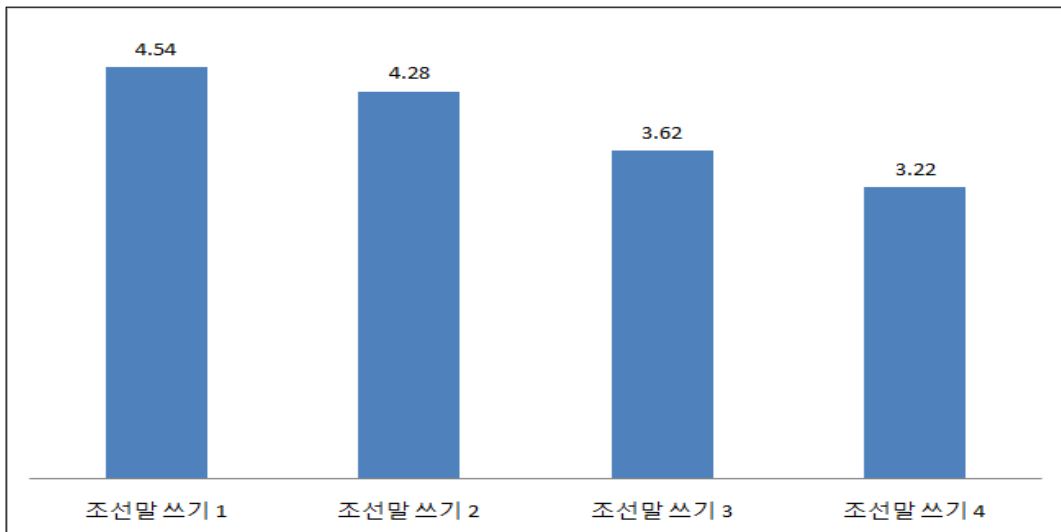
질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1)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2> 조선말 쓰기 능력

쓰 기	평균	표준 편차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4.54	0.93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4.28	1.09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3.62	1.29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3.22	1.42



<그림 80> 조선말 쓰기 능력

조선말 쓰기 능력은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4.54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3.22로서 약 1.3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 단계부터는 평균값이 많이 떨어진다. 또한 전체적으로 큰 표준 편차를 보이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쓰기는 매우 능동적인 활동인데다 학습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언어의 네 기능을 비교해 보면 말하거나 듣기, 읽기 능력에 비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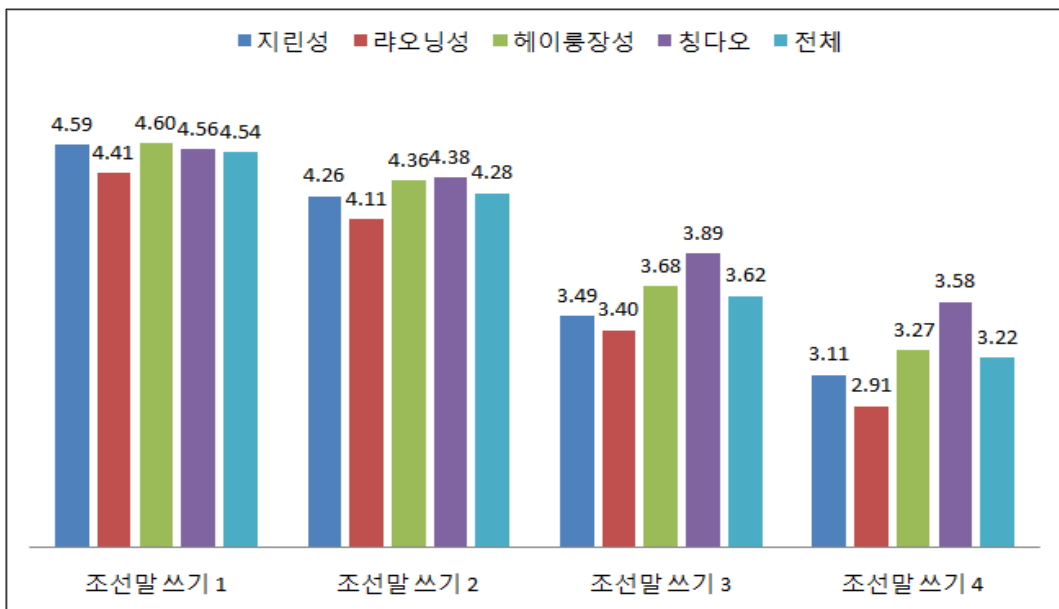
대적으로 조선말 쓰기 능력은 평균값이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말 쓰기 능력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3> 조선말 쓰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조선말 쓰기 1	조선말 쓰기 2	조선말 쓰기 3	조선말 쓰기 4
지린성	4.59	4.26	3.49	3.11
랴오닝성	4.41	4.11	3.40	2.91
헤이룽장성	4.60	4.36	3.68	3.27
칭다오	4.56	4.38	3.89	3.58
전 체	4.54	4.28	3.62	3.22



<그림 81> 조선말 쓰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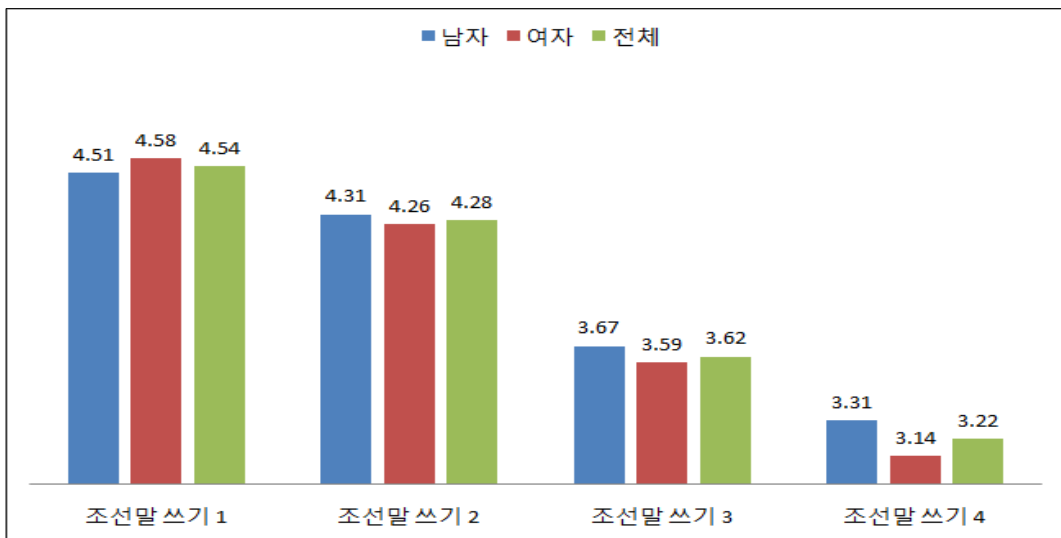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랴오닝성(遼寧省)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칭다오(靑島)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높은 단계의 쓰기에서는 그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칭다오 지역은 높은 단계에서 쓰기 능력의 평균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높은 단계의 쓰기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 앞의 <표 19>와 <그림 7>에서 본 바와 같이 칭다오 지역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과 관계가 있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4> 조선말 쓰기 능력 - 성별

성별	조선말 쓰기 1	조선말 쓰기 2	조선말 쓰기 3	조선말 쓰기 4
남자	4.51	4.31	3.67	3.31
여자	4.58	4.26	3.59	3.14
전체	4.54	4.28	3.62	3.22



<그림 82> 조선말 쓰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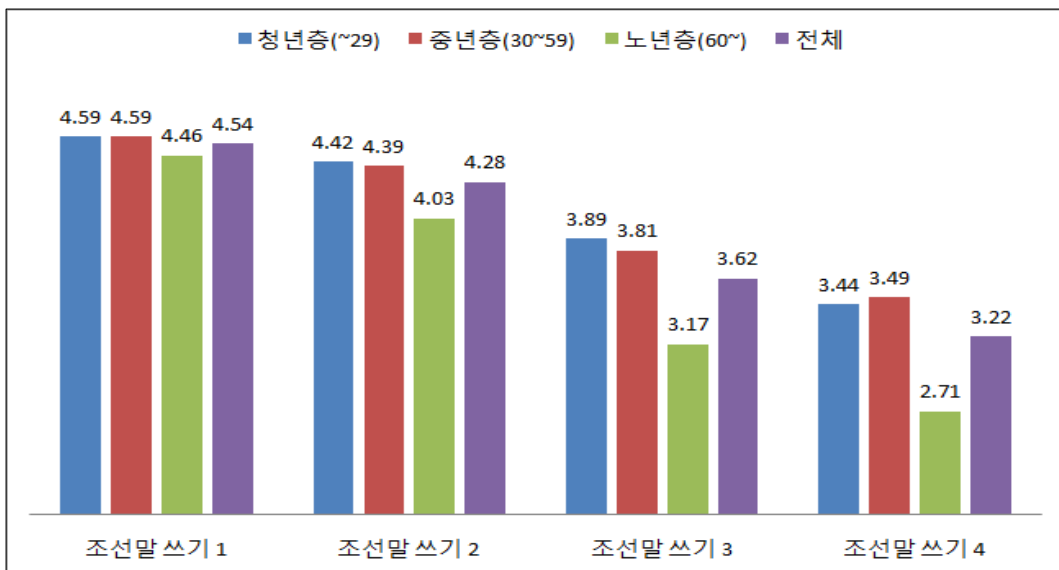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낮은 단계에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지만 높은 단계에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타난다. 특히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더 크게 역전된다. 쓰기 능력은 매우 능동적인 능력이고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5> 조선말 쓰기 능력 - 연령별

연령	조선말 쓰기 1	조선말 쓰기 2	조선말 쓰기 3	조선말 쓰기 4
청년층(~29)	4.59	4.42	3.89	3.44
중년층(30~59)	4.59	4.39	3.81	3.49
노년층(60~)	4.46	4.03	3.17	2.71
전체	4.54	4.28	3.62	3.22



<그림 83> 조선말 쓰기 능력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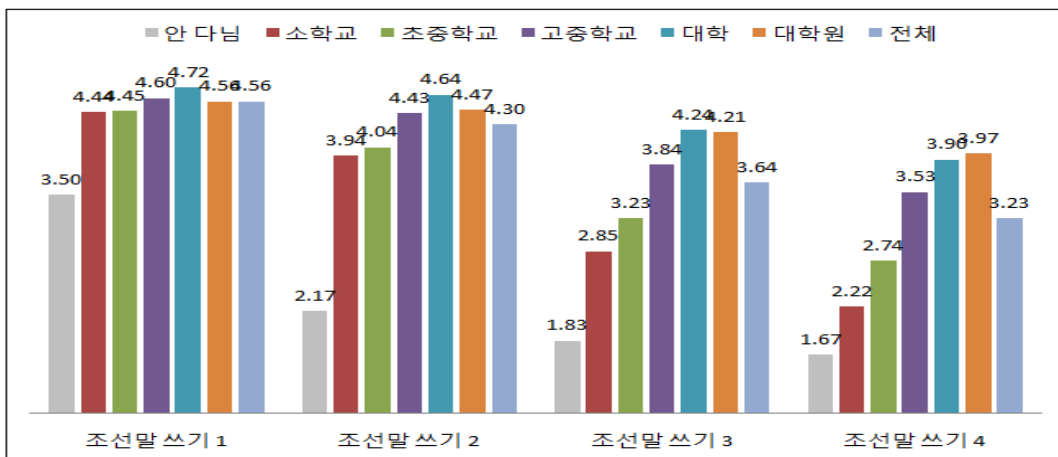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단계가 높아질수록 노년층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쓰기 능력은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하는 능력인데 노년층의 교육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년층은 왕성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여 조선말 쓰기를 할 기회가 줄어들어 쓰기 능력이 낮아진 것과는 관련이 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노년층 조사 대상자들에게 자주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젊었을 때는 잘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거나 잘 못한다는 대답이 많았던 점은 참고할 만하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쓰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6> 조선말 쓰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조선말 쓰기 1	조선말 쓰기 2	조선말 쓰기 3	조선말 쓰기 4
안 다님	3.50	2.17	1.83	1.67
소학교	4.44	3.94	2.85	2.22
초중학교	4.45	4.04	3.23	2.74
고중학교	4.60	4.43	3.84	3.53
대 학	4.72	4.64	4.24	3.90
대학원	4.56	4.47	4.21	3.97
전 체	4.56	4.30	3.64	3.23



<그림 84> 조선말 쓰기 능력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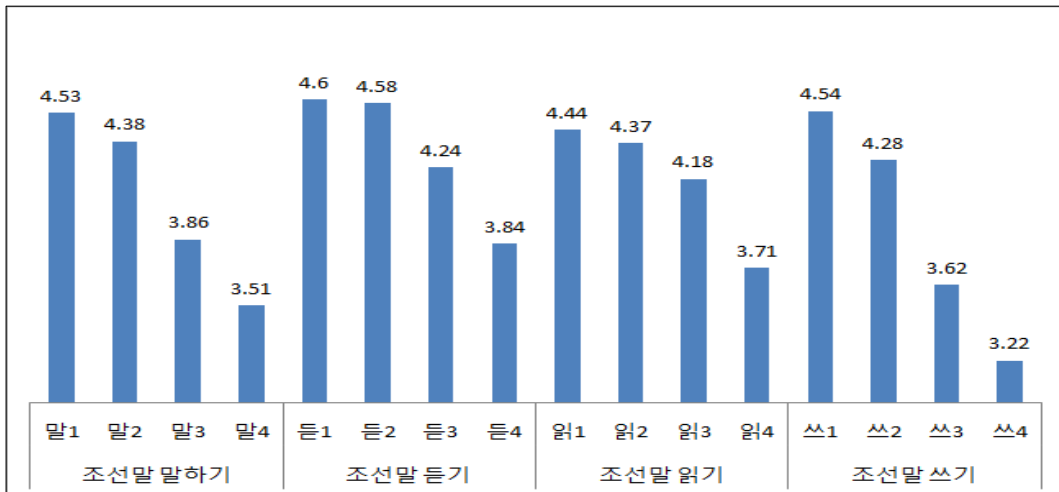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쓰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볼 때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높은 단계의 쓰기 능력일수록 학력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단계의 쓰기 능력에 대한 평균값도 높게 나타난다.

3.1.5. 언어 능력별 비교

이상의 언어 능력을 분야별로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7> 조선말 능력 - 영역별

구분	조선말 말하기				조선말 듣기				조선말 읽기				조선말 쓰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평균	4.53	4.38	3.86	3.51	4.60	4.58	4.24	3.84	4.44	4.37	4.18	3.71	4.54	4.28	3.62	3.22



<그림 85> 조선말 능력 - 영역별

조선말 능력을 분야별로 종합해 보면 모든 영역에서 단계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즉 낮은 단계일수록 영역별 조선말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단계일수록 영역별 조선말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

역에서 단계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가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말하기보다는 쓰기에서 단계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3.2. 한쪽말 능력

3.2.1. 말하기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말하기 능력은 다음과 같은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설문은 조선말 능력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문항은 다시 능력에 따라 4단계로 구성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이고 (4)는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이다. 5점 척도식 문항이므로 각 문항의 평균을 분석하고, 각 문항은 언어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4단계로 구성하였으므로 네 문항을 동시에 비교한다(이하 같음).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35. 귀하는 조선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39. 귀하는 한쪽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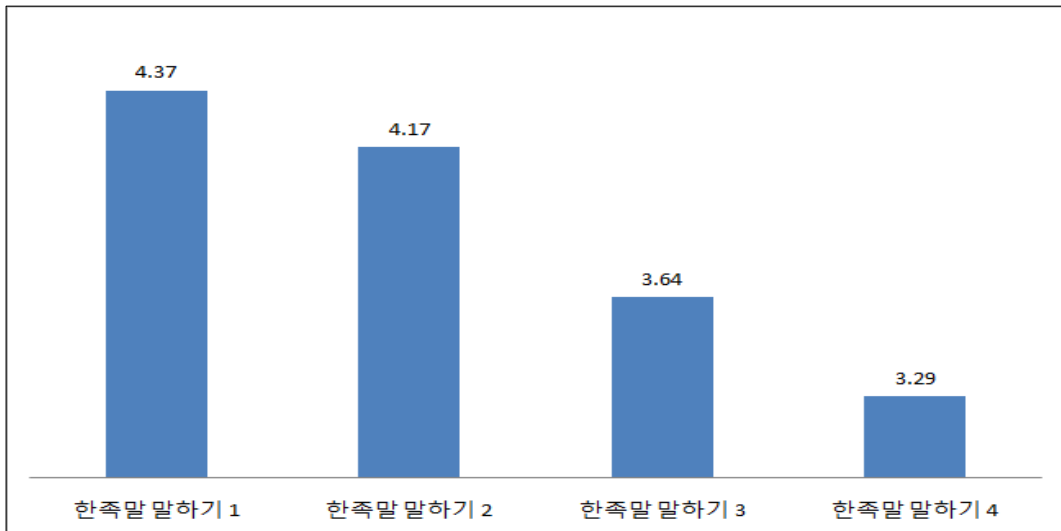
질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 한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8> 한족말 말하기 능력

말하기	평균	표준 편차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4.37	0.93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4.17	1.08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3.64	1.26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3.29	1.35



<그림 86> 한족말 말하기 능력

한족말 말하기 능력은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 쉬운 단계의 말하기 수준은 높고 어려운 단계의 말하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가장 낮은 단계의 말하기 능력의 평균값은 4.37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말하기 능력의 평균값은 3.29로서 약 1.1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큰 편이다. 재중 동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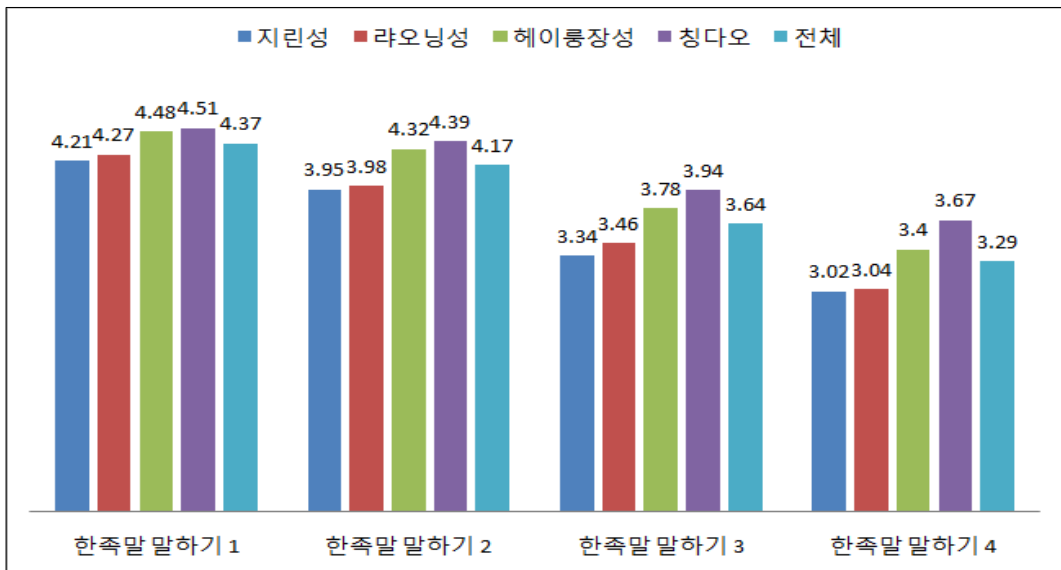
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표 87>의 조선말 말하기 능력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편이다. 이는 말하기에서는 재중 동포들이 이중 언어를 비교적 잘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9>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한족말 듣기 1	한족말 듣기 2	한족말 듣기 3	한족말 듣기 4
지린성	4.23	4.16	3.98	3.39
랴오닝성	4.19	3.98	3.82	3.24
헤이룽장성	4.64	4.59	4.35	3.95
칭다오	4.59	4.57	4.37	3.96
전 체	4.43	4.34	4.14	3.65



<그림 87>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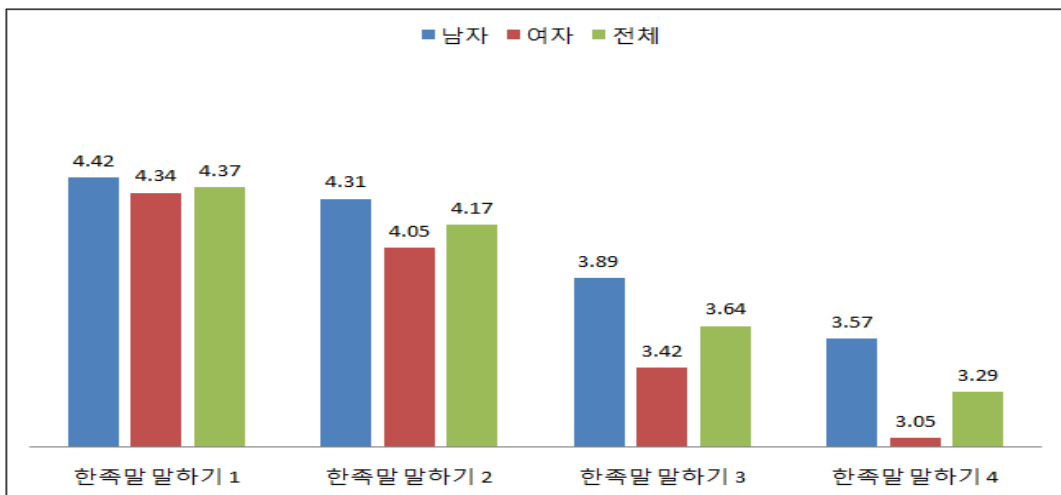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칭다오(靑島)의 평균값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칭다오에 이어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칭다오나 헤이룽장성 지역에서는 그만큼 한족말을 자유롭게 잘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들 지역에는 재중 동포가 적어 상대적으로 조선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여건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0>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성별

성별	한족말 말하기 1	한족말 말하기 2	한족말 말하기 3	한족말 말하기 4
남자	4.42	4.31	3.89	3.57
여자	4.34	4.05	3.42	3.05
전체	4.37	4.17	3.64	3.29



<그림 88>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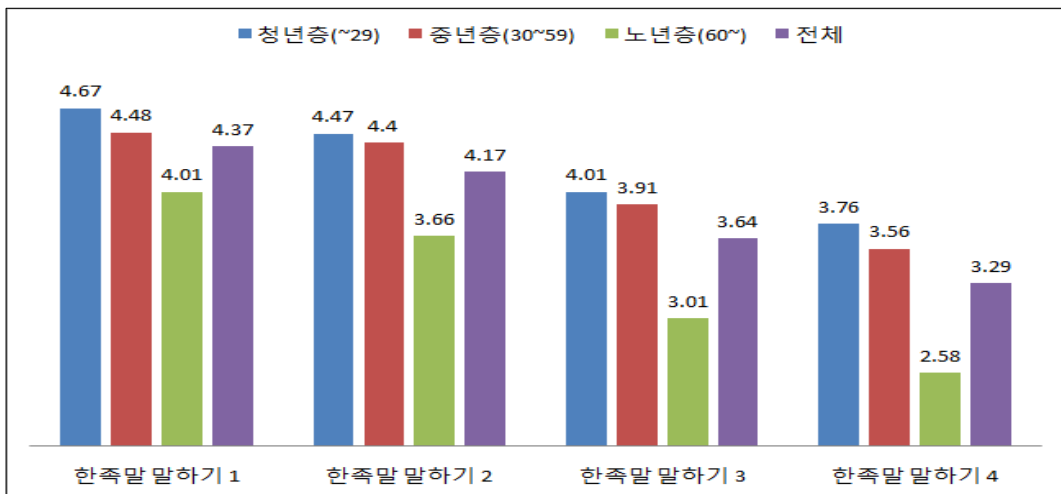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은 전반적으로 여자 쪽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타나며 높은 단계로 갈수록 그 차이가 크다. 재중 동포들의 생활 환경상 한족말은 공적인 상황에서 써야 할 경우와 일상생활에서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공적인 언어 환경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여성들의 한족말 능력이 높은 단계로 갈수록 남성들의 그것에 비해 낮고 차이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1>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연 령	한족말 말하기 1	한족말 말하기 2	한족말 말하기 3	한족말 말하기 4
청년층(~29)	4.67	4.47	4.01	3.76
중년층(30~59)	4.48	4.4	3.91	3.56
노년층(60~)	4.01	3.66	3.01	2.58
전 체	4.37	4.17	3.64	3.29



<그림 89> 한족말 말하기 능력 - 연령별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노년층이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높은 단계로 갈수록 그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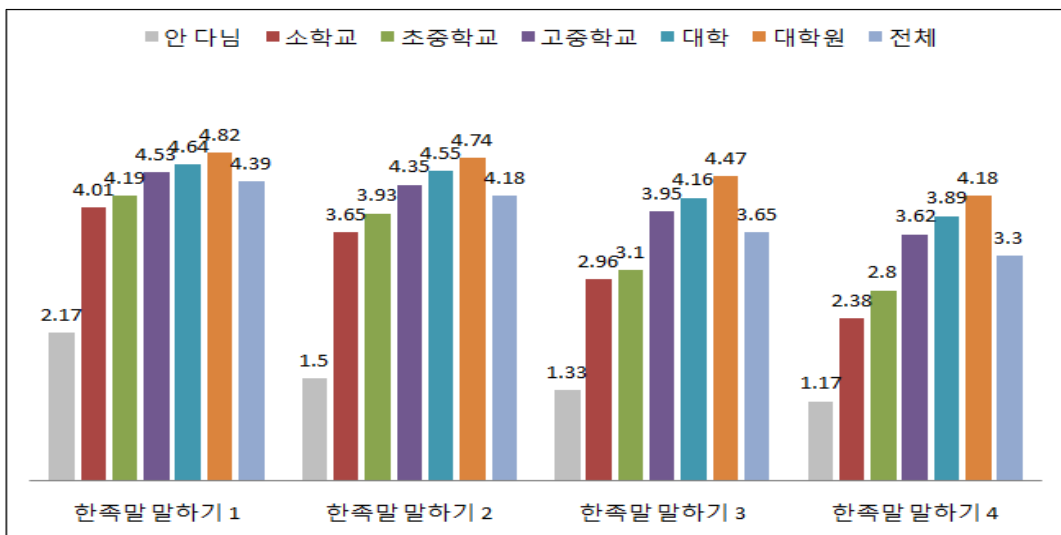
더 크게 나타난다. 한족말은 공식적인 언어의 성격이 강하고 학교 교육을 받아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데 앞의 <표 23>과 <그림 9>에서 보았듯이 노년층은 중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았기(학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말하면 노년층은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중 언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2> 한족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한족말 말하기 1	한족말 말하기 2	한족말 말하기 3	한족말 말하기 4
안 다님	2.17	1.50	1.33	1.17
소학교	4.01	3.65	2.96	2.38
초중학교	4.19	3.93	3.10	2.80
고등학교	4.53	4.35	3.95	3.62
대 학	4.64	4.55	4.16	3.89
대학원	4.82	4.74	4.47	4.18
전 체	4.39	4.18	3.65	3.30



<그림 90> 한족말 말하기 능력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말하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볼 때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력별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학력이 한족말 말하기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듣기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은 다음과 같은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설문 또한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4단계로 구성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40. 귀하는 한족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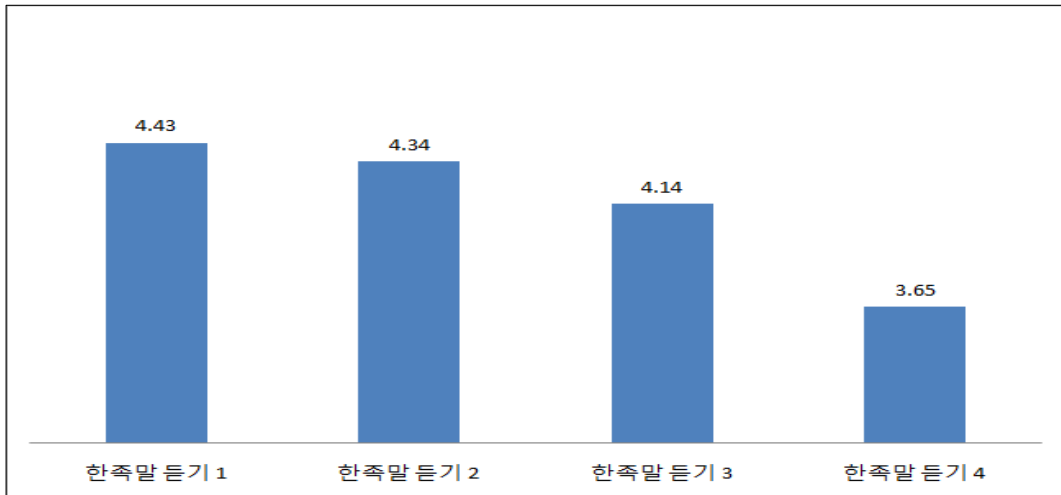
질 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 한다
(1) 인사말이나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댄스(TV)에서 하는 보도(뉴스)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3> 한족말 듣기 능력

듣 기	평균	표준 편차
인사말이나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43	0.93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34	0.97
댄스(TV)에서 하는 보도(뉴스)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4.14	1.10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3.65	1.32



<그림 91> 한쪽말 듣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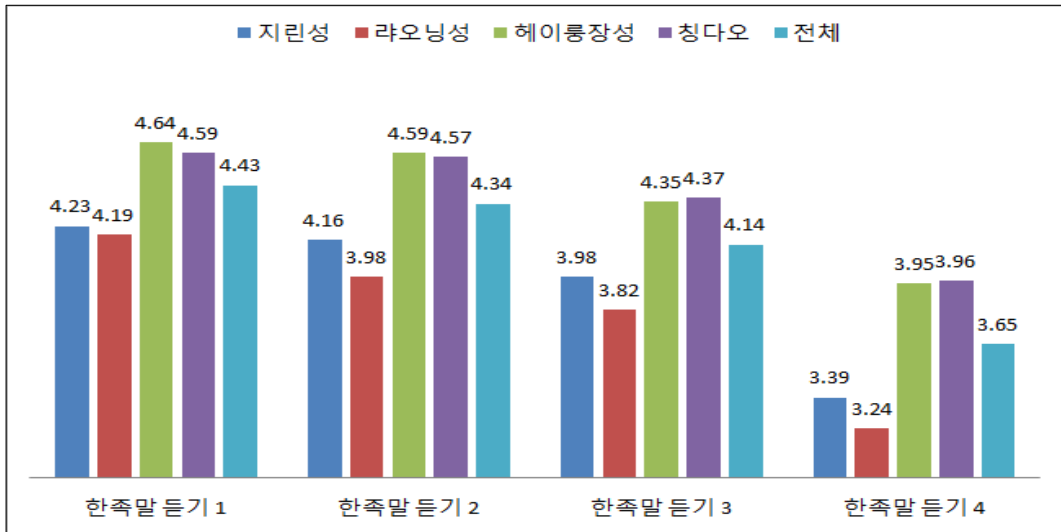
한쪽말 듣기 능력은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즉 낮은 단계의 듣기는 잘 하지만 고급 단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3>에서 보듯이 가장 낮은 단계의 듣기 능력 평균값은 4.43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 평균값은 3.65로서 약 0.8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가 큰 편인데 높은 단계로 갈수록 더 커진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듣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4> 한쪽말 듣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한쪽말 듣기 1	한쪽말 듣기 2	한쪽말 듣기 3	한쪽말 듣기 4
지린성	4.23	4.16	3.98	3.39
랴오닝성	4.19	3.98	3.82	3.24
헤이룽장성	4.64	4.59	4.35	3.95
칭다오	4.59	4.57	4.37	3.96
전 체	4.43	4.34	4.14	3.65



<그림 92> 한족말 듣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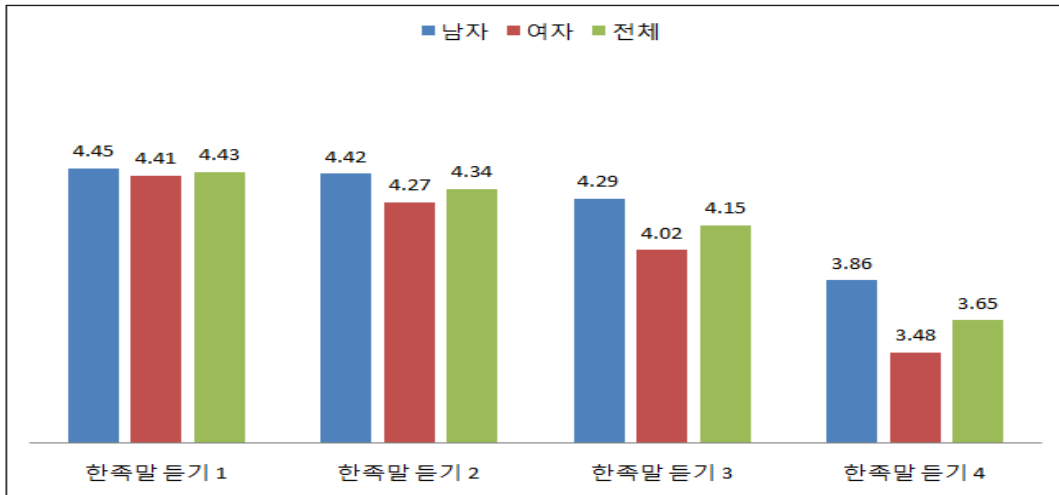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헤이룽장성 지역에서 한족말 듣기 능력의 평균값이 높은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족말 사용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랴오닝성(遼寧省)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나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더 커진다. 랴오닝성은 조선말의 듣기 능력(cf. <표 93> <그림 71>)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한족말에서도 <표 114>와 <그림 92>에서 보듯이 듣기 능력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5> 한족말 듣기 능력 - 성별

성별	한족말 듣기 1	한족말 듣기 2	한족말 듣기 3	한족말 듣기 4
남자	4.45	4.42	4.29	3.86
여자	4.41	4.27	4.02	3.48
전체	4.43	4.34	4.15	3.65



<그림 93> 한족말 듣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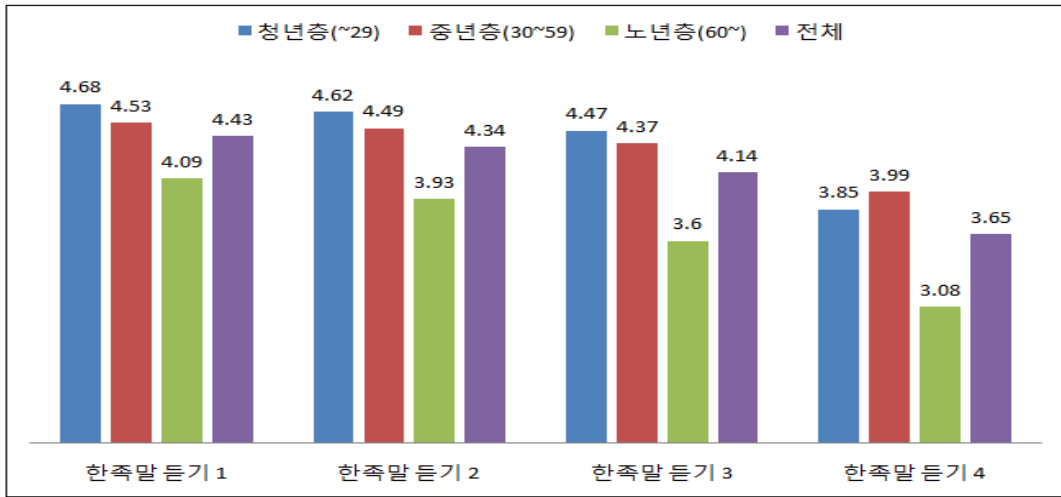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낮은 단계에서는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높은 단계로 갈수록 여자 쪽의 평균값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공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6> 한족말 듣기 능력 - 연령별

연령	한족말 듣기 1	한족말 듣기 2	한족말 듣기 3	한족말 듣기 4
청년층(~29)	4.68	4.62	4.47	3.85
중년층(30~59)	4.53	4.49	4.37	3.99
노년층(60~)	4.09	3.93	3.6	3.08
전체	4.43	4.34	4.14	3.65



<그림 94> 한족말 듣기 능력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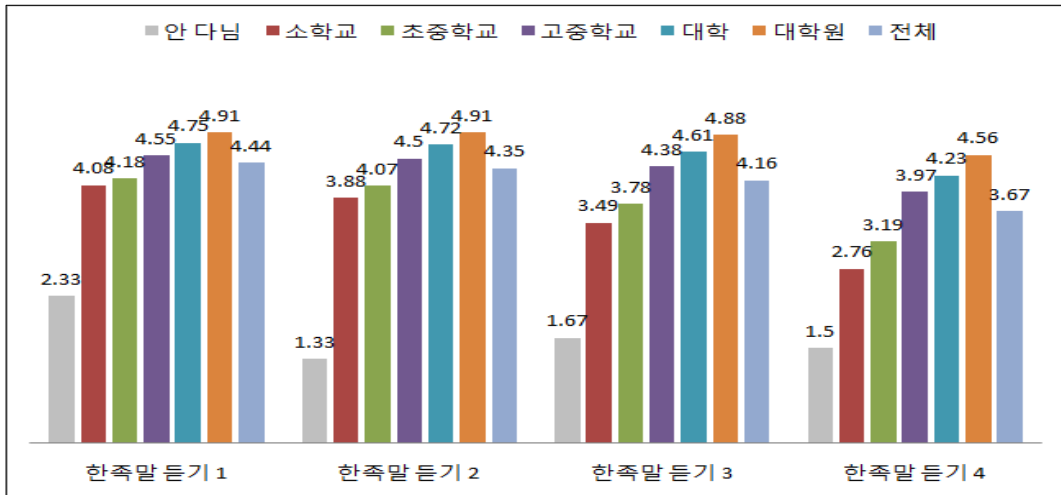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노년층이 모든 능력 단계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높은 단계일수록 노년층의 듣기 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노년층은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한족 학교를 다닌 비율도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7> 한족말 듣기 능력 - 학력별

학 려	한족말 듣기 1	한족말 듣기 2	한족말 듣기 3	한족말 듣기 4
안 다님	2.33	1.33	1.67	1.5
소학교	4.08	3.88	3.49	2.76
초중학교	4.18	4.07	3.78	3.19
고중학교	4.55	4.5	4.38	3.97
대 학	4.75	4.72	4.61	4.23
대학원	4.91	4.91	4.88	4.56
전 체	4.44	4.35	4.16	3.67



<그림 95> 한족말 듣기 능력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듣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높은 단계의 듣기 능력에서는 학력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한족말 듣기 능력도 조선말 듣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고급 수준의 한족말을 배우기 때문으로 보인다.

3.2.3. 읽기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도 다음과 같이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읽기 능력 조사를 위한 문항 또한 말하기나 듣기와 마찬가지로 언어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4단계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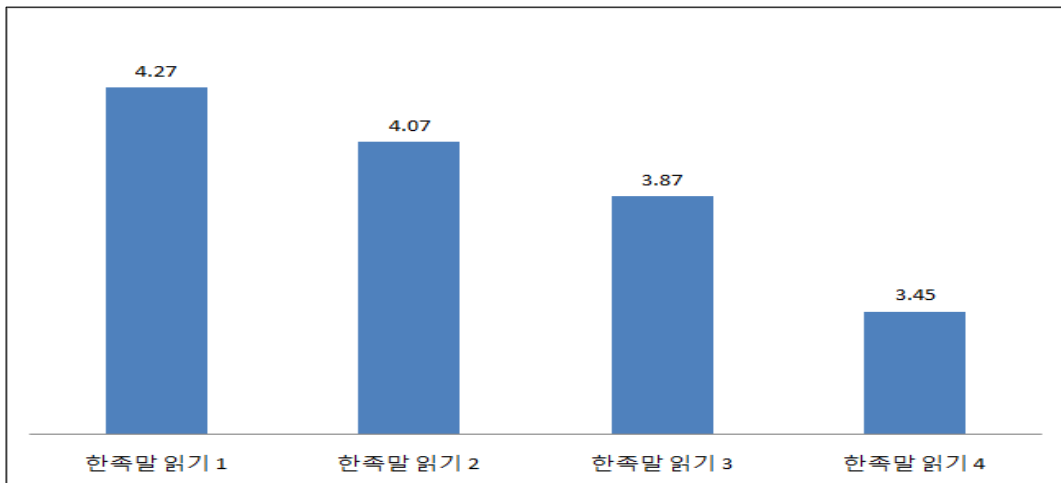
41. 귀하는 한족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질 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 한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읽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8> 한쪽말 읽기 능력

읽 기	평균	표준 편차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27	1.10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07	1.22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87	1.33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45	1.38



<그림 96> 한쪽말 읽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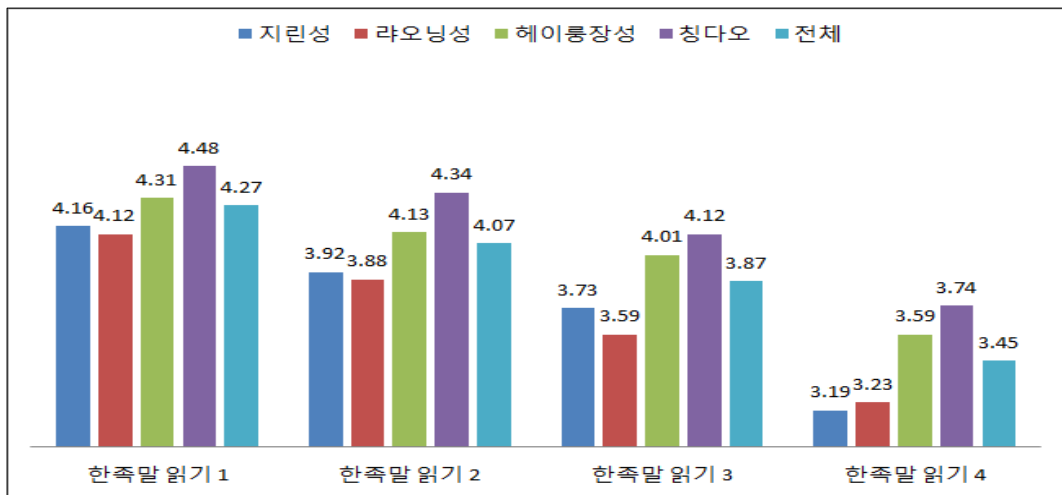
한쪽말 읽기 능력 또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평균값이 점차 낮아지는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읽기 능력의 평균값은 4.27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읽기 능력의 평균값은 3.45로서 약 0.8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높은 단계로 갈수록 그 편차가 더 커진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9> 한족말 읽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한족말 읽기 1	한족말 읽기 2	한족말 읽기 3	한족말 읽기 4
지린성	4.16	3.92	3.73	3.19
랴오닝성	4.12	3.88	3.59	3.23
헤이룽장성	4.31	4.13	4.01	3.59
칭다오	4.48	4.34	4.12	3.74
전 체	4.27	4.07	3.87	3.45



<그림 97> 한족말 읽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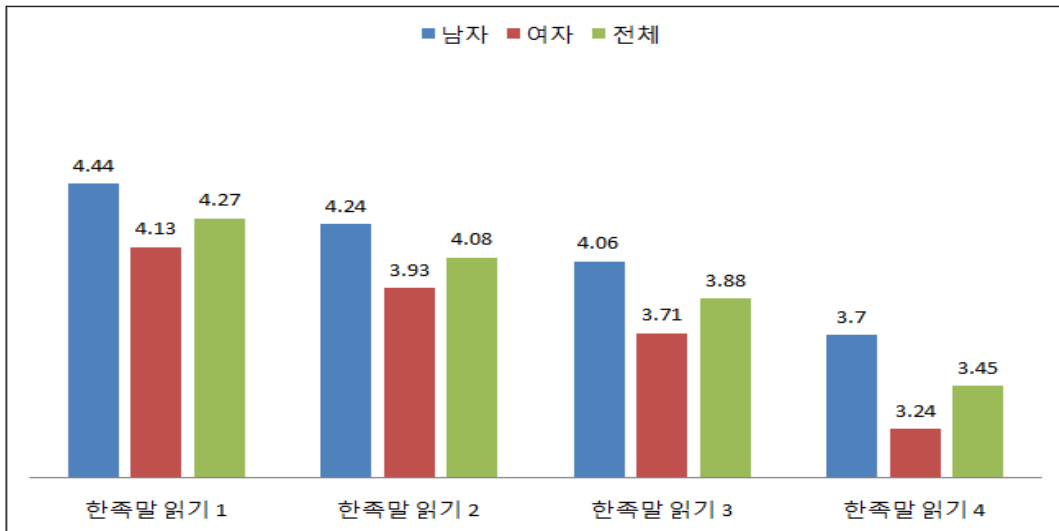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칭다오(靑島)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 그 뒤를 이어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칭다오와 헤이룽장성에 비해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의 평균값은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언어 사용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칭다오와 헤이룽장성 지역은 지린성이나 랴오닝성 지역에 비해 조선족의 비율이 낮아 한족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칭다오의 뒤를 이어 헤이룽장성이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조선말 읽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0> 한쪽말 읽기 능력 - 성별

성별	한쪽말 읽기 1	한쪽말 읽기 2	한쪽말 읽기 3	한쪽말 읽기 4
남자	4.44	4.24	4.06	3.7
여자	4.13	3.93	3.71	3.24
전체	4.27	4.08	3.88	3.45



<그림 98> 한쪽말 읽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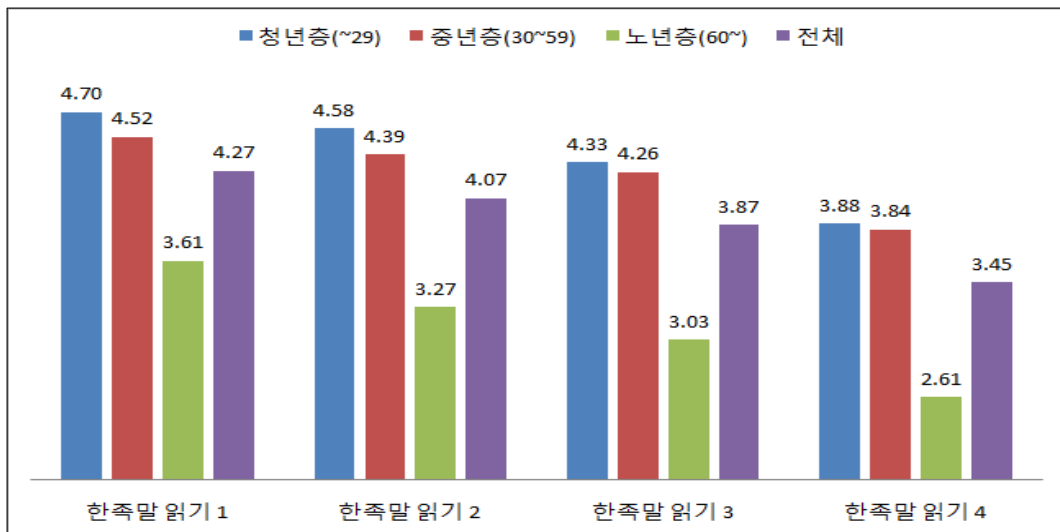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읽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평균 값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읽기 능력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한쪽말을 여성들이 배울 기회가 적었음을 뜻한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1> 한족말 읽기 능력 - 연령별

연령	한족말 읽기 1	한족말 읽기 2	한족말 읽기 3	한족말 읽기 4
청년층(~29)	4.70	4.58	4.33	3.88
중년층(30~59)	4.52	4.39	4.26	3.84
노년층(60~)	3.61	3.27	3.03	2.61
전체	4.27	4.07	3.87	3.45



<그림 99> 한족말 읽기 능력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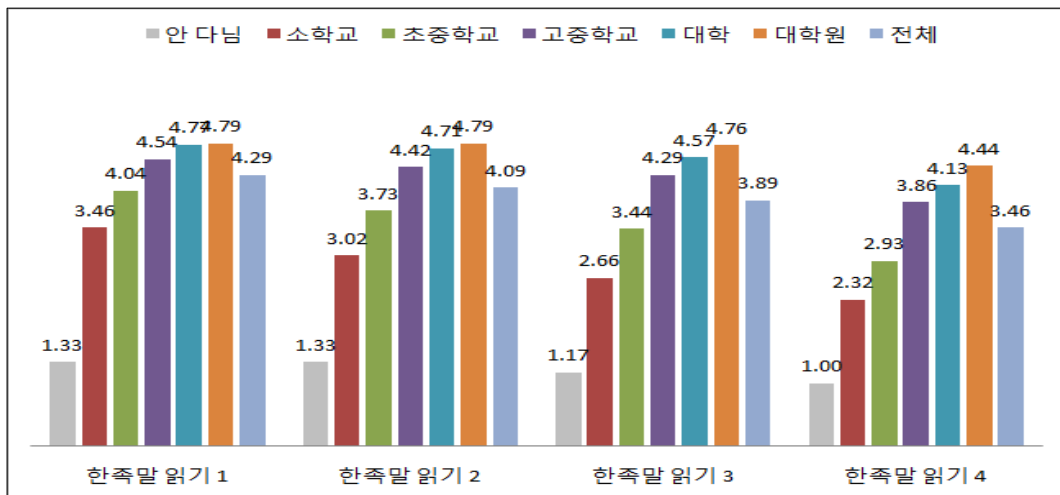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은 비슷한데 노년층은 모든 단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노년층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다른 연령층의 읽기 능력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앞의 <표 24>~<표 26>에서 보았듯이 노년층이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학교에 다닌 비율이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보다 높아 한족말을 배울 기회가 중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2> 한족말 읽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한족말 읽기 1	한족말 읽기 2	한족말 읽기 3	한족말 읽기 4
안 다님	1.33	1.33	1.17	1.00
소학교	3.46	3.02	2.66	2.32
초중학교	4.04	3.73	3.44	2.93
고중학교	4.54	4.42	4.29	3.86
대 학	4.77	4.71	4.57	4.13
대학원	4.79	4.79	4.76	4.44
전 체	4.29	4.09	3.89	3.46



<그림 100> 한족말 읽기 능력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읽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예측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읽기 능력도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특히 높은 단계의 읽기 능력일수록 학력별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학력과 읽기 능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고급 수준의 읽기를 배우게 되므로 읽기 능력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력 간 편차가 큰 것이다.

3.2.4. 쓰기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쓰기 능력도 말하기나 듣기, 읽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5점 척도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한족말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또한 다음과 같이 언어 능력 단계를 고려하여 4단계로 구성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42. 귀하는 한족말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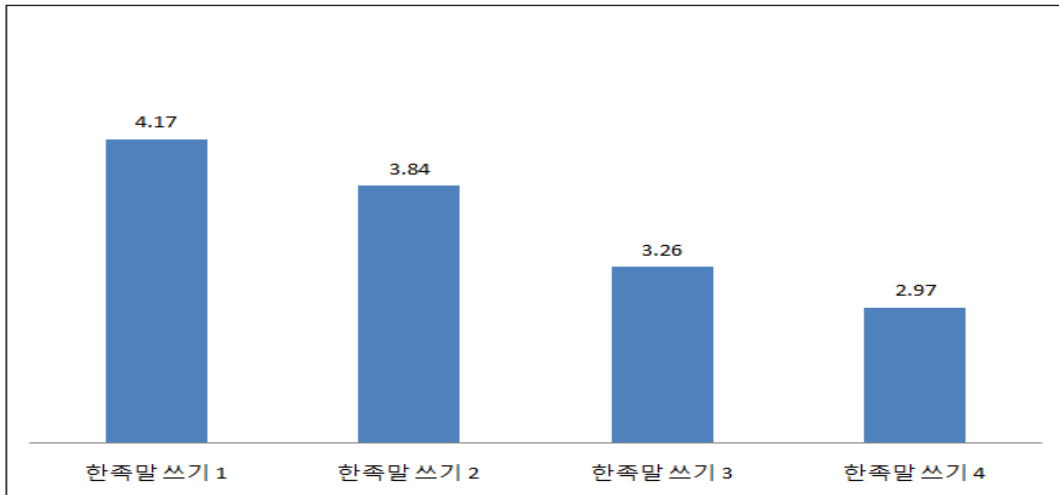
질 문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 한다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쓰기 능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3> 한족말 쓰기 능력

쓰 기	평균	표준 편차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4.17	1.16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3.84	1.34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3.26	1.38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2.97	1.42



<그림 101> 한쪽말 쓰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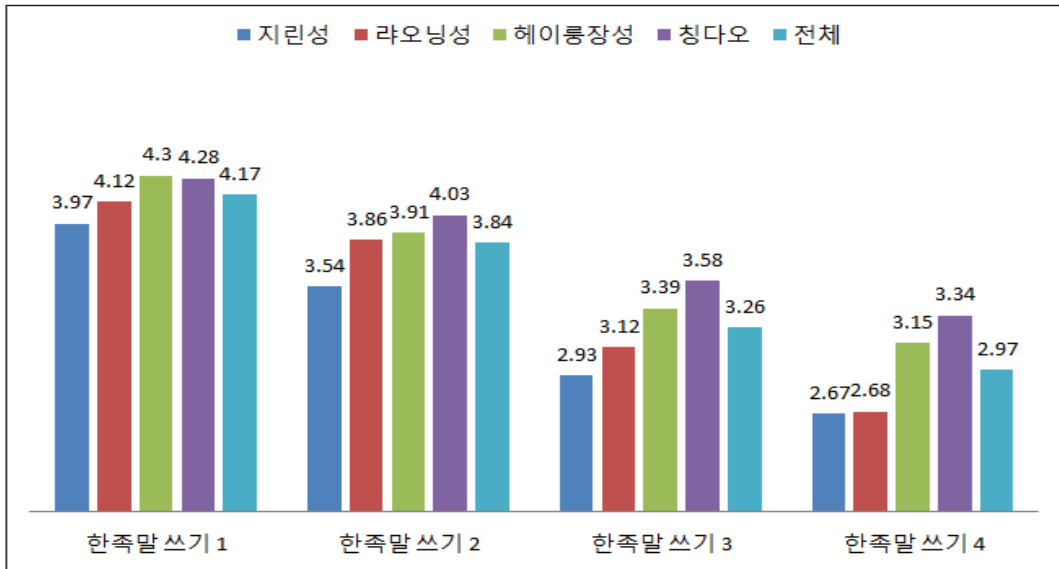
한쪽말 쓰기 능력 역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가장 낮은 단계의 쓰기 능력의 평균값은 4.17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쓰기 능력의 평균값은 2.97로서 약 1.3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큰 표준 편차를 보이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쓰기는 매우 능동적인 활동인데다 학습을 많이 해야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큰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쓰기 능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한쪽말 쓰기 능력 - 지역별

조사 지역	한쪽말 쓰기 1	한쪽말 쓰기 2	한쪽말 쓰기 3	한쪽말 쓰기 4
지린성	3.97	3.54	2.93	2.67
랴오닝성	4.12	3.86	3.12	2.68
헤이룽장성	4.3	3.91	3.39	3.15
칭다오	4.28	4.03	3.58	3.34
전 체	4.17	3.84	3.26	2.97



<그림 102> 한쪽말 쓰기 능력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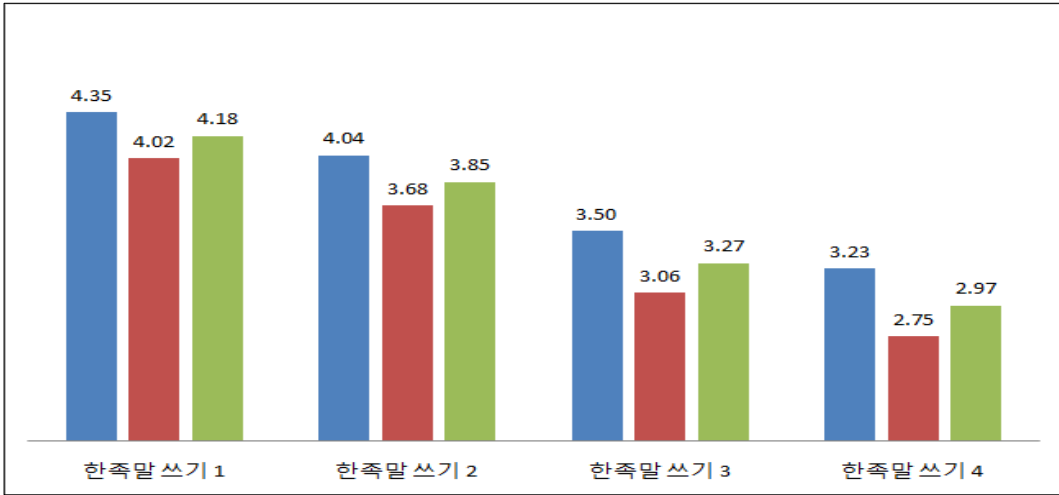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쓰기 능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칭다오(靑島)가 거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반해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평균값은 더 낮아져 지역 간의 편차가 커진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쓰기 능력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5> 한쪽말 쓰기 능력 - 성별

성 별	한쪽말 쓰기 1	한쪽말 쓰기 2	한쪽말 쓰기 3	한쪽말 쓰기 4
남 자	4.35	4.04	3.50	3.23
여 자	4.02	3.68	3.06	2.75
전 체	4.18	3.85	3.27	2.97



<그림 103> 한족말 쓰기 능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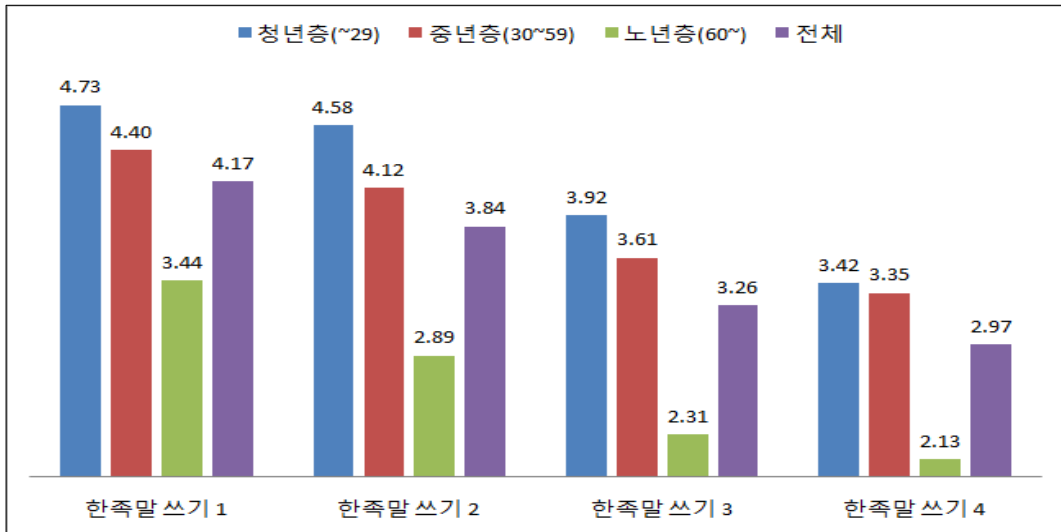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쓰기 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낮은 단계의 쓰기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쓰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한족말 쓰기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공적인 사회 활동을 할 기회도 적어 한족말 쓰기를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쓰기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6> 한족말 쓰기 능력 - 연령별

연령	한족말 쓰기 1	한족말 쓰기 2	한족말 쓰기 3	한족말 쓰기 4
청년층(~29)	4.73	4.58	3.92	3.42
중년층(30~59)	4.40	4.12	3.61	3.35
노년층(60~)	3.44	2.89	2.31	2.13
전체	4.17	3.84	3.26	2.97



<그림 104> 한쪽말 쓰기 능력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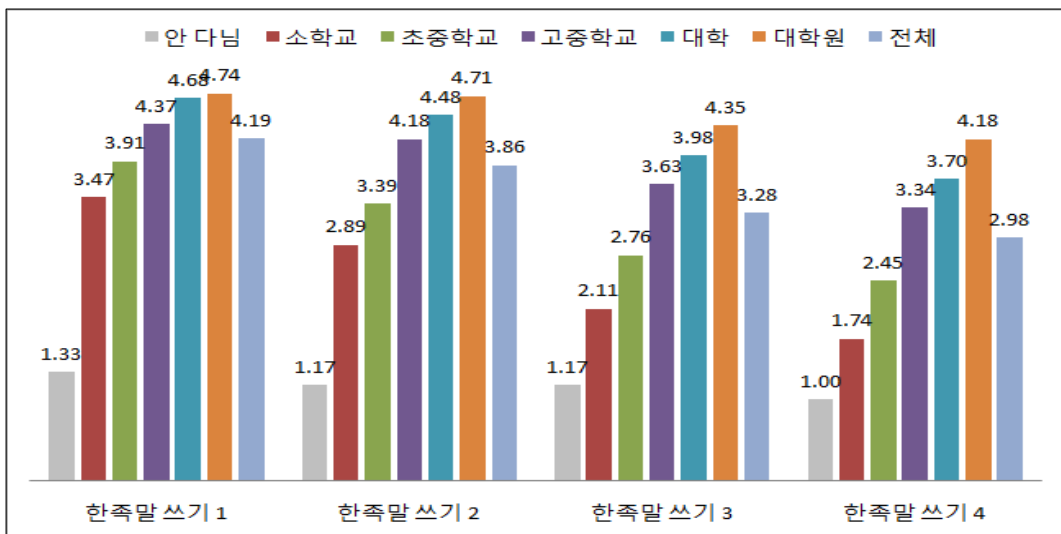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쓰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노년층의 평균값이 중년층이나 청년층의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쓰기 능력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의 평균값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노년층의 학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주로 조선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쪽말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쓰기 능력은 정규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이 길러지는데 노년층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시기에는 조선족 집거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족 학교에 다닐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때문에 쓰기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은 조선 학교에 다녀야 하고 조선말을 배워야 한다는 강한 민족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한쪽말 쓰기는 오랫동안 안 하면 그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젊었을 때는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한쪽말 쓰기를 일상적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어 사회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 한쪽말 쓰기를 안 하게 되면서 한쪽말 쓰기를 잊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의 한쪽말 쓰기 능력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7> 한족말 쓰기 능력 - 학력별

학 력	한족말 쓰기 1	한족말 쓰기 2	한족말 쓰기 3	한족말 쓰기 4
안 님	1.33	1.17	1.17	1.00
소 학교	3.47	2.89	2.11	1.74
초 중 학교	3.91	3.39	2.76	2.45
고 중 학교	4.37	4.18	3.63	3.34
대 학	4.68	4.48	3.98	3.70
대 학 원	4.74	4.71	4.35	4.18
전 체	4.19	3.86	3.28	2.98



<그림 105> 한족말 쓰기 능력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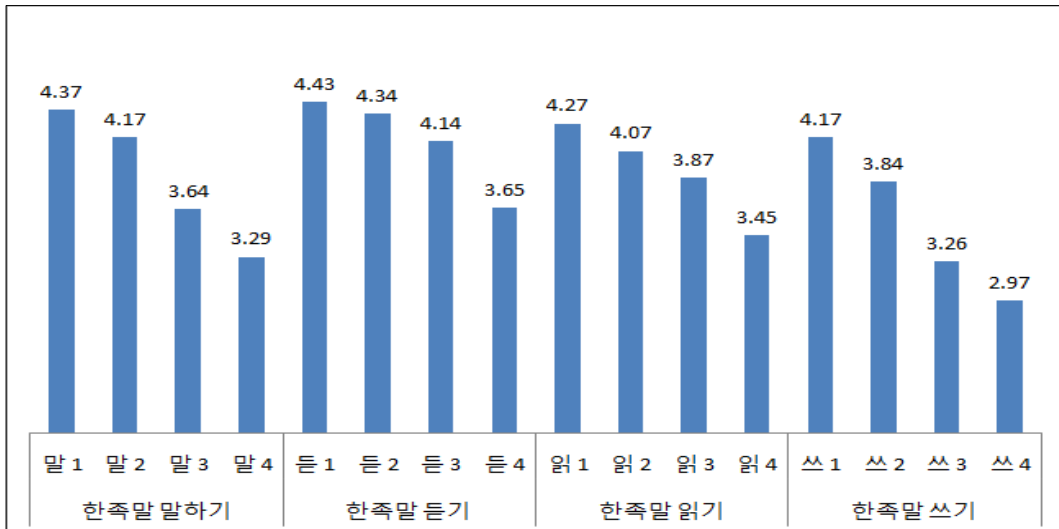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쓰기 능력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예측대로 모든 쓰기 능력 단계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한족말 쓰기 능력의 평균값도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말 쓰기 능력의 평균값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높은 단계의 쓰기 능력에서는 학력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한족말 쓰기 능력이 학력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5. 언어 능력별 비교

이상의 한족말 능력을 분야별로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8> 한족말 능력 - 영역별

구분	한족말 말하기				한족말 듣기				한족말 읽기				한족말 쓰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평균	4.37	4.17	3.64	3.29	4.43	4.34	4.14	3.65	4.27	4.07	3.87	3.45	4.17	3.84	3.26	2.97



<그림 106> 한족말 능력 - 영역별

한족말 능력을 분야별로 종합해 보면 한족말의 모든 영역에서 단계별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모든 영역에서 단계가 낮을수록 한족말 사용 능력이 높고, 높은 단계일수록 한족말 사용 능력이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단계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가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말하기보다는 쓰기에서 단계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어 기능 영역별로도 차이를 보여 한족말 듣기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이어 읽기, 말하기, 쓰기의 순서로 평균값이 낮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족말 쓰기와 읽기는 학습을 통해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족말 말하기보다 한족말 쓰기와 읽기의 평균값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3.3. 언어 간 능력 비교

재중 동포들은 이중 언어 사용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선말과 한족말 능력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문항을 통하여 두 언어 간의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을 능력 단계별로 분석하여 서로 비교해 보았다.

3.3.1. 제일 잘하는 말 비교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위 기입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말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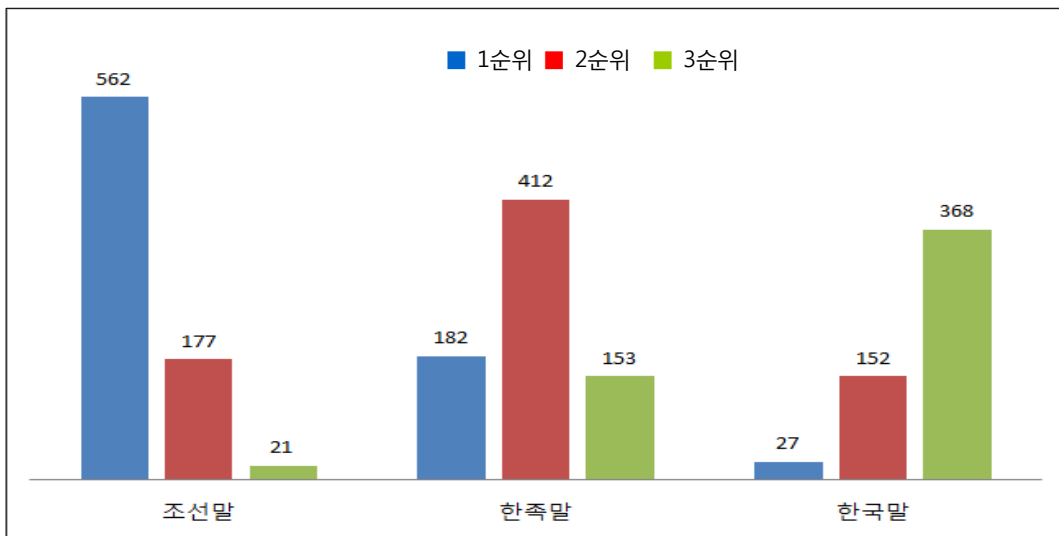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순위를 <input type="text"/> 안에 써 주십시오.			
질 문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28. 제일 잘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안 쓰는 말에는 표시하지 말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129>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조선말	562	177	21	760
한족말	182	412	153	747
한국말	27	152	368	547



<그림 107>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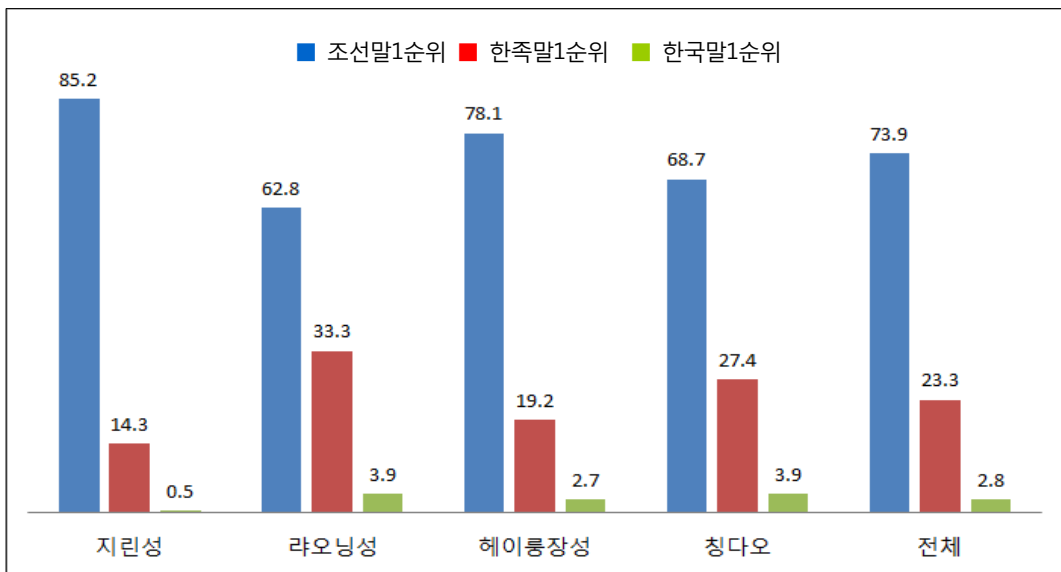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는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순이다. 이는 재중 동포들의 일반적 인식과도 일치되는 것으로서 언어의 뿌리는 조선말에 두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족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재중 동포 들이 한족말을 제일 잘한다고 꼽은 비율(182/747, 24.4%)이 한국말을 제일 잘한다고 꼽은 비율(27/547, 4.9%)보다 훨씬 높다. 이는 재중 동포 사회의 언어 상황과 현실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재중 동포 사회에서 한국말의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한국말이 재중 동포들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의 순위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0>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지역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155	26	1	27	118	37	0	39	59
랴오닝성	113	60	7	64	77	38	5	42	109
헤이룽장성	171	42	6	42	125	40	14	34	85
칭다오	123	49	7	49	92	38	8	37	115
전체	562	177	21	182	412	153	27	152	368



<그림 108>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지역별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지린성(吉林省)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선말을 1순위로 꼽았고 랴오닝성(遼寧省)이 가장 낮은 비율로 조선말을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반비례해서 한족말을 1순위로 꼽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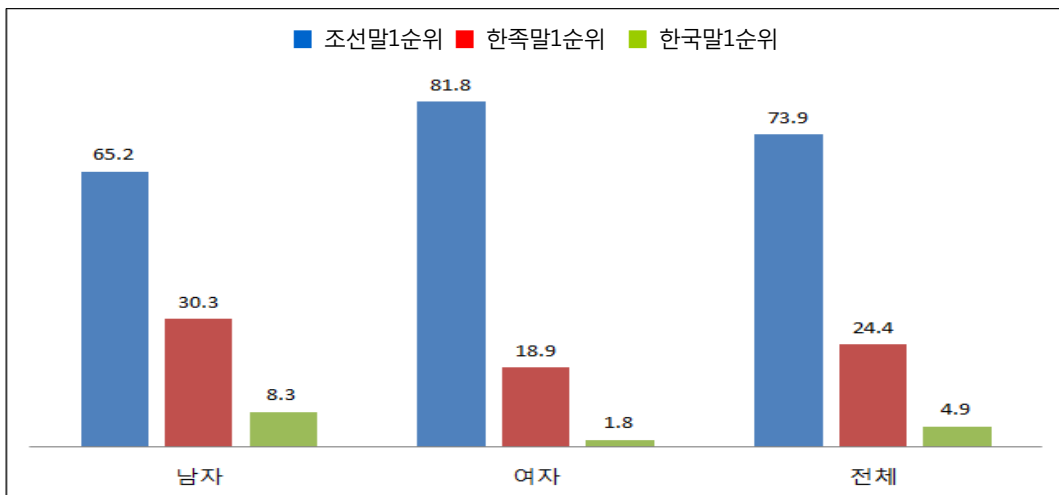
율은 라오닝성이 가장 높고 지린성이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라오닝성의 조선말 사용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의 순위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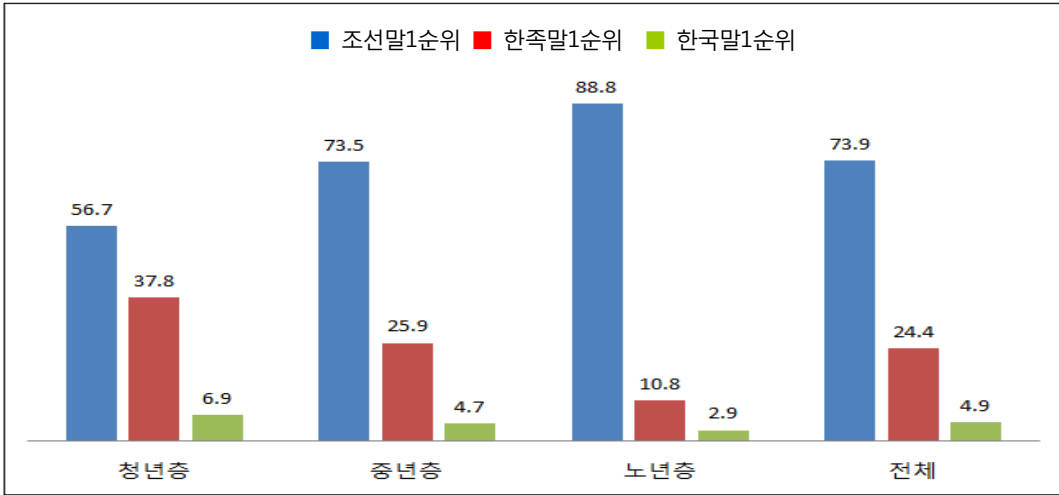
<표 131>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성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남 자	234	113	12	359	108	174	74	356	22	65	177	264
여 자	328	64	9	401	74	238	79	391	5	87	191	283
전 체	562	177	21	760	182	412	153	747	27	152	368	547



<그림 109>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성별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의 순위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이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네 분야의 언어 능력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인 한족말을 배울 기회나 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0>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연령별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의 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2>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연령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청년층	118	80	10	208	79	96	34	209	12	32	131	175
중년층	222	69	11	302	77	154	66	297	11	69	155	235
노년층	222	28	0	250	26	162	53	241	4	51	82	137
전 체	562	177	21	760	182	412	153	747	27	152	368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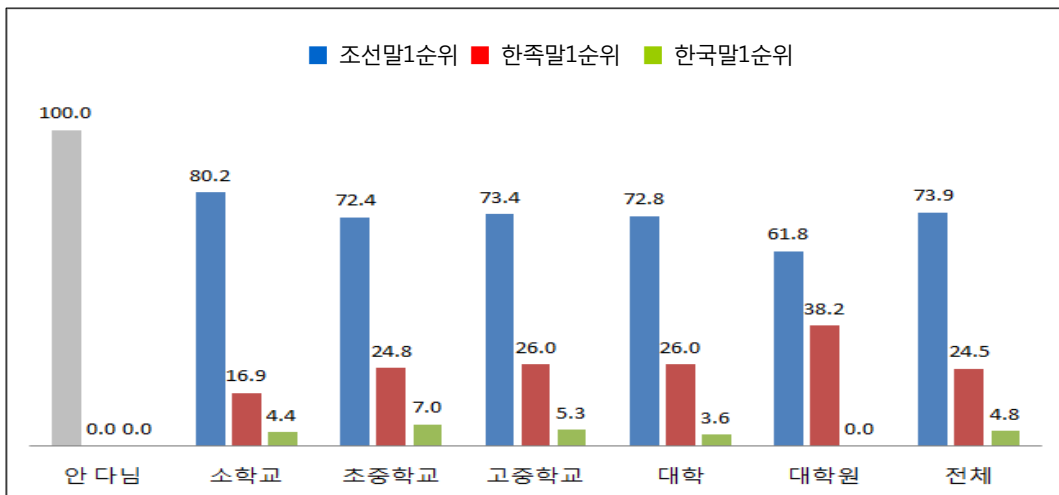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언어의 순위를 연령별로 비교해 볼 때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조선말을 1순위 언어로 꼽은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반비례해서 한족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낮아진다. 노년층 세대일수록 조선족 집거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선족 학교를 다니고 조선족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조선말을 사용해 왔는데 비해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한족 학교를 다니거나 한족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의 순위를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3>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 - 학력별

구 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안 다님	6	0	0	6	0	4	1	5	0	1	1	2
소학교	105	24	2	131	22	80	28	130	4	27	59	90
초중학교	118	42	3	163	39	83	35	157	8	32	75	115
고등학교	177	58	6	241	61	128	46	235	9	45	116	170
대 학	131	46	3	180	47	101	33	181	5	31	102	138
대학원	21	7	6	34	13	12	9	34	0	15	14	29
전 체	558	177	20	755	182	408	152	742	26	151	367	544



<그림 111>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 말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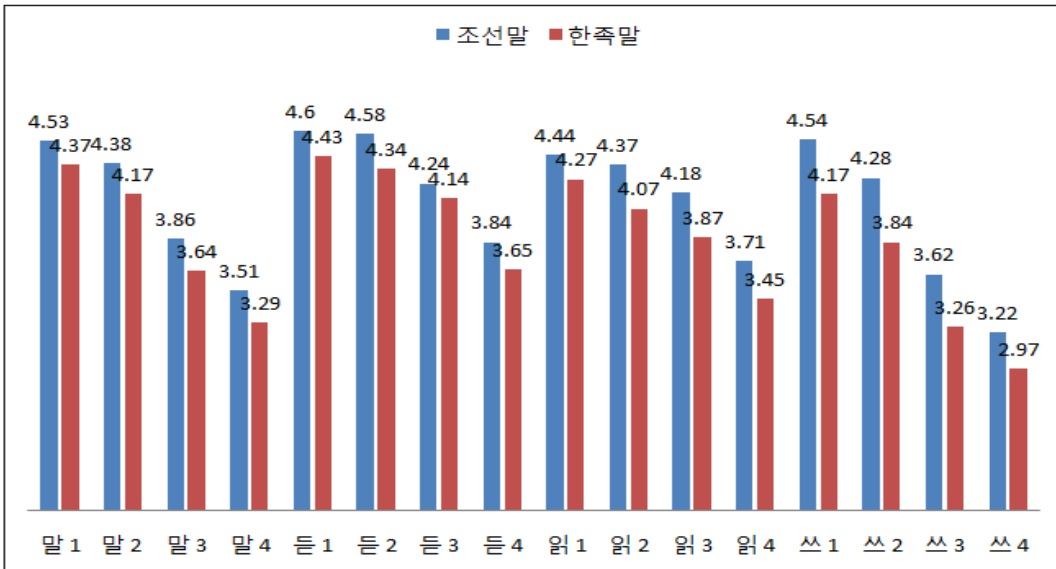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조선말을 1순위 언어로 꼽은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조선말을 1순위 언어로 꼽은 비율이 낮아진다. 또한 이와 반비례해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족말을 1순위 언어로 꼽은 비율은 높아진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족말을 배울 기회나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3.2. 영역별 능력 비교

조선말과 한족말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네 영역의 언어 능력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4>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의 비교 - 영역별

	말 1	말 2	말 3	말 4	듣 1	듣 2	듣 3	듣 4	읽 1	읽 2	읽 3	읽 4	쓰 1	쓰 2	쓰 3	쓰 4
조선말	4.53	4.38	3.86	3.51	4.60	4.58	4.24	3.84	4.44	4.37	4.18	3.71	4.54	4.28	3.62	3.22
한족말	4.37	4.17	3.64	3.29	4.43	4.34	4.14	3.65	4.27	4.07	3.87	3.45	4.17	3.84	3.26	2.97



<그림 112>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의 비교 - 영역별

조선말 능력과 한족말 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고르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한족말 능력보다 조선말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쓰기 영역에서 조선말과 한족말 간의 능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쓰기 능력에서 언어 사용 능력의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장

언어 사용

4.1. 언어 사용 순위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순위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위 기입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 29는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문항 30은 가족 간의 언어 사용 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각 언어에 대한 사용 순위의 빈도 및 비율을 조사하여 산출하였다.

※ 다음 각각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순위를 안에 써 주십시오.

29. 보통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안 쓰는 말에는 표시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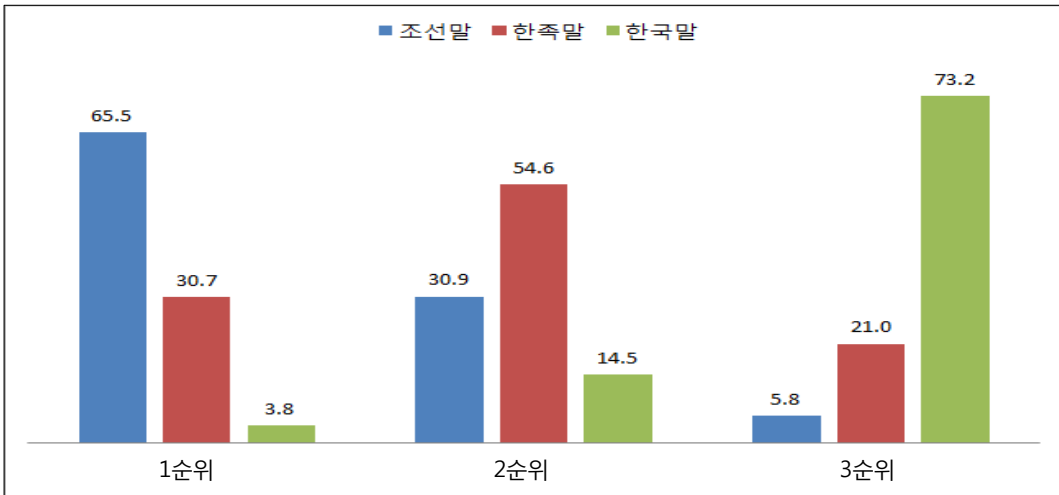
30. 가족끼리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안 쓰는 말에는 표시하지 말 것.)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5>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언어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조선말	503	230	29
한족말	236	406	104
한국말	29	108	363
전체	768	744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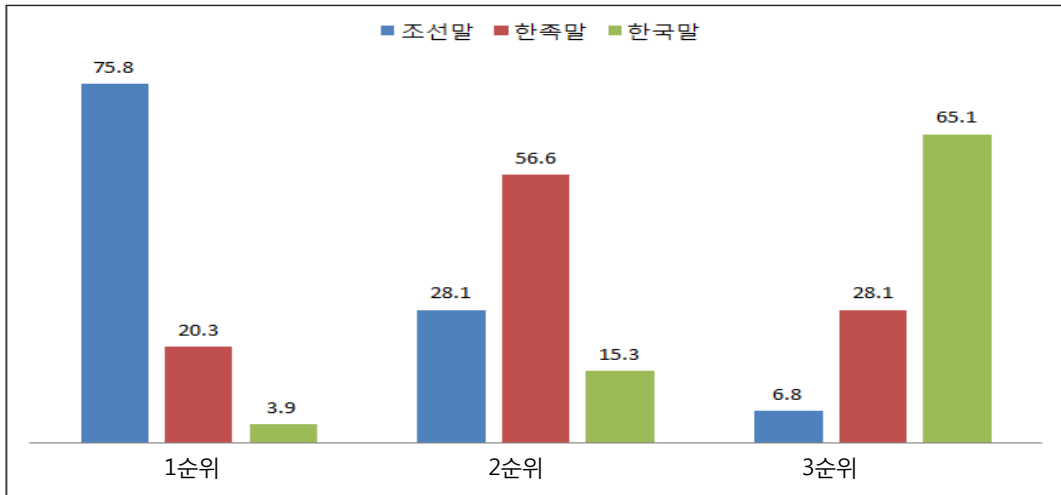
<그림 113> 일상적인 언어 사용 순위 - 비율

재중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조선말이다. <표 135>와 <그림 113>에서 보듯이 조선말이 1순위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한족말이 잇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말의 사용 비율은 미미하다.

재중 동포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6>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언어 \ 순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503	135	26
2순위	230	463	125
3순위	29	119	276
전체	664	818	424



<그림 114>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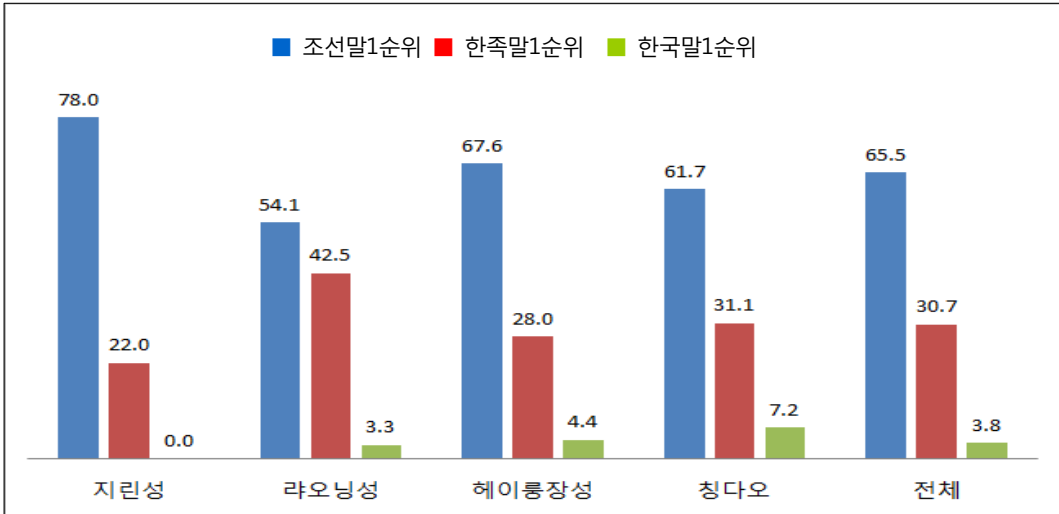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도 조선말이 1순위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한족말이 잇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조선말 사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75.8%인데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조선말 사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65.5%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질적인 언어 사용 환경을 가진 가정 내에서 조선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한족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이중 언어 사용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선말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 사용이 언어 사용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7>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지역별

조사 지역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142	38	2	40	117	25	0	27	59
랴오닝성	98	71	11	77	75	28	6	33	96
헤이룽장성	152	63	5	63	122	24	10	21	88
칭다오	111	58	11	56	92	27	13	27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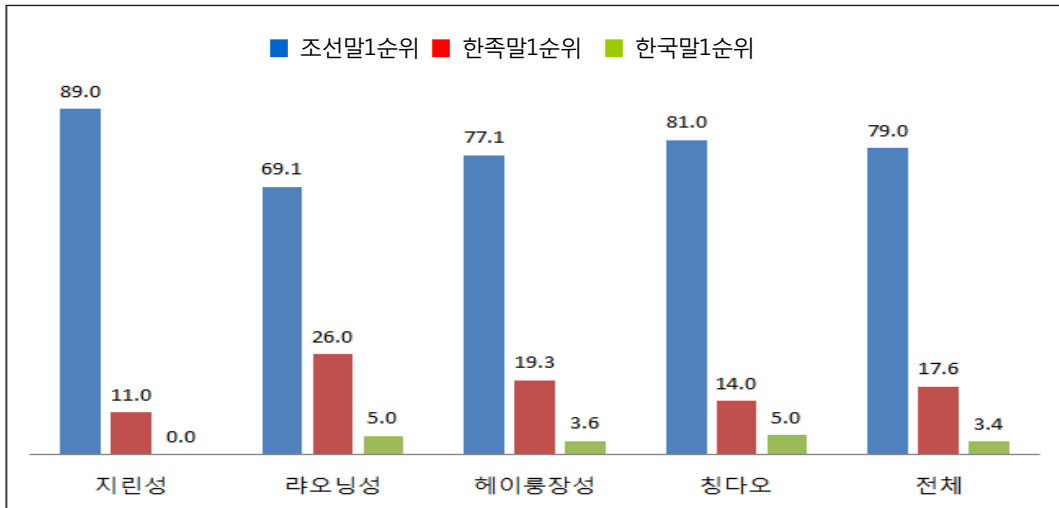
<그림 115>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지역별 비율

재중 동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지린성(吉林省)이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고 랴오닝성(遼寧省)이 가장 낮다.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의 차이가 20%에 육박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말 사용에 반비례해서 랴오닝성은 한족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다. 일상생활에서 조선말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일수록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조선말을 적게 사용하는 지역일수록 조선족이 적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 환경이 조선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선말의 사용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중 동포들이 가족끼리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8>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지역별

전 체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린성	162	20	0	20	147	15	0	15	35
랴오닝성	125	49	5	47	99	32	9	27	86
헤이룽장성	172	38	8	43	103	36	8	42	58
칭다오	145	23	10	25	114	36	9	41	97



<그림 116>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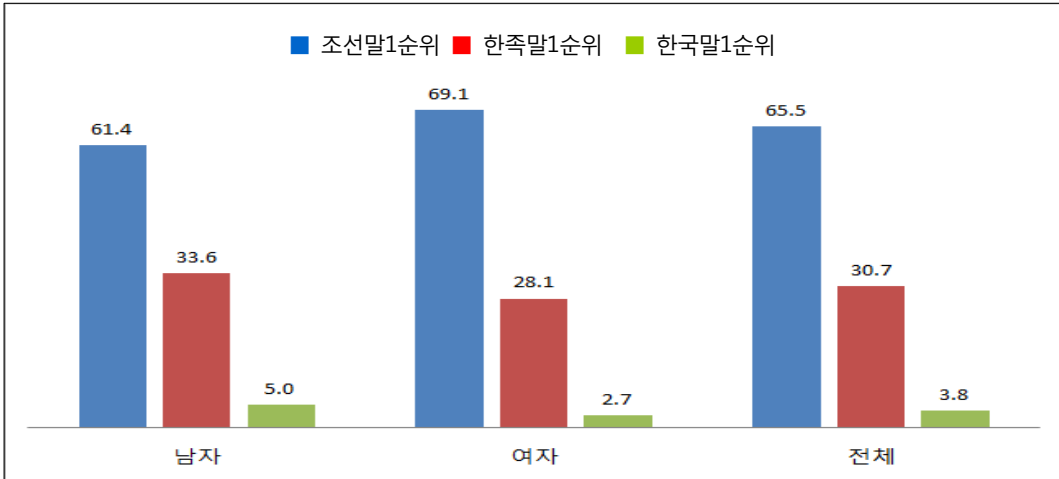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가족끼리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지린성(吉林省)이 가장 높고 랴오닝성(遼寧省)이 가장 낮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양상과도 일치되는 것으로서 지린성과 랴오닝성 간에는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난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가족들에게 조선말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조선말을 쓰게 되므로 지린성이 조선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칭다오(靑島)와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 그 뒤를 잇고 랴오닝성이 조선말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 랴오닝성이나 헤이룽장성은 그 정도만큼 조선말을 제1언어로 사용할 줄 아는 가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반면에 한족말을 제1언어로 쓰는 가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9>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성별

성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남자	223	121	18	122	181	49	18	51	177
여자	280	109	11	114	225	55	11	57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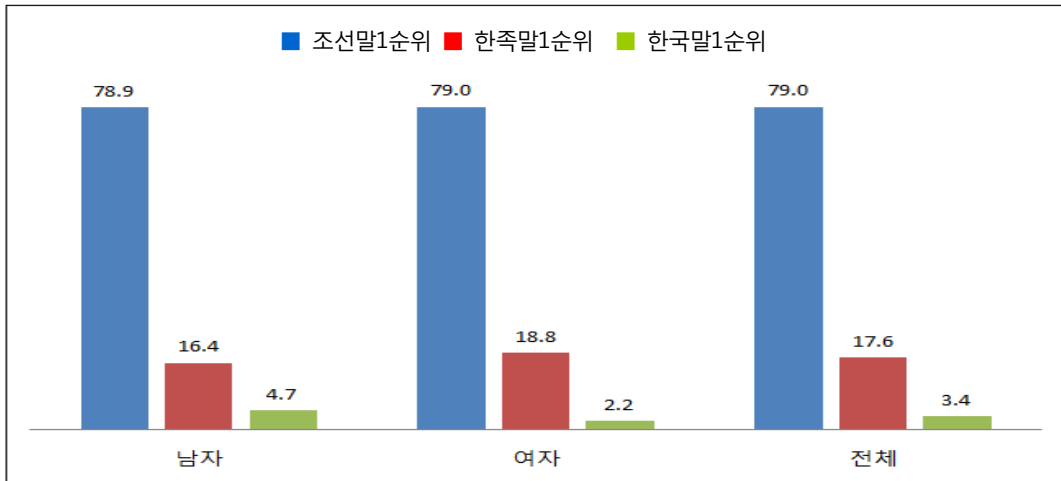
<그림 117>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성별 비율

재중 동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가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족말을 사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조선말을 1순위 언어로 꼽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재중 동포들이 가족끼리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0>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성별

성별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남자	284	62	12	59	213	66	17	67	131
여자	320	68	11	76	250	53	9	58	145
전체	604	130	23	135	463	119	26	125	276



<그림 118>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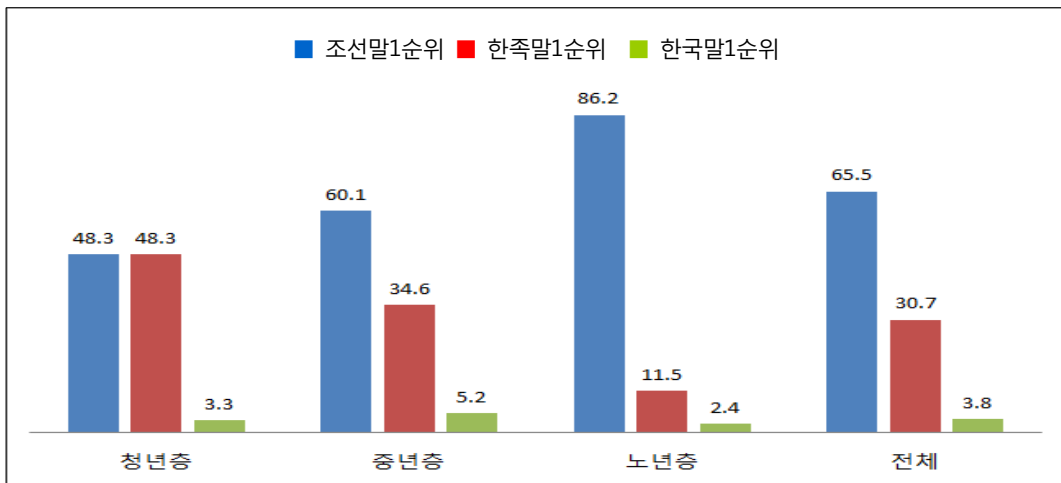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가족끼리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성별로 비교해 볼 때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의 <표 140>과 <그림 118>은 가정 내에서는 남녀 모두 79% 정도가 조선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한족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과 한국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녀 간에 약간 차이가 난다. 남자들은 한국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여자들은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남자들이 사업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면서 한국말을 접하고 사용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정 내에서도 한족말을 사용하는 비율(17.6%)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의 비율로 가족 간에도 한족말이 제1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앞의 <표 135>에서 보았듯이 한족말 사용이 많다는 점에서 점차 한족말 사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1>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연령별

연령층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청년층	101	97	10	101	89	19	7	22	126
중년층	184	100	18	106	145	48	16	52	152
노년층	218	33	1	29	172	37	6	3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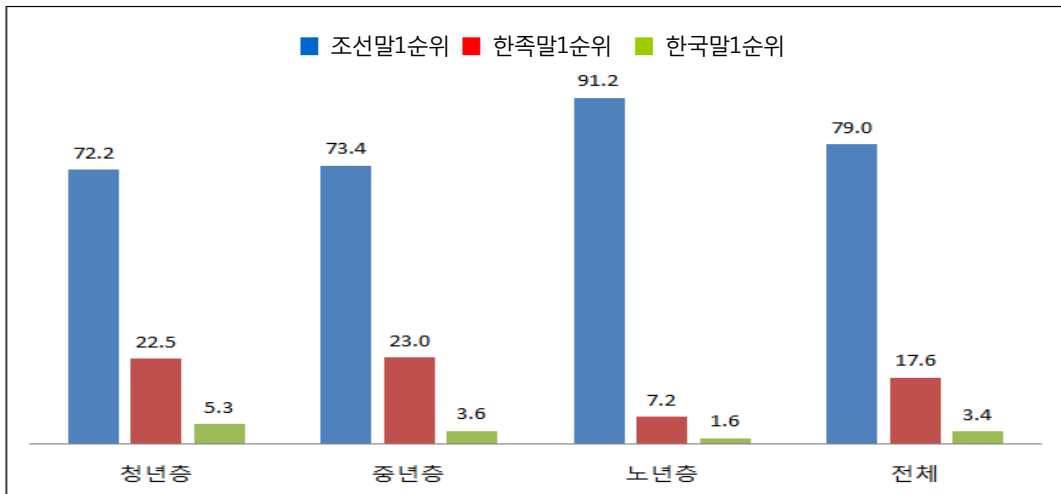
<그림 119>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연령별 비율

재중 동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조선말을 1순위로 많이 사용한다는 비율이 8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중년층과 청년층에서는 각각 60.1%와 48.3%로 줄어드는 반면 한족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은 노년층이 11.5%인데 비해 중년층은 34.6%로 높아졌고 청년층은 48.3%로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조선말과 한족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48.3%로 대등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말이 한족말로 대체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재중 동포들이 가족끼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2>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연령별

연령층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청년층	151	46	10	47	132	28	11	30	98
중년층	224	63	13	70	172	49	11	55	114
노년층	229	21	0	18	159	42	4	40	64
전체	604	130	23	135	463	119	26	125	276



<그림 120>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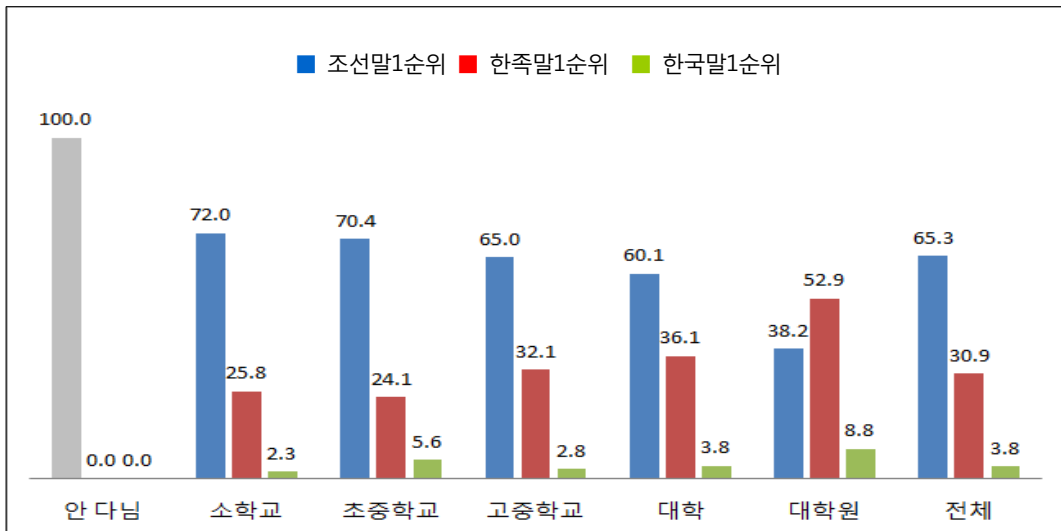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1순위로 쓰는 말의 비율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1순위 말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연령층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청년층은 일상생활에서 48.3%가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데 비해 가족 간에는 72.2%가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함으로써 23.9%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중년층은 13.1%, 노년층은 5% 정도의 차이를 보여 가족 간에는 조선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순위를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3>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학력별

학 력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안 다님	6	0	0	0	4	1	0	1	1
소학교	95	35	1	34	73	23	3	21	54
초중학교	114	41	7	39	95	23	9	22	71
고중학교	160	75	8	79	128	30	7	32	124
대 학	110	67	4	66	90	22	7	21	100
대학원	13	12	9	18	12	4	3	10	11
전 체	498	230	29	236	402	103	29	107	361



<그림 121> 일상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학력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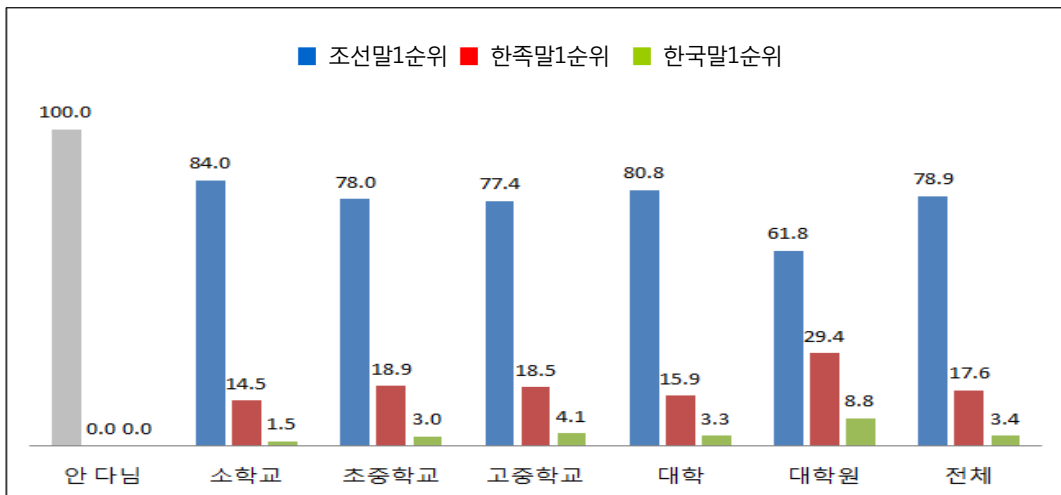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조선말이 1순위인 비율이 낮아지고 한족말이 1순위인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공식적인 활동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

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 출신들은 한족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52.9%)이 조선말을 1순위(38.2%)로 꼽은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재중 동포들이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 활동하려면 한족말을 잘해야 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말을 잘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말을 잘하는 것은 조선말로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없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재중 동포들이 가족끼리 많이 쓰는 말을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4>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순위 - 학력별

학 력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안 다님	6	0	0	0	5	1	0	1	1
소학교	110	21	0	19	83	21	2	19	45
초중학교	128	28	7	31	103	18	5	20	63
고등학교	188	45	6	45	139	42	10	41	84
대 학	147	28	4	29	117	27	6	30	75
대학원	21	8	5	10	14	10	3	13	7
전 체	600	130	22	134	461	119	26	124	275



<그림 122> 가정에서의 1순위 사용 언어 - 학력별 비율

재중 동포들이 가정에서 제1순위로 많이 쓰는 말을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학력 간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회적인 역할도 많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는 한쪽말을 쓸 기회가 많아지지만 가정 내에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가족들의 공통언어인 동시에 제1언어인 조선말을 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학원 학력의 경우는 대부분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쪽말을 많이 쓰고 조선말을 적게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고학력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층이라는 점에서 보면 조선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4.2. 가족 간 언어 사용

가족 간의 언어 사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문항 43은 자신이 가족에게 말할 때로서 대상에 따라 순위, 손아래, 동기, 다른 민족 등 네 부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항 44는 다른 가족이 자신에게 말할 때로서 이 문항 역시 말하는 주체에 따라 순위, 손아래, 동기, 다른 민족 등 네 부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두 문항은 모두 5점 척도식 문항이 변형된 형태이므로 평균값을 내어 분석하였다.

※ 각각의 질문에서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43. 귀하가 다음의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더 많이 한다	반반씩 한다	한쪽말을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쪽말로 한다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u>어른</u> 들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형제, 자매 등 <u>동기나 같은 항렬의</u> 사람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u>손아래</u> 사람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u>조선족이 아닌</u>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u>사람에게</u>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그러면 가족이 귀하와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501)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더 많이 한다	반반씩 한다	한쪽말을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쪽말로 한다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이 나한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의 사람이 나한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손아래 사람이 나한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한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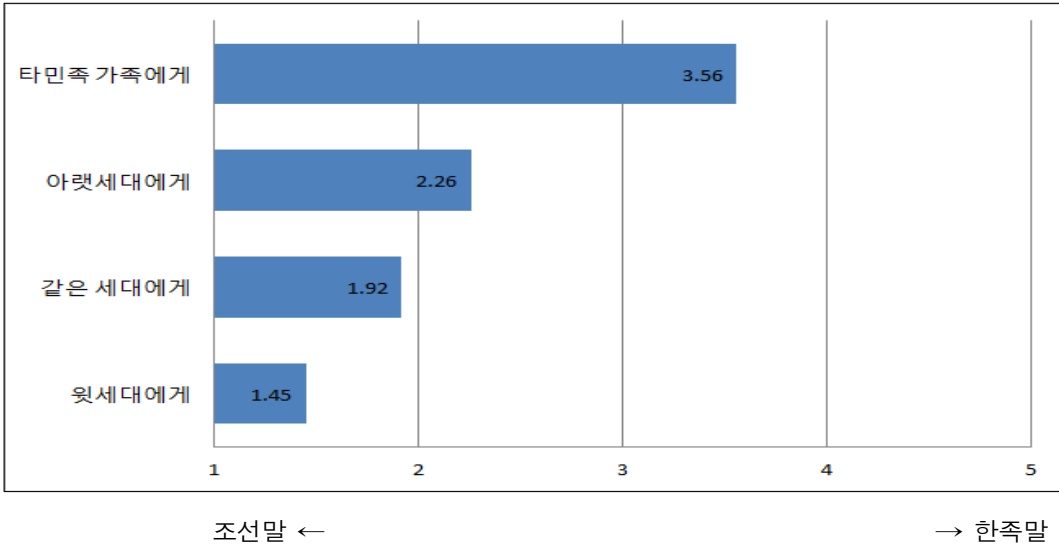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자기의 가족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⁸⁾

<표 145>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평균	표준 편차
귀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1.45	.93
귀하는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1.92	1.20
귀하는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손아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2.26	1.38
귀하는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3.56	1.51

18) 이 문항은 평균값을 내어 분석하였다.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조선말을 쓰는 것이고 5에 가까울수록 한쪽말을 쓰는 것이다. 중간 값은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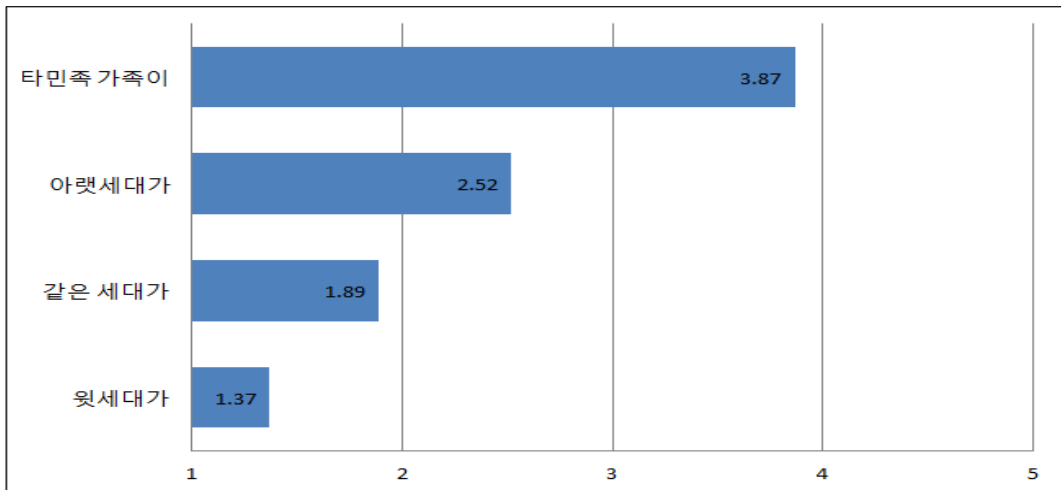
<그림 123>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재중 동포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윗세대에게는 조선말을 쓰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세대가 같거나 아랫세대에게는 조선말을 쓰는 경향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세대 간의 조선말 능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노년층은 조선말은 잘하지만 한족말은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윗세대인 노년층에게는 조선말을 쓰고 동거나 아랫세대에게는 그들에게 편한 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조선말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족이 같은 경우 세대와 관계없이 조선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아랫세대로 갈수록 그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한족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상대가 다른 민족일 경우에는 조선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족말을 쓰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재중 동포 가족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6>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가족이 나에게 쓰는 말	평균	표준 편차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이 귀하한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1.37	.84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의 사람이 귀하한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1.89	1.16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손아래 사람이 귀하한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2.52	1.45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귀하한테 말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3.87	1.43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24>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가족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도 윗세대는 조선말로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경향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와 관계없이 가족끼리는 조선말을 많이 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달리 다른 민족 가족은 자기에게 한족말을 쓰는 경향이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민족 가족은 조선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족말로 해야 가족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과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을 비교해 보면 같은 세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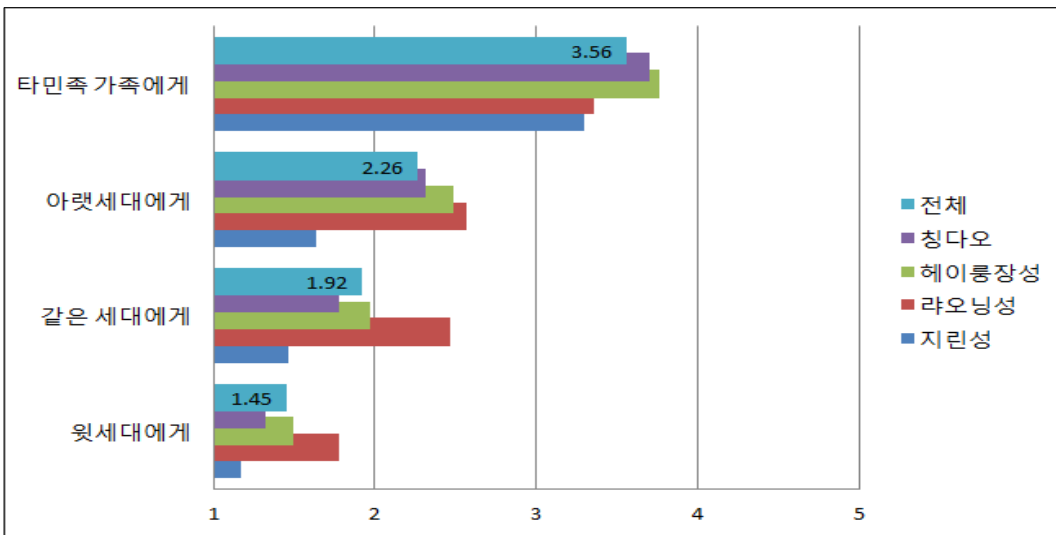
에서는 가족들이 나에게 대부분 조선말을 더 많이 쓰지만 아랫세대는 나에게 조선말을 많이 쓰지만 한족말도 많이 쓰고 다른 민족 가족은 나에게 대부분 한족말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가족에게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7>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지역별

조사 지역	윗세대에게	같은 세대에게	아랫세대에게	타민족 가족에게
지린성	1.17	1.46	1.64	3.30
랴오닝성	1.78	2.47	2.57	3.36
헤이룽장성	1.49	1.97	2.49	3.76
칭다오	1.32	1.78	2.31	3.70
합 계	1.45	1.92	2.26	3.56



조선말 ← → 한족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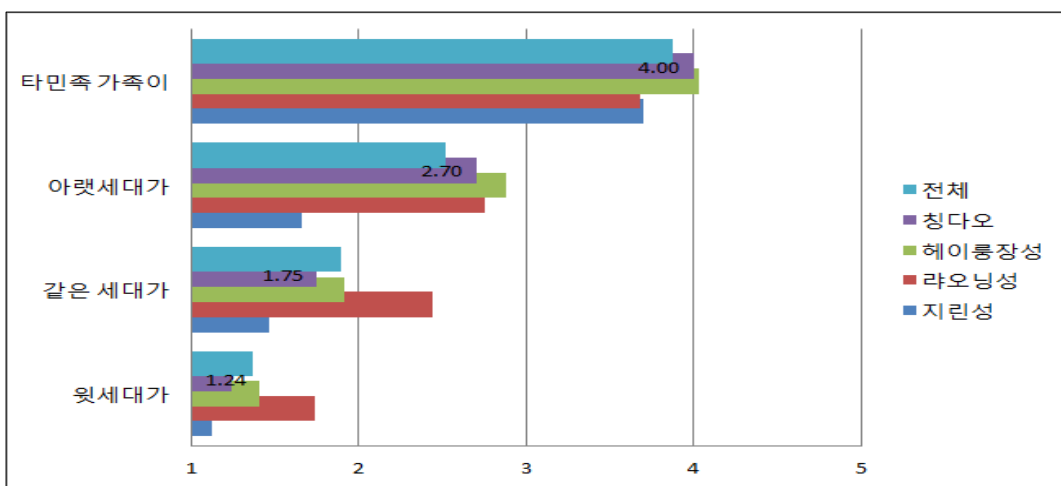
<그림 125>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지역별

재중 동포들이 가족에게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랴오닝성(遼寧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말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대가 낮아질수록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도 조선말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민족 가족에게는 헤이룽장성과 칭다오(靑島)에서 한족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에서는 상대방이 조선말을 잘 모른다고 여겨 이를 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중 동포의 가족이 나에게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8>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지역별

조사 지역	윗세대가	같은 세대가	아랫세대가	타민족 가족이
지린성	1.12	1.46	1.66	3.70
랴오닝성	1.74	2.44	2.75	3.68
헤이룽장성	1.40	1.91	2.88	4.03
칭다오	1.24	1.75	2.70	4.00
전 체	1.37	1.89	2.52	3.87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26>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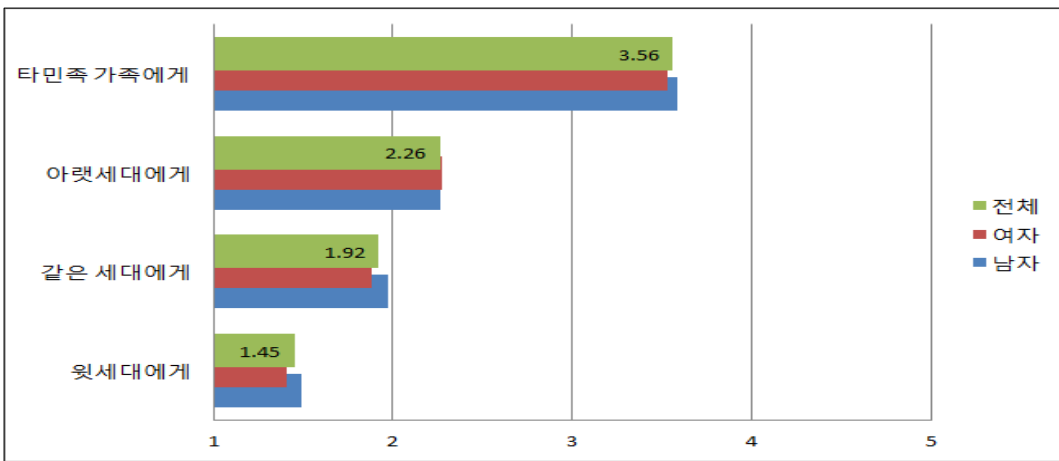
재중 동포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같은 세대나 윗세대들은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헤이룽장성의 청년층 세대가 조선말에 익숙하지 않아 윗세대가 청년층 세대를 고려하여 한족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린성(吉林省)은 전 세대에 걸쳐 조선말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민족 가족에게는 지역에 구분 없이 대체로 한족말을 쓰는 경향이 강한데 헤이룽장성 및 칭다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가족에게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9>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성별

성별	윗세대에게	같은 세대에게	아랫세대에게	타민족 가족에게
남자	1.49	1.97	2.26	3.59
여자	1.41	1.88	2.27	3.53
합계	1.45	1.92	2.26	3.56



조선말 ← → 한족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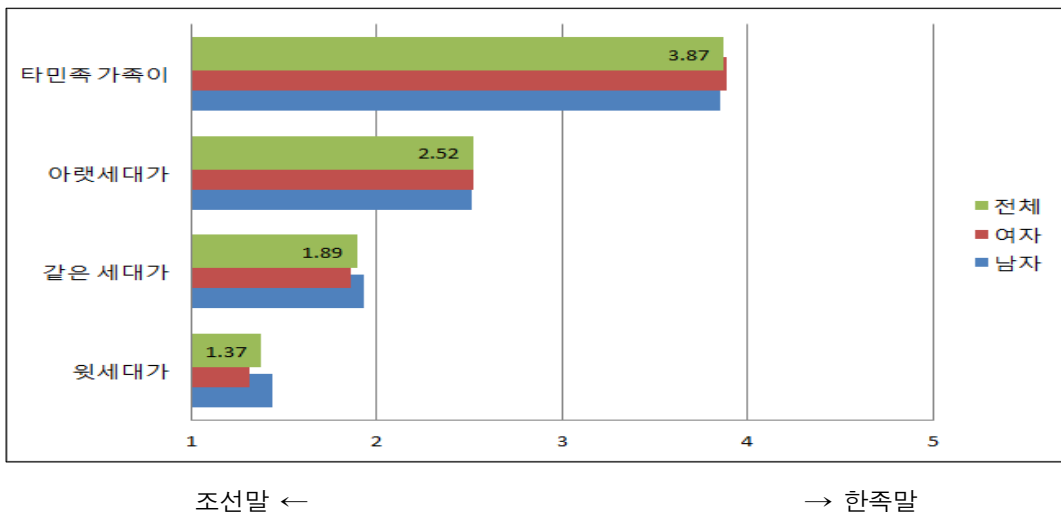
<그림 127>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성별

재중 동포들이 가족에게 쓰는 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남자들이 조선말을 쓰는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한족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족 가족에게도 한족말을 쓰는 경향이 남자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재중 동포의 가족들이 나에게 주로 어떤 말로 하는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0>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성별

성별	윗세대가	같은 세대가	아랫세대가	타민족 가족이
남자	1.44	1.93	2.51	3.85
여자	1.31	1.86	2.52	3.89
전체	1.37	1.89	2.52	3.87



<그림 128>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성별

재중 동포의 가족들이 나에게 주로 어떤 말로 하는지를 성별로 비교해 볼 때도 같은 세대나 윗세대가 나에게 말할 때는 남녀 간에 미미한 차이만 나타난다. <표 150>과 <그림 128>에서 보듯이 윗세대나 같은 세대일 경우에는 남자 쪽에서 조선말을 쓰는 평균값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 역시 배우자가 조선말로 말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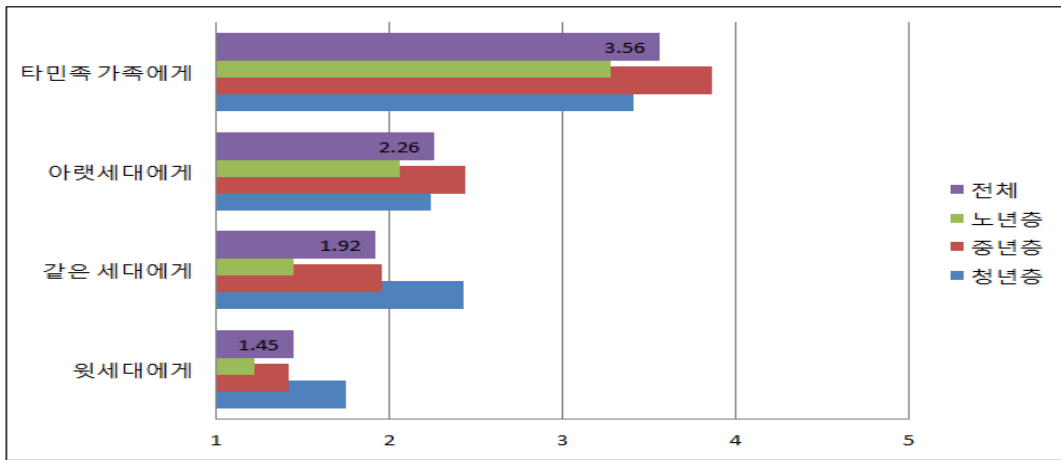
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다른 민족 가족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한쪽 말을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가족들에게는 주로 어떤 말을 쓰는지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1>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연령별

연 령	윗세대에게	같은 세대에게	아랫세대에게	타민족 가족에게
청년층	1.75	2.43	2.24	3.41
중년층	1.42	1.96	2.44	3.86
노년층	1.22	1.45	2.06	3.28
전 체	1.45	1.92	2.26	3.56



조선태말 ← → 한족말

<그림 129>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연령별

재중 동포들이 가족에게 많이 쓰는 말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나이가 어린 세대일 수록 윗세대나 같은 세대에 비하여 조선태말을 덜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랫세대에게는 중년층이 조선태말을 덜 쓰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중년층이 자녀들에게 한족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가족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년층이 한족말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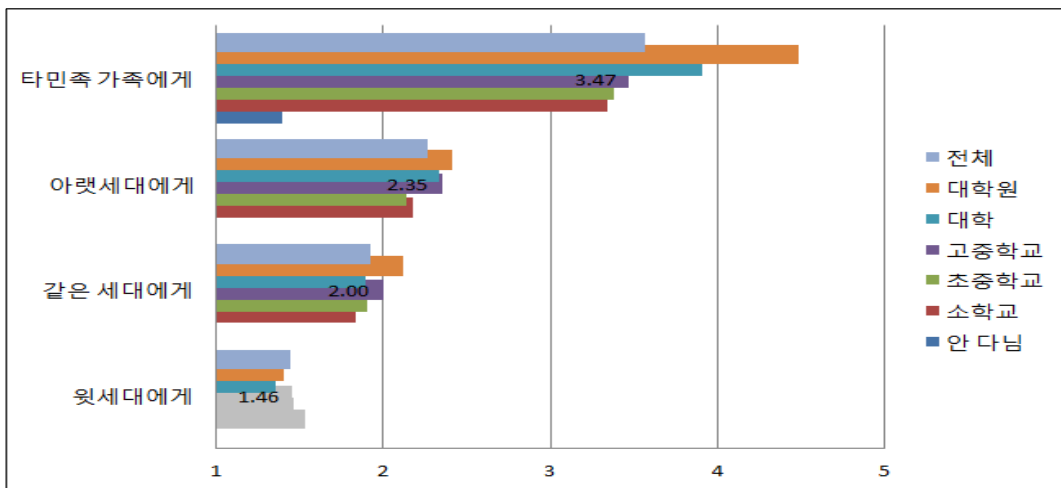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의 가족이 나에게 주로 쓰는 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혼동이 있어서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문항 자체에서 세대별로 구별하고 있어 응답자 스스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세대별로 다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자기의 가족에게는 주로 어떤 말로 하는지를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2>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학력별

학 력	윗세대에게	같은 세대에게	아랫세대에게	타민족 가족에게
안 다님	1.00	1.00	1.00	1.40
소학교	1.53	1.84	2.18	3.34
초중학교	1.47	1.91	2.14	3.38
고중학교	1.46	2.00	2.35	3.47
대 학	1.36	1.90	2.34	3.91
대학원	1.41	2.12	2.41	4.48
전 체	1.45	1.93	2.27	3.57



조선말 ←

→ 한족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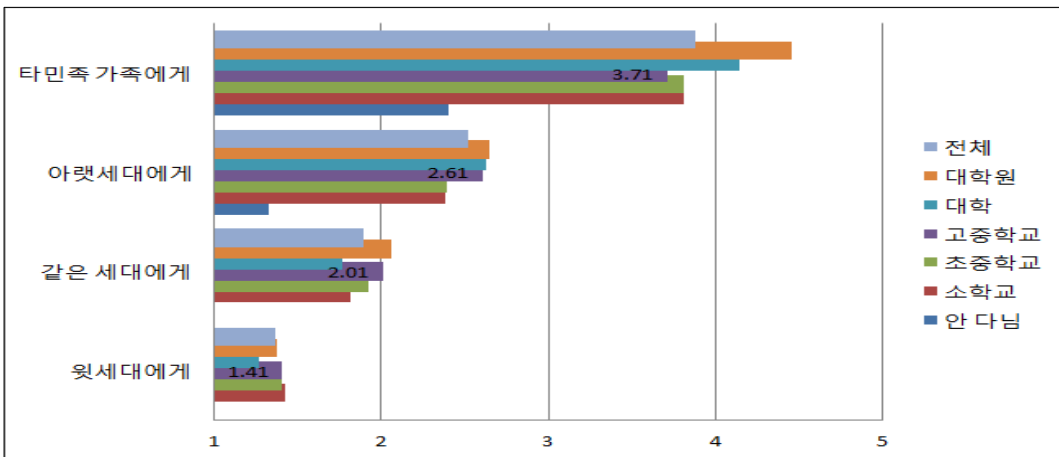
<그림 130> 내가 가족에게 쓰는 말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이 자기의 가족에게 주로 어떤 말로 사용하는지를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에 따라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는 거의 한쪽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학교에 다닌 경우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한쪽말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다만 대학원 출신이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말을 할 때 청자가 누구냐, 즉 어느 민족이냐를 고려하여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재중 동포 가족들이 나에게 주로 어떤 말로 하는지를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3>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학력별

학 력	윗세대에게	같은 세대에게	아랫세대에게	타민족 가족에게
안 다님	1.00	1.00	1.33	2.40
소학교	1.43	1.82	2.38	3.81
초중학교	1.41	1.93	2.39	3.81
고중학교	1.41	2.01	2.61	3.71
대 학	1.27	1.77	2.63	4.14
대학원	1.38	2.06	2.65	4.45
전 체	1.37	1.90	2.52	3.88



조선말 ← → 한쪽말

<그림 131>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 학력별

재중 동포의 가족들이 나에게 주로 어떤 말로 하는지를 학력별로 비교해 보아도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교에 안 다닌 가족은 주로 조선말을 쓰고 학교에 다닌 가족은 상대나 학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학력과 관계없이 윗세대는 주로 조선말로 하고 아랫세대로 갈수록 한족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족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학력보다는 상대방의 연령층이 언어 선택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대화 대상과 상황별 언어 사용

4.3.1.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쓰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준비하였다. 이 문항은 대상이 누구인가와 공식적인 상황인가 비공식적인 상황인가에 따라 어떤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 역시 5점 척도식 문항을 변형한 형태이므로 평 균을 내어 조선말과 한족말 중 어느 말을 더 많이 쓰는가를 측정하였다.

※ 각각의 질문에서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45.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조선말을 아는 조선족 동포와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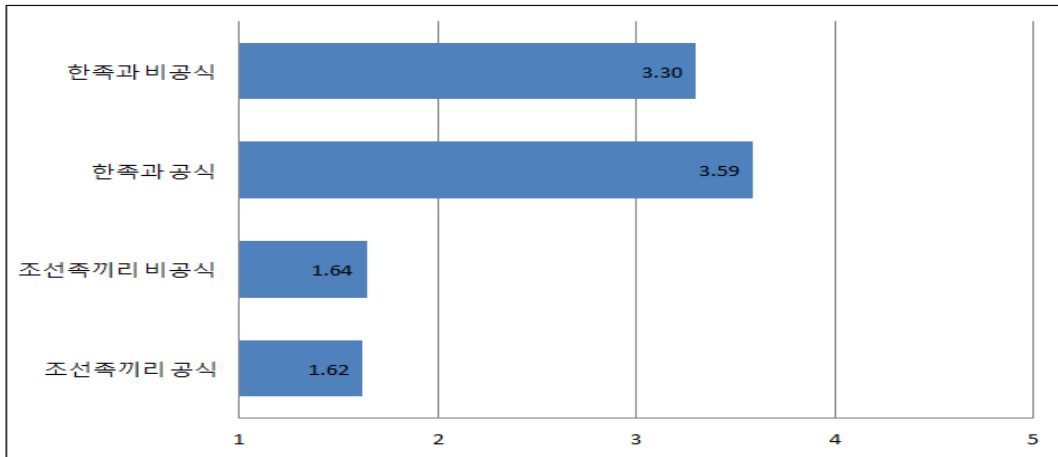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더 많이 한다	반반씩 한다	한족말을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족말로 한다
(1) 조선족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독보조나 운동실에서 조선족과 놀면서 이야기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4> 대상과 상황에 따라 쓰는 말

대상과 상황에 따라 쓰는 말	평균	표준 편차
조선족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1.62	1.03
독보조나 운동실에서 조선족과 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1.64	0.98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3.59	1.23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3.30	1.41



← 조선말 → 한족말
 <그림 132> 대화 대상과 공식성 여부에 따라 쓰는 말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한족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족과 함께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한족말을 쓰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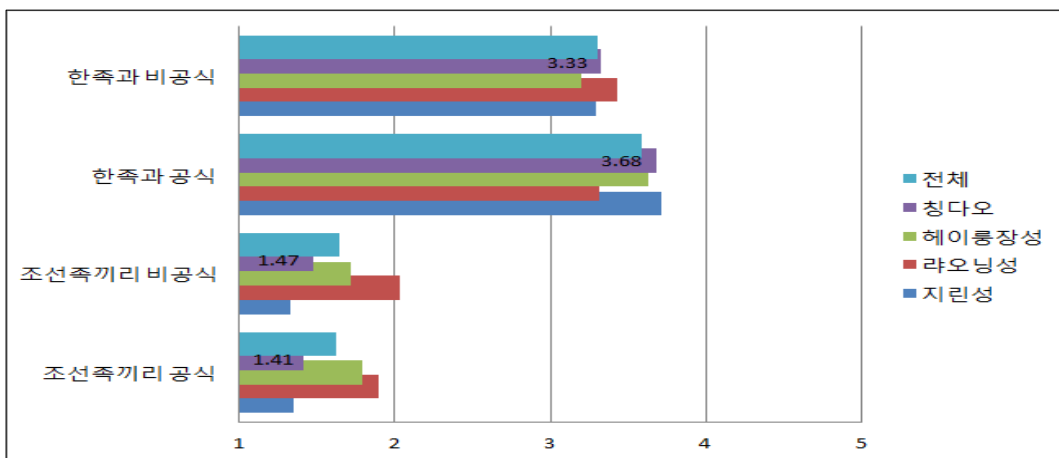
이에 반해 조선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조선말을 쓰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인 상황인가 비공식적인 상황인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고 주로 조선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상황이든 비공식적인 상황이든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한족의 처지를 고려하여 한족말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나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지린성(吉林省)이나 칭다오(靑島)보다 한족말을 약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그만큼 헤이룽장성이나 랴오닝성 동포들의 한화(漢化)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5>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지역별

조사 지역	조선족끼리 공식	조선족끼리 비공식	한족과 공식	한족과 비공식
지린성	1.35	1.33	3.71	3.29
랴오닝성	1.90	2.03	3.32	3.43
헤이룽장성	1.79	1.72	3.63	3.20
칭다오	1.41	1.47	3.68	3.33
전 체	1.62	1.64	3.59	3.30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33>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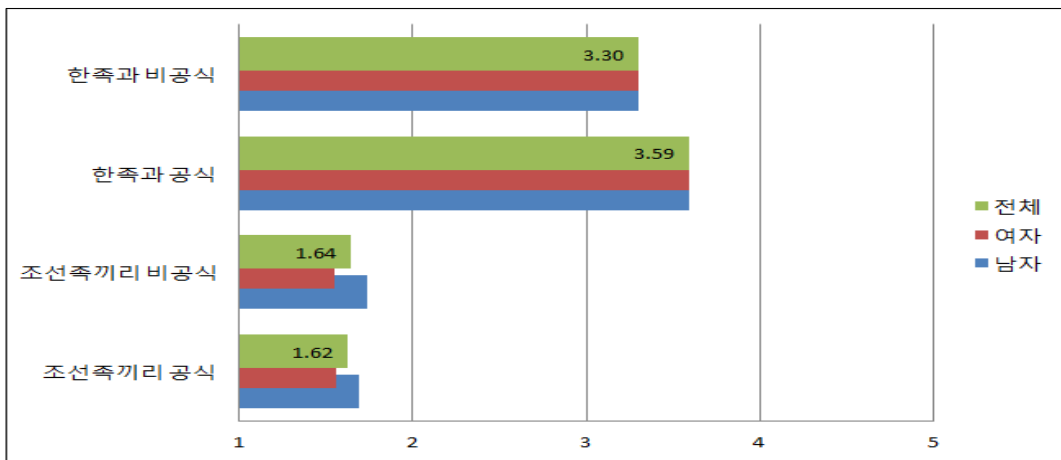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은 조선족끼리 있을 때는 대화 상황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로 조선말을 사용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지린성(吉林省)이 가장 강하고 랴오닝성(遼寧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이 가장 약하다. 그런데 한족과 같이 있을 때는 한족말을 거의 두 배 정도로 많이 쓰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지역별로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한족과 함께 있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린성 지역에서 한족말로 하는 경향이 가장 높고 한족과 함께 있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랴오닝성 지역에서 한족말로 하는 경향이 가장 높지만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6>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성별

성 별	조선족끼리 공식	조선족끼리 비공식	한족과 공식	한족과 비공식
남 자	1.69	1.74	3.59	3.30
여 자	1.56	1.55	3.59	3.30
전 체	1.62	1.64	3.59	3.30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34>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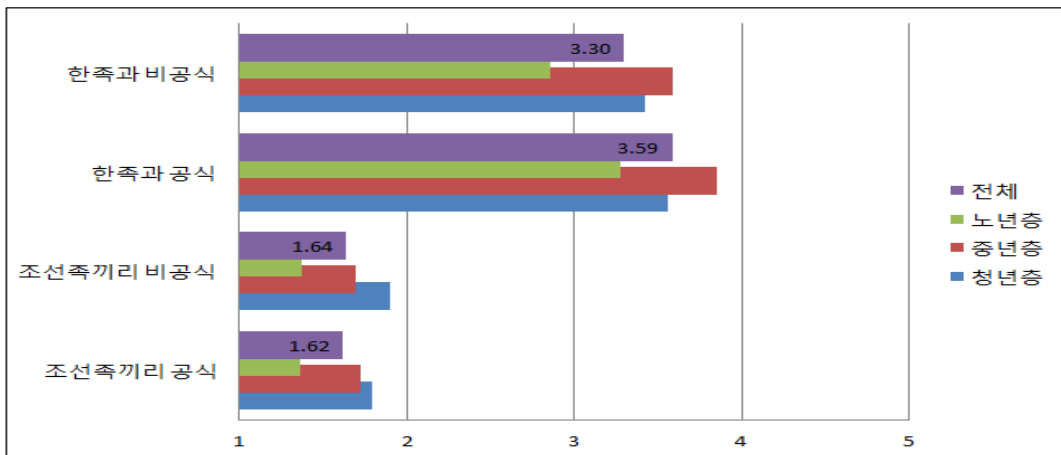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조선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조선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약간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이야기 상황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별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식적인 상황일 때보다 비공식적인 상황일 때 한족말을 약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7>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연령층별

연령층	조선족끼리 공식	조선족끼리 비공식	한족과 공식	한족과 비공식
청년층	1.79	1.90	3.56	3.42
중년층	1.72	1.69	3.85	3.59
노년층	1.36	1.37	3.28	2.86
전 체	1.62	1.64	3.59	3.30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35>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연령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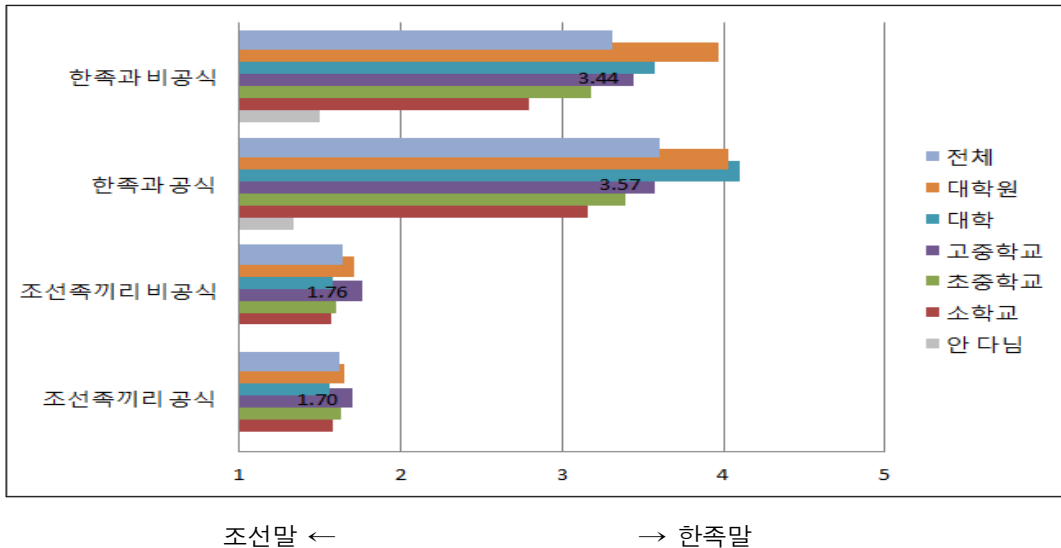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족끼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중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은 조선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이든 비공식적인 상황이든 중년층에서 한족말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년층의 사회 활동이 왕성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조선족끼리 있는 자리에서든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조선말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야기 상황도 언어 선택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8>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학력별

학 력	조선족끼리 공식	조선족끼리 비공식	한족과 공식	한족과 비공식
안 다님	1.00	1.00	1.33	1.50
소학교	1.58	1.57	3.16	2.79
초중학교	1.63	1.60	3.39	3.18
고중학교	1.70	1.76	3.57	3.44
대 학	1.56	1.58	4.10	3.57
대학원	1.65	1.71	4.03	3.97
전 체	1.62	1.64	3.60	3.31



<그림 136> 대화 대상과 대화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말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이 대화 대상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를 학력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소 불규칙한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족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이든 비공식적인 상황이든 주로 조선말을 사용하지만 학력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 출신이 조선말을 약간 덜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비해 한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이든 비공식적인 상황이든 한족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과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족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2.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준비하였다. 이 문항도 5점 척도식 문항을 변형한 형태이므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할 때 조선말과 한족말 중 어느 말을 더 많이 쓰는가에 대하여 평균을 내어 측정하였다.

※ 각각의 질문에서 하나에만 표시를 해 주세요.

46.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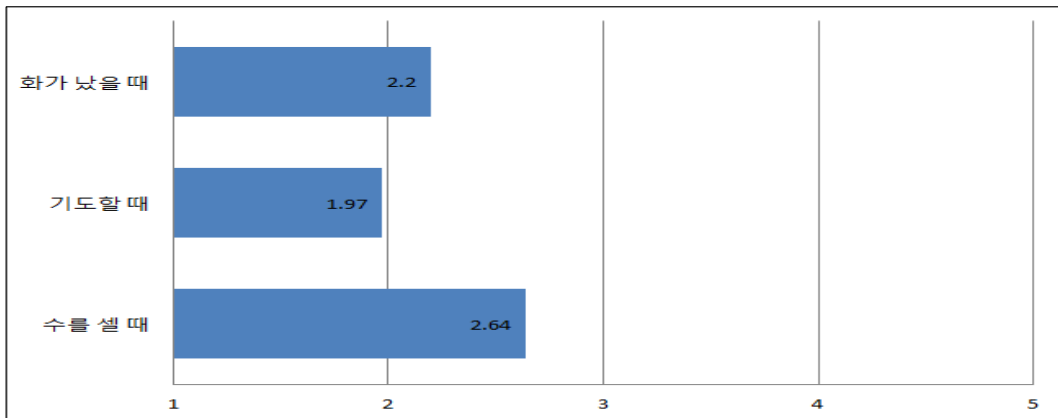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더 많이 한다	반반씩 한다	한족말을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족말로 한다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화가 났을 때나 조선족과 말싸움을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분석]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가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9>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평균	표준 편차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2.64	1.59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1.97	1.36
화가 났을 때나 조선족과 말싸움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2.20	1.40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37>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재중 동포들은 수를 셀 때는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강하고 기도할 때는 조선말을 쓰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대체로 조선말을 사용하지만 수를 셀 때는 기도할 때나 화가 났을 때보다 한족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수를 세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한족들과도 자주 접촉하면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셈을 하거나 수를 셀 때 한족말로 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화가 났을 때도 조선말을 주로 쓰지만 기도할 때보다는 조선말을 약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표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개인별로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재중 동포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는 원망(願望) 내지 희망(希望)의 뜻으로 쓰인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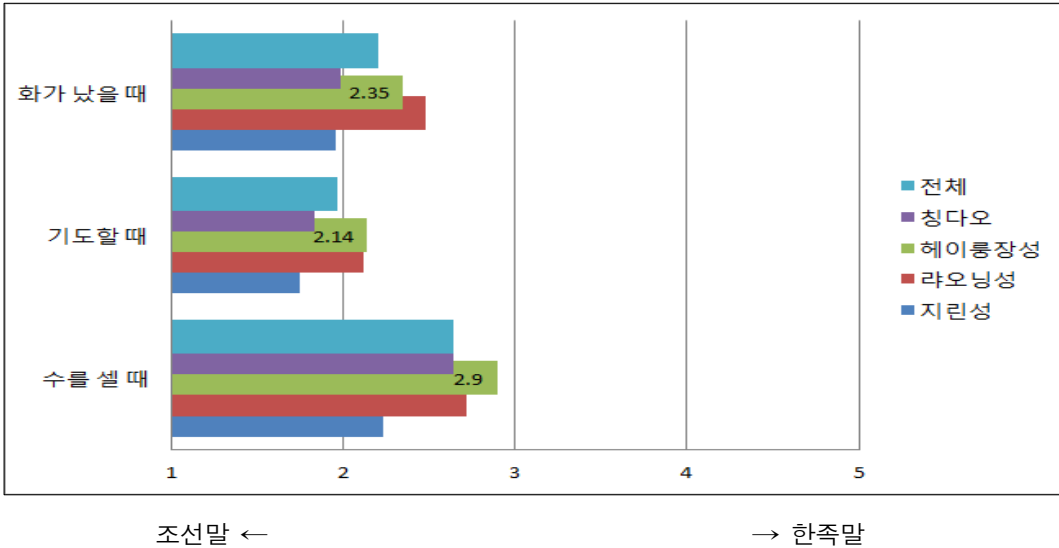
[지역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가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0>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지역별

조사 지역	수를 셀 때	기도할 때	화가 났을 때
지린성	2.23	1.75	1.96
랴오닝성	2.72	2.12	2.48
헤이룽장성	2.90	2.14	2.35
칭다오	2.64	1.83	1.99
전 체	2.64	1.97	2.20

19) 현지 조사 과정에서 재중 동포들의 상당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응답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난 날 사회주의 사회에서 신앙을 불건전한 잔재로 보고 이를 타파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이 문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원할 때 어떤 말로 하느냐고 물어 조사하기도 하였다.



← 조선말 → 한족말
 <그림 138>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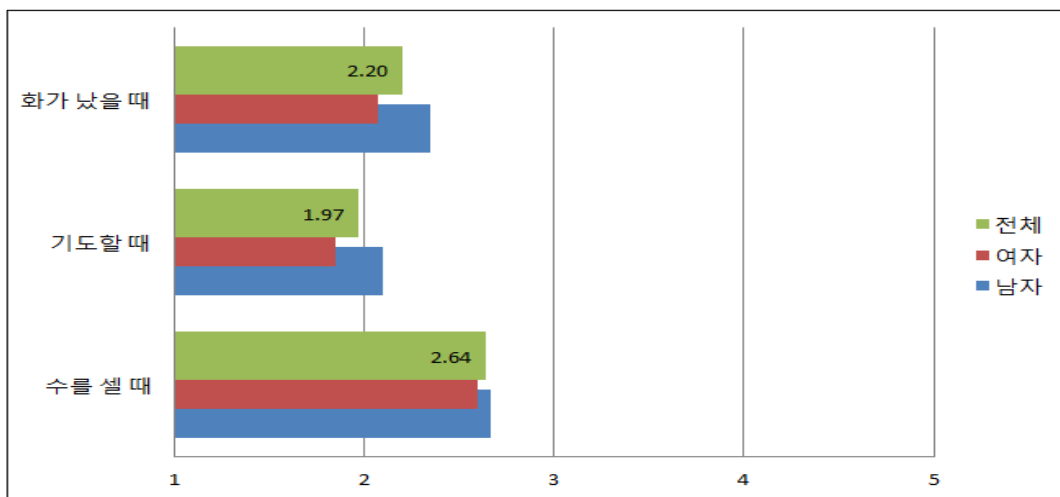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를 셀 때가 기도할 때나 화가 났을 때보다 조선말을 훨씬 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를 셀 때는 상대적으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에서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절반 정도는 한족말로 수를 세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에는 지린성(吉林省)이나 칭다오(靑島)에 비해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조선말을 덜 쓰지만 랴오닝성이 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린성에서 조선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칭다오로 나타난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조선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한족말로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중 언어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동시에 재중 동포들이 어느 정도 한화(漢化)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1>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성별

성 별	수를 셀 때	기도할 때	화가 났을 때
남 자	2.67	2.10	2.35
여 자	2.60	1.85	2.07
전 체	2.64	1.97	2.20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39>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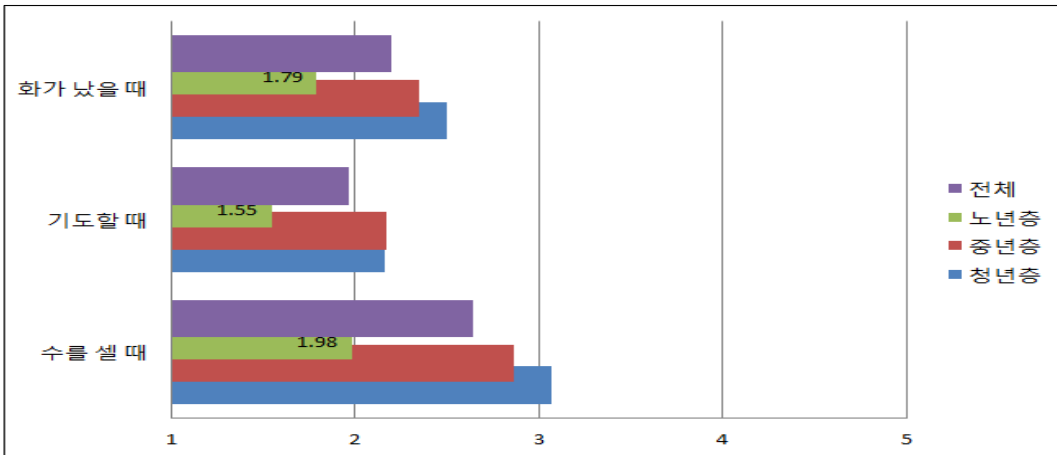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모든 상황에서 남자들이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기도할 때는 수를 셀 때보다 남녀 간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를 세는 행위는 남녀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에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나 감정을 표출하는 화가 났을 때의 상황에서는 더 강한 의지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족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2>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연령별

연령	수를 셀 때	기도할 때	화가 났을 때
청년층	3.07	2.16	2.50
중년층	2.86	2.17	2.35
노년층	1.98	1.55	1.79
전체	2.64	1.97	2.20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40>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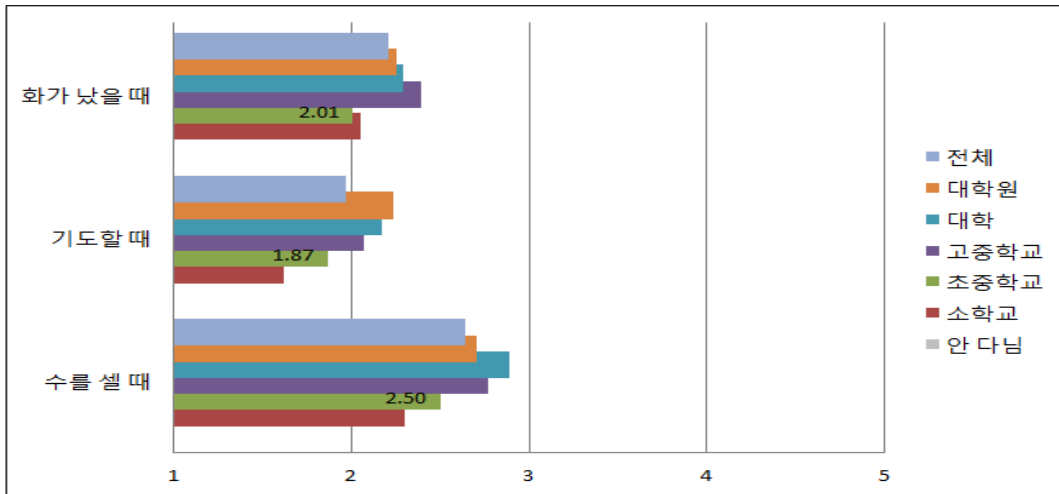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지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수를 셀 때는 청년층에서 한족말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가 났을 때도 청년층은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년층은 모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선말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노년층과 중년층이나 청년층 사이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한족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화(漢化)도 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 분석]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를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3>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학력별

학 력	수를 셀 때	기도할 때	화가 났을 때
안 다님	1.00	1.00	1.00
소학교	2.30	1.62	2.05
초중학교	2.50	1.87	2.01
고중학교	2.77	2.07	2.39
대 학	2.89	2.17	2.29
대학원	2.71	2.24	2.26
전 체	2.64	1.97	2.21



조선말 ←

→ 한족말

<그림 141>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 - 학력별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그 경향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경우에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수를 셀 때는 대학 출신들이 조선말을 제일 덜 쓰지만 고중이나 대학원 출신들도 조선말을 덜 쓰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화가 났을 때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조선말을 제일 덜 쓰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기도할 때는 학력이 낮을수록 조선말로 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한족말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불규칙한 경향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는가의 문제에서 학력은 그리 중요한 변인이 아님을 말해 준다.

제 5 장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과 변종 자료의 구축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이라 함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조선말의 한 지리적 분화체를 일컫는다. 재중 동포들은 이 한국어 변종을 공식적으로는 ‘중국 조선어’ 또는 줄여서 ‘조선어’라 이른다. 이 ‘중국 조선어’(이하 용어 통일을 위해 ‘조선말’이라 칭함)는 국내에서 말하는 한국말(또는 한국어)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조선말이 자체의 규범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국내와는 다른 정치,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 본국과는 유리된 상태에서 중국의 지배 언어(dominant language)이자 공용어인 한족말[中國語]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아들이거나 그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 한국어 변종을 구두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시 지리적 변종과 사회적 변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5.1.에서는 국내의 한국말과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조선말의 변종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5.2.에서는 <부록 2>에서 제시한 ‘변종 질문지’에 의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변종의 실상과 그러한 변종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5.1.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의 유형

5.1.1. 조선말 방언

19세기 중엽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한민족들이 만주로 이주한 결과 현재 중국 동북 3성에는 160여만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초기에는 압록강과 두

만강 대안(對岸)으로 이주하여 정착함으로써 두만강 연안에는 주로 함북 사람들이, 압록강 연안에는 평북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개인 또는 집단 이주가 증가하면서 점차 내륙 깊숙이 들어가 이주지를 확대함으로써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많은 한민족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동북 3성에는 크고 작은 한민족 공동체에 의해 방언권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족 자치주에는 주로 함경도 방언권이, 랴오닝성에는 평안도 방언권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린성 북부와 헤이룽장성에는 경상도 방언권이 형성되었다. 그 밖에 강원, 경기, 전라, 충청, 황해도 지역어를 구사하는 작은 언어 공동체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에 방언섬의 형태로 고립된 채 산재하게 되었다. 이 조선말 방언에 대한 집체적인 조사 연구가 중국 또는 한국에 의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조선말 방언의 분포 지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많은 양의 조선말 방언 자료가 확보됨으로써 조선말의 지리적 변종과 구두어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

- ① 1963년 11월~1964년 1월까지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 민족어문 역사연구 위원회와 연변대학(延邊大學) 어문학부 조문학과에서 네 개 지점(지린성 안투현 산다오향(安圖縣 三道鄉), 훈춘현 잉안향(琿春縣 英安鄉), 진교향, 투먼시 웨칭향(圖們市 月晴鄉))을 조사하였다.
- ② 1981년~1985년 사이에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언어연구실과 동북삼성 조선어문사업협의회소조판공실이 중심이 되어 동북 3성의 13개 지점에서 조선말 방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1981~1982년에 예비 조사 및 본조사가 이루어지고 1983~1985년에 보충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朝鮮語 方言 調査 報告》(1991, 연변인민출판사²¹⁾) 및 《중국 조선말 실태 조사 보고》(1993, 민족출판사)로 간행되었다. 《朝鮮語 方言 調査 報告》는 권두에 각 지역의 어음·문법·어휘적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34장의 언어 지도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총 4,763개의 조사 항목에 대한 조선말 방언형과 ‘규범화한 명사 술어’에 대응하는 사용 예가 제시되었다. 《중국 조선말 실태 조사 보고》는 각 조사 지점 방언의 ‘어음·문법·어휘’의 특징과 ‘명사 술어’

20) 대단위 조사만을 보였다. 이 밖의 조사에 대해서는 전학석(2005)를 참고할 것.

21) 출판사 이름은 고유명사여서 외래어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

의 사용 실태를 지역별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방언 어휘 자료를 권말에 실었다. 그리고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리운규·심희섭·안운이 《조선말 방언 사전》(1992, 연변인민출판사)를 간행하였다.

- ③ 1988년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심희섭, 동북3성 조선말문교재협회의소조 관공실의 리운규가 조선족 자치주의 방언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훈춘현(琿春縣), 투먼시(圖們市), 룡정시(龍井市), 허룽현(和龍縣), 왕칭현(汪清縣), 옌지시(延吉市), 안투현(安圖縣), 둔화시(敦化市)에서 방언 조사를 하였다. 그 방언 분포도가 심희섭·리운규(1989), <연변에서의 조선말 방언 분포>, 《조선학연구 2》(1989, 연변대학출판사)에 수록되었다. 여덟 장으로 된 간략한 부호 지도 형태의 ‘방언 분포도’는 자치주 전 지역의 조선말 방언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또 지역별 방언 화자의 수도 밝혀 놓았다.
- ④ 1989년 3월 동북삼성조어전문사업협회의소조관공실과 연변대학 조선말문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지린시(吉林市)의 조선말 방언 분포도를 그리고 이중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지린시에서 방언 조사가 이루어졌다.
- ⑤ 중앙민족대학의 태평무 교수는 ‘언어 접촉과 중국 조선말 언어 변이’라는 연구 주제로 2005~2008년 사이에 연변(延邊) 지역의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조사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⑥ 최명옥, 광충구, 배주채, 전학석이 두만강 중하류 연안의 함북 육진 방언을 조사 연구하고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2000, 태학사)를 간행함으로써 두만강 연안의 조선말 방언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총 1,782 항목)에 따른 네 지점의 조사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⑦ 국립국어원이 ‘해외 지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의 일환으로 2004~2011년 사이에 지린성 훈춘시(吉林省 琿春市)의 함북 육진 방언, 지린성 투먼시 량수이진(吉林省 圖們市 凉水鎮)의 충북 지역어, 지린성 안투현 송장진 마오주촌(吉林省 安圖縣 松江鎮 茂朱村)의 전북 지역어, 지린성 용지현(吉林省 永吉縣) 경북 의성 지역어, 지린성 둔화시 셴루진(吉林省 敦化市 賢儒鎮)의 충남 지역어를 조사하였고 2008, 2010, 2011년에 각각 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조사 지역의 구술 발화와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 따른 조사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위 조사 자료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고 또 조사 목적이 방언 분포와 방언 특징의 확인에 주안을 둔 것이어서 재중 동포의 조선말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세대별 조선말 및 그 사용 실태, 이중 언어 사용, 한족말과의 접촉에 의한 언어 접변(linguistic acculturation) 현상 등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중국의 정치 사회의 변동은 물론 그에 따른 주민의 이동, 교육 기회의 확대, 매스미디어의 보급, 한족말 사용의 증가, 한국과의 교류 등으로 인해 조선말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말 방언이 조선족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방언 간의 통합(수평화), 표준어의 사용, 한족말의 직접 또는 간접 차용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5.2.에서 그러한 예를 보일 것이다.

5.1.2. 규범화한 어휘

1) 중국 조선말 표준어

조선말 표준어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나 사정한 조선말 표준어 모음(1936) 등에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1952년 조선족 자치주 성립 이후에는 <동북조선인민보>의 발기에 의하여 ‘명사, 술어통일 위원회’(1953)가 만들어져 200여 개의 조선말 표준어가 사정되고 또 <연변 일보>의 주도로 소수의 표준어 사정되었다. 이후 중국에서의 ‘조선말 어휘 규범’은 1977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북한의 규범을 따랐다. 이는 소위 ‘주은래의 63교시’에 의한 것이다. ‘63교시’란 주은래가 ‘중국 조선말은 평양 표준을 따르라’는 1963년에 내린 교시를 말한다. 이에 의거하여 어휘 규범은 대체로 북한의 《조선말사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1962)을 따랐다. 1977년부터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체로 북한의 규범을 따르면서도 중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조선말 어휘 규범 원칙’, ‘조선말 4칙 규범’, ‘외래어 표기법’ 등과 같은 독자적인 규범을 마련하였다.²²⁾ 이렇게 북한말을 받아들이고 또 1978년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말 어휘 규범 원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조선말 명사, 술어’를 규범화함으로써 조선말 어휘

22) 이에 대해서는 김기중(2009)를 참고할 것.

는 한국의 표준어와는 다른 이질적인 변종들을 가지게 되었다.²³⁾

지금까지 재중 동포들은 조선말의 규범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 때 문화 혁명 시기에는 조선말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및 민족어를 보존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날과 같은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이 어휘 규범화는 조선말 고유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족말[中國語]의 ‘명사, 술어’를 조선말로 번역 차용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족말에서 만들어진 신어(新語)를 조선말로 바꾸어 대체하는 일이다. 요컨대, 조선말의 규범화는 한족말에 기반을 두되 조선말의 어휘 체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조선말 방언을 표준어로 사정하는 일도 있으나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중국의 한족말[中國語]은 공용어인 까닭에 한족말을 조선말로 바꾸는 일은 필수적이다. 정치, 사상, 교양 관련 서적을 읽히거나 국가의 주요 정책을 널리 보급 선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족말을 소수 민족어로 번역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²⁴⁾ 이러한 여건 속에서 비록 한족말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어휘를 규범화하고 그것을 조선말에 편입시키는 일은 조선말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이 정체의 늪에 빠져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말 어휘 규범화 작업은 조선말을 보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등 교육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한족말을 공부하였지만 한족말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지금도 조선족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마을의 노인 세대는 대체로 한족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조선말 조사 및 연구 관련 문헌들을 보면 한족말을 규범화한 ‘명사, 술어’에

23)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 원칙(1978년 12월 5일 동북3성조선말문사업 제2차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어휘들은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새 명사, 술어는 조선말 단어 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한족말이나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여 쓴다. 3.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는 되도록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인명, 지명, 국가 명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에 좇아 처리한다.” 《조선말 규범집》(수정보충판)(1996, 연변인민출판사, pp.53~69)에서 인용함. 한편, 1988년까지 규범화한 어휘는, “연변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동북3성조선문교재협의회소조판공실, 《조선말 어휘 규범편람》, 연변인민출판사, 1988”에 수록되어 있다.

24) 이러한 일은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서 주관하는데, 이 기관은 1955년 중앙민족사무위원회(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번역국으로 출발하였다. 이 기관은 주요 서적의 번역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의 어문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등도 관장한다.

관한 질문 항목이 많은데 이는 규범화한 어휘의 보급 정도나 그 쓰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러한 규범화에서는 조선말의 어휘 체계를 고려하게 되므로 때론 독자적인 어휘를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주로 북한의 문화어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여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또 최근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한족말에도 신어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 신어를 북한의 문화어를 빌려 규범화하는 일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은 한국말을 받아들여 규범화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는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재중 동포 사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화 작업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화의 결과 조선말은 때론 한국의 표준어나 북한의 문화어와 차이를 보이면서 조선말만의 독특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2) 방언을 표준어로 규범화한 어휘

《조선말 규범집》(수정보충판)(1996, 연변인민출판사, pp. 62~69)에는 ‘방언 어휘 사정 원칙’(1990년 12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이 있다.²⁶⁾

1. 우리말 표현을 더욱 섬세하게 하고 다채롭게 하며 조선말의 어휘 구성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언 어휘는 표준 어휘로 인상시킨다.
2. 우리나라 광범한 조선 인민 대중들의 언어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는 생명력이 있고 조선말 발달 법칙에 맞는 방언 어휘는 표준 어휘로 인상시킨다.

위 원칙에 따라, 표준어로 대응시킬 수 없는 방언 어휘가 표준어로 사정되었다. 이렇게 방언이 표준어로 격상된 어휘는 대부분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에서 교

25) 예컨대 《중국 조선족 언어 문자 교육 사용 상황 연구》, 《중국 조선어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 이에 관한 조사 보고를 볼 수 있다.

26)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 산하 기구인 ‘조선어 사정 위원회’는 1986년에 창립되었다. 1990년 ‘방언 어휘 사정 원칙’을 마련하고 제1차 방언 어휘 사정안에서 100여 개의 사정한 어휘를 표준어로 편입시킨 바 있다.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는 1977년 창립되어 이미 세 차례 조사된 방언 조사 자료(이후 중국에서 생긴 방언 포함)를 통해서 사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서 본디 함경도 방언에서 유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함경도 방언이지만 음운이나 형태를 기존의 표준어를 고려하여 수정한 예도 있다. 예컨대, 본디 함경도 방언 ‘오느비장’을 ‘오늬장’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위 《조선말 규범집》(pp. 64-69)에는 표준어로 사정한 90개의 방언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몇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가장치기/굴뻐/손군/새끼달이/푸들다/간삶이/개장즙/개엿/단지곰/도끼나무/
돈가리/두렁서리/말단지/말새/사돈보기/오늬장/깍치다/해나른하다 ……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언 어휘도 표준어로 삼았다.

- ① 표준어와 그 뜻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방언. 예: 앙금-깡치.
- ② 표준어의 뜻보다 좁거나 넓은 뜻을 가진 방언. 예: 가다리-가랭이.
- ③ 표준어와 ‘뜻빛갈’이 다른 방언. 예: 로문하다-늣다.

위 예에서 ‘깡치’, ‘가다리’, ‘로문하다²⁷⁾’는 모두 함경도 방언으로 조선족 자치주에서 흔히 그리고 널리 쓰이는 말이다. 이밖에 표준어와 동의어라 할 수 있는 방언 어휘로서 표준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표준어를 버리고 방언 어휘를 표준어로 삼기도 하고 또 표준어와 방언 어휘를 모두 살려 복수 표준어로 삼기도 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 전자는 표준어가 사어가 되었거나 사용 빈도가 썩 낮은 예이고 후자는 방언 어휘가 표준어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이다. 새로 사정한 표준어는 조선족 자치주에서 구두어로 널리 쓰이는 것들인데 역시 대부분 함경도 방언이다. 이렇게 사정한 표준어는 대부분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1992, 연변인민출판사)에 수록되었다.

위 사정한 말 가운데에는 북한에서 문화어로 오른 것도 있다. 예컨대, ‘손군, 굴뻐, 단지곰’ 따위가 그것이다. 또 ‘새끼달이’는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한국의 표준어에도 있다. 어쨌든 조선말의 규범에 따라 많은 방언 어휘가 새롭게 조선말 표준어로 편입됨으로써 조선말에 새로운 어휘 변종이 생겨나게 되었다.²⁸⁾

27) ‘가다리’는 흔히 ‘가달’이라 하는데 ‘가다리’가 표준어가 되었다. 명사 뒤에 ‘이’가 덧붙는 현상은 함경도 방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편, ‘로문하다’는 어느 방언 화자나 ‘노문하다’라 하는데 한자어로 인식하고 ‘로문하다’로 사정한 것이다. ‘노문하다’는 ‘늣다’의 존대어이다.

3) 한족말을 번역 차용하여 생긴 변종

한족말을 조선말 어휘로 대체하여 생긴 변종이다. 이 번역 차용에 의해 생겨난 변종들은 북한의 문화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있고 조선말의 어휘 체계 내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최근 재중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잦고 또 한국에서 송출하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대학에서 한국어말 교육이 증가하고 한국어말 도서가 널리 보급되면서 조선족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문화어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 보급이 한국어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족말을 조선말로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말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2011년 7월 25일 선양(沈陽)에서 열린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7기위원회의 및 제23차 실무회의에서 의결된 ‘명사 술어 통일안’이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 준다.²⁸⁾ 아래 예는 그 ‘명사 술어 통일안’의 총 110개의 사정한 말 중에서 30개만을 가려 뽑은 것이다. (아라비아 숫자는 사정한 명사 술어의 일련 번호. 한족말 다음은 사정한 조선말. ()는 대응 한국어말.)

1. 安置補助費 / 생활안착보조비 (생활 안정 자금)
2. 長假綜合費 / 련후증후군 (연휴 증후군)
3. 成本追償權 / 비용보상구권 (비용 보전 구상권)
4. 次給貸款 /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비우량 담보 대출)
5. 次貨危機 / 저질주택담보위기, 비우량대출위기 (비우량 담보 대출 위기)
6. 刺激政策 / 경기부양책 (경기 부양책)
7. 擔保物權 / 담보물권 (남북한 공히 담보 물권)
8. 多功能廳 / 다기능청, 멀티미디어홀 (멀티미디어 홀)
9. 20國集團金融峰會 / G20금융정상회의 (G20 정상 회의)
10. 空置房 / 미분양건물 (미분양 주택)

28) 방언 어휘의 규범화에 대해서는, 리윤규(1991, 16~19), 김기종(2011, 5~8)을 참고할 것. 규범화된 방언 어휘의 사용 정도는 김인국(2011)을 참고할 것.

29) 《중국 조선 어문》 제2호(2012,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95~96에서 인용. 관련 기사는 ‘흑룡강코리아’ (2011, 11월 28일 자 참고).

11. 彩鈴 / 컬러링(color ring) (컬러링)
12. 炒房 / 부동산투기 (부동산 투기)
13. 傳媒 / 매체 (매체)
26. 精英 / 정예, 엘리트(엘리트)
28. 沐浴露 / 바디샴푸, 샤워용샴푸
29. 閃灯[車] / 깜빡이(깜빡이)
37. 四輪定位 / 4륜정위, 휠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
38. U盤 / USB, 정보막대 (정보 막대)
46. 咨政會 / 정책자문회 (정책 자문 회의)
64. 胡蝶效應 / 나비효과 (나비 효과)
65. 奴族 / 개미족³⁰⁾
76. 稀土 / 희토류 (희토류, 희토류 원소)
79. 游資, 熱錢 / 단기투기자본, 핫머니(핫 머니(hot money))
80. 宅男 / 방콕남(녀)
81. 老字号 / 전통브랜드 (고유 상표)

위 ‘사정한 명사 술어’는 대개 사회, 경제, 문화 관련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는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술어이고 또 시장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북한의 문화어에는 대부분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술어들을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남북에서 공동으로 쓰는 어휘도 있고 또 ‘개미족’과 같은 신조어도 있다. 이는 조선말 외래어 사정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족말에 기반을 두되 조선말의 어휘 체계는 물론 남북한말을 참고하여 한족말을 조선말로 번역 차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위 사정한 말 가운데 한국에서 통용되는 ‘깜빡이’, ‘방콕’을 받아들인 점이 주목을 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도 볼 수 있는데 ‘컬러링, 바디 샴푸, 엘리트, 휠 얼라인먼트, 핫머니’가 그러한 예다. 종래 인구어 차용어는 대체로 ‘트랙터(트랙터), 마다라스(매트리스), 미누스(마이너스), 플러스(플러스), 세미나르(세미나)’ 따위와 같은 러시아 어였으나 이제는 영어가 주류를 이

30)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루고 있다. 이른바, ‘국제화 등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사정하였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어 중심의 외래어를 새로운 말로 사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도 않다. 이러한 변화가 전통적인 조선말 어휘 체계나 언어 사용 관습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혹은 외래어를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과 우려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어쨌든 최근의 표준어 사정은 조선말의 어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한국어를 참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1.3. 한족말의 차용

1) 한족말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차용한 예

한족말의 한자를 단순히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차용하는 예는 꽤 많다. 이러한 예들은 대부분 비규범어지만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ist)인 재중 동포들에게는 이러한 차용이 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족말을 많이 배우고 익힌 젊은 세대들은 한족말을 직접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래의 용례는 한족말을 모르는 노인 세대가 일상적으로 쓰는 몇 예를 가려 뽑은 것으로 필자가 조선족 농촌 마을에서 조사한 것이다. 배열은 [漢語,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차용한 예/조선말 표준어] 순이다.

個體農戶	개체농호/개인농호	塑料	소료/비닐, 가소물
工人	공인/로동자	收据	수거/령수증
工資	공자/로임, 임금	手冊	수책/수첩, 목책
問診部	문진부/진찰부	作業	작업/숙제
批發價格	피발가격/도매가격	住宿(費)	주숙(비)/숙박(료)
私有制	사유제/사적소유제	質量	질량/질(質)
產量	산량/생산량	伙食費	화식비/식비
生活水平	생활수평/생활수준	招生	초생/학생모집
線索	선색/실머리, 단서	電話號碼	전화호마/전화번호
城市	성시/도시	土坯	토포/벽돌

辦公室 판공실/사무실
 畢業證 필업증/졸업증
 函授生 함수생/통신생

護士 호사/간호원
 護照 후조, 호조/려권(旅券)

2) 한족말을 직접 차용하여 쓰는 예

아래 보기로 든 말들은 한족말을 모르는 농촌의 노인들이 쓰는 말에서 가려 뽑은 것인 만큼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예들은 대응하는 조선말 표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조선말을 구사하면서 조선말과 섞어 쓰는 것들이다.

꼬랑/꼬랑(미)(수수/수수쌀), 高粱(米)
 [gāo liáng(mǐ)]

깡토리(까까머리), 光頭[guāngtóu]

짜멘(마른국수), 掛麵[guàmiàn]

노오배(무), 蘿卜[luóbo]

노하성(낙화생), 落花生[luòhuāshēng]

노토리(노인), 老頭[lǎotóu]

노무주(암돼지), 老母猪[rǎomǔzhū]

노신사(중풍), 腦心塞[nǎosīnsāi]

넘창(산림청), 林場[línchǎng]

똥첸(철거), 動遷[dòngqiān]

맨노(컴퓨터), 電腦[diànnǎo]

맨디(점적 주사), 點滴[diǎndī]

맨쓰(텔레비전), 電視[diànshì]

로반(사장), 老板[lǎobǎn]

무얼이(목이), 木耳[mùěr]

뽕틀(갈등), 蹦蹦兒[bèngtuǐr]

쌍발(출근), 上班兒[shàbār]

야진(선납금), 押金[yàjīn]

티슈, 투수, 투슈(퇴직), 退休[tuìxiū]

싸발, 싸말(퇴근), 下班[xiàbān]

폴랑재(씨돼지), 保良豬[bǎoliángzhū]

한족말은 지배 언어로서 공용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 또는 직접 차용의 대상이 된다. 재중 동포들은 그들만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생활해 온 일부 소수의 노인층을 제외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한족말을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다. 재중 동포들은 한족말의 표준어라 할 수 있는 푸통화(普通話)를 배우지만 한족과의 접촉에 의하여 중국의 동북 방언(東北方言)을 차용해서 쓴다.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푸통화(普通話)보다는 중국의 동북 방언

을 의외로 많이 차용하여 쓴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한족말보다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구어로서의 한족말을 차용하여 쓰는 것이다. 이런 경우 조선족의 표준어는 주로 서사어(書寫語)로 쓰인다. 예컨대, 한족말 ‘點滴’은 조선말 표준어로는 ‘점적 주사’지만 일상적으로는 ‘뎨디[diāndi]’라 한다. 이 예는, 문어에서는 ‘점적 주사(點滴注射)’라 하고 구어에서는 ‘뎨디’라 하는 셈이다.

5.1.4. 한국말의 차용

한국말 차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차용의 경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말의 규범화 과정에서 차용되는 예로서 한국말 표준어 또는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전문용어가 공식적으로 조선말로 수용되는 경우다. 이러한 예는 앞서 6.1.2의 3) ‘명사, 술어’의 규범화에서 본 바 있다. 다른 하나는 각종의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차용되는 경우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연예 교양 관련 한국말을 다수 차용해서 쓰는 일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 송출하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으로 한국말의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중 동포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차용되는 경우다. 각종 사회 문화 관련 어휘와 음식, 의류 등의 한국말 차용이 많다. 이러한 한국말 차용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 북한말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조선말 어문 규범이나 조선말의 체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인의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재중 교포 사회의 일각에서는 새로운 국제 관계,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조선말 규범이 북한의 어문 규범에서 한국의 어문 규범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절충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5.2.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과 그 발생 요인

5.2.1. 조사 목적과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이 절에서는 재중 동포의 조선말 변종을 수집하고 다양한 변종들이 어떠한 언어 환경에서 출현하였으며 또 그 변종들은 지역, 주거 지역의 형태(집거 지역/잡거 지역), 세대, 성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분화 내지는 통합되어 가고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 항목은 크게 음운, 어휘, 문법, 의미, 한족말 사용, 한국말 차용을 고루 살필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조사의 핵심이 되는 어휘 변종 조사 항목은, 다른 계열어에 비해 견고한 체계를 지니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딘 친족어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보급되어 그 이름이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 사물 명사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이는 지리적 분화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족 사회에서 형성된 새 어휘적 변종의 출현과 그 변종의 발생 요인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 변종이 조선말의 어휘 체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한족말[中國語]이나 한국말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등을 쉬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사는 <변종 조사 질문지>(부록 2)에 의거 이루어졌다. 음운은 음운 체계를, 어휘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문법은 문법 형태소의 변이형과 통사적 특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음운 영역은 조사 항목에 대한 정밀 전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사 지역은 지린성(吉林省) 9지점,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칭다오(靑島)다.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주로 조선족 집거 지역에서 조사하였으며 랴오닝성(遼寧省)과 칭다오(靑島)는 한족과 조선족이 잡거하는 지역에서 조사하였다. 체보자는 세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세대는 60세 이상, 40~59세, 20~39세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동수의 체보자를 선정하였고 각 세대별로 남녀를 반반씩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린성(吉林省)(28명), 헤이룽장성(黑龍江省)(13명), 랴오닝성(遼寧省)(12명), 칭다오(靑島) 지역(13명)에서 총 64명의 체보자를 선정하였다. 음운과 문법 형태 조사는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수집된 자료를 각각 조사 지역별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 복수로 응답한 경우는 제2응답형의 제보자 수를 () 속에 보였다.

5.2.2. 어휘

1) ‘아버지’의 호칭어

기초 어휘에 속하는 친족어 가운데 ‘부(父)’ 호칭어는 그 방언형이 다양하다. 이 항목은 조선족 화자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친족 호칭어를 통하여 동북 3성의 조선말 방언 분포 및 그 세대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또 ‘부(父)’ 호칭어가 한족말[中國語]와의 접촉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역별로 나누어 ‘부(父)’ 호칭어를 보기로 한다.

<표 164> 지린성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부지	3	3	1	1(1)	1	2	11(1)
아바지	2						2
아버지	1(1)	2	1	5	2	3	14(1)
아빠						(1)	(1)

<표 165> 랴오닝성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2	2	2(1)	3		(1)	9(2)
빠(爺)			1				1
빠빠(爺爺)					1	1(1)	2(1)
아빠						(1)	(1)

<표 166> 칭다오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2	1	1	1	2	7
아부지	1			(1)			1(1)
빠(爸)		1		1	1		3
빠빠(爸爸)	1		1	(2)	(1)		2(3)
							13(4)

<표 167> 헤이룽장성 지역의 '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바디		1(1)					1(1)
아부지	1(1)	2	1		2	1	7(1)
아버지	1(1)	(1)	1	1		2	5(2)

변이형은 크게 고유어와 한족말로 나눌 수 있다.

- (1) 고유어: 아바디, 아바지, 아버지, 아부지, 아빠
- (2) 한족말: 빠(爸), 빠빠(爸爸)

위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과 칭다오(靑島)에서만 한족말[中國語] 호칭어가 보인다는 점이다. 랴오닝성에서는 50대 이하의 3(1)명만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젊은 세대다. 그러나 칭다오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며 응답자도 무려 38%에 달하는 5(3)이다. 그러나 집거 지역인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한족말 호칭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대조적이다.

한편,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는 '아부지'와 '아버지'가 두루 쓰이는데, 노년층에서는 '아바지'와 '아바디'란 호칭어도 쓰인다. '아바지'와 '아바디'는 체보자들이 과거에 쓰던 말일 것이다. 한편, '아바지'가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랴오닝성에서

는 ‘아버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평안, 황해, 함경도 지방에서 널리 쓰이는 호칭어이기 때문이다.³¹⁾ 표준어 ‘아버지’로 어휘 대치가 일어난 것이다. 나이가 젊을수록 표준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이룽장성에서는 선대가 평안도 출신인 제보자들이 ‘아바디’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역구개음화의 예라 흥미롭다. 이러한 과도 교정형의 출현은, 노인층에서는 원 방언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요컨대, 노년층은 선대 거주지 방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이하 세대는 표준어 ‘아버지’와 ‘아부지’로 대치되었다. ‘아버지’는 [-친근], ‘아부지’는 [+친근]의 자질을 갖는다.

한편,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20대 여성 제보자 2명은 ‘아빠’를 쓰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한국말에서 유입된 ‘아빠’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아빠’는 ‘기분이 좋을 때’, ‘아버지’는 ‘기분이 나쁠 때’ 쓴다고 하였다. 발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쓴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빠’의 호칭어

지린성: ‘아빠’라는 말을 모르거나 알기는 하지만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다섯 명을 제외한 전 제보자가 ‘아빠’를 쓴다고 응답하였다.

<표 168> 랴오닝성 지역의 ‘아빠’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빠	(2)		(2)				(4)
아버지	2	1	3(1)	1			7(1)
빠(쑤)		1		1			2
빠빠(쑤쑤)	(1)	(1)	1		1	1	3(2)
로빠(老쑤)			(1)	(1)			(2)

31) ‘아버지’는 대체로 추가평지구곡 이남의 방언권에서 쓰이고 그 이북 지역에서는 ‘아바지’라 한다.

<표 169> 칭다오 지역의 '아빠'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빠		1(1)	1(1)	(1)	(1)		2(4)
아버지			(1)	(1)	1(1)	2	3(3)
아부지	(1)						(1)
빠(쌌)		1		1	1		3
빠빠(쌌쌌)	2	1	1	1			5

<표 170> 헤이룽장성 지역의 '아빠'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아빠	1(1)	1		1	1(1)	(1)	4(3)
아버지	1	1	1		1	1	5
아부지		1		1(1)			2(1)
아바지		1					1
빠빠(쌌쌌)				(1)		1	1(1)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 고유어: 아빠, 아버지, 아부지
- (2) 한족말: 빠(쌌), 빠빠(쌌쌌), 빠빠(쌌쌌), 로빠(老爺)³²⁾

먼저 (2)의 한족말 사용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32) 지역, 화자에 따라 약간 달리 쓰이나 일반적으로 '빠'는 화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호칭어로 쓰인다. 그리고 '빠빠'는 주로 문어에서 많이 쓰인다. 또 '로빠'는 자녀가 애교를 부릴 때,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기남편을 지칭할 때,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를 부를 때 쓰인다. 그리고 정중한 표현에서 호칭과 지칭어로 쓰이기도 한다. 중국 유학생의 조언에 의하면, '로빠'는 주로 고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연령대에서 쓰이며 결혼을 하면 '빠빠'라 한다고 함.

<표 171> '아빠'에 대한 지역별 한족말 사용 비율

	지린성	랴오닝성	칭다오	헤이룽장성
제1응답형	0%	71%	62%	8%
총 빈도	0%	43%	38%	1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린성(吉林省)은 한족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은 71%, 칭다오(靑島)는 62%에 달하여 대조적이다. 잡거 지역에서의 한족말 사용이 압도적이다. 총 빈도에서의 출현 비율이 제1응답형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어계가 제2응답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는 고유어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세 지역 중 랴오닝성에서 '아빠'의 출현 비율이 가장 낮다. 나이가 젊을수록 점차 한족말 사용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고유어 '아빠'가 문헌에 출현하는 시기는 1930년대다.³³⁾ 흥미롭게도 '아빠'는 조선족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것이 중국 동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말을 차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말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의 노인 세대는 이 말이 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지린성에서는 27명 중 5명을 제외한 22명이 '아빠'를 쓰거나 안다고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 옌지시(延吉市)의 67세 된 여성, 훈춘시(琿春市)의 78세 남성 등은 이 말이 90년대 중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헤이룽장성의 60대 이상 노인들은 이 말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된 말', '한국에서 들어온 말'이라 하였으며 랴오닝성의 노인들은 '옛날에 없고 요사이 쓰는 말'이라 하였다. 이는 '아빠'가 한국말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지린성 27명의 제보자 중에서 70세 이상의 농촌 남성 5명이 이 말을 들은 적이 없거나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쓰이는 범위는 27명 중에서 5명이 쓰이는 시기를 말하였는데, '5세 정도까지'로 응답한 사람이 2명, '초급중학에 진학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 '20대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3명이다. 요컨대, 극소수의 농촌 거주 남성 노인을 제외하고는 '아빠'를 알고 있었고 그 쓰이는 시기는 대체로 유아

33) 조항범(2009)에 의하면 중앙일보(1933년 10월 29일) 및 《朝鮮語辭典》(1938)에 등장한다.

기부터 20대까지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그 쓰임과 쓰이는 시기가 점차 확산 및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잡거 지역에서는 한족말의 사용 빈도가 높고 집거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차용한 ‘아빠’의 사용 빈도가 높다.

3) ‘어머니’의 호칭어

‘어머니’의 호칭어는 유소년기에 부르는 명칭과 성년이 되었을 때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다.³⁴⁾ 조사된 응답형은 ‘아버지’나 ‘아빠’처럼 어중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 고유어: 어마, 엄마, 엄매, 음마, 어마니, 어머니, 어머이
- (2) 한족말: 마마(媽媽)

(2)의 한족말 사용 비율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72> ‘어마, 어머니’에 대한 지역별 한족말 사용 비율

	지린성	랴오닝성	칭다오	헤이룽장성
비교	0%	20%	15%	0%
빈도 비교	0%	11%	16%	0%

집거 지역인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한족말 사용을 볼 수 없지만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과 칭다오(靑島)에서는 한족말을 쓴다. ‘아빠’의 경우와 같다.

한편, 전통적으로 평북 방언에서는 ‘오마니’, ‘어마니’라 하므로 평안도 출신이 많은 랴오닝성에서는 이들 방언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혀 쓰이지 않는다. 표준어 ‘어머니’가 그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에서는 ‘어머니’의 방언

34) 이 조사 항목은 본디 어휘 조사 항목이 아니고 음운 조사 항목이다. ‘ㄱ’와 ‘ㄱ’의 변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나 조사 결과가 미흡하여 어휘 면만을 분석하였다.

형으로 ‘어마, 엄마, 어머니, 어마니, 어마이, 어마내’가 조사되었다. 함경도의 방언형은 ‘어마’(주로 유소년기의 호칭어로 동북 방언과 육진 방언권에서 쓰임), ‘어마니’(육진 방언권), ‘어머이, 어마이’(비육진 방언권)의 세 유형이 있는데 ‘어마니’를 쓴다고 응답한 사람은 오직 1명뿐이다. ‘아버지’의 경우처럼 노인층에만 남아 있다. ‘어마’를 쓴다는 응답은 5명으로 모두 노년층이다. 노년층이 역시 선대 거주지의 전통 방언을 유지하고 있다. ‘엄마’는 전체 응답자 중 13명이 쓴다고 하였는데 성에 따른 차이는 없다. 또 ‘어머니’와 함께 쓰는데 ‘엄마’는 주로 성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는 성년이 된 후에 쓴다는 응답이 있었다. ‘어머니’는 12명이 쓴다고 응답하였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로 성년이 되어 쓰이는 말이다. 특징적인 사실은 전통 방언형 ‘어마니’, ‘어마이’, ‘어마이’가 점차 사라지고 표준어 ‘엄마’와 ‘어머니’만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처럼 나이가 젊을수록 표준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할아버지’의 호칭어

친족 호칭어의 전통적인 지역 방언형이 어느 정도 잔존하였는지, 친족 호칭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목이다.

<표 173> 연령층별 ‘할아버지’의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클아버니	1						1
컬어메		1					1
아버니	1	1					2
아바이	3		1	3	1	3	12
할아버지		2		1	1	2	6
할배	1	(2)	1	1	1		4(2)
할바이				1			1

<표 174> 라오닝성 지역의 연령층별 '할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할아버지	(1)	1	2	1(1)	1		5(1)
할배	2	1(1)	(1)	1		1	5(2)
큰아배				1			1
클아버지				(1)			(1)
클바지		(1)					(1)
큰아버지			1				1
커바지					(1)		(1)
아바이				(1)			(1)

<표 175> 칭다오 지역의 연령층별 '할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할아버지	2	3	2	1	2	2	12
할배			(1)		(1)		(2)
아바이				1		(2)	1(2)

<표 176> 헤이룽장성 지역의 연령층별 '할아버지'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할아버지		2	1				3
할아버지	1	(1)	1	(1)	1	1	4(2)
할배	1(1)	1(1)		1	1	2	6(2)

'할아버지'의 호칭어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 (1) '할' 계: 할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 (2) '클' 계: 큰아버지, 큰아배, 클바지, 큰아버지, 커바지
- (3) 아바니 계: 아바니, 아바이

‘조부’ 호칭어는 대체로 선대 거주지 방언이 남아 있으나 표준어 ‘할아버지’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부’, ‘모’ 호칭어와는 달리 한족말[中國語]을 차용해서 쓰는 일은 없다.

지린성(吉林省)의 경우 전통적인 함북 방언에는 ‘클아바니’와 같이 접두 요소가 ‘클-’인 방언형과 접두 요소가 없는 ‘아바니’ 계열이 있다. 응답자의 59%가 이 전통 방언형을 쓰고 있다.³⁵⁾ ‘클아바니’ 계는 60세 이상의 노년층만이 쓴다. 점차 소멸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접두 요소가 ‘할-’ 계통인 ‘할배’는 경상도 출신들의 호칭어다(지린시 거주). 한편, 표준어 ‘할아버지’는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은 경상도 출신 즉, ‘할배’를 쓰는 화자들의 복수 응답형이다. 어릴 때는 ‘할배’를 썼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를 쓴다고 응답한 예다. 어쨌든 표준어 ‘할아버지’도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전통적인 ‘클-’ 계와 ‘할-’ 계는 소멸하고 ‘아바이’와 표준어 ‘할아버지’로 점차 통일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지’, ‘어머니’의 호칭어와 달리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평북 방언 화자가 많은 랴오닝성(遼寧省)에서는 ‘클-’ 계의 평북 방언형이 다수 보이지만 점차 ‘할-’ 계에 밀려 사라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2응답형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 계는 ‘할아버지’와 ‘할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칭다오(靑島)에서는 ‘할아버지’가 압도적인데 지린성 일대에서 많이 쓰이는 함경도 방언형 ‘아바이’도 보인다. 어느 제보자는 ‘아바이’가 ‘어렸을 때 쓰던 말’이라 하였는데 이는 ‘아바이’가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경상도 방언형 ‘할배’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아부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지린성은 ‘아바이’로 방언 간의 수평화(leveling)가 진행되었다. 랴오닝성은 본디 평안 방언이 아닌 ‘할배’로 수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어 ‘할아버지’는 여성들이 많이 쓰고 나이가 적을수록 그 쓰임이 증가한다.

35) 함경도 방언의 친족 명칭은 곽충구(1993)를 참고할 것. 재중 동포 친족 명칭의 수평화 현상에 대해서는 곽충구(2000)를 참고할 것.

5) ‘할머니’의 호칭어

이주 전 선대 거주지의 방언인 동북 방언(및 육진 방언), 서북 방언, 기타 지역 방언이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 표준어의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또 ‘아버지’나 ‘엄마’의 호칭어에서처럼 한족말[中國語]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항목이다.

<표 177>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변종	남성			여성			계
	60	40	20	60	40	20	
아매	3(1)	1	2	3	2	2	13(1)
큰아매	2						2
컬어매				1			1
할마이					2		2
할머니				(1)	3	1	4(1)
할매	1	1	1	1			4
함매	(1)						(1)
할머이						1	1
함머이						1	1
	6	2	3	5	7	5	28

‘아매’가 전 세대에 걸쳐 고루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큰아매’, ‘컬어매’와 같은 ‘큰-’ 계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쓰는 호칭어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쓰던 말이므로 사실상 이 말은 사어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할아버지’의 호칭어가 그렇듯이 ‘할머니’의 호칭어도 조선족 자치주 내에서 일종의 방언형 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주 전 함경도에서는 ‘아매’와 ‘큰-’ 계의 호칭어가 쓰였는데 이 방언형들이 ‘아매’로 수평화된 것이다.

‘아매’와 ‘큰-’ 계는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표준어 ‘할머니’다. 모두 50대 이하 여성들이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이 보다 개신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매’는 이주 이전의 원적지가 황해도, 경상도인 제보자 또는 그 후손으로부터 조사한 호칭어인데 세대에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 ‘할머니’의 호칭어는 다른 친족 호칭어에 비해 그 변화가 매우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라오닝성(遼寧省), 칭다오(靑島),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을 보기로 한다.

<표 178>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할매	2	2	2(1)	1		1	8(1)
할머니	(1)		1	1	1		3(1)
클마니		(1)	(2)				(3)
아매				1			

라오닝성에서는 '할매'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전통적인 평안도 방언형 '클마니'가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준어 '할머니'는 50대 이하의 세대에서 나타난다.

<표 179>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할매	1		1				2
할머니	1(1)	1	1				3(1)
할먼		1					1
할머이		1			2	2	5
아매				2			2

칭다오에서는 '할머이'가 많이 쓰이는데 모두 지린성 룡징(吉林省 龍井) 2명, 엔지(延吉),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출신들의 응답형이다. 자치주 출신들이 '아매'가 아닌 '할머이'를 쓴다는 점이 특이하다. 추측컨대, 표준어 '할머니'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할머니>할머이). '아매'는 엔지 출신의 응답형이다.

<표 180>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할머니'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할매	1	1	1	1	1	3	8
할머니	1(1)	2(1)	1(1)		1	(1)	5(3)

‘할매’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경상도 방언일 것으로 생각된다.

6) ‘고모(아버지 누님)’의 호칭어

<표 181>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 호칭어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말아매	3(1)	3	1	4	2	3	16(1)
몰아매	1						1
고모(큰-)	2	1		1	1	1	7
고무				1			
큰엄마		1		1			2

‘고모’의 호칭어는 선대 거주지의 방언형이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다. 함북 방언은 ‘말아매’다. ‘몰아매’는 육진의 일부 지역(운성, 회령 등)에서 쓰이는 호칭어다. 소수형 ‘몰아매’가 다수형 ‘말아매’로 수평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모’는 주로 경상도 출신의 응답형이다. 그 외에 표준어의 영향도 있는 듯하고 주로 여성들에게서 쓰인다. ‘큰엄마’는 황해도 및 평안도 출신의 응답형이다. 방계 존속의 친족어가 가장 오래도록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82>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고모	1	3		2	1		7
말아매	1		2			2	5

칭다오(靑島)에서는 ‘고모’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말아매’는 주로 지린성(吉林省) 출신들이 쓴다.

<표 183>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 호칭어

변종	60이상		50-40		3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고모		1	1	1	2	3	13
고무	2	2	1				
큰어마			(1)				(1)
큰엄마			(1)				(1)

헤이룽장성에서는 모두 ‘고모’(또는 ‘고무’)를 쓴다. 이는 경상도 방언과 표준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북 방언형 ‘큰엄마’(또는 ‘큰어마’)도 쓰이나 ‘고모’의 영향으로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7) 고모(아버지의 여동생)의 변이형

<표 184>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고모’의 변이형

변종	남성			여성			계
	60	40	20	60	40	20	
아재	4	1	1	5	4	4	19
고모	2		1	1	1		6
고무					1		

역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모두 출신 지역의 방언을 쓴다. ‘고모’로 응답한 제보자는 대부분 선대 거주지가 경상도이고 그 밖에 평안도 출신도 있다.

8) 노래방

한국말의 차용과 한족말[中國語]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목이다.³⁶⁾

36) ‘방’이 결합되어 생긴 말로는 ‘찹질방, 다방, PC방’이 많이 조사되었고 ‘헬쓰방’을 쓴다는 응답도 있다. ‘방’이 접사로서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고, 모두 한국말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노랫방’(또는 ‘노래방’)을 쓰고 있어 한국말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85>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노랫방	4	3	1	3	1	3	25
노래방	1	2		4	1	2	
커팅(歌廳)	1						1
모름	1						1

<표 186>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노랫방	2	2	3	2	1	1	11
케이티비			(1)		(1)		
커팅, 꺼팅(歌廳)	(2)		(1)				(3)
연가방, 련가방(練歌房)			(2)	(1)			(3)
렌거팅(練歌廳)	(2)						(2)
우팅(舞廳)				1			1
카라오케		(1)					1(1)
칼로게				1			

<표 187>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노랫방	(1)	2(1)	2	1(1)	2	2	9(3)
케이티비		(2)	(1)			(2)	(4)
커팅(歌廳)		(2)					(2)
연가팅(練歌廳)				(1)			(1)
카라오케	2	1(1)	(1)	1(1)			4(3)

<표 188>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노래방'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노래방	1	2	2	1		2	8
노랫방		1			2	1	4
모름	1						

집거 지역과 잡거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한족말이 거의 쓰이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은 남성 노인은 아예 '노래방'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지만,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과 칭다오(靑島)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족말의 쓰임이 많다. 괄호 안의 제2응답형 화자들의 방언형은 대부분 '적게 쓰이는 예'라기보다는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쓰이는 예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들이 "한족과 대화할 때에는 ..."이라는 단서를 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잡거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일상적으로 조선말과 한족말을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2응답형으로 한족말을 말한 것이다.

케이티비(Karaoke TV)는 '가라오케'의 중국식 외래어다. '카라오케'는 일본어 '가라오케(カラオケ←カラ(空)+orchestra)'를 직접 차용한 말인 듯한데 칭다오(靑島)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랴오닝성과 칭다오에서는 한족말[中國語]의 다양한 변종들이 쓰이고 있다. '歌廳', '練歌廳', '舞廳'이 그것이다. 그리고 '노래방'과 한족말 '練歌廳'의 혼성어인 '練歌房'도 보인다.

9) 점적 주사

이 조사 항목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차용된 '링게르(Ringer)' 계의 방언형과 엔벤(延邊) 표준어인 '점적 주사' 그리고 한족말의 쓰임을 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연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목이다.

<표 189>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맨디	4(1)	3(1)	2	8(1)	2	4	23(3)
또절(吊針兒)	(1)						(1)
링게르	2(2)	1(2)				1	4(4)
주사		1					1
점적 주사	(2)						(2)

<표 190>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맨디(點滴)	1(1)	1(1)	2	1		1	6(2)
또핑(吊瓶)	1(1)	1	(1)	1(1)	1		4(3)
띠류(滴流)				(1)			(1)
링게르			1(1)	1(1)			2
혈관주사	(1)						(1)

<표 191>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맨디(點滴)	1(1)	2(1)	1	2	2	2	10(2)
또핑(吊瓶)		1					1
링게르, 링걸, 링거	1		1(1)				2(1)
점적 주사	(1)						(1)

<표 192>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점적 주사'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뎨디, 뎨디	2	2(1)	2		2	2(1)	10(2)
뎨핑(吊瓶)				(1)			(1)
닝게르, 링개르	(1)	1		1		1	3(1)
혈관주사		(1)				(1)	(1)
점적주사	(1)					(1)	(1)

표에 나타난 변종을 어종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고유어: 점적 주사, 혈관 주사, 주사
- (2) 한족말: 點滴, 吊針兒, 吊瓶, 滴流
- (3) 기타: 링게르(Ringe's solution)

대부분의 제보자는 한족말 '點滴'을 직접 차용한 '뎨디'를 쓰고 있다. 그리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제보자가 '링게르' 계의 변이형을 쓰고 있다. 그 밖에 한족말 '吊瓶'이 랴오닝성(遼寧省)과 칭다오(靑島)에서 쓰이고 또 한족말의 지역 방언으로 생각되는 '吊針兒, 滴流'가 적게나마 쓰이고 있다. 다른 조사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한족말의 지역 방언을 직접 차용해서 쓴다. 반면, 표준어 '점적 주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역시 표준어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질문지에서는 '점적 주사'와 어울려 쓰이는 동사를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뎨디르 맞다'가 우세하고 그 다음에 '뎨디르 꿰다'와 '뎨디르 하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족말로 '다뎨디(打點滴)'라 한다는 제보자도 있다.

10) 경운기(耕耘機)

<표 193>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경운기'의 변이형

변종	남성			여성			계
	60	40	20	60	40	20	
또락뜨					(1)		(1)
뜨락또	2	1	1				4
뜨락또르	1			2	1	1	5
뜨락또루				(1)			(1)
소푸투라지					1		1
스푸투라지	1(1)						1(1)
스푸트라지		1					1
써푸떨라지					1		1
써푸터라지					1		1
써푸튀라지						1	1
써푸트라지					1		1
쏘푸토라지	1						1
쏘푸	1						1
쏘푸지				1			1
써푸지	(1)						(1)
투라지					2	1	3
톨라지	(1)		1	1			2(1)
튀라지				1	1	1	3
튀라지							

‘경운기’의 변이형들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 (1) ‘뜨락또르’ 계: 러시아 어 ‘трактор’를 차용한 말.
- (2) ‘소우푸투라지’ 계: 한족말[中國語] ‘手扶拖拉机(shǒufútuōlājī)’를 직접 차용한 말.

‘뜨락또르’는 ‘트랙터’의 조선말 표준어다. ‘경운기’의 조선말 표준어는 ‘손잡이뜨락또르’다. ‘뜨락또르’ 계의 변이형들은 세대, 남녀 구분 없이 고루 쓰이고 있다. 전체의 33% 정도가 된다.

한편, 한족말 ‘소우푸투라지’ 계의 사용은 67% 정도가 되는데 대체로 구두어를 직접 차용한 것이고 한족말의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발음 변이가 극심하다. 그리고 음절수를 줄여 ‘手扶拖拉机’의 ‘手扶’ 또는 ‘拖拉机’라 하기도 하는데 그 음차(音借) 변이형들이 아주 다양하다. 手扶[shǒufú]의 1음절 모음 [ǒu]가 ‘ㄱ, ㄴ, ㄷ’ 등 세 개의 모음으로 차용되었다.

11) 위성 안테나

2000년을 전후해 재중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졌다. ‘안테나’의 보급과 함께 이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다양한 변종과 그 발생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94>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가마	2	1		1			2
가매	2	2		1	1	4	10
한국가매	1	1		2		2	7
유선댄스가매							1
한국위성가매						(1)	(1)
안테나			1	(1)	1		2(1)
한국바가지				(1)			(1)
위성				1	(1)	1	2(1)
한국위성			1				1
꺾까이(鍋蓋)	1						1
꺾깔(鍋蓋兒)		1					1

<표 195>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텐센, 텐션, 텐선(天線)	2		(1)				4(1)
(위성)안테나	(1)		1	1			2(1)
위성가매				1			1
위성가마			(2)	1		(1)	1(3)
솔뚜깨	(2)						(2)
가마뚜껍	(1)						(1)
위성		1	1		1		3
귀깨이(鍋蓋)			(1)			1	1(1)

<표 196>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안테나	1(1)	2	1				4(1)
가마		(2)	1			(1)	1(3)
밥가마					1	(1)	1(1)
위성		1			1	1	3
한국위성				2	(1)	1	3(1)
꺄깨(鍋蓋)	1						1
꾸깨(鍋蓋)		(1)					(1)

<표 197>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위성 안테나'의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솔뚜껍/솔뚜까이	1(1)	1	(1)				2(2)
한국가매		1					1
가마		1		1			2
안테(태)나	1		1			1(1)	3(1)
위생안테나						1	1
위싱꺄가이			1				1
천선(天線)					1		1
띠엔센(天線)					(1)		(1)

위 변종을 어종에 따라 나누면 아래와 같다.

(1) 한족말

- ① (室外)天線: (스 와이)텐센, 텐센, 텐선, 띠엔센, 천선
- ② 鍋蓋, 鍋蓋兒: 귀꺼이, 꺾꺼이, 꺾갈, 꺾개, 꺾개
- ③ 衛星鍋蓋: 위성꺾가이

(2) 조선말

- 가매: 가마, 가매, 밥가마, 유선팬스가매, 위생가매, 위성가매, 한국가매, 한국위성가매
- ① 솔뚜껑: 가마뚜껑, 솔뚜꺼, 솔뚜경, 소뚜가이
 - ② 바가지: 한국바가지
 - ③ 위성(衛星): 위성, 한국위성
 - ④ 안테나(antenna): 안테나, 위성 안테나

네 지역이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다. 지린성(吉林省)은 대부분 ‘가매’라 하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솔뚜껑’ 계가 비교적 빈도가 높고, 랴오닝성(遼寧省)은 한족말 ‘天線’의 음차 변이형들이 많고, 칭다오(靑島)는 ‘안테나’, ‘위성³⁷⁾’이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안테나’를 ‘위성’ 또는 ‘한국위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인공위성(人工衛星)을 통해서 수신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위성’이라는 말은 ‘한국 위성 방송’ 말하자면 ‘한국에서 위성으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정도의 뜻으로 쓴 것인데 그것이 일부 화자들에게 ‘안테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엔지시(延吉市)나 훈춘시(琿春市) 등 대도시의 아파트 벽면에는 ‘한국위성’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홍보 전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밖에 변종들 중에는 ‘한국가매’, ‘한국바가지’, ‘한국위성가매’처럼 ‘한국’이라는 말이 덧붙은 예들이 많은데 이는 위성 안테나가 오로지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재중 동포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다. 이로 인해 조선말에 유입되는 한국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37) ‘위공위성’의 조선말 표준어는 ‘인공지구위성’이다.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안테나’를 ‘바가지’에 빗대어 명칭을 삼은 점도 흥미롭다. 한족들은 안테나와 생김새가 비슷한 ‘鍋蓋’(솔뚜껑)으로 ‘안테나’의 이름을 삼았다.

‘안테나’는 조선말 표준어다. 그러나 이 표준어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나 칭다오(靑島)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날 뿐, 지린성(吉林省)이나 랴오닝성(遼寧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연변(延邊) 조선족 표준어의 쓰임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위 변종들을 다시 한족말을 중심으로 직접 차용한 말과 조선말로서 번역 차용한 말로 나누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① 天線[tiānxiàn]

직접 차용: (스와이)천선, 천센, 텐센, 텐센, 텐선

번역 차용: 없음

② 鍋蓋[guōgài(r)]

직접 차용: 귀깨이, 꺾까이, 꺾깨, 꺾갈, 꺾개

번역 차용: 가마, 가매, 밥가마, 밥가매, 솔뚜깨, 솔뚜깨이, 솔뚜껑

‘위성 안테나’의 변종들은 대부분 한족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은 한족말의 ‘普通話’ 즉, 표준어의 지위를 갖는 말이다. ②의 ‘鍋蓋’는 본디 ‘솔뚜껑’이란 뜻의 한족말인데 안테나의 모양이 마치 솔뚜껑처럼 생긴 데서 안테나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³⁸⁾ 새로운 사물의 명칭을 그와 흡사한 다른 사물의 명칭으로 삼은 점이 흥미롭다. 이 말은 주로 동북 3성을 비롯한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쓰이는 일종의 속어(俗語)다. 동북 3성의 조선말 변종들은 대체로 ②의 ‘鍋蓋’를 직접 차용하거나 번역 차용하여 생긴 것이다. ‘가마’와 ‘가매’는 함경도 방언에서 ‘솔’을 ‘가매’라 하는 까닭에 생긴 명칭이다. 한족말의 뜻을 온전히 살려 차용하였다면 ‘가맷드베’가 될 터인데 ‘드베’(뚜껑)를 생략하고 ‘가매’라 한다. 이 ‘가매’ 계열의 변종들은 대부분 함경도 방언 화자들이 집거하는 지역에서 쓰인다. 지린성(吉林省)에서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편, ‘솔뚜껑’ 계열은 경상도 방언 화자들이 집거하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주로 쓰이는데 한족말을 온전히 번역 차용한 예가 된다.

38) 중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鍋蓋’에는 아직 ‘안테나’라는 뜻은 없다.

위 사실을 통해서, 번역 차용어들은 주로 집거 지역에서 쓰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해서 재중 동포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한족말(방언 또는 속어)를 조선말로 번역 차용하여 신어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한족말 ‘天線’은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 지역에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대조적이다. 자치주가 속한 지린성에서는 ‘天線’을 볼 수 없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직접 차용과 변접 차용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린성에서는 ‘鍋蓋’를 직접 차용한 ‘뀌까이’류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뀌까이’류는 조선족 자치주가 아닌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에서 쓰이는 말이다. 자치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족과 접촉이 많아 한족말의 사용이 많은 지역에서 직접 차용해 쓰는 말이다. 한족말의 방언이나 속어를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조선말로 바꾸어 쓸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을 쓰는 화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은 집거 지역이 모어에 대한 응집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³⁹⁾

12) 전기밥솥

위 ‘안테나’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새말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98>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밥가마					1		1
밥가매						3	3
전기밥가마		1		1		1	3
전기밥가매	2	1		1	1	1	6
던기밥가매	1						1
전기술		1					1
전기밥솥			1				1
댄빵귀(電飯鍋)	4	1(1)		4	(1)	1	11(2)
댄빵꼬(電飯鍋)		1					

39) 18년 동안 자치주의 8개 지점에서 언어 조사를 해 온 필자는 ‘가매’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 ‘뀌까이’나 ‘天線’ 따위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 자치주에 속한 도시에서는, 선전 벽보나 전단에서 ‘한국위성’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표 199>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뎨판귀(電飯鍋)	2	1	2(1)	1	1	1	8(1)
밥가매/전기밥가매			1(1)	1			2(1)
밥솥	(2)						(2)
전기가마		1	1				2

<표 200>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뎨판귀, 뎨판귀(電飯鍋)	1	1	2	2	1	1	10
전기밥솥				(2)			(2)
밥가마						1	1
전기밥가마	1(?)	1					2
밥가매					1		1

<표 201>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전기밥솥'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전기밥가마			1(1)				1(1)
전기밥가매		1(1)				1	2(1)
던기밥가매		(1)					(1)
전기밥솥(솥, 솥)	2	1(1)	1		2(1)	1	7(1)
전기솥				1			1
쿠쿠						(1)	(1)
뎨판귀(電飯鍋)		1				1	2

변이형들은 대부분 한족말[中國語] '電飯鍋'를 직접 또는 간접 차용한 말이다.

(1) 번역 차용

- ① '가매' 계: (전기)밥가마, (전기)밥가매, (던기)밥가매,
- ② '솥' 계: 전기솥, (전기)밥솥, 전기(밥솥), (전기)밥솥

- (2) 직접 차용: 뎨판귀(電飯鍋), 뎨팡귀,
- (3) 기타: 쿠쿠

‘전기밥가매’는 한족말[中國語] ‘電飯鍋’를 번역 차용한 것이다. ‘밥솥’을 함경도 방언 화자들은 ‘밥가매’라 한다. 육진 방언권에서는 ‘던기밥가매’라 하기도 한다. 집거 지역인 지린성(吉林省)에서는 ‘전기밥가매’가 56%에 달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높다. 경상도 출신이나 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전기밥솥’을 많이 쓴다. ‘솥’을 ‘가매’라 하는 함경도 방언 화자들과 대조를 이룬다. 모두 자신들의 모방언으로 번역 차용한 셈이다. ‘쿠쿠’는 상표에서 유래한 것이다.

반면에, 직접 차용해서 쓰는 ‘뎨판귀’류는 37%에 달하는데 이는 지린성 안에서도 한족과 접촉이 빈번한 집거 지역에서 쓰인다. 번역 차용어와 직접 차용어의 사용 비율은 대체로 위에서 본 ‘안테나’의 그것과 비슷하다.

<표 202> 지역별 직접 차용어와 번역 차용어의 사용 비율

차용 구분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칭다오
번역	63%	33%	85%	29%
직접	37%	67%	15%	71%

집거 지역이면서 동북 3성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칭다오(靑島)에서는 직접 차용어가 무려 71%에 달한다. 역시 집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도 67%에 달한다. 그러나 집거 지역과 집거 지역이 포함된 지린성(吉林省)은 37%로 매우 낮다. 역시 조선족 집거 지역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그보다 더 낮다. 또 위 자료를 통해서 조선말 표준어보다는 자신의 모방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종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써 오는 친족 호칭어와는 달리 신문물에 대한 명칭에서는 표준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표준어 교육이 실제 언어생활에는 별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어의 생성은 한족말(방언, 속어)의 차용에서 비롯되고 또 그 한족말을 조선말 표준어보다는 자신의 방언으로 번역 차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규범

화 작업에 의해 신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신어가 다수의 재중 동포들의 언어생활에는 별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13) 냉장고

<표 203>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빙상(冰箱)	4	5	1	6	2	6	24
냉장고(冷藏庫)	1(3)	(2)	1	(1)	(1)	(3)	2(10)
랭장고(冷藏庫)				1(1)			1(1)
냉동기(冷藏機)		1					1

<표 204>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빙상(冰箱), 덴빙상(電冰箱)		1	3	1(2)	1	1	7(2)
냉장고(冷藏庫), 냉장고	2(2)	1	(1)	2(1)	(1)	(1)	5(6)

<표 205>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빙상(冰箱)	1(1)	3	2	1(1)	2	1	10(2)
냉장고(冷藏庫)	1	(2)		1(1)		1(1)	3(4)

<표 206>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냉장고'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빙상(冰箱), 덴빙상(電冰箱)	1(1)	2	(1)			1	4(2)
빙귀(氷庫)		(2)		(1)			(3)
냉장고(冷藏庫), 냉장고	1(1)	1(2)	2	2	2	1	9(3)

조선말 표준어이자 북한의 문화어는 ‘랭장고’이고, 한족말은 ‘冰箱’ 또는 ‘冷藏庫’다.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칭다오(靑島)에서는 한족말 ‘뽕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오히려 ‘냉장고’가 많이 쓰인다. 지린성에서도 제2응답형으로 조사되었지만 ‘냉장고’가 많이 쓰이고 있다. 역시 집거 지역과 잡거 지역이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랴오닝성의 50대 여성 2명은, “이전에는 ‘뽕상’을 썼지만 한국인을 접하고 나서는 ‘냉장고’란 말을 쓴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냉장고’는 한국인과의 접촉에 의해서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말 규범은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냉장고’가 다수 나타난다. 이는 조선족의 구두어에서는 어두에 ‘ㄹ’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랭장고’는 오직 지린성의 40대 여성으로부터 조사한 것이 유일하다.

14) 사장(社長)

중국 사회가 개방화 사회로 나아가고 또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그와 관련된 어휘가 어떻게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조사 항목이다. 변종 간에 다소 의미차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경향을 보기 위하여 제시한다.

<표 207>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사장(社長)’의 변이형

변종	남성			여성			계
	60	40	20	60	40	20	
라오반(老板)	1					1	2
로반(老板)	1			2	1	3	7
로바이(老板)				1	2		3
사장님				(1)		2	2(1)
관리자					1		1
경리(經理)	4	2		2	1	1(1)	10(1)
총경리(總經理)					1		1
쥙쥙리(總經理)			1				1
징리(經理)	(1)						(1)

한족말을 직접 차용한 ‘로반(老板), 쥙쥙리(總經理), 징리(經理)’가 쓰이기도 하고 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차용한 ‘총경리, 경리’란 말도 쓰인다. 그 밖에 ‘사장’,

‘관리자’라는 말도 약간 뜻을 달리 하여 쓰인다. ‘로반’ 계와 ‘경리’ 계가 비슷한 비율로 쓰이는데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15) 월급

<표 208>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신봉(薪俸)	2	2(1)		1	(1)	2(1)	7(3)
카이즈(開資)			1	1			2
공자(公資)	3(1)	2(2)	1(1)	1	1	1(2)	9(6)
달공자	1						1
월급	(2)	1		3	1(1)	3(1)	8(4)
로임	(1)						(1)

<표 209>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신봉(薪俸)			(1)				(1)
공즈(公資)			1		1	(1)	4(1)
공자(公資)			1	1			
월급	2	2	1(1)	2(1)	(1)	1	8(3)
봉급	(2)						(2)

<표 210>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신봉(薪俸)	(1)				(1)		(2)
공즈(公資)	1	1(2)	1		(1)		5(4)
공자(公資)		1(1)			1		
월급	1	1(1)	1	2	1	2	8(1)
봉급		(1)					

<표 211>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월급'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이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공자(公資)	(2)	(2)	(2)		1	1	2(6)
공즈, 공쯔(公資)						(1)	(1)
웨쑤(月薪)						(1)	(1)
월급, 월급	2	2(1)	2	1	1	1	9(1)
봉급		1		(1)		(1)	2(2)

위 변종을 어종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고유어: 월급(月給), 봉급(俸給), 로임
- (2) 한족말: 薪俸[xīnfèng], 公資[gōngzī], 月薪[wèxīn], 開資[kāizī]

대체로 조선말 '월급(月給)'과 한족말 '薪俸', '公資'를 쓰는데 지린성(吉林省)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많이 쓴다.

특이하게도 지린성에서는 '薪俸'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차용한 '신봉'을 많이 쓴다. 지린성 일대에서 널리 쓰이던 한족말로 생각되는데⁴⁰⁾,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쓰고 농촌의 젊은이들도 쓴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써 오는 한족말은 대부분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차용한 것들이다. 재중 동포들이 한족과의 접촉이 없이 주로 조선족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살 때에는 이와 같은 차용이 많았던 것이다.

지린성에서는 '신봉(薪俸)', '월급(月給)', '공자(公資)'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다만, '공자'는 주로 노년층에서 쓰고 '월급'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는 차이가 있다. 노년층에서 '公資'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공자'라 하는 것은 '薪俸'처럼 이전에는 한족말을 직접 차용해서 쓰기보다는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썼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과 칭다오(靑島)에서는 '公資'를 직접 차용하여 쓴다. 한족과 접촉이 많을수록 한족말의 직접 차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랴오닝성의 50대 이하는 '公資'를 쓰는데 한족말을 음차하여 쓰기도 하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공자'라 한다. 지린성에서 많이 쓰이는 '신봉'은 잘 쓰이지 않는

40) <漢典>에는, “薪水, 俸給의合称”이라 되어 있다. 즉, '薪水(월급)와 '俸給'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다. 60대의 한 여자 제보자는 “한국인과 기업을 하기 때문에 ‘봉급’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고, 20대의 여자는, “한국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월급’, ‘봉급’이 주로 한국인과의 접촉에 의하여 쓰이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대부분 ‘월급’이라 한다. 혼종어(混種語) ‘달공자’도 보인다.

16) 가위바위보

표준어, 일본어, 한족말 중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며 그것이 세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족말을 어떤 방식으로 차용하며 한국말과 한족말의 음운 대응 등은 어떠한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 항목이다.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린성(吉林省) : 변종이 많아 생략. 아래 자료를 참고할 것.

<표 212> 랴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가위바위보’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가위돌보		1					1
가위바위보			1		1	1	3
가이바위보	1						1
가이뽀	1						1
깡편체				1			1
장진세				1			1
장진짜자		(1)					(1)
짱강세		1					1
짱강체			(1)	1			1(1)
짱강추이			1				1
모름				1			1

<표 213>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가위바위보'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가위바위보		2	1		(1)	1(1)	4(2)
돌가보		(1)					(1)
찐광선츠			1	1			2
장개	1						1
장개비기		1					1
장경				1			1
진공시츠					1		1
찐강체		(2)			1	1	2(2)
모름	1						1

<표 214>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가위바위보'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가위바위보					1		1
가이바이보(부)	(1)	1		1			2(1)
공찌 파/공지빠				(1)			1(1)
묵찌파					1	1	2
비싸이하자			1				1
원투쓰리한다			(1)				(1)
장가이싸이		(1)					(1)
장개이쎬이	1	(1)					1(1)
장갠보시		1					1
장개뽀시	1						1
장개이뽕	(1)						(1)
장갠세이		1					1
찐강새			1				1
찐강세이		(1)				1(1)	1(1)

변종들을 어종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고유어 계: 가위바위보, 돌가보, 돌가새포대기
- (2) 한족말 계
 - ① 石頭剪刀布(shitoujiandaobu): 스투어젠즈부
 - ② 쩡강체 계(‘敬崗錐’, ‘竟港六錘’⁴¹) =중국의 동북 방언): 평강체이, 평강추이, 쪄강처이, 쪄강체, 쪄강체이
- (3) 일본어 ‘じゃんけんぽん’ 계: 장개쇼, 장개 빗는다, 장개미보, 장개쇼쑈, 장개이 빗자, 장개이소쑈, 장기보이, 장기쇼쑈 놓자, 장깨뽀시, 장제새츠 빗다 …
- (4) 영어: 원투쓰리
- (5) 혼종어(混種語) 계: 쪄강세츠, 쪄강세츠, 쪄강셋 빗는다

조사 지역의 모든 제보자들이 각기 다른 변종을 쓸 정도로 수많은 변종들이 있다. 이 변종들은 위와 같이 어종에 따라 크게 4종으로 나뉜다. 대체로 젊은이들과 노인층 일부가 고유어의 변종을 쓰고 노인층의 일부가 일본어 차용어를 쓴다. 한족말에서 차용한 변종들은 대체로 50대 이하의 세대에서 쓰인다. 이는 일본어의 잔재가 사라지고 또 엔벤(延邊) 표준어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한족말 사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유어 계는 이주 이전의 선대 거주지 방언이거나 조선말 표준어의 변이형들이다. 노인층이 말하는 변종은 선대 거주지 방언이 잔존한 것이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변종은 표준어다. 지린성(吉林省)에서 조선말 고유어 계의 변종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제보자는 21%에 불과하다. ‘가위바위보’는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표준어를 습득한 것이다. 랴오닝성(遼寧省)에서 ‘가위바위보’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조선족 학교의 20대 교사다.

‘돌가보’라는 변종은 ‘돌가위보’의 줄임말일 것이다. ‘가위’와 ‘바위’의 위치가 바뀌고 ‘바위’를 ‘돌’로 대치한 것인데 이것은 위 한족말 石頭剪刀布(shitoujiandaobu)의 영향으로 생겨난 말로 보인다. 일종의 번역 차용어인 셈이다. 이 변종은 지린시(吉林市)와 훈춘시(琿春市) 후이룽펑촌(回龍峰村)에 분포하는 바, 두 지역은 서

41) 한족말의 방언이기 때문에 일정한 표기가 없다. 위 한자 표기는 《漢語方言詞典》, 기타 한족말 방언 자료집에 표기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여건이 못 된다.

‘돌가새포대기’는 ‘보자기’를 ‘포대기’로 대치한 것인데 역시 한족말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보인다.

한족말 계는 중국의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들의 방언에서 파생된 변종들이 대부분이다. ‘짱깡체이’가 주종을 이루며 대부분 이의 변이형들이다. 푸통화 ‘石頭剪刀布’를 쓰는 이는 오직 한 사람에게 불과하고 모두 중국 동북 방언인 ‘짱깡체’ 계의 변이형들을 쓴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족말 차용은 푸통화보다 한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방언을 차용해서 쓰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말 표준어나 한족말 푸통화의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다.

일본어는 대부분 노년층 화자들이 쓰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차용되어 지금까지 써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와 한족말이 뒤섞인 혼종어(混種語)가 보인다.

이 밖에 영어에서 차용한 변종도 있다. 가위바위보는 영어로 Rock Paper Scissors라 하지만 ‘원투쓰리(One Two Three)’라 한다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50대 제보자도 있었다. 필자도 투먼시(圖們市)의 80대 노인으로부터 ‘원투쓰리’라 했다는 사실을 조사한 바 있다.

17) 양배추

<표 215>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다두배채	3(1)	2	1	1	1	4	12(1)
다두차이	1						1
다드배차		1					1
다드배채	1	1		1			3
다배추						(1)	(1)
다투어채		1		1			2
대배채		(1)					(1)
대지배채					1		1
따두배차					(1)		(1)
따두배채				2		(1)	2(1)
따드배채				1		2	3
따터우차이	1		1		1		3

<표 216> 라오닝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까다바이					1		1
까다배			1				1
까달바이			1				1
까드바		1		(1)			1(1)
까드배	2		1	(1)			3(1)
다두배채				1			1
따다배		1					1
따또차이		(1)					(1)
따또채				2		1	3
양배추	(2)						(2)

<표 217> 칭다오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까드배		(1)					(1)
다두배채	1	1		1(1)	2	1	6(1)
따또배채						1	1
따또채	1	2	2	1			6
양배추		(1)	(1)				(2)

<표 218>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양배추'의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까달배차	(1)						(1)
까달배채		1(1)					1(1)
까달배추	1						1
까두배차	(1)			(1)	1(1)	(1)	1(4)
까들배채		(1)					(1)
까들배추	1						1
당배추		1					1
따두배채			1				1
따두차이	(1)	1(1)	1	(1)	2		4(3)
따두채		(1)					(1)
따떠우차이		(1)				2	2(1)
양배차			(1)	1		(1)	1(2)
양배추			(1)				(1)

위 변종들을 어종 및 어원에 따라 나누면 아래와 같다.

(1) 조선말 표준어 : 양배추

(2) 한족말

- ① 大頭白菜, 大頭菜
- ② 疙瘩白, 嘎的白, 嚙的白
- ③ 洋白菜

조선말과 한국말 표준어는 ‘양배추’, 북한의 문화어는 ‘가두배추’와 ‘양배추’이고 한족말은 ‘洋白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이주 전 선대 거주지 방언을 쓰는데, 지린성(吉林省)의 ‘가두배채’, 랴오닝성(遼寧省)의 ‘까드배’가 그 예다.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표준어 ‘양배추’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2)의 ① ‘大頭白菜’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쓰이는 한족말 방언으로 일찍이 함경도 지방에 유입되어 함경도에서는 ‘다두배채’라 한다. ‘大頭白菜’를 줄여서 ‘大頭菜’라고도 하는데 이에서 비롯된 말이 ‘따또채’ 계의 변종들이다. 이는 한족말식 발음에서 유래한 것이다. 양배추의 모양이 ‘사람의 큰 머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함경도 출신이 주로 거주하는 지린성(吉林省)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다두배채’라 한다. 응답자의 71%가 이 ‘다두배채’의 변이형을 쓴다. ‘따두배채’ 계의 변종도 ‘大頭白菜’를 한족말과 가깝게 발음하여 생겨난 것인데 이는 한족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젊을수록 한족말과 가까운 ‘따두배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그만큼 한족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터우차이’는 ‘大頭白菜’의 한족말 발음이니 직접 차용어라 할 수 있는데 남성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변종을 쓰는 제보자들은 본디 경상도 출신인바, 새롭게 한족말을 접하면서 습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잡거 지역에서는 집거 지역보다 한족말 구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한족말을 구사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랴오닝성(遼寧省)에서는 ② 疙瘩白[gēdàbài](덩이, 몽치, 덩어리), 嘎的白[gādebai], 嚙的白[gádebai]로 표기되는 한족말에서 유래한 ‘까드배’ 계의 변종이 많이 쓰인다. ‘까드배’ 계는 오래 전에 평안도 지방에 들어와 평안도 방언으로 정착하여 널리 쓰이는 말이다. 지린성과 대조적이다. 또 지린성처럼 ①에서 유래한 방언형이 쓰이기도 한다.

칭다오(靑島)에서는 지린성과 랴오닝성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지역에서 쓰이는 변종들이 고루 나타난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따두배채’와 ‘까들배채’류가 주로 쓰인다. 다른 지역과 달리 표준어 ‘양배추’도 나타나고 또 ‘당배추’도 보인다. ‘당’은 ‘당초’ 등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을 뜻하는 접두사로 보인다.

‘다두-’와 ‘따또-’, ‘-채’와 ‘-차이’와 같은 발음상의 변이는 한족말의 간섭에 말미암은 것이고 ‘배채’와 ‘배추’의 변이는 표준어의 간섭에 의한 것이다.

18) 휴대 전화

<표 219>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휴대 전화’의 변이형

변종	남성			여성			계
	60	40	20	60	40	20	
써우지(手機)	1(2)	2	1(1)	4(1)	7	4	21(4)
쏘지(手機)	2						
핸드폰	1		1	1(1)	(2)	1	4(3)
손전화					(1)		(1)
전화기)	2		1		(1)		3(1)

대부분 한족말 ‘써우지, 쏘지’를 쓴다. 한국말 핸드폰이나 손전화도 쓰는데 핸드폰은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각 조사 지역별로 한국말과 한족말의 사용 비율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220> 지역별 ‘휴대 전화’ 변이형의 차용 비율

지역	한족말	한국어		
	手機(써우지, 쏘지 등)	핸드폰	휴대폰	손전화, 전화
지린성	75%	14%	0%	11%
랴오닝성	83%	8%	8%	0%
칭다오	69%	23%	0%	8%
헤이룽장성	85%	15%	0%	0%

제1응답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족말 사용 비율은 잡거 지역인 랴오닝성(遼寧省)이 지린성(吉林省)보다 높다. 반대로 칭다오(靑島) 지역은 지린성이나 랴오닝성에 비해 한족말 사용 비율이 낮은 반면 한국말 사용 비율은 높다. 이는 한국인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어떤 제보자는 한국인과 말할 때는 ‘핸드폰’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 또 어떤 제보자는 ‘한국에 다녀 온 늙은이들도 핸드폰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였다. 한국인과의 접촉 또는 한국으로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족말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족말 ‘써우지, 쏘지’를 쓰므로 핸드폰은 제한된 환경에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

19) 혼자서 스스로

<표 221> ‘혼자서 스스로’의 성별/연령층별 변이형

변종	남성			여성			계
	60	40	20	60	40	20	
내절러						1	1
내절르					1		1
내혼차					1		1
단간(농사)	1(1)						1(1)
딤간(單干)	1						1
자기재빌르	1						1
자기절로		2	1	1(황해)	1	1	6
자기절루				1		1	2
재비절러					1		1
재빌루	1			1			2
재빌르	1(1)			1	2	1	5
재빌러				1			1
제절로					1		1
제절루	1			(1)			1(1)
쯔꺄(自個兒)						(1)	(1)
혼자			2			1	3

(질문문) 그 사람은 일꾼을 쓰지 않고 _____ 농사를 짓는다.

재귀 대명사 ‘자기’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응되는 방언형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다. 모두 16개의 응답형을 얻었다. 조사자가 조사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응답형이 제시되었으나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 ① 내절러, 내절르: ‘내 스스로’라는 말이다.
- ② 자기재빌르~재빌러: ‘재빌르’는 ‘자기 스스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다. 재귀 대명사 ‘자기’가 더 보태진 형이다. ‘재빌르’(재비+을르)는 전형적인 동북방 언형이다. ‘르’가 ‘러’, ‘로’, ‘루’ 따위와 같이 음운상의 변이를 보인다.
- ③ ‘제절루’ 계는 ‘절루’에 재귀대명사 ‘제’가 결합된 것이다. ‘저 스스로’의 뜻이다.
- ④ 한쪽말 ‘단간/딤간(單干)’이 노년층에서 쓰이고 또 스스로라는 뜻의 ‘쯔겔(自個兒)’이 젊은층에서 쓰이고 있다.
- ⑤ 그밖에 ‘혼자, 혼차, 내혼차’가 부사로 쓰였다.

5.2.3. 문법

1) 서술형 종결 어미(합쇼)

<표 222>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서술형 종결 어미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ㄴ다/습다				1	2	4	7
-ㄴ꾸마/습꾸마	5	2	1	2			10
-ㄴ니다/습니다	1	2			1		4
-어요		1	1	1		1	4

‘-ㄴ다/습다(‘-습다)’는 20~30대의 젊은층에서 쓰고, 반대로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형 ‘-ㄴ꾸마⁴²⁾/습꾸마’는 노년층에서 쓴다. 두 종결 어미의 분포가 거의 상보적

이다. 요컨대, 노년층과 젊은층은 전혀 다른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40-50대는 주로 ‘-ㄱ꾸마/습꾸마’를 쓰고 ‘-ㄱ다/습다’는 적게 나타난다. 표준어형 ‘-ㄱ니다/습니다’는 주로 노년층의 여성들이 많이 쓰는데 아마도 격식체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의 출현도 흥미로운 점이다. 이는 경상도 출신에게서 나타난다. 흔히 동북 및 육진 방언 화자들은 ‘-요’를 아주 특이하고도 별난 말투로 여긴다. 그리고 일부 제보자는 ‘-요’를 한국말의 한 징표로 간주하기도 한다. 어미별 사용 빈도는 ‘-ㄱ꾸마/습꾸마’가 38%, ‘-ㄱ다/습다’가 27%, 표준어 ‘-ㄱ니다/습니다’가 15%, ‘-어요’가 12%다.

2) 의문형 종결 어미(합쇼체)

<표 223>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의문형 종결 어미 변이형

변종	60 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ㄱ까/습까 (-ㅇ까/습까)		2		3	2	4	11
-ㄱ동/습동	3	1	1				5
-ㄱ니다/습니다		1					1
-나요						1	1
-어요		1		1			2

응답형 중에서,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형 ‘-ㄱ동/습동’과 ‘-ㄱ까/습까’가 제일 많이 쓰인다. 이 중에서 ‘-ㄱ동/습동’은 주로 60대 이상인 남성들이 쓴다.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 ‘-ㄱ까/-습까’를 쓰고 있다. 종결 어미가 방언의 색채를 잘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습동’이 주로 남성 화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개신이 여성 쪽에서 먼저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주로 40대 이하 세대가 쓰고 있다. ‘-ㄱ까/습까’는 ‘-ㄱ니다/습니다[습니다]’의 ‘니’가 탈락한 형으로 자치주의 방언적 색채를 인상적으로 드러

42) ‘-ㄱ꾸마’는 ‘-습꾸마’로 적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ㄱ꾸마’로 적었다. ‘하-’에 이 어미가 결합되면 발화 속도에 따라 ‘하압꾸마’ 또는 ‘합꾸마’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하압꾸마’는 ‘-습꾸마’의 ‘으’가 선행하는 어간 모음에 완전 순행 동화된 것이다.

내 주는 종결 어미다. 20대의 여성들은 ‘-ㅁ까/습까’를 ‘-승까’로 발음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표준어 ‘-ㄴ니까/습니까’는 그 쓰임이 매우 적다.

3) 청유형 종결 어미(합쇼체)

<표 224> 지린성 지역의 성별/연령층별 청유형 종결 어미 변이형

변종	60이상		50-40		30-20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깁소	1	2	1	2			6
-꺄소	3	1					4
-기쇼			1	1	2	4	8
-읍시다	1	1			1		3
-어요				(1)			1(1)
-자요		(1)		1			1(1)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형 ‘-깁:소’, ‘-꺄:소’는 노년층, 중년층에서 쓰이고 있다. 또한 ‘-자요’는 본디 서북 방언권인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형으로 이번 조사에서 황해도 출신으로부터 조사한 응답형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기쇼’의 출현과 그 쓰임이다. ‘-기쇼’는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에서 새로 생겨난 종결 어미다. 본래 함북 지역에서 쓰이던 ‘하오’ 등급의 종결 어미 ‘-기오’에 주체 존대의 선어말 어미 ‘-시-’가 삽입되어 형성된 것이다. 30대 이하는 모두 이 어미를 쓰고 있고 40~50대의 일부도 역시 이 어미를 쓰고 있다.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형 ‘-깁소’와 ‘-꺄소’가 점차 ‘-기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읍시다’는 연변(延邊) 표준어인데 ‘합쇼’할 자리에서 쓰인다. 표준어에서는 ‘하오’ 등급에 속하지만, 자치주에서는 ‘합쇼’ 등급에 속한다. 한국인이 조선족 자치주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이 어미다. 젊은이들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이 어미를 쓰기 때문이다. ‘-어요’는 경상도 출신들의 응답형이다.

4) 부정 부사 ‘안’, ‘아니’의 위치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이 지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조사 항목이다. 대체로 ‘안’, ‘아이’가 용언의 앞에 놓인다.

한편, ‘먹어 못 봤소’처럼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부정 부사가 놓이는 함경도 방언의 어법이 점차 표준어의 어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吉林省)의 응답자 중 두 명을 제외한 응답자가 ‘못 먹어 보다’로 응답하였다.

5) 부정 부사 ‘아니’(‘아이’), ‘못’의 위치

전통적인 함경도 방언에서는 ‘아니’(또는 ‘아이’)가 합성 동사의 어기 사이에 놓인다. 이는 함경도 방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용법이 표준어의 영향으로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목이다. 대체로 노년층은 ‘떠 아니 가겠다’(안 떠나겠다), ‘떠 몬나오’(못 떠나오)라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표준어와 같이 ‘안/못 떠나다’의 형태로 응답하였다. 점차 부정 부사가 합성 동사의 앞에 놓이는 어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대격 중출문

대부분의 제보자는 아직도 ‘아아르 옷으 입헤라’(아이에게 옷을 입혀라)와 같은 대격 중출문을 쓴다. 일부 제보자는 ‘애를 옷 입혀 준다. 애기르 옷으 입혀 준다.’의 대격 조사 ‘-를, -르’ 대신 ‘-게’, ‘-한테’를 쓴다. 젊은층은 이러한 구문을 잘 쓰지 않는다.

5.2.4. 의미

1) 군중(群衆)의 의미

‘군중’의 뜻과 용법이 한국말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한 조사 항목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변(延邊)에서 간행된 《조선말사전》에는 ‘군중’이 다음과 같이 뜻풀이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① 한곳에 모인 많은 사람. ② 수많은 사람.

《조선말사전》

- ① 광범한 인민대중. ② 한데 모인 많은 사람들. ③ 지도적 직무를 맡지 않은 보통근로자를 《간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조사 자료에 나타난 ‘군중’의 뜻은 《표준국어대사전》의 ①의 뜻 혹은 《조선말사전》의 ②의 뜻과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전적 의미는 거의 같지만 그 구체적인 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우선 ‘군중’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대중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 마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즉, ‘공식적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쓴다. 그리고 그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도, 다섯 명 정도나 10~20명 정도가 모일 때에도 ‘군중’이라는 말을 쓴다. 이때의 집회나 회의를 ‘군중대회(群衆大會)’ 또는 ‘군중회의(群衆會議)’라 부른다. 예컨대, 우리의 반상회나 마을 총회 정도의 집회를 ‘군중회의’라 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을 ‘군중’이라 하는 것이다. 그 밖에 백화점이나 교회에 모인 사람을 보고도 ‘군중이 모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이 말에 대해 ‘문화 대혁명 이후 덜 쓴다’고 말하고, 또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10대 제보자들은 이 말을 모르거나 안 쓴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보면 ‘정치적인 집체(集體) 활동’이 강조되던 시절에 주로 쓰이다가 개혁 개방 이후에는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장악(掌握)

《표준국어대사전》

- ① 손안에 잡아 쥐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
② 『북』 꿰뚫어 얹.

《조선말사전》

- ① 틀어쥐거나 틀어잡는 것. 또는 손아귀에 넣는 것.
- ② (실제에 응용하거나 리용할수 있도록) 리론이나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아는 것.

두 사전을 대조해 보면 ‘장악’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말하는 ‘장악’은 한국말의 ‘장악’과 뜻이 다르고 그 구체적인 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대체로 아래와 같이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다.

- ①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손안에 완전히 들게 하다. ¶권력으 장악하다 (권력을 장악하다).
- ② 어떤 대상을 확보하여 얻다. ¶조선어 방언 자료를 장악하자구 영계 왔습니다. (조선말 방언 자료를 확보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 ③ (실제에 응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론이나 기술 따위를 완전히 배워서 알다. ¶기능을 장악하다(기능을 완전히 배워 익히다) / 기술을 장악하다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다) / 숫자를 장악하다(몇 개인지 그 숫자를 알아내다) / 시장 형세를 잘 장악하다(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알다) / 학생들의 어휘의 의미 장악과 사용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극복.

3) 애인(愛人)

애인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

- ①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이르는 말.
- ② 이성(異性)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
- ③ 남몰래 정을 통하는 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이르는 말.

‘애인(愛人)’의 뜻은 위와 같이 세 가지가 있으나, 세대에 따라 달리 쓰인다. 대체로 노년층은 ‘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①은 한족말의 영향으로 생긴 말이다. 노년층은, ‘애인’이라는 말이 ‘아랫세대에서 ①의 뜻으로 쓰는 말’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아랫세대는 ①, ②, ③의 뜻을 모두 알고 있으나 주로 ③과 ②의 뜻으로

쓴다. 젊은이들은 주로 ②의 뜻으로 쓰고 ③의 뜻으로도 쓰는데 혹자는 ③의 뜻이 한국말의 영향으로 변진 말이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재중 동포 사회에는 다양한 변종이 존재한다. 국내의 선대 거주지 방언에서 유래한 변종, 북한말에서 차용한 변종, 그리고 한족말을 직접 차용, 간접 차용, 번역 차용함으로써 생긴 변종이 있다. 번역 차용은 재중 동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유형이 있고 중국 조선말 사정 기관에서 규범화한 것이 있다. 그 밖에 최근에 한국말에서 차용한 변종이 있다. 이 한국말 변종은 규범화에 의하여 차용된 것도 있고 매스미디어 또는 재중 동포들의 한국 방문에 의하여 차용된 것도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차용된 변종들은 노인층에서 근근이 쓰인다.
- ② 변종은 주거 유형(잡거 또는 집거), 지역,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잡거 지역은 한족말의 직접 차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집거 지역은 모국어에 대한 응집력이 강한 편이어서 한족말보다는 조선말 사용이 많다. 세대 간의 차이도 커서 노인층은 전통적인 선대 거주지 방언을 구사하는 반면 젊은이들은 표준어나 한족말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친족 호칭어나 상대경어법 종결 어미들의 사용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③ 신어의 생성은 한족말(방언, 속어)의 차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잡거 지역에서는 한족말을 직접 차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고 집거 지역에서는 한족말을 자신의 모방언으로 번역 차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규범화 작업에 의해 신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신어가 다수의 재중 동포들의 실제 언어생활에는 별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2.5. 조선말을 할 때 흔히 쓰는 한족말

재중 동포들이 조선말로 말할 때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한족말이 있다. 이는 화자의 거주지, 학력, 나이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되나 조사된 자료 중에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⁴³⁾

커인잔(客人站, 버스 터미널), 공자(公資, 월급), 광천수(鑛泉水, 생수), 난치(暖氣, 난방시설), 땅고(르)(蛋糕兒, 케이크), 뎨노(電腦, 컴퓨터), 뎨디(點滴, 점적 주사), 뎨스(電視, 텔레비전), 뎨관귀(電飯鍋, 전기밥솥), 러수이치(熱水機, 보일러), 로반(老板, 사장), 메치(煤氣, 가스), 빼주(白酒), 피주(啤酒, 맥주), 뽕상(冰箱, 냉장고), 샤발(下班, 퇴근), 빙궐(冰菓兒, 아이스크레이크), 승천(剩錢, 거스름돈), 썩발(上班, 출근), 씨우지(手機, 핸드폰), 씨이지(洗衣機, 세탁기), 요(藥, 약), 지단(鷄蛋, 계란), 쨌판(타자기), 차이(菜, 반찬), 창(床, 침대), 추주(出租車, 택시), 쿵토티(空調, 에어컨), 휘쳐잔(火車站, 기차역) ……

5.2.6. 조선말과 다른 한국말

제보자가 알고 있는 한국말을 말하도록 하였는 바,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린성(吉林省)에서는 종결 어미 ‘-요’를 매우 특이한 것으로 지적. 현재의 한국인들은 격식적인 말투인 합쇼체 종결 어미보다는 ‘-요’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요’를 쓰지 않는 재중 동포들은 ‘-요’를 아주 특이한 말투로 이해한다. 예: 모르겠어요, 그래세요.
- ② 재중 동포 사회에는 없는 사물에 대한 명칭 또는 쓰이지 않는 말.⁴⁴⁾ () 속의 말은 재중 동포들이 쓰는 말임. 예: 감자전(지지미), 거실(커팅), 곱창, 김밥, 누룽지(가마치), 닭도리탕, 도시락(벤또), 동영상, 동전(쇠때돈), 떡볶이, 만두(밴새), 반지(가락지), 보신탕(개탕), 부추(염지), 붕어빵, 사증, 삼겹살(돼지고기/도투고기), 상추(불기), 설렁탕(소탕), 설탕(사탕가루), 소개팅,

43) 이에 대해서는 5.1.2를 참고할 것.

44)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 속의 말은 재중 동포 자신들이 한국말에 대응되는 조선말(주로 방언)을 제시한 것이다.

쌈, 어묵, 영상통화(通化), 운전면허증, 자가용, 전골, 족발(돼지발족), 지갑(돈가방), 짬뽕, 찌개, 찜질방, 청국장(씩장), 추어탕(세치네탕), 친구(동미), 택배(소포), 학원(복습/학습반), 해물탕, 홍보, 화장실(변소), 회사(공사/단위), 회원, 휴대폰(씨우지), 월세방(세집), 사장(경리), 결혼(잔치), 한약(중약), 장갑(수갑), 연예인(명썩), 드라마(연속극), 공지(통즈), 임대(추꾸우), 괜찮다(일없다), 예쁘다(곱다), 머리(골), 미역국(백장물), 게시판(벽보란), 액자(사진틀), 서랍(뽀비), 야채(채소), 사무실(판공실), 소주(빠주), 연기(내굴), 출근(쌍발), 노래방, 돌솥밥, 정장(아래웃불), 체류, 신입사원 ……

- ③ 대부분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외래어나 외국어. 재중 동포들은 한국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예: 슈퍼, 스트레스, 쇼핑, 핸드폰, 부라자, 택시, 쓰리퍼(슬리퍼), 스킨로션, 스타킹, 컴퓨터, 컵, 팬티, 티비, 텔레비/텔레비존(텔레비전), 가이드, 가디건, 스튜디오, 스마트폰, 드라마,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에어컨, 와이프(아내), 인터넷, 샤휴, 샴푸, 액세서리, 박스, 린스, 립스틱, 매너, 피자, 핸드백, 호텔, 헬스 ……
- ④ 조선말 방언에 없는 말. 예: 괜찮다, 아빠, 아저씨, 아주마, 대박, 몸짱, 사장, 축스럽다, 열짱, 휴지 ……
- ⑤ 부정적이면서 자극적인 말투의 저속어. 예: 짜증난다, 열받는다, 엇갈다, 미치겠다 ……
- ⑥ 욕설. 주로 영화(DVD)를 통해서 욕설을 접했다 함. 예: 싸가지 없다, 씨발, 씹새끼 ……
- ⑦ 주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 예: 차도남, 차도녀, 멘붕, 쿨하다 ……

5.3. 재중 동포의 한국어 변종 자료의 구축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재중 동포들의 한국어 변종은 매우 다양하다. 함경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 외에 국내의 모든 방언이 고루 분포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북한말이 중국 조선말에 유입되어 표준어로 정착되었으며 중국 조선말 규범화에 의거 많은 신어가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조선말은 남북한과 달리 한족말

[中國語]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족말을 직접 또는 간접 차용하여 쓰기도 하고 또 한족말을 새롭게 번역 차용하여 쓰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내의 한국말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이질적인 변종들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조선말은 중국의 언어 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규범적인 것과 비규범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나 신문 잡지 또는 각종 방송 매체에서는 조선말 규범이 잘 지켜지고 또 늘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5.2에서 본 바와 같이 재중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두어에는 비규범적인 요소가 많다. 또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조선말의 사용 양상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재중 동포들이 중국의 공민이라는 점, 조선말과 한족말을 아울러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ist)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중국의 한국어말 변종 조사 자료로는 주로 노년층이 말하는 지역 방언이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 또한 중국 조선말 표준어는 대부분 《조선말사전》에 수록되어 있고 새로 규범화한 어휘는 대부분 《조선말 어휘 규범 편람》(1988)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말 변종 자료를 구축한다면, 한족말을 기반으로 규범화한 번역 차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또 각 지역별 또는 주거지의 유형이나 세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주 1세대가 말하는 조선말은 그 아랫세대가 말하는 조선말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중 동포가 이중 언어 사용자인 점을 고려하여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의 실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 자료의 축적은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조선말의 역동적인 변이와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특히 사회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이와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말과 중국 조선말이 음운, 어휘, 문법 및 언어 사용 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가 빚어진 원인을 구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조선말을 언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중국에서의 한국어말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규범화한 자료와 한국말을 비교 대조하여 한국말 교육 및 재중 동포와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중 동포들은 자신들이 쓰는 말을 한국말로 무엇이냐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한족말, 한국말, 북한말, 영어 등이 조선말에 유입되는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조선말이 한국말 및 북한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빚어진 언어 내외적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자료를 추적하는 방식은 다음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준어형]: 혼자서 스스로

[품사 정보]: 부사

[변종의 종류]: 내절러, 내절르, 내혼차, 단간(농사), 탄간(單干), 자기재빌르, 자기절로, 자기절루, 재비절러, 재빌루, 재빌르, 재빌러, 제절로, 제절루, 쯤꺨(自個兒), 혼자

[용례]: 그 사람은 일꾼을 쓰지 않고 _____ 농사를 짓는다.

[변종에 대한 설명]: ① 내절러, 내절르: ‘내 스스로’라는 말이다.

② 자기재빌르~재빌러: ‘재빌르’는 ‘자기 스스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재귀 대명사 ‘자기’가 더 보태진 형이다. ‘재빌르’(재비+을르)는 전형적인 동북 방언형이다. ‘르’가 ‘러’, ‘로’, ‘루’ 따위와 같이 음운상의 변이를 보인다.

③ ‘제절루’ 계는 ‘절루’에 재귀대명사 ‘제’가 결합된 것이다. ‘저 스스로’의 뜻이다.

④ 한족말 ‘단간/탄간(單干)’이 노년층에서 쓰이고 또 스스로라는 뜻의 ‘쯤꺨(自個兒)’이 젊은층에서 쓰이고 있다.

⑤ 그밖에 ‘혼자, 혼차, 내혼차’가 부사로 쓰였다.

제 6 장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와 이중 언어 정책 제언

재중 동포들은 국적이 중국이고 이들의 거주 지역 역시 중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칫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 올 수 있고 또 내정 간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중 언어 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6.1.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요약

재중 동포들의 언어 실태는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칭다오(靑島)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재중 동포들의 언어 실태는 재중 동포들의 거주지 특성과 언어 사용 상황, 세대, 학력 등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내용은 조선말, 한국말, 북한말에 대한 인식, 조선말과 한족말에 대한 언어 능력, 언어 태도, 언어 사용 양상, 가족 간 언어 선택, 상황별 언어 선택 등이다. 이들은 다시 지역, 연령(세대), 학력, 성별, 가족, 기타 변인들과 교차 분석하였다. 재중 동포들의 가장 두드러진 언어 사용 특징은 조선족으로서의 유대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족(漢族)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점이다. 재중 동포들의 대부분은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조선말을 잘해야 하고 한족말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에 비해 젊은층으로 갈수록 한족말 사용 능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는 재중 동포들이 대체로 조선말을 잘하고 있지

만 중국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한족말을 알아야 한다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표 48> 참조). 아울러 노년층에서는 조선말을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중년층에서는 한족말을 제일 잘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재중 동포들, 특히 노년층은 조선말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재중 동포의 후손들은 점차 한족말을 많이 쓰게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중년층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세대로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한족말 사용 능력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 태도는 앞으로의 언어 사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년층이 가지는 언어 태도는 자녀들의 학교 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이들의 자녀 가운데 한족 학교에 다니는 동포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⁴⁵⁾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으로 갈수록 한족말을 더 잘 사용하고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도 높다는 것은 노년층일수록 고국의 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젊은층일수록 점차 한족 사회에 동화되어 모국어론 잊어 가거나 모국어 사용의 비중이 줄어드는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나 국내에서 이주를 한 경우나 한두 세대만 지나도 새로 정착한 고장의 언어를 제1언어로 삼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몇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도 현재까지 모국어를 잘 유지하고 있는 재중 동포 사회의 언어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오면서 지역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했는지에 대한 구명은 재중 동포들의 모국어 보존과 사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중 동포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조선말에 대한 언어 4기능 능력은 모두 높은 편이지만 각 기능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언어 사용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각 영역별 언어 사용 능력도 높아지고, 각 언어 영역별 단계가 높을수록 학력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언어 4기능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재중 동포들의 한족말 사용 능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45) 조선족 학생이 한족 학교에 다니는 수나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한족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 현지 학교 관계자나 동포들의 이야기다. 동포 학생들이 한족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재중 동포들의 25.2%가 한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적극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 전통 집거지가 해체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선족 학교가 없어져 한족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다.

타나지만 조선말 사용 능력에 비해 한족말 사용 능력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는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청년층에서는 조선말과 한족말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가정에서는 청년층에서도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언어 사용 환경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족들 간에는 조선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동기나 윗세대에게는 조선말을 더 쓰고 아랫세대나 다른 민족 가족에게는 주로 한족말의 사용이 늘어난다. 조선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조선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한족이 끼어 있으면 한족말을 많이 사용하여 자리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 한다.

재중 동포 사회에는 다양한 변종이 존재한다. 국내의 선대 거주지 방언에서 유래한 변종, 북한말에서 차용한 변종, 그리고 한족말을 직접 차용, 간접 차용, 번역 차용함으로써 생긴 변종이 있다. 변종은 주거 유형(잡거 또는 집거), 지역,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잡거 지역은 한족말의 직접 차용이 두드러지고 신어의 생성은 한족말(방언, 속어)의 차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휘, 음운, 문법, 의미 면에서 한족말의 간섭, 국어 원 방언 간의 융합, 북한말의 간섭, 남한말의 간섭, 자체 변종 등 다양한 분화상이 나타난다.

6.2. 재중 동포의 이중 언어 정책 제언

일반적으로 이민 사회의 언어 보존과 사용은 이민 집단의 언어 태도와 사회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재중 동포의 언어 공동체도 그 구성원들의 언어 태도가 일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조선말이라는 언어적인 공통점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재중 동포들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조선말을 잘해야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한족말도 잘해야 한다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재중 동포들이 가진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조선말의 보존과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젊은층으로 내려가면서 흔들리고 있다. 재중 동포를 위한 이중 언어 정책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조선족들의 거주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말을 사용한다는 언어적 동질성과 조선말 사용 능력은 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중 동포의 경우도 학력이 높을수록 조선말 구사력이 높는데 이러한 사실은 재중 동포를 위한 언어 정책 수립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어 4 기능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조선말 구사 능력은 높은 편이지만, 높은 수준의 조선말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교육을 통한 조선말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표 105, 106>, <그림 83, 84> 참조). 결국 재중 동포를 위한 이중 언어 정책은 교육에서 찾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정책을 집행할 대상이 중국 동포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질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문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2010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동북 3성에서 이주한 조선족들은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광둥(廣東),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내이명구(內蒙古), 산둥(山東) 등에는 각각 재중 동포 전체 인구의 1%(약 18,000여 명)에서부터 3.36%(61,00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허베이(河北),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등에는 6천여 명에서부터 1만여 명 정도씩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이중 언어 정책은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각지로 흩어져 이주한 조선족들은 대체로 조선족들끼리 모여 사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의 정체성은 조선말을 사용한다는 언어적 동질성과 조선말 사용 능력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집거지와 신흥 집거지, 제도권에 대한 정책과 언어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전통 집거지는 거주 인구의 감소와 기존의 조선족 학교가 줄어들어 가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신흥 집거지는 인구의 증가와 조선족 학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제도권 내에서

조선족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선말에 대해서 민족의 전통 문화를 익히고 조선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부모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1) 전통 집거지에서 조선족 학교가 없어져 가는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조선족 학교나 학교 운영이 부실한 조선족 학교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발전시켜 한족 학교로의 진학을 억제하는 것이다.

- (2) 신흥 집거지에 조선족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조선족 인구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족 학교의 설립 운영이 어려우면 한국 학교(국제 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조선족 학교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 (3) 한국 학교든 조선족 학교든 학교 설립이 어렵지만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 문화원이나 한글학교, 세종학당 등을 설립하여 조선말(한국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 (4) 대학의 한국어학과와 한국어학과 관련자에 대하여 지원책을 강구한다.
- ① 한국어학과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한족인가 조선족인가를 고려하여 한국말 교육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한족인가 조선족인가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한국어 교수자에게는 한국어 관련 논문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보급할 수 있다.
 - ④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⑤ 열악한 한국어 교재를 현지 사정에 맞는 수준 높은 한국어 교재로 개편 개발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 재중 조선말 교사 및 기타 과목 조선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말과 한국 문화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재중 동포들에게 한국말을 자주 노출시켜 주고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말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조선말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조선족 학교의 경우는 조선말을 가르치지 않는 조선족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한국말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6) 유능한 학생들에게 한국말 연수와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재중 동포들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중국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말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이것이 언어 선택과 언어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 (7)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에 한국말로 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지 학교 선생님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한국말을 학습할 만한 학습 보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최근에 출간된 소설이나 DVD 등 읽을 만한 자료나 볼만한 자료를 비치하여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하여 비속어나 욕설이 급속히 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8) 중국의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대학)과 연계한 공동 연구와 학술 대회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글짓기 대회, 한국어 토론회 등을 지역별로 개최하여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대회의 입상자들에게는 한국어 연수나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특전을 주는 것과 연계할 수 있다.
- (9)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기성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10) 대학의 한국어학과와 일선 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 특강이나 논술 강좌를 폭넓게 실시할 수 있다. 중국 대학의 경우 대학 입시에 논술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아울러 논술과 관련된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11) 법무부와 공조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재중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와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 교육을 통하여 조선말(한국말)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언어 규범과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자료 관련

<언어 규범 관련>

한중 수교 이후 수많은 재중 동포들이 한국을 다녀갔고 지금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말과 한국어 언어 규범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말 언어 규범을 한국말 언어 규범으로 개정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말 언어 규범에 익숙한 재중 동포들은 한족말[中國語] 외에도 한국말과 중국 조선

말 간의 이중 언어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겪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중국 조선말의 규범이 종래 북한말 또는 북한의 문화어 규범을 수용하여 그것이 공고하게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의 언어 규범으로 바꾸면 조선말의 전 체계와 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조선말은 중국 정부 당국의 통제 하에 놓여 있고 또 이른바 규범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족말[中國語]을 중국 조선말로 대체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한국말 전반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고 또 중국 조선말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말의 보급 및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말 보급 및 교육 자료 관련>

한국말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말과 조선말의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따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말-조선말-한국말의 기본적인 차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1세기 한민족 언어 정보화(한국어 규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개편하여 젊은이들에게 보급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재중 동포와 교류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재중 동포로서는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조선말이 한국말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조선족 학교나 대학의 한국어학과에 보급함으로써 한국말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한국인에게는 낯선 재중 동포들의 문화 즉, 사상이나 교양 내지는 한국과 다른 문화(함경도와 평안도의 전통문화), 세계관의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입력 자료>

- ① 엔벤(延邊) <조선말 대사전>
- ② <조선어 어휘 규범 편람>(1988)
- ③ 중국 및 국내에서 구축한 코퍼스(신문/잡지 등 문어 말뭉치 자료)
- ④ 중국에서 조사한 각종 방언 자료(일부는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구축 자료)

<프로그램 자료 구축 내용>

1) 표제어

- ① 중국 조선말
- ② 대응 한국말
- ③ 대응 북한말
- ④ 한족말[中國語]과의 관계

2) 해설

- ① 한국말과의 의미 차이(또는 북한말과의 의미 차이)를 설명한다.
- ② 비표준어인 경우는 의미 내향을 설명하고 분포 지역 표시 및 의미 차이를 설명한다.
- ③ 한족말[中國語]을 규범화한 경우는 한족말을 명시해 주고, 한족말을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경로나 사용 범위 등을 설명한다.
- ④ 지역 방언인 경우는 분포 지역과 용법 등을 설명한다.
- ⑤ 표기 규범 등의 차이는 남북한의 언어 규범과 중국의 조선말 규범집을 참고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숙(2003),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공시적 연구>, 《사회언어학》 제11권 2호, 사회언어학회.
- 곽충구(1993), <함경도 방언의 친족 명칭과 그 지리적 분화>, 《진단학보》 76, 진단학회.
- 곽충구(1997),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 곽충구(1998), <동북·서북 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곽충구(1998), <육진 방언의 어휘>,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곽충구(2000), <재외 동포의 언어 연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 곽충구(2004), <중국 조선어 연구의 몇 가지 과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V,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곽충구(2007), <동북 방언의 어휘 —함북 방언을 중심으로—>, 《방언학》 5, 한국방언학회.
- 국립국어원(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9, 국립민속박물관.
- 권태환 편저(2008),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태환·박광성(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7권 2호, 한국인구학회.
- 김기종(2009), <중국조선어의 규범화 작업은 중국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중국조선어문》 163,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기종(2011), <중국 조선어에서의 방언 어휘 규범화 작업>, 《중국조선어문》 6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동소·이은규·최희수(1994),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제1편 중국 조선어 역사 개황->, 《한국전통문화연구》 제9권,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동소·이은규·최희수(1994),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제2편 중국 조선어에 미친 중국어의 영향->, 《한국전통문화연구》 제9권,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동소·이은규·최희수(1994), <중국 조선족 언어 연구 -제3편 중국 조선어의 이질화 현상->, 《한국전통문화연구》 제9권,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두섭(2003), <연변 조선족 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 인구학》 제26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 김병호(2000), <중국 조선족 농촌 사회의 위기와 대책>,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제1호,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 김상원(1996),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말 계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조선 언어문학 논문집》,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김순희(2011), <중국 현대 조선어의 문장 종결법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인국(2011), <표준어로 인상된 방언 어휘와 TV보도에서의 사용>, 《중국조선어문》 6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정숙 외(2008), 《재외 한인 민족교육 모형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북코리아.
- 김춘자(2008), <함경남도 삼수 지역어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해영(2012), <연변 조선족 사회와 민족 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 《조선족 사회의 교육과 문화예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 할술회의 논문집.
- 남일성 외(1995), 《중국 조선어문 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리운규·심희섭·안운(1992), 《조선어 방언 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리운규 외(1996), 《조선말 규범집》(수정증보판), 연변인민출판사.
- 리운규(1989), <연변에서의 조선어 방언 분포>, 《조선학연구》 제1권, 연변대학출판사.
- 리운규(1991), <중국 조선어 방언 어휘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호,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 리운규·심희섭·안운(1992), 《조선어 방언 사전》, 민족출판사.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제5권 제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갑수(2007), <재외 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 언어학》 제33호, 이중 언어학회.
-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2002b),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제10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2003), <중국 연변 정암촌 방언의 상대 경어법>, 《이중 언어학》 제23호, 이중 언어학회.
- 박경래(2004), <연령과 언어 변이>, 《새국어생활》 제14권 제4호, 국립국어원.
- 박경래(2005), <충북 출신 중국 연변 조선족 언어 집단의 경어법 혼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 제13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경래(2005a), <사회 방언론>, 《방언학》 제1호 창간호, 한국방언학회.
- 박경래(2005b), <사회 방언 연구를 위한 조사 질문지>, 《방언학》 제2호, 한국방언학회.
- 박광성(2012), <2010년 중국 인구 센서서 - 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www.zoglo/blog/piaoguangxing.
- 박규찬 외(1991), 《중국 조선족 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박금해(2012), <조선족 중소학교에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 모색>, 《조선족 사회의 교육과 문화예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 회의 논문집.
- 박영순(1990), <이중 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 반룡해·황유복(2002), 《21세기에 들어선 중국 조선족》, 연변대학 출판사.
- 배종호(1990), <함경도 방언 계칭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중국조선어문》 4.
- 선덕오·조습·김순배(1990), 《조선어 방언조사 보고》, 연변인민출판사.
- 소신애(2000), <연변 훈춘 지역 조선어의 진행 중인 음운 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신애(2009),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 국어학총서 64, 태학사.
- 신승용(2006), <동북 삼성 조선족 현황과 언어 변화 양상 및 조선 어문 교육>, 《동아인문학》 10, 동아인문학회.
- 심희섭(1988), <어휘 의미론적 측면에서 본 중국 조선어 방언 어휘의 현 상태>, 《조선어연구》 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심희섭(1990), 《중국에서의 우리말 연구》, 언어문화연구소.
- 심희섭·리운규(1989), <연변에서의 조선어 방언 분포>, 《조선학연구》 2, 연변대학 출판사.

-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동북3성조선어문교재협의회소조판공실(1988), 《조선말 어휘 규범 편람》, 연변인민출판사.
- 염인호(2008),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140, 한국사연구회.
- 오성애(2010),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능력과 언어 태도>, 《한국학연구》 제 2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오성애(2011),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완한석(1997), <언어생활>, 《중국 요녕성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완한석 외 율김(2009), 《언어화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Muriel Saville-Troike(2003),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hird Edition].
- 완한석 외(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완한석(1996), <언어생활>, 《연변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유명기(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한국 체류 조선족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한국문화인류학회.
- 윤석만(2005), <경북 방언 음조 연구: 흑룡강성 오상시 장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2권 제1호.
- 윤인진(2003), <조선족의 도시 이주, 사회 적응, 도시 공동체>,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13호, 재외한인학회.
- 윤인진(2004), <중국 조선족의 인구 이동과 도시 공동체>, 《한국사회학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윤인진(2010), <재외 동포의 현황과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지》 제131호, 한국어교육학회.
- 이금화(2007),《평양 지역어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근·정인호(1999), <중국 조선어 방언 조사>,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운규(1988), <우리나라 조선어 방언토에 대하여>, 《조선 언어문학 학술토론회 논문집》, 민족출판사.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익섭(1997),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선택>,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이장송·신경식(2004), <중국 조선족의 Code-switching에 관한 연구>, 《담화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 인지언어학회.
- 이종학(2003), <조선족의 도시 이주와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상(2012), <동북의 조선족 학교와 조선족 문화관 -민족 문화 예술 교육 협력 제언-》 《조선족 사회의 교육과 문화예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논문집.
- 임형재(2006), <중국 조선족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expression)형 코드 전환>, 《한민족 문화연구》 19, 한민족문화학회.
- 장성일(2004), <압록강 북부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연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학석 외(2000), 《중국 조선족 언어문자 교육 사용 상황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 전학석(1981), <훈춘 지방말의 어음론적 특성>, 연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학석(1986), <중세 조선어의 방점과 연결 지방말의 높낮이의 비교>, 《조선어학론문집》, 심양: 료녕인민출판사.
- 전학석(1988), <중세 조선어의 방점과 연결, 개원 지방말의 고조장단 비교>, 《조선어 연구》 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전학석(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연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학석(2005),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의 실태 및 특성>,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 정의향(2003), <조선어 방언의 홀모음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연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향란(2011), 《연변 방언의 곡용과 활용》, 서울: 한국학술정보.
- 조항범(2009), 《국어 어원론》, 충북대학교 인문·사회연구총서 10, 도서출판 개신.
- 주봉호(2006),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1, 한국동북아학회.
-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1993), 《중국 조선어 실태 조사 보고》, 민족출판사, 요녕민족출판사.
-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집필소조(1984),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민족출판사·요녕민족출판사.
- 집필조(1993), 《중국 조선어 실태 조사 보고》, 민족출판사·요녕민족출판사.
- 채미화·김선화(2007), <재한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 여성의 자녀 조사 연구>, 《한국 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채옥자(2002), <중국 연변 지역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기수(2010), <재외 한국 학교 실태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호(1990), <중국에서의 국어 정책에 대한 연구-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 이중언어학회.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 과주: 태학사.
- 최윤갑 외(1992),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 최윤갑, 전학석(1994), 《중국 조선 한국 조선어 차이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한국사회언어학회 역(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Nancy Bonvillian(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Fourth Edition, Prentice Hall..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성우(2001),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월인, 2006]
- 한성우(2010), <중국 청도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정체성>, 《방언학》 14, 한국방언학회.
- 한진건(2004), 《륙진 방언 연구》, 도서출판 역락.
- 허명철 외 3인(2003), 《연변 조선족 교육의 실태 조사와 대안 연구》, 료녕민족출판사.
-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 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황보나영(1993), <현대 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연구》 112호, 국어연구회.
- 황보나영(1993), <현대 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학연구》 제3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Fasold, R. W.(1990),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 C.: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3rd ed. 1982).

Chambers, J. K. and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mperz, J. J.(1970), "Sociolinguistics and Communication in small Groups." *Sociolinguistics*, Penguin Book.

Ronald Wardhaugh(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second edition, Blackwell Publishers.

부 록 1.

재중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조선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중국 동포의 한국어(조선말)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평소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언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일시	2012년 _____ 월 _____ 일	조사자	_____
질문지 번호	_____		

1. 기본 정보

100.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세 _____ 년생(띠)

10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102.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_____ 성 _____ 시(현) 기타 _____

102-1. 부모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부 _____ 성(도) _____ 시(현) 기타 _____

모 _____ 성(도) _____ 시(현) 기타 _____

103. 현재 거주지(조사 지역)는 어디입니까? _____ 성 _____ 시(현)

104 현재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이사 안함 ② 1년 이내 ③ 2~5년 이내 ④ 6~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104-1. 현재 거주지로 이주했다면 어디에서 이주하셨습니다?

_____성 _____시(현)

105. 부모님과 배우자는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조부모님 민족 조부 _____족 / 조모 _____족

부모님 민족 부 _____족 / 모 _____족

배우자 민족 _____족

106. 조선에서 이주한 몇 세대입니까?

- ① 1세대 ② 1.5세대 ③ 2세대
④ 3세대 ⑤ 4세대 ⑥ 기타(_____)

107.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_____)

- ① 농림·어업·임업 ②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③ 단순 노무
④ 판매·서비스직 ⑤ 사무직 ⑥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및 기타(_____)

108.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와 그 학교의 종류에 표시를 해 주세요.

학 교	다닌 학교의 종류			
	다닌 학교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	기타
소 학 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초중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중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 학 교 <input type="checkbox"/>				
대 학 원 <input type="checkbox"/>				
안 다님 <input type="checkbox"/>				

109.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가셨고, 총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 번이면 합해서)

횟수 _____ 총 체류 기간 _____

110. 귀하는 조선족과 한족 중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

- ① 주로 조선족하고 교류한다.
- ② 조선족과 교류가 많지만 한족과도 가끔 교류한다.
- ③ 조선족과 한족의 교류 정도가 반반이다.
- ④ 한족과 교류가 많지만 조선족과도 가끔 교류한다.
- ⑤ 주로 한족하고 교류한다.

111. 하루에 한국 뎀스(TV)는 대략 몇 시간 정도 보십니까?

- ① 1시간 정도 ② 2시간 정도 ③ 3시간 정도 ④ 4시간 이상 ⑤ 안 본다

112. 시청하는 한국 뎀스(TV)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드라마 ② 연예·오락 ③ 뉴스 ④ 스포츠 ⑤ 시사·교양 ⑥ 기타(_____)

II. 조선말(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이해도

200. 중국 조선족은 조선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1. 중국 조선족도 한족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2. 귀하의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중국)조선말 ② 한국어말 ③ 북조선말 ④ 한족말 ⑤ 기타(_____)

203. 질문에 따라 순위를 <보기>와 같이 안에 써 주십시오.

<보기> 조선족들이 회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의 순서를 번호대로 쓰세요.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3"/>	<input type="text" value="2"/>
--	--------------------------------	--------------------------------	--------------------------------

질 문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1.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중에서 제일 잘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안 쓰는 말에는 표시하지 말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보통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안 쓰는 말에는 표시하지 말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가족끼리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안 쓰는 말에는 표시하지 말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중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조선말, 한국말, 한족말 중에서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자녀나 손자 손녀가 중국에서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조선족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로 쓰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4. 중국에서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 ②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 ③ 점점 한국말로 바뀔 것이다
- ④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205. 한국말을 조선말과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각각 하나씩 골라 주십시오.

205-1. 한국말은 조선말에 비해 어떤 느낌입니까?(긍정적 느낌)

- ① 세련되고 우아하다
- ② 상냥하고 애교 있다
- ③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 ④ 부드럽고 정감이 있다
- ⑤ 유식해 보인다
- ⑥ 씩씩하다

205-2. 한국말은 조선말에 비해 어떤 느낌입니까?(부정적 느낌)

- ① 시골티(촌티)가 난다 ② 간사해 보인다 ③ 가벼워 보인다
 ④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⑤ 무식해 보인다 ⑥ 힘이 없어 보인다.

206. 한국말(조선말이 아님)을 이해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206-1. 말만 듣고도 조선족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6-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6-3. 한국 뎀스(TV)에서 하는 영화나 보도를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7. 한국 말투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07-1. 한국 말투(말본새)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7-2. (위 207-1에서 ① 이나 ② 또는 ③ 으로 답한 사람만) 그렇다면 한국말(조선말이 아님)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쓰세요.

207-3.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써서 ② 한국 사투리를 많이 써서
 ③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서 ④ 유행어를 많이 써서
 ⑤ 기타(_____)

III. 한국어(조선말)의 네 기능 능력

300. 귀하는 조선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1. 귀하는 조선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간단한 인사말이나 누구나 말하는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야기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팬스(TV)에서 하는 보도(뉴스)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 토론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2. 귀하는 조선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편지나 설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3. 귀하는 조선말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거주국 국어 네 기능 능력

400. 귀하는 한쪽말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1. 귀하는 한쪽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인사말이나 정형화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광고나 일기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실용적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뎨스(TV)에서 하는 보도(뉴스)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2. 귀하는 한쪽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잡지나 신문 등 평이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3. 귀하는 한쪽말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 ①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하는 편이다 ⑤ 못 한다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대화 상대와 장면에 따른 언어 선택

500. 귀하는 다음의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한족말보다 더 많이 한다	조선말과 한족말을 반반씩 한다	조선말보다 한족말로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족말로 한다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의 사람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손아래 사람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1. 그러면 가족이 귀하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한족말보다 더 많이 한다	조선말과 한족말을 반반씩 한다	조선말보다 한족말로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족말로 한다
1.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이 나한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형제, 자매 등 동기나 같은 항렬의 사람이 나한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녀나 손자나 손녀 등 손아래 사람이 나한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조선족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한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조선말을 아는 조선족 동포와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대부분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한족말보다 더 많이 한다	조선말과 한족말을 반반씩 한다	조선말보다 한족말로 더 많이 한다	대부분 한족말로 한다
1. 조선족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독보조나 운동실에서 조선족과 놀면서 이야기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한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선족과 일상 이야기를 할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01-2.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① 조선말은 집에서 배우면 되니까
- ② 한족말을 잘해야 취직이나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 ③ 한족 학교가 조선족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서
- ④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
- ⑤ 주변에 조선족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 ⑥ 기타_____

602. 조선말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 두 개만 고르십시오.

- ① 가족들이 다 조선말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배웠다
- ② 조선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해서 배웠다
- ④ 취직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 배웠다
- ⑤ 한국(조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다
- ⑥ 조선말을 한족 학교나 대학에 와서 외국어로 배웠다
- ⑦ 장래에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 있어서 배웠다
- ⑧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해서 배웠다
- ⑨ 기타_____

603. 조선말을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 두 개만 고르십시오.

- ① 통학의 어려움
- ② 교육 시설의 부실
- ③ 학비의 부담
- ④ 교육 내용의 부실
- ⑤ 교사의 지도능력 부족
- ⑥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 ⑦ 힘든 점이 없었다
- ⑧ 기타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002. 조사 장소 ()

003. 사용 언어 (조선말, 한족말, 반반)

부 록 2.

조선어 변종 조사 질문지

(※ 질문은 가급적 조사 지역의 방언으로 해 주십시오.)

1. 부모 중에서 남자는 어떻게 부릅니까?

- * 아버지, 아부지, 재에바, 아배, 아바이, ..., 기타 지역 변종

1-1. 요즈음 어린아이들은 ‘부모 중에서 남자(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 * 아빠, 아빠, 아배, 아버지, 아부지, ... 기타 지역 변종 및 한국어의 영향

2. 부모 중에서 여자는 어떻게 부릅니까?

- * 어마, 업마, 어마니, 어머니, 오마니, 어마이, ...
- * 음운/음성 조사. [ㄴ]와 [ㄷ]의 음성 간극 또는 음운체계 상의 합류 여부. 미세한 음성차를 구별자질 기호를 써서 전사. 한국어의 영향. 기타 지역 변종.

2-1. 어머니가 색연필로 종이 위에 동물원에서 본 범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딸이 그걸 보고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머니! 지금 범을_____?

- * 그림까?/구림까?/그림둥?/구림둥? ...
- * 음운/음성 조사. [ㄴ]와 [ㄷ]의 음성 간극 또는 음운체계 상의 합류 여부. 미세한 음성차를 구별자질 기호를 써서 전사.
- * 종결어미 ‘-습니까’의 새 변종 조사.

3.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 * 큰-/쿨-/컬- 계통의 친족어, 한-/할- 계통의 친족어
- * 접두요소가 없는 친족어 아바니, 아바이 ...
- * 지역 변종 및 세대에 따른 변종을 조사. 표준어 사용 여부

3-1. 그러면 그 분이 물건을 사러 물건을 파는 곳에 갔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 아까 할아버지-가 장-에 가-셨어요.

- * 주격조사의 지역 변종: ∅/-레/-가/-이가/-께서/-이.
- * '장(場)'의 지역 변종: 당마당, 당마당, 장마당, 장마당, 당, 당, 장, 장, 시장 ...
- * 종결어미 '-습꾸마, -습꿔니, -습다...' 등 지역 및 세대변이 조사

3-2. 그 분과 함께 장에 가자고 청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 할아버지 장-에 가-시지요.

- * '-기시오'는 연변에서 출현한 새로운 변이형

4. 할아버지가 손녀를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려 하는데, 손녀가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내 [절로/내절로/저절로/스스로 ...] 가겠[습다/습꾸마/(갓)시오.
- * 저절로의 의미, 지역 변종, 표준어 사용 여부.
- * 종결어미의 세대 변종 확인

5. 아버지의 어머니는 어떻게 부르니까?

- * 큰-/클-/컬- 계통의 친족어
- * 한-/할- 계통의 친족어
- * 접두요소가 없는 친족어 cf. 아바니, 아바이 ...
- * 지역 변종 및 세대에 따른 변종을 조사. 표준어 사용 여부.

6. 아버지 동기 중에서 아버지의 순위 여자를 뭐라고 부르니까?

- * 함남북, 평안도 친족어 체계의 변화와 변종 확인.
- * 부모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가 부/모를 기준으로 다른지 여부 및 표준어 체계로 바뀌고 있는지의 여부.
- * 한국어의 영향으로 고모/이모 등 한자어 계통의 호칭어가 사용되는지 조사

7. 아버지의 동기 중에서 아버지의 손아래 여자(동생)은 뭐라고 부르니까?
- * 함남북, 평안도 친족어 체계의 변화와 변종 확인.
 - * 부모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어가 부/모를 기준으로 다른지 여부 및 표준어 체계로 바뀌고 있는지의 여부.
 - * 한국어의 영향으로 고모/이모 등 한자어 계통의 호칭어가 사용되는지 조사
8.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려면 어디에 갑니까?
- * 노래방(한국어), 연습장, 練歌廳(한어), 기타 ... 사용 여부
9. 병원에 가면, 병이나 쓸료 봉지에 들어 있는 약물을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긴 시간 동안 줄을 통해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혈관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댄디, 점적 주사, 링게르.(연어관계 확인)-를 썸다/맞는다/놓는다.
 - * 일본어, 북조선어, 한어의 간접 및 직접 차용 여부
10. 요즈음 농촌에서, 밭을 갈거나 짐을 싣고 갈 때 어떤 농기계를 씁니까?
- * 손잡이또락또르/또락또르/스푸트라지(手扶拖拉机), 트라지, 토라지, 소푸투라지 ...
11. 나락/벼는 어디다 심습니까?
- * 조선어 지역 변종, 한어 간접 차용, 음운변화, 어휘 의미(‘밭’의 의미) 등.
 - * 논, 벨밭, 논밭, 밭, 수던, 수전, 수던밭, 수던, 수전, 슈던, 슈던밭, 수전밭 ...
12. 한국의 댄스(텔레비전 방송)을 보려면 집에 동그렇게 생긴 어떤 물건을 설치해야 됩니까?
- * 위성 안테나, 안테나, 가매, 텐센, 첸선(天線), 새 변종 확인.
13. 전기를 이용해서 밥을 하는 물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전기밥솥(한국어), 전기(전기, 던기, 던기)밥가매, ‘ㅈ’ 발음 정밀전사.

14. 찬이나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관해 두는 기계는?

- * 냉장고, 냉동고, 빙상(冰箱), ...

15. 도시에 나가면 큰 음식점이나 빈관(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 * 총경리(總經理), 경리, 중짱리, 로반(老板), 사장(社長), ...
- * 중국 사회 변화에 따른 조선어 변종의 출현. 외부어의 영향 여부 의미.

16. 물을 끓이거나 밥을 지을 때 풍로 같은 곳에 불을 붙이면 푸르스름한 불꽃이 나는 기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메치(煤汽), 까쓰, 가스, 가스 ...

17. 공인(工人)이 단위(單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신봉(薪封), 공자(工資), 월급(月給), 봉급(俸給), ...

18.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고 짐을 겨루는 것을 무엇 한다고 합니까?

- * 빚다, 비살다, 비셀다, ...
- * 가위바위보도 함께 조사-대체로 일본어를 씀.

19. 사람의 머리같이 생긴 둥글고 큰 남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 * 가두배추(북조선의 문화어), 양배추, 다두배채, 가두배채, 洋白菜(한어), ...

20. 손에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댜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씨우지(手機), 손전화, 휴대 전화, ...

21. 일꾼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 그 사람은 일꾼)을 쓰지 않고 _____ 농사를 짓는다.

* 재빌르, 자비르, 자비로, 자기절로, 자기 스스로, ...

22. ‘밥을 먹겠다’, ‘밥을 먹었다’를 여기에서는 보통 때어떻게 말합니까?

※ 밥을 먹겠다: ‘-겠-’ _____

※ 밥을 먹었다: ‘-었-’ _____

* 선어말어미 -갓-, -겠-, -개시-, -앗/엇-, -아시/-어시의 쓰임 조사. -선어말어미의 형태 확인.
지역 변종 및 표준어 사용 여부

23. 장형부정의 형태 “밥을 먹지 않습니다”의 쓰임을 확인합니다.

* 밥우 먹대니우, 먹대니우, 먹재이오, 먹재이 ...

* 세대차, 지역차, 표준어 사용 여부 확인

24. 다음 문장에서 부정 부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24-1. 이곳[곧]으 떠 못 나오.(cf. 이곳을 못 떠나요.)

* 못 떠나오, 떠 못 나오, ...

24-2. 먹어 아이 보았소.(cf. 안 먹어 보았소.)

* 먹어 아니 보았소, 안 먹어 보았소, ...

25. 대격중출문의 쓰임을 조사합니다.

※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 아르 우티르 입힌다, ...

26. 단어의 의미 조사. (아래 단어의 뜻을 직접 질문법으로 조사하되 용례를 아울러 기록한다.)

①균중 :

②장악 :

③애인 :

27. 한국말이라 생각되는 단어를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보시오.

28. 최근 조선족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져 쓰이는 말을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또는
요즈음 조선족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조선말을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응답형 중에는
28의 한국어도 있을 수 있음.)

<Abstract>

The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the Korean Chinese's Languag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anguage of the Korean residents in China, due to their social variab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districts. This study also aims to investigate the variety of Korean language formed by the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o construct the database for the variety by collecting the linguistic data.

The investigation was executed concerning the generations and genders in Jilin(吉林省), Liaoning(遼寧省), Heilungchiang(黑龍江省) and Qingdao(青島) region. The details that were investigated is the attitude of Korean language (native language), linguistic ability to Korean and Chinese language, the attitude on languages, the aspects of language use, the language use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the language use by the circumstances. These details were examined considering the region, the families, the age(the generation), the academic ability, gender, and other variables.

The most Korean Chinese have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Korean. However, they also think that they should have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Chinese as well. In particular, the younger generation strongly felt the necessity of competence in Chinese. The vast majority of the Korean Chinese take a pessimistic view on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in China. They expect their future offsprings to use Chinese.

The Korean Chinese showed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four skills—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of Korean language. However, the ability of the language use tended to decrease as the level of each skill increased. Also, the higher academic ability, the higher ability of the language use was shown. In the higher level of the language skills, the academic ability played a key role in distinguishing the ability of the language use. Such tendency was also shown

in the ability of the Chinese language use among the Korean Chinese.

The greater percentage of the old generation used Korean as their primary language in their daily lives while the rising generation evenly used Korean and Chinese as their primary language. However, the most rising generation used Korean as their primary language within the family.

The Korean Chinese mainly used Korean to the older generations and sibling but they used Chinese frequently to the younger generations. To the families from the other ethnic groups, the Korean Chinese mostly used Chinese.

Among the Korean Chinese only, Korean is mainly used. However, if there is any Chinese among them, the conversation is carried out in Chinese.

There exist diverse varieties in the community of the Korean residents in China: a variety originated from the dialect of the region in Korea resided by the earlier generation, a variety borrowed from North Korean language, and a variety formed by directly borrowed Chinese, indirectly borrowed Chinese, and translated from Chinese. The varieties are largely different due to the residence types (mixed residence or assembled residence), the region and the generations. In the mixed residence, the direct borrowing of Chinese was the most frequent and the new words were coined by borrowings of Chinese (dialects, informal terms) in most cases. In terms of vocabulary, phonology, grammar, and semantics, the diverse aspects of divisions occurred such as interference of Chinese, fusion of the original dialects, interference of North Korean, interference of South Korean, a variety formed by itself, etc.

Keywords : Korean residents, residential districts, variety of Korean language, linguistic ability, on languages, language use, generation, academic ability, gender, diverse varieties

Project Director : Park, Kyeongrae

(Se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rpark123@hanmail.net

579 Semyung-no Sinwoel-dong Jecheon-si Chungcheongbuk-do [390-711]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2년 11월 19일
발행일 2012년 11월 19일
인 쇄 (주)계문사(전화: 02-725-5216)
